

2017 통일의식조사

정근식·김 선·문인철·송영훈·정동준·조동준·천자현·황정미·김희정·이정옥·임수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36

2017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8. 3. 2
발 행 2018. 3. 2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 자 정근식·김 선·문인철·송영훈·정동준·조동준
천자현·황정미·김희정·이정옥·임수진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7) 통일의식조사 /

저자: 정근식, 김 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36)

ISBN 979-11-961299-4-1 93340 : 비매품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800697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36

2017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18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02
제1부 기초분석		1. 서론	102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2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105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34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108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40	4.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116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46	5. 소결	120
4. 통일과 민주주의	51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24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55	1. 서론	124
6. 소결	59	2. 핏줄보다는 이념에 기반을 둔 친밀감	126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62	3. 고착되는 북방 위협감	138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67	4.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49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74	5.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한국인의 마음	157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79	6. 소결	161
4. 북한의 위협의식	85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92		
6. 소결	97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통일담론 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166
1. 서론	166
2. 이론적 배경: 담론별 특징과 통일교육	168
3. 연구 방법	174
4. 연구 결과	177
5. 소결	188
제6장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194
1. 서론	194
2. 이론적 논의	197
3. 가설	202
4. 연구 방법	208
5. 분석 및 결과	213
6. 소결	226

7장 ‘위협인식(perceived threat)’과 탈북자·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32
--	-----

1. 서론	232
2. 분석 방법	237
3. 기술 분석	241
4. 분석 결과	251
5. 소결	259

결장	264
----	-----

부록	272
----	-----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이유	37	〈표 1-4-7〉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9
〈표 1-1-2〉	통일의 추진 방식	40	〈표 1-4-8〉	성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141
〈표 1-1-3〉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교차분석	43	〈표 1-4-9〉	연령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142
〈표 1-1-4〉	통일의 가능 시기	44	〈표 1-4-10〉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44
〈표 1-1-5〉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52	〈표 1-4-11〉	주요 지지정당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145
〈표 1-1-6〉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54	〈표 1-4-12〉	미국의 국가 이미지	150
〈표 1-1-7〉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55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예상되는 태도	151
〈표 1-1-8〉	통일정책의 시급성	57	〈표 1-4-14〉	중국의 국가 이미지	152
〈표 1-2-1〉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	95	〈표 1-4-15〉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예상되는 태도	152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96	〈표 1-4-16〉	일본의 국가 이미지	154
〈표 1-4-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127	〈표 1-4-17〉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예상되는 태도	155
〈표 1-4-2〉	북한과 미국 간 가상 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129	〈표 1-4-18〉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156
〈표 1-4-3〉	성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0	〈표 1-4-19〉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예상되는 태도	157
〈표 1-4-4〉	연령대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1	〈표 1-4-2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58
〈표 1-4-5〉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3	〈표 1-4-21〉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159
〈표 1-4-6〉	주요 지지정당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4	〈표 1-4-22〉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160

표 목차

〈표 1-4-23〉 정치 성향별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160	〈표 2-7-1〉 위협인식: 측정 문항	238
〈표 2-5-1〉 통일당위성 담론집단 설문문항	175	〈표 2-7-2〉 다중회귀분석 모델	240
〈표 2-5-2〉 담론집단별 연령대/교육수준/소득수준 분포	179	〈표 2-7-3〉 회귀분석 1: 탈북자 지원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2
〈표 2-5-3〉 연령대/교육수준/소득수준의 담론집단별 차이	181	〈표 2-7-4〉 회귀분석 2: 대북지원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6
〈표 2-5-4〉 성별에 따른 담론집단 분포	182		
〈표 2-5-5〉 담론집단별 광역권, 사회계층, 생활수준개선도 분포	183		
〈표 2-5-6〉 담론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의 차이	184		
〈표 2-5-7〉 담론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의 차이	185		
〈표 2-5-8〉 담론 집단 간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186		
〈표 2-5-9〉 담론집단 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188		
〈표 2-6-1〉 경제평가 정도에 따른 종속변수별 평균치	216		
〈표 2-6-2〉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218		
〈표 2-6-3〉 경제평가와 통일 기대이익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220		
〈표 2-6-4〉 경제평가와 정당지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222		
〈표 2-6-5〉 경제평가와 민족정체성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224		
〈표 2-6-6〉 경제평가와 정서적 유대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225		

그림 목차

〈그림 1-0-1〉 통일외식 결정요인에 지난 10년간의 분석틀	25	〈그림 1-2-12〉 북한의 핵무기 포기여부(‘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85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34	〈그림 1-2-13〉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	86
〈그림 1-1-2〉 연령별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42	〈그림 1-2-14〉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8
〈그림 1-1-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47	〈그림 1-2-15〉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90
〈그림 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50	〈그림 1-2-16〉 연령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91
〈그림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	68	〈그림 1-2-17〉 대북문제의 시급성	92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변화 추이	69	〈그림 1-2-18〉 북한사회 인지도	93
〈그림 1-2-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종교별 변화 추이	70	〈그림 1-2-19〉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	95
〈그림 1-2-4〉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72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대한 만족·불만족 응답 비율	106
〈그림 1-2-5〉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73	〈그림 1-3-2〉 대북지원의 북한 주민 생활기여도에 대한 인식	106
〈그림 1-2-6〉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75	〈그림 1-3-3〉 대북정책별 북한 개혁개방 효용성	108
〈그림 1-2-7〉 북한정권 불안전 예측 변화 추이	79	〈그림 1-3-4〉 대북사안별 시급성	109
〈그림 1-2-8〉 북한 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80	〈그림 1-3-5〉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	110
〈그림 1-2-9〉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81	〈그림 1-3-6〉 남북합의 사항 계승 동의 여부	111
〈그림 1-2-10〉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82	〈그림 1-3-7〉 개성공단 유지/재개에 대한 견해	112
〈그림 1-2-11〉 연령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83	〈그림 1-3-8〉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113

그림 목차

〈그림 1-3-9〉 북핵 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견해	114	〈그림 2-7-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07-2017)	243
〈그림 1-3-10〉 대북 빠라 살포 중단에 대한 견해	115	〈그림 2-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2007-2017)	243
〈그림 1-3-11〉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116	〈그림 2-7-4〉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007-2017)	245
〈그림 1-3-12〉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견해	117	〈그림 2-7-5〉 안보위협 인식의 변화 (2007-2017)	247
〈그림 1-3-13〉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118	〈그림 2-7-6〉 경제위협 인식의 변화 (2007-2017)	249
〈그림 1-3-14〉 연령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119	〈그림 2-7-7〉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변화 (2007-2017)	250
〈그림 1-3-15〉 교육수준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120		
〈그림 1-4-1〉 정치 성향별 대미 친밀감	136		
〈그림 1-4-2〉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	136		
〈그림 1-4-3〉 정치 성향별 대중 친밀감	137		
〈그림 1-4-4〉 정치 성향별 대미 위협감	146		
〈그림 1-4-5〉 정치 성향별 대북 위협감	148		
〈그림 1-4-6〉 정치 성향별 대중 위협감	148		
〈그림 2-5-1〉 통일담론집단 분포	177		
〈그림 2-6-1〉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2007-2017)	214		
〈그림 2-7-1〉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 (2007-2017)	242		



서 장



서장

2017년 3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뒤이은 조기 대선을 통해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그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란 전망을 낳았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7월 6일 ‘新베를린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으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는 국정 기조 원칙을 재차 표명하였다. 북한 역시 2017년 초 신년사에서 7.4 공동성명 45주년, 10.4 선언 10주년 등을 언급,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기에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해였다.

하지만 2017년 한 해는 그러한 기대를 배반하였다. 정권교체를 통한 혼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 오랜 교류의 단절로 생긴 남북 간의 불신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악화 등으로 남북 관계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신년사(1월1일), 군창건일(4월24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10월7일), 당창건일(10월10일) 등을 통해 ‘핵 보유’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며, 올해 들어 한 차례 핵실험(9월3일)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총 15회 20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11월 29일, 화성-15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급 발사 후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북한의 연이은 여러 도발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정부의 ‘북핵 불용’의 기본적 방침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지난 6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우방과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듯 7월 29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를 임시 배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한 때 최고 수위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남북 간의 이러한 입장차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를 신중하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5월

22일) 민간차원의 교류는 특정 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남북경기 개최(4월6일, 강릉),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경기 개최(4월7일, 평양),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한(6월23일-7월1일) 등 스포츠 교류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지난 11월에는 북한산 생수가 7년 만에 국내 반입이 허용되어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만들어진 5.24 대북제재 조치가 완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지 5.24 조치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북핵 위협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강력해졌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내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핵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2월23일 최근 북한의 '화성 15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올해 들어 네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제적으로 대북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신규 결의안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최고 수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자국안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트랙을 쫓는 것으로 볼 수 있다.金正은의 이북형인 김정남의 암살(2월13일), 북한에 억류되었던 자국민 워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사망(6월20일) 등으로 미국은 북한을 2008년 이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고,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

사협력 강화 등의 안보적 조치를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였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임시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2월13일 중국의 난징대학살 추모식을 기점으로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의 적절한 처리와 동시에 1)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 2) 한반도 비핵화, 3)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4)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트럼프 시대에도 굳건한 미일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과거사 처리 문제로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불신과 긴장이 존재하지만, 북핵 위기 해결이라는 동북아 지역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최근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미국이 애초 발의한 원유 전면 차단, 북한 정부 및金正은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이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에 맞서 제한적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내년 자국의 대선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2017년 안팎으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진행된 한반도에서 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1,200여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해 오고 있다. 설문문항은 국민들의 의식이 보이는 시계열적 흐름을 보기 위해 대부분 동일한 문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론적 심화와 시의적절한 함의 제공을 위해 해마다 필요한 문항들을 추가 또는 보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0년간의 의식조사 사업을 돌아보고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구축은 통일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적 제안에 필요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통일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는 다른 여러 행동 및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형성하였고, 이 생각들은 또 다른 행동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통일문제 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통일 및 대북 정책들이 지속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자료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 내용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분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부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보는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등의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2016년까지 각각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던 문항은 개별 정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한지를 묻는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전단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2017년도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책임을 묻는 문항이 신설되었다.

조사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이다. 이 부문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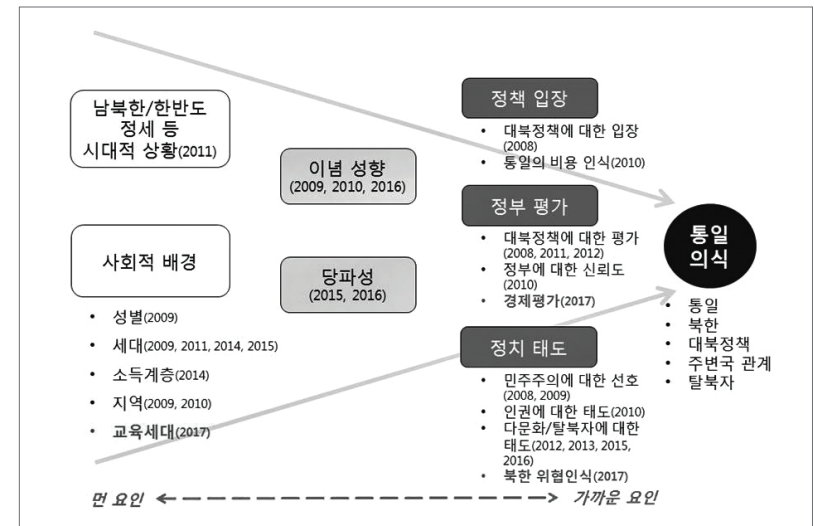
한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및 포용성에 대한 문항들도 이전 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포함하였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수 역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에는 탈북자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민자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국민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만의 노력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선호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다섯 부문에 대한 조사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라면, 이러한 통일의식의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통일의식조사』는 지난 10년간 여러 주제에 걸쳐 다양하게 국민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뿌리를 알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의식의 흐름을 예측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래 <그림 1-0-1>은 지난 10년간 『통일의식조사』에서 연구한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0-1> 통일의식 결정요인에 지난 10년간의 분석틀



본 그림은 투표행동의 고전적 이론인 ‘인과성 깔때기(Funnel of causality)’¹⁾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가장 우측에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통일의식이 있고 좌측에는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정렬되어 있다. 좌측으로 갈수록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먼 요인’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보다 직접적인 영

1]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Wiley, New York, 1960), Ch. 2.

향을 미치는 ‘가까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사회적 배경, 이념성향과 당파성,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부평가, 그리고 일련의 정치태도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 중 올해에는 통일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지만 실증적으로 분석되어 오지 않은 변수들, 교육세대, 경제평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자료 품질은 연구목적 설정, 조사방법 선택, 조사표 작성, 조사원 교육, 응답과정, 응답자료에 대한 처리(data processing), 모집단 설정, 표집틀 구축, 표본추출(표집), 가중치 적용, 자료분석 전 검토 등에 이르는 자료수집 과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를 거쳤다. 품질진단에서 지적된 바, 면밀한 문항 분석에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문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2017년 통일의식조사』는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26일 동안 시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4세 이하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의식 형성에서 고령층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효 표본의 수는 1,200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2017년 6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 낮은 제주도와 강원도는 충분한 통계분석이 가능할 만큼 우선 할당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할당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시행 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한 후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 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품질진단 자료처리 중 조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파라데이터(para data), 즉, 면접원 기록지의 문항이나 관련 문항 예비조사에 대한 데이터는 추후 보강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

(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질문항목 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와 코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2016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열린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환기시켰다. 반면, 촛불집회와 탄핵,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는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도 2016년 말부터 이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체되기도 하였다.

통일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도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북한과 미국이 핵개발과 관련하여 극단적 언사를 내놓는 등 국제정치의 환경은 녹록치가 않았다. 국민들은 ‘통일대박론’과 일방적 ‘통일준비’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러한 부정적 환경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대북·통일정책은 세심한 국가적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단순한 언어적 수사가 아닌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식조사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해마다 변화된 환경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성은 무엇인가에 주목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거듭되는 핵도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도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통일의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과 구현해야 할 가치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다 더 실용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 글에서 기술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과 다를 수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 국사회가 경험한 정치적 격변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조사의 주요 관심이었다. 이 글은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 시기의 기대와 추진 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집단적, 개인적 기대감,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 한국의 정치사회체제 등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경향성을 보여 왔는지 기술적 통계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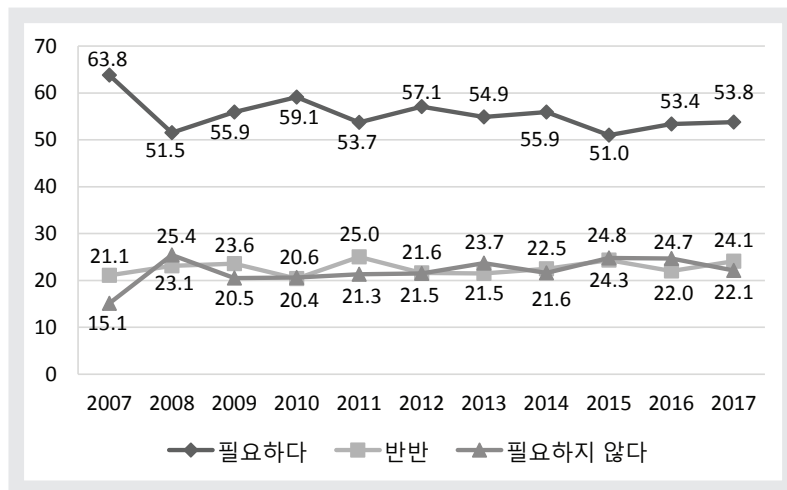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6년과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은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37.9%였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항상 절반을 넘었지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이 20%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통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음에도 긍정적 인식의 개선이 만족할만큼 이뤄졌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상반기에 국내의 민주주의의 복원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면서 통일정책은 부각될 수 없었던 상황도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령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줄어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의 차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4년에는 61.9%, 2015년 54.9%, 2016년 61.4%였, 2017년에는 61.2%이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14년에는 49.6%, 2015년에는 46.9%, 2016년에는 45.0%, 2017년에는 47.3%이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남성의 응답률은 여성의 응답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가 큰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역별 응답의 차이는 해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5%였으나 2016년에는 54.5%로 10%p의 차이가 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강원도와 충청권의 응답률이, 2015년 조사에서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표본의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강원도(74.2%)와 제주(7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61.4%와 61.0%로 다른 지역과 약 1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응답의 특징은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2016년에 이어 계속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와 3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4%와 39.6%였는데, 50대와 60대는 62.0%와 67.0%였다. 40대는 57.8%로 두 그룹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많은 응답자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세대 간 분화가 고착화되는 것은 다만 통일문제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육수준별 응답은 2016년에 이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가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2016년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연령별 응답의 특징과 교육수준별 응답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경제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통일의 필요성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57.1%와 58.8%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 두 진영이 생각하는 통일이 어떤 과정과 산물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통일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자신을 중도적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들의 49.4%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2) 통일의 이유

남북한이 통일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통일을 당위와 관련된 민족적 과제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들은 통일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하거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북한 간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일의 현실적 이유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1-1-1〉 통일의 이유

(단위: %)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 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N)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 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N)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2017	40.3	10.5	32.5	4.0	12.5	0.2	1,200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2016년보다 1.7%p 증가하여 다시 40%를 넘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은 1.3%p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당위적인 응답을 한 국민들이 2016년 50.4%, 2017년 5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7%p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당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현실적인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통일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13.3%p 증가하였다.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2%p 증가하였으며,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2%p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바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에 대응하여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의 의식을 ‘현실주의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통일 담론과 달리 현재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전쟁 위협의 해소에서 통일의 이유를 찾고 있다고 보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2016년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응답자들 중에 전쟁 위협의 해소를 통일해야 한다는 이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이들보다 많았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민족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통일의 당위성을 포기하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난 모든 조사의 결과들은 국민들이 통일을 민족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 사건으로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도 남북한의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고, 통일은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통일의 과정이라는 접근도 가능해질 것이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의 과정과 추진 방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통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상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2007년 70.6%, 2017년 54.7%로 15.9%p 감소하였지만, 해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6	64.8	17.1	8.5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7.0	16.1	6.9	1,200
2011	9.7	67.0	15.2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199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8	57.5	21.8	8.9	1,200
2016	13.1	54.1	23.2	9.6	1,201
2017	12.1	54.7	24.7	8.4	1,200

응답자 중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10년 동안 약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에 통일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 그 어떠한 가치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통일이 다른 가치들의 희생을 대가로 성취해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이대로가 좋다’고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007년 11.8%에서 2016년 23.2%, 2017년 24.7%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7.0%에서 9.6% 사이에서 해마다 다르지만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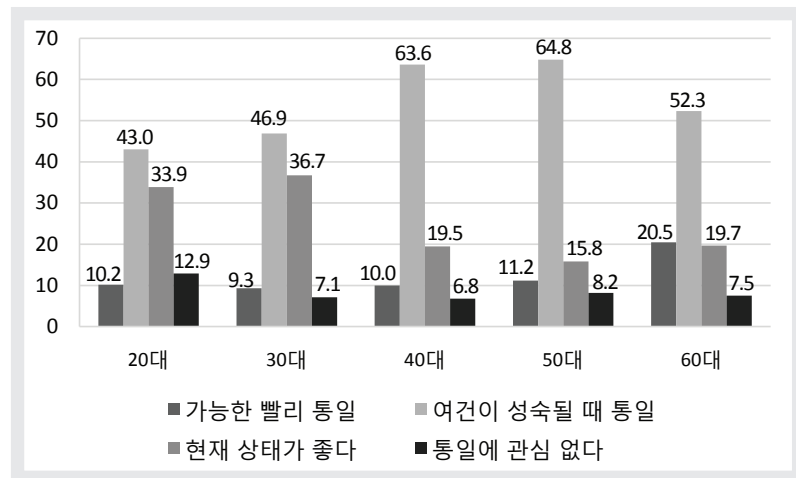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아직까지 절반을 넘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운영, 자유롭고 안전한 왕래가 보장되는 수준의 통일을 이루는 실천적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이 여러 층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0대의 43.0%, 30대의 46.9%, 40대의 63.6%, 60대의 52.3%가 점진적 통일의 과정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0대에서는 33.9%였으며, 30대는 36.7%, 40대, 50대와 60대는

각각 19.5%, 15.8%, 19.7%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일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그림 1-1-2〉 연령별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단위: %)



통일의 추진 방식 유형별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남성 응답자들 중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하는 것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을 하자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 응답자들 중에는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그들의 인식과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1-1-3〉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교차분석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12.0	37.8	3.2	1.1
반반/그저그렇다	0.7	12.8	8.0	3.0
통일이 필요없다	0.1	3.9	12.9	4.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문항 간의 상관성이 높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공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혼란, 막연한 두려움을 감안하면 자신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경우 통일의 문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사회의 일부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고 통일도 머지않은 미래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담론이 관심을 받았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의 범위와 속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

서 나서서 통일준비의 급박함이 강조되었어도 국민들은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0%를 넘지 못하였다.

〈표1-1-4〉 통일의 가능 시기

(단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합계 (N)
2007	3.7	23.5	30.9	14.7	13.9	13.4	1,198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1,202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2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199
2016	3.5	14.0	25.1	15.2	17.9	24.4	1,201
2017	2.3	13.7	23.2	16.1	20.1	24.7	1,199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007년 23.5%에서 2017년에는 13.7%로 지난 10년 동안 9.8%p 감소하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007년 13.4%에서 2017년 24.7%로 지난 10년 동안 11.3%p 증가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내’와 ‘30년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앞선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는 남성 응답률이 여성 응답률보다 3% 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30년 이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라지고, ‘30년 이상’ 혹은 ‘불가능하다’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들보다 많았다.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내’라는 응답자들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통일을 먼 미래에 있을직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통일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극단적으로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20대 응답자는 1.3%였고, 50대와 60대 응답자는 3.4%와 4.7%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0대의 29.2%, 50대와 60대의 22.5%와 24.8%였다. 2016년 조사결과와 달리 50대와 60대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9.2%와 18.2%에서 각각 3%p, 6.6%p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통일된 한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미래상이 있더라도 현재 한국의 모습과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하루아침에 현재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과 통일된 한국을 연결하는 인식의 통로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통로는 실천적 통일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정부의 교체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도 통일의 추진 방식과 시기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의 세부 추진 전략이 바뀔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정책의 기초가 너무 단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국내적으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초를 하반기에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내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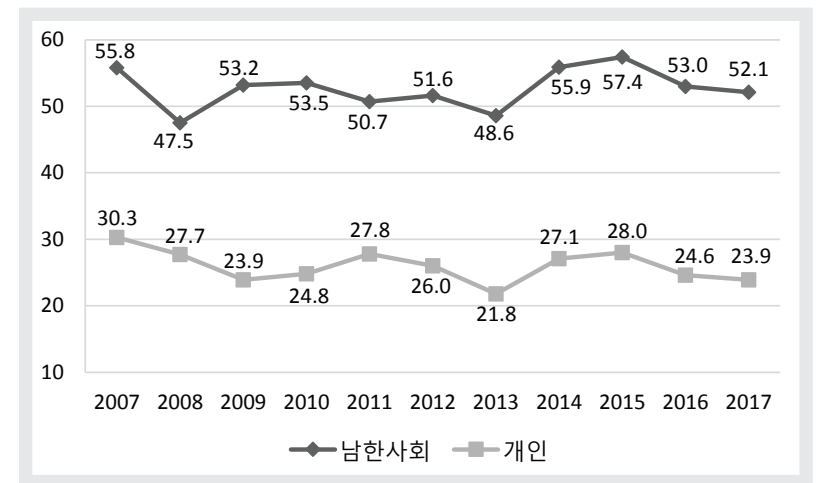
통일은 최소 70년 이상 분단된 채 경쟁을 해왔던 두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통일이 가져올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통일에 따른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하고 이익을 크게 평가한다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해 많은 전문적 진단이 있었지만, 그러한 논리들을 국민들은 충분히 소화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은 통일이 사회전체에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

대감으로 통일의 편익을 이해할 것이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가 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개인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일의 이익이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에서 불분명하지만, 통일에 따른 비용은 세금 인상 등 개인이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 비용과 이익의 구체성 때문에 개인적인 기대감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림 1-1-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단위: %)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관되게 공동체에 대한 편익을 개인에 대한 편익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통

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50%를 넘었다. 반면, '통일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 30.3%였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9%를 기록하였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여 두 범주 모두의 긍정적인 응답이 줄어들었다.

남한사회에 대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평균 26.7%p이다. 평균적으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두 범주 간의 격차는 각각 28.4와 28.2%이며, 2012년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남성의 응답은 2016년 56.8%에서 다소 감소한 52.1%였으며,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 27.4%보다 감소한 23.9%이다. 여성은 각각 2016년 49.1%와 21.8%에서 47.1%와 20.0%로 줄어들었다.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도 반영되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43.2%와 47.7%를 기록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52.2%와 52.3%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가 18.1%, 60대가 23.3%를 기록했지만, 30대, 40대, 50대의 응답은 21.8%, 31.5%, 23.7%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두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약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은 43.3%가 통일이 한국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 반면, 고졸, 대재 이상은 51.6%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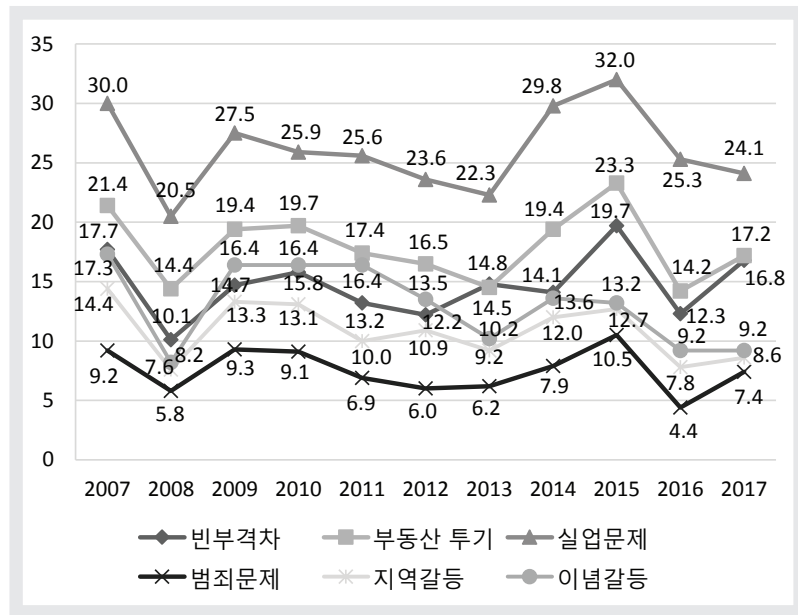
54.7%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중졸 이하 응답자와 고졸, 대재 이상 학력의 응답자들은 각각 23.7%, 22.1%, 25.7%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통일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이 더욱 구체적일수록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일정책이 지나치게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문화의 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들도 준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집합적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대를 가지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의식조사는 통일이 남한사회 혹은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질문이 가진 집합성과 추상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다. 주요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으로 여섯 가지이다.

〈그림 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단위: %)



〈그림 1-1-4〉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통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들이 2015년 이후부터 많지 않았다. 통일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2017년에는 24.1%만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실업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통일이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은 한국이 북방경제라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 데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면, 이러한 예측과 기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예측과 기대는 결국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도 현재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통일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통일은 다가올 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오늘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통일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지금의 한국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가는 국가이다.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국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민족적, 국제적 사건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이 남북관계, 한반도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4. 통일과 민주주의

2017년 통일인식조사는 단순히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정치문화에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모순적 현상들은 통일의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는

것과 남북한의 민주적 발전 혹은 민주화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6.5%,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46.3%였다.

〈표 1-1-5〉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단위: %)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2007	19.9	31.3	48.7
2008	20.0	23.5	56.6
2009	19.3	31.2	49.5
2010	18.1	29.8	51.9
2011	19.7	25.1	55.3
2012	23.6	24.8	51.7
2013	23.6	26.1	50.3
2014	27.0	23.2	49.8
2015	23.0	29.1	48.0
2016	23.8	26.1	50.1
2017	26.5	27.2	46.3

조사 기간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0% 정도에 머물렀다.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과거에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었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의 틀을 벗어나 두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통일과 민주주의

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통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다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들이 희생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통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던 국민들과 통일의 문제보다 민주주의 실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세대들에게서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상관성을 높지 않다. 이는 통일정책이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관련된 담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의 선도 효과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016년 27.8%에서 2017년 32.5%로, 통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2016년 28.7%에서 2017년 36.3%로 증가하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국민들이 북한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통일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12.5% 감소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1-1-6〉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단위: %)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2009	28.7	27.8	43.6
2010	34.3	33.5	32.2
2011	37.6	29.4	33.0
2012	38.7	32.0	29.3
2013	34.7	33.0	32.3
2014	39.9	27.0	33.1
2015	38.2	33.3	28.5
2016	28.7	27.8	43.6
2017	36.3	32.5	31.1

20대 응답자들은 북한의 사회변화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20대 응답자들 중 36.8%가 이처럼 북한의 민주화를 통일의 조건일 수 있다고 보지만 60대 이상의 응답자들 중에는 30.0%만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였다. 반면, 북한의 자체적 변화가능성에 대한 불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크다. 이와 관련 20대는 31.6%, 60대는 39.6%가 통일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체제전환과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한국의 체제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공동체통일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다층의 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70년 넘게 단절된 두 사회가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북한 체제 중심의 통일, 제3의 절충형 통일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7〉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남한의 현체제 유지	남북한체제의 절충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2009	43.6	39.1	13.3	4.0
2010	44.4	38.8	12.6	4.2
2011	48.9	35.6	12.3	3.2
2012	44.2	37.7	15.1	3.0
2013	43.6	35.4	16.9	4.1
2014	44.9	37.9	13.2	4.1
2015	48.1	33.5	13.6	4.8
2016	47.3	34.5	14.4	4.0
2017	45.4	37.7	13.5	3.4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5.4%로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약 43%-48% 정도로 응답 비율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응답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것으로 37.7%였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응답도 약 35% 내외에서 변화가 없었다.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두 체제가 절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통일 이후에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일의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그 결과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체제도 지금 한국의 모습과는 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통일정책의 시급성

국제무대에서 이해당사자들은 항상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다. 남북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남북관계도 일반적인 국제정치와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한도 갈등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무력사용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조사를 하였다.

〈표 1-1-8〉 통일정책의 시급성

(단위: %)

현안	매우 시급	다소 시급	시급함	별로 시급 하지 않음	전혀 시급 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북한 비핵화	54.5	31.8	86.3	11.7	2.0	13.7
군사적 긴장해소	35.4	47.9	83.3	14.4	2.3	16.7
평화협정체결	23.9	54.0	77.9	20.3	1.8	22.1
북한인권개선	30.3	44.8	75.1	21.6	3.3	24.9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5.4	52.8	68.2	28.4	3.4	31.8
이산가족 및 국군포 로 문제 해결	15.8	50.5	66.3	31.5	2.1	33.6
북한의 개방과 개혁	19.3	45.1	64.4	20.8	2.5	23.3
남북한 경제협력	12.1	50.5	62.6	33.8	3.6	37.4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0.2	44.2	54.4	41.5	4.1	45.6
인도적 대북지원	7.8	35.4	43.2	47.5	9.3	56.8
미군철수	2.9	17.1	20.0	54.0	26.1	80.1

남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협정체결 순으로 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돌발발언과 돌발행동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의 긴장이 높아졌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반복된 군사적 도발행위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 개인 차원에서나 한국사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심리적 불안과 피로감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갈등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낮춘다.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도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종종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 북한을 비난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 그 자체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면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더 시급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인권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급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의제이다.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북한 경제협력 모두가 중요한 의제들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시급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시급한 의제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워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위해서 남북의 당국자들은 상당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협상에 앞게 되기 어렵기도 하다. 시급한 정책현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현안을 먼저 다뤄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외교적 환경과 수요, 대화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6. 소결

통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를 가지는 것만이 통일인가? 중단된 육로를 통한 교류가 재개되는 것도 작은 통일은 아닐까? 통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통일 관련 정보와 담론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된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통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더욱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결국 오늘의 한국이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일 것이다.

통일외교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아무리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비효율적인 것들이 된다. 좀 더 실천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 통일 관련 의제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세심한 진단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자신들 나름의 통일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의 의의가 커진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통일에 대해 일관성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인식의 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들은 통일을 더 이상 민족 중심주의적 담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유가 반드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선

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통일이 실용적,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우려할 것도 아니다. 통일의 미래와 삶의 현재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이 더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적 사건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건임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사회에 대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통일인식의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로 인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많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단기전략과 중장기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2017년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통일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부정의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횡횡했던 한국의 현실을 국민들은 직시하였고, 그런 아픔 속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세대 간 인식이 차이에도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한 때 20대의 보수화라는 표현이 통일 관련 담론에서 자주 등장했었는데, 과연 20대

의 보수적 선택이 60대 이상의 보수적 선택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0대들의 통일의식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나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60대들이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열악한 지금의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오지 않은 미래로 이들에게 정책적 호소를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정책은 미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로서, 과거의 부정의에 대해서도 화해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통일담론의 하나의 문화로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서론

남한과 북한은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민족관계이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남한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에는 여러 면에서 큰 이질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서로를 적대대상이나 경계대상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관계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하나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서로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제2장은 남한주민들의 대북인식에 대해 파악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에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2016년 8월 북한은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통해 연석회의 준비사업이 남한 당국의 방해와 남측 준비위원회 미결성으로 인해 개최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은 이에 대해 비판했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를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8월 3일) 1발을 발사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사드 배치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대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남한은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한 대통령은 통일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남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시사했다. 8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이에 반발하듯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남한의 탓으로 돌렸다.

유엔 안보리는 7월과 8월에 단행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주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한편, 2016년 9월 남한은 중국, 러시아와 ‘북핵불용’ 원칙을 상호 확인하는 등 북한 핵, 미사

일 위협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또 다시 황해북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9월 5일)하였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어 얼마 후에 신형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이 ‘대성공’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강도 높은 적대적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도 극도로 경색되게 만들었다. 즉, 2016년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이 밝았고,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매우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북한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실명을 거론하며 남한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남한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최고수뇌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며 남한을 위협했다.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피력했다(1월 23일). 그러나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 최광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시간 및 장소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북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일 삼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되었다. 북한은 김정남 사망이 남한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배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다시 한·미·일은 김정남 피살 사건, 북한의 추가 도발, 대북제재 및 압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2월 28일)에서 화학 무기 보유 및 사용을 부인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 정부가 주장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촉구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3월 1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대해 남한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여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비롯듯이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그러한 가운데 국제아이스하키 연맹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남북경기(4월 6일)가 강릉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경기(4월 7일)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오히려 북한은 주한 미군기지 및 청와대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였다.

2017년 5월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묵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

히 전달하였다.

남한의 새로운 정부는 남북 교류와 협력 재개를 위해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였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는 민간교류 추진, 대북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비난하며 남북갈등 및 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즉,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남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3일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였다. 남한의 대통령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여,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단 동시 입장 등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이를 계기로 극도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7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실시되었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제6차 핵실험이나 핵무력 완성 선언 등에 따른 남북갈등 상황은 반영되지는 않았다. 또한 2018년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이에 따른 남북대화의 상황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과 환경

을 고려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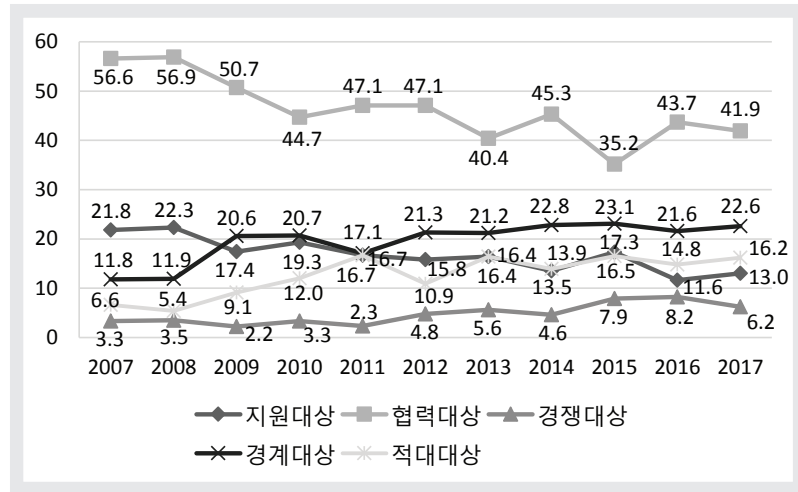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나머지 응답은 ‘경계대상’ 22.6%, ‘적대대상’ 16.2%, ‘지원대상’ 13.0%, ‘경쟁대상’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3.7% → 41.9%로 1.8%p 하락했으며, 작년에 16.5% → 14.8%로 하락했던 ‘적대의식’은 14.8% → 16.2%로 다시 상승(+1.4%p)했다.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협력의식이 하락하고, 적대의식이 상승한 이유는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과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비방 및 위협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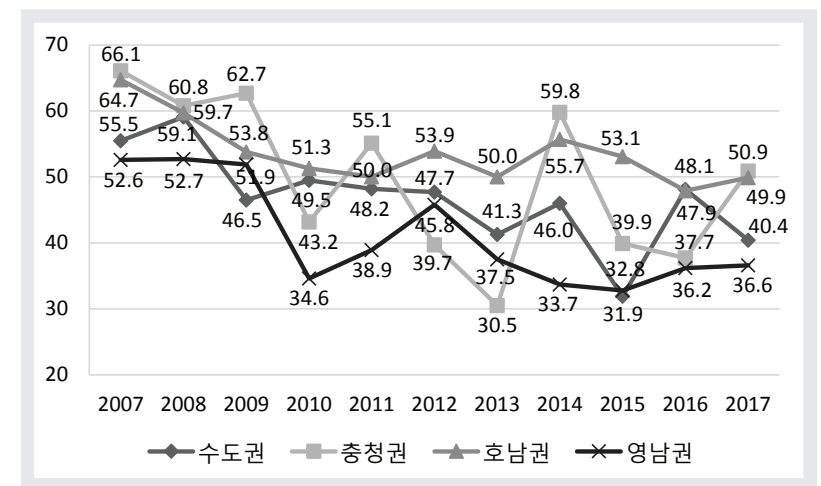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종교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도시화 수준별 대북 인식 중 ‘협력대상’의 경우 대도시(43.9%), 중/소도시(39.5%), 읍/면(44.2%)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계대상’의 경우도 대도시(20.0%), 중/소도시(25.1%), 읍/면(23.0%) 간에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대상’ 인식은 읍/면이 20.0%로 대도시 10.0%와 중/소도시 14.8%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읍/면이 7.7%로 대도시 19.7%와 중/소도시 14.0%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지역별로도 대북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충청권(50.9%) > 호남권(49.9%) > 수도권(40.4%) > 영남권(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2015년 31.9%에서 2016년 48.1%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7년 40.4%로 전년대비 7.7%p 감소하였다. 반면, 충청권은 2015년 39.9%에서 2016년 37.7%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 50.9%로 13.2%p 상승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호남권은 2015년 53.1%에서 2016년 48.1%로 하락했다가 2017년 49.9%로 1.8%p 상승했다. 영남권은 2015년 32.8%에서 2016년 36.2%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7년에는 36.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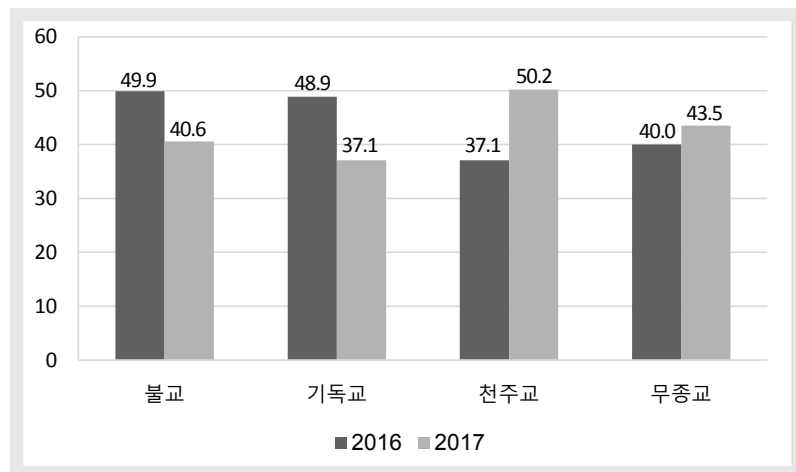
종교에 따른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변화도 발견되었다. 〈그림 1-2-3〉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 인식은 불교가 49.9%에서 40.6%로 9.3%p 하락하였다. 또한 기독교도 48.9%에서 37.1%로 11.8%p 하락하였다. 반면, 천

주교는 37.1%에서 50.2%로 13.1%p 상승했고, 무종교도 40.0%에서 43.5%로 3.5%p 상승하였다. 한편, '경계대상' 인식은 불교(22.6% → 22.7%)와 무종교(23.8% → 22.9%)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기독교(18.6% → 21.4%)와 천주교(18.6% → 25.3%)의 경우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대상' 인식은 불교가 6.6% → 16.6%로 10%p 상승했고, 천주교는 12.9% → 5.4%로 7.5%p 하락하는 등 큰 변화를 보였다. 반면, 기독교(16.0% → 14.9%)와 무종교(11.2% → 11.5%)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별 대북 '협력인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33.6%)은 중간층(41.9%/200-299만원, 46.8%/300-399만원)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4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적대인식'의 경우 저소득층(17.2%)과 고소득층(18.6%)이 중간층(11.7%, 1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종교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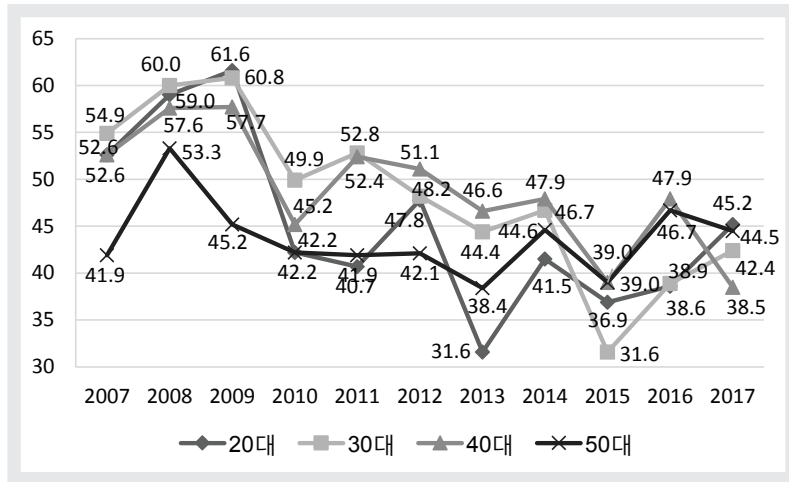
(단위: %)



대북인식은 연령대별로도 편차가 존재했다. 우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45.2%) > 50대(44.5%) > 30대(42.4%) > 60대(39.1%) > 40대(3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은 20대와 30대에서 상승했고, 40대와 50대는 하락했다. 20대의 경우 2015년 36.9%에서 2016년 38.6%, 그리고 2017년 45.2%로 전년대비 6.6%p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15년 31.6%에서 2016년 38.6%로, 다시 2017년에는 42.4%로 전년대비 3.8%p 상승했다. 즉, 2015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20대와 30대의 인식은 상승세에 있다.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40대의 경우는 2015년 39.0%에서 2016년 47.9%로 상승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38.5%로 전년대비 9.4%p 감소했다. 50대의 경우도 2015년 39.0%에서 2016년 46.7%로 상승했다가 2017년 44.5%로 전년대비 2.2%p 감소했다.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60대도 2015년 27.6%에서 2016년 45.2%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다시 39.1%로 전년대비 6.1%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대북 인식의 편차를 보이지만 '지원대상 1-10%대', '경쟁대상 1%대', '경계대상 10-20%대', '적대대상 10%대'라는 점을 볼 때 '협력대상 30-40%대'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4〉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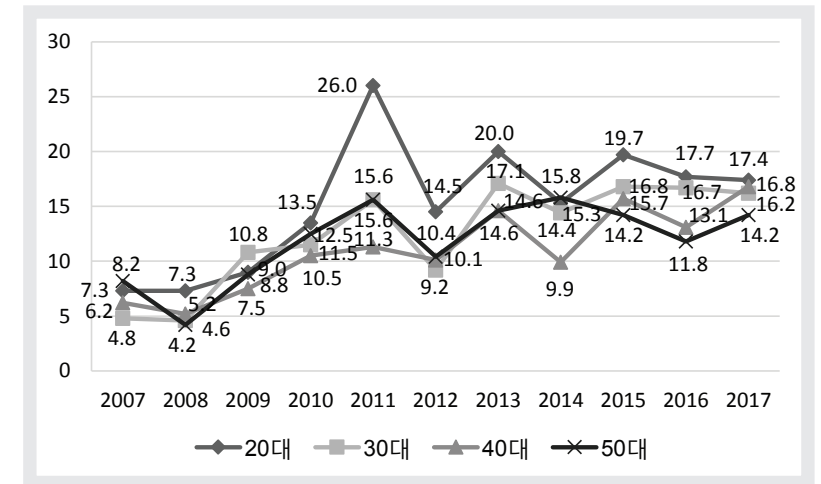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은 20대(17.4%) > 40대(16.8%) ≒ 60대(16.3%) ≒ 30대(16.2%) > 50대(1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와 30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20대의 인식은 2015년 19.7%, 2016년 17.7%, 2017년 17.4%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015년 16.8%, 2016년 16.7%, 2017년 16.2%로 나타난다. 40대의 경우 2015년 15.7%에서 2016년 13.1%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7년 16.8%로 전년 대비 3.7%p 상승했다. 50대의 경우 2015년 14.2%에서 2016년 11.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14.2%로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60대의 경우도 2015년 16.7%에서

2016년 21.1%로 상승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16.3%로 전년대비 4.8%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편차를 나타내지만,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5〉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단위: %)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성향별 대북 인식은 변화를 나타냈다. 먼저 2016년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보수(49.9%) > 진보(46.0%) > 중도(39.9%)의 순서였으나, 2017년에는 진보(46.8%) > 중도(42.8%) > 보수(31.3%)로 변화되었다. 다음으로 2016년 대북 ‘적대대상’ 인식은 보수(18.8%) > 진보(14.7%) > 중도(13.3%)의 순서였으나, 2017년에는 보수(22.8%) > 중도(14.9%) > 진보(14.1%)로 변화되었다. 이는 2015년의 경우와 같이 변화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5년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진보(40.6%) > 중도(35.3%) > 보수(35.1%), ‘적대대상’ 인식은 보수(21.3%) > 중도(15.7%) > 진보(13.2%)의 순이었다.

참고로 ‘교육수준’에 따른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중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중졸 이하가 39.3%, 고졸이 38.9%로 둘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대학교 재학 이상은 45.7%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중졸 이하와 대학교 재학 이상이 각각 14.2%와 14.8%로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고졸은 18.1%로 조사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39.6%)보다 여성(44.3%)이 높았고, ‘적대대상’에는 여성(14.9%)보다 남성(17.4%)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 중 농/수/축산업(32.6%)과 전업주부(36.6%)가 낮았다. 그리고 ‘적대대상’에는 농/수/축산업(28.0%)과 학생/무직(20.9%)이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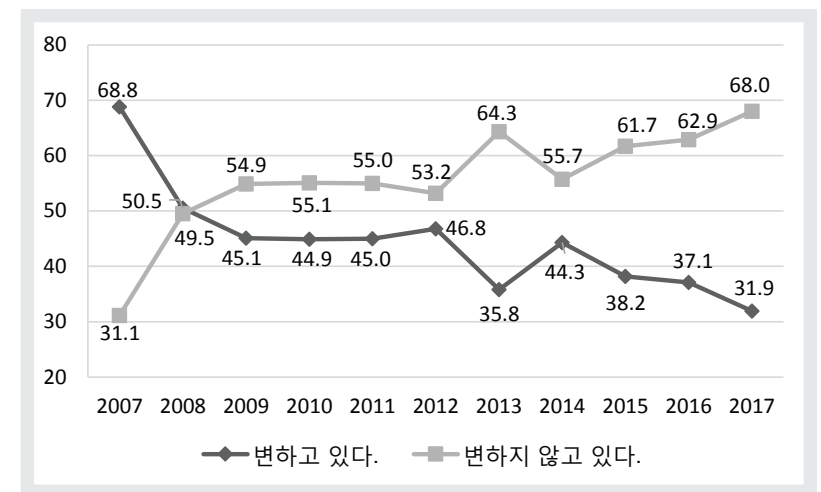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의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00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31.9%(남성 31.0%, 여성 32.9%)가 ‘변하

고 있다’, 68.0%(남성 68.8%, 여성 67.1%)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2015년 38.2%에서 2016년 27.1%로 소폭 감소했고, 2017년 31.9%로 다시 증가했다.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 응답은 2015년 61.7%에서 2016년 62.9%, 2017년 68.0%로 또다시 증가했다. <그림 1-2-6>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2014년 이래로 상승하고 있지만, 긍정적 인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1-2-6>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령대별로 보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은 40대(34.6%) ≒ 50대(34.0%) > 60대(32.7%) > 20대(29.4%) ≒ 30대(28.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30대(71.6%) ≒ 20대(70.6%) > 60대(67.3%) > 50대(66.0%) ≒ 40대(65.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은 중졸 이하(37.0%) > 고졸(31.6%) > 대재 이상(30.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대재 이상(69.2%) > 고졸(68.4%) > 중졸 이하(63.0%)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 변수의 경우 북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기독교(36.4%) > 불교(34.0%) > 천주교(31.6%) > 무종교(30.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견은 무종교(69.6%) > 천주교(68.4%) > 불교(66.0%) > 기독교(63.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변화에 대한 지역별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48.3%) > 강원권(41.1%) > 충청권(33.8%) > 수도권(29.7%) > 영남권(28.8%) > 제주권(2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부정적 평가는 제주권(78.0%) > 영남권(70.9%) > 수도권(70.3%) > 충청권(66.2%) > 강원권(58.9%) > 호남권(5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화 변수의 경우 북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읍/면(36.3%) > 대도시(35.8%) > 중/소도시(27.3%), 부정적 의견은 중/소도시(72.6%) > 대도시(64.2%) > 읍/면(26.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 변화에 대한 정치적 성향 변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는 진보(33.8%) > 중도(32.9%) > 보수(24.4%), 부정적 평가는 보수(73.6%) > 중도(66.9%) > 진보(66.2%)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북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 또는 비판적 인식은 각 변수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00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앞으로 안정될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북한이 앞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63.7%(남성 63%, 여성 64.4%)로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이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11.7%(남성 12.4%, 여성 11%)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한 비율도 24.6%(남성 24.6%, 여성 24.6%)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는 60.0%에서 63.7%로 3.7%p 상승했다. '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의 경우 14.4%에서 9.7%로 4.7%p 감소했었다가 2017년의 경우 9.7%에서 11.7%로 2%p 다시 상승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015년 25.7%에서 2016년 30.3%로 상승했다가 2017년 다시 24.6%로 5.7%p 하락하였다. <그림 1-2-7>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안정화에 대한 미래 예측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60대(14.2%) > 50대(12.3%) > 30대(11.5%) > 40대(11.1%) > 20대(9.6%), '그저 그렇다'는 60대(26.1%) > 50대(26.0%) > 40대(24.7%) > 30대(23.5%) > 20대(22.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대(67.8%) > 30대(64.9%) > 40대(64.1%) > 50대(61.7%) > 60대(59.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고졸(12.4%) > 중졸 이하(12.2%) > 대재 이상(11.0%), '그저 그렇다'는 고졸(26.4%) > 대재 이상(23.2%) > 중졸 이하(21.9%), '불안정될 것이다'는 중졸 이하(65.9%) > 대재 이상(65.8%) > 고졸(61.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농/수/축산업(16.0%) > 화이트칼라(12.8%) > 블루칼라(12.7%) > 자영업(11.6%) > 전업주부(10.7%) >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농/수/축산업

(32.3%) > 전업주부(27.7%) > 자영업(24.2%) ≡ 화이트칼라(24.0%) = 블루칼라(24.0%) > 학생(20.0%)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될 것이다’는 학생(71.6%) > 자영업(64.2%) > 블루칼라(63.3%) ≡ 화이트칼라(63.2%) > 전업주부(61.6%) > 농/수/축산업(51.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200-299만원(13.7%) > 300-399만원(12.2%) > 400만원 이상(11.4%) > 200만원 미만(8.6%), ‘그저 그렇다’는 200-299만원(26.7%) > 300-399만원(25.2%) > 200만원 미만(24.6%) > 400만원 이상(23.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 것이다’는 200만원 미만(66.8%) > 400만원 이상(65.2%) > 300-399만원(62.6%) > 200-299만원(59.5%) 순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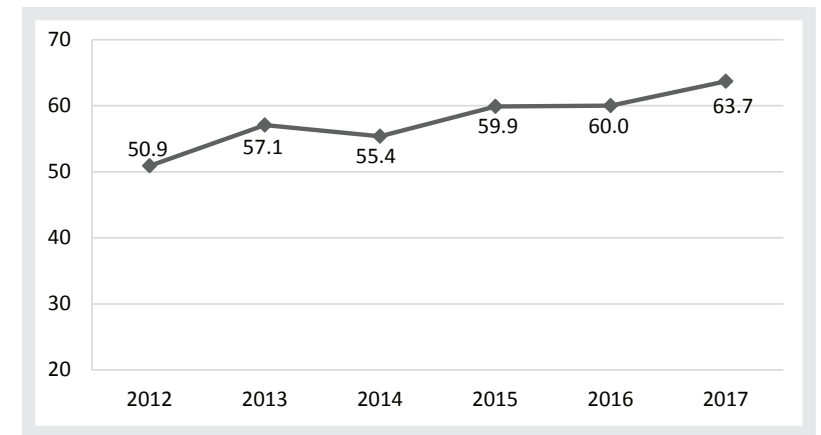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충청권(23.9%) > 호남권(16.1%) > 영남권(10.5%) > 수도권(9.2%), ‘그저 그렇다’는 수도권(26.3%) > 영남권(24.4%) > 호남권(21.4%) > 충청권(18.4%)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영남권(65.1%) > 수도권(64.5%) > 호남권(62.5%) > 충청권(57.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호남권의 응답은 6.3% → 16.5%로 10.2%p 증가했고, 영남권은 13.0% .5%로 감소했다. 한편, 북한정권이 불안정될 것으로 보는 호남권의 응답은 72.6% → 62.5%로 10%p 감소했고, 영남권은 51.8% → 65.1%로 13%p 증가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진보(14.9%) > 보수(13.1%) > 중도(8.8%), ‘그저 그렇다’는 중도(27.3%) > 진보(25.0%) > 보수(17.6%), ‘불안정될 것이다’는 보수(69.3%) > 중도(63.9%) > 진보(6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별로 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이다’는 불교(13.8%) >

무종교(11.8%) > 기독교(10.4%) ≡ 천주교(10.1%), ‘그저 그렇다’는 불교(31.7%) > 기독교(29.7%) > 무종교(21.3%) > 천주교(11.7%), ‘불안정될 것이다’는 천주교(78.2%) > 무종교(66.9%) > 기독교(59.8%) > 불교(5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7〉 북한정권 불안전 예측 변화 추이

(단위: %)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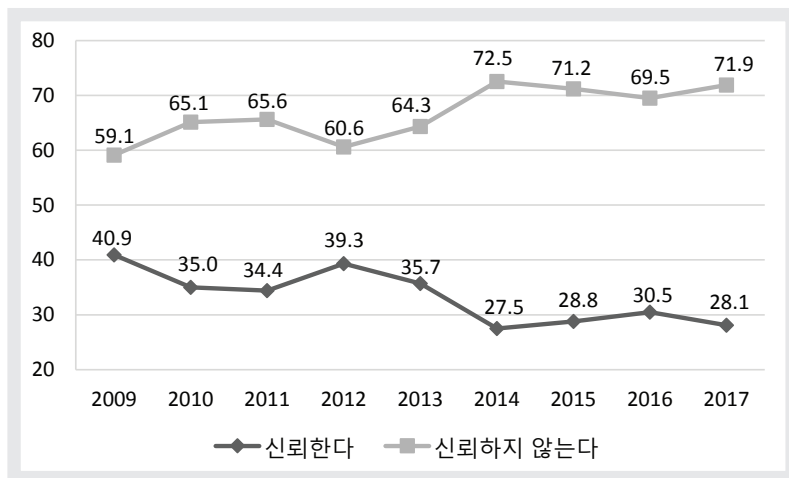
1) 대화와 타협의상대로서 북한정권

국민들의 인식에서 ‘북한’이라는 국가와 ‘북한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는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00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신뢰도)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71.9%(남성 69.3%, 여성 74.5%)로 '가능하다'라는 응답 28.1%(남성 30.7%, 여성 25.5%)보다 2.5배가량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30.5% → 28.1%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래로 7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림 1-2-8>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2009년 59.1%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림 1-2-8> 북한 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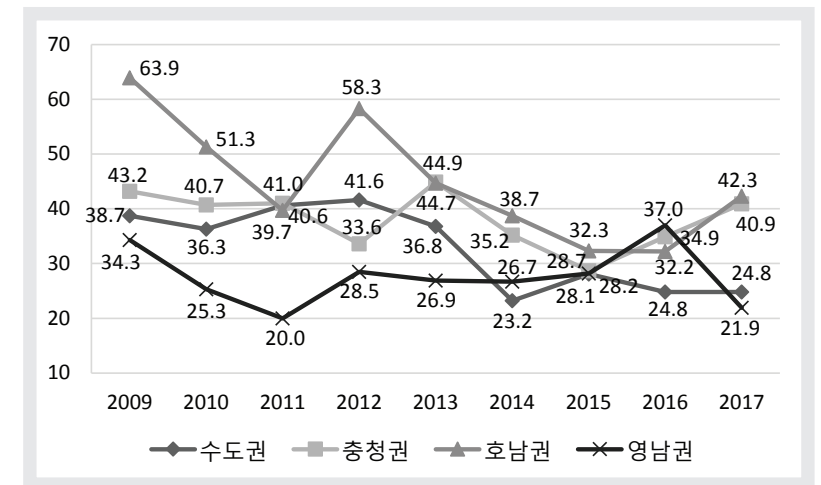


<그림 1-2-9>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정권에 대한 지역별 신뢰도는 영남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호남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충청권의 경우 2016년 34.9%에서 2017년 40.9%로 6.0%p 상승했다. 호남권의 경우 2016년 32.2%에서 2017년 42.4%로 10.2%p 상승했고, 수도권은 2017년 24.8%로 전년과 같았다. 반면, 영남권의 경우 2016년 37.0%에서

2017년 21.9%로 15.1%p 하락했다.

<그림 1-2-9>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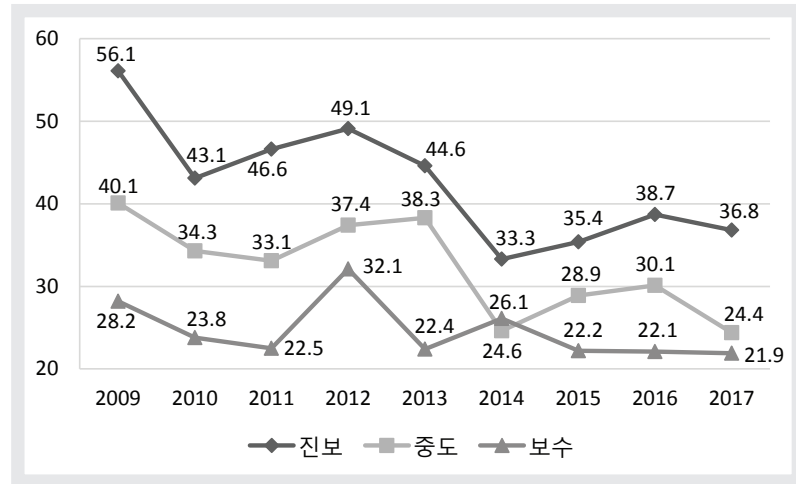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2-10>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정권 신뢰도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진보적 정치성향의 경우 2014년 (33.3%) 이래로 2016년(38.7%)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36.8%로 전년대비 1.9%p 하락하였다. 중도의 경우도 2014년(24.6%) 이래로 2016년(30.1%)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24.4%로 전년대비 5.7%p 하락하였다. 한편, 보수적 정치성향은 2014년 26.1%에서 2015년 22.2%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7년 21.9%로 2016년 22.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진보의 경우 30%를 유지하며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는 20% 초반에서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도의 경우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10〉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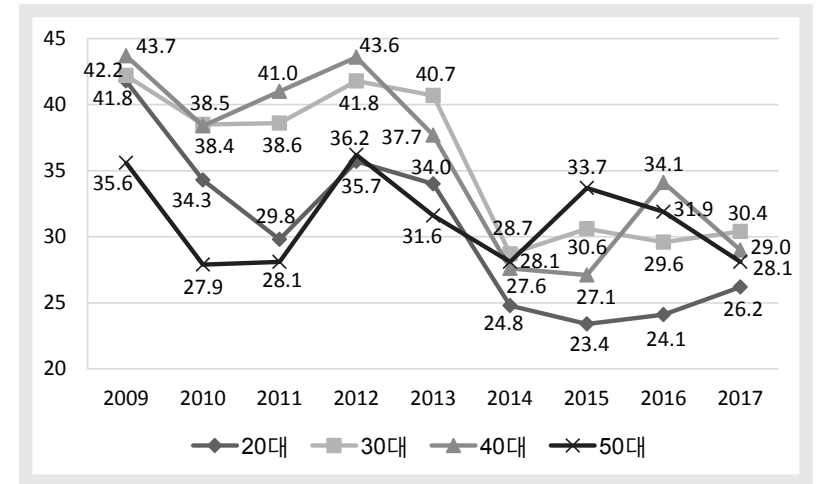
(단위: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상승한 반면, 40-50대에서는 하락하였다. 20대의 경우, 2015년 23.4%에서 2016년 24.1%, 그리고 2017년 26.2%로 전년대비 2.1%p 소폭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14년 28.1%에서 2015년 30.6%로 소폭 상승한 이래 2016년(29.6%)과 2017년(30.4%)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대의 경우, 2015년 27.1%에서 2016년 34.1%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17년 29.0%로 5.1%p 하락했다. 50대의 경우, 2015년 33.7%로 같은 시기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가 2016년 31.9%, 2017년 28.1%(전년대비 -3.8%p)로 30대(30.4%)·40대(29.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리하면, 2014년 이래로 20대의 북한정권 신뢰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그림 1-2-11〉 연령별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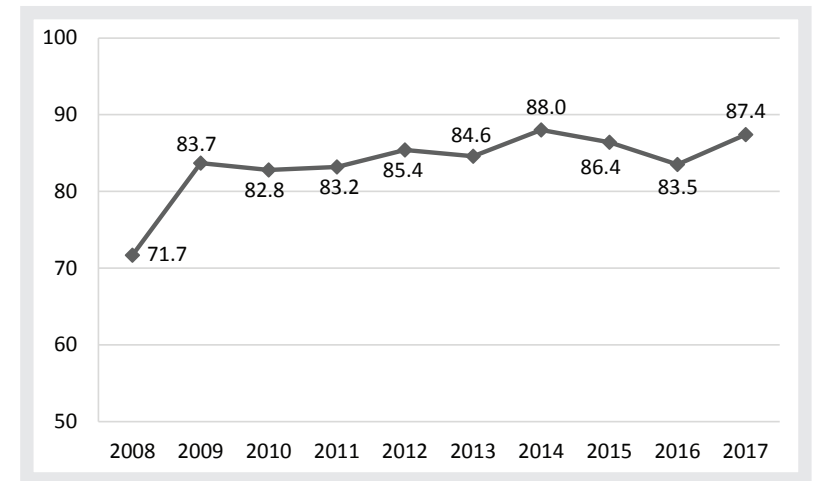
이밖에도 교육수준, 가구소득, 도시화수준, 직업, 종교에 따라서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교육수준별 응답은 대재 이상(31.9%) > 중졸 이하(28.1%) > 고졸(24.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별 응답은 화이트칼라(34.2%) > 블루칼라(27.7%) ≒ 학생(27.6%) > 자영업(26.1%) ≒ 전업주부(25.2%) > 농/수/축산업(15.5%)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가구소득별 응답은 200-299만 원(28.5%) ≒ 300-399만 원(28.4%) > 400만 원 이상(25.5%) > 200만 원 미만(17.5%)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도시화수준에 따른 응답은 읍/면(36.4%) > 대도시(25.7%) ≒ 중/소도시(24.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별 응답은 불교(32.6%) ≒ 천주교(32.4%) > 기독교(29.6%) > 무종교(25.9%) 순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의 핵무기 포기여부

국민의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87.4%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림 1-2-12>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이래로 80% 이상의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연령대별 부정적 인식은 40대(90.9%) > 60대(88.1%) > 30대(87.7%) > 50대(85.6%) > 20대(8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인식은 고졸(90.3%) > 대재 이상(85.3%) > 중졸 이하(83.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90.2%) > 농/수/축산업(89.6%) > 자영업(89.1%) > 블루칼라(86.6%) > 학생(86.2%) > 화이트칼라(84.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인식은 400만 원 이상(90.9%) > 300-399만 원(85.9%) > 200만 원 미만(84.7%) > 200-299만 원(82.5%)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식은 호남권(91.0%) > 영남권(89.7%) > 수도권(86.8%) > 충청권(8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남권은 가장 높게(42.3%) 북한정권과 대화 및 타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도시화수준별 인식은 대도시(91.8%) > 읍/면(85.3%) > 중/소도시(8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인식은 보수(90.2%) > 진보(87.7%) > 중도(85.9%)로 나타났다. 종교별 인식은 무종교(87.0%) > 기독교(88.6%) > 불교(88.4%) > 천주교(8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12> 북한의 핵무기 포기여부(‘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위: %)



4. 북한의 위협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2014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남한주민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89.3%가 위협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2015년 84.0%, 2016년 79.5%, 2017년 70.6%(‘매우 위협을 느낀다.’ 32.8%, ‘다소 위협을 느낀다.’ 49.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² 참고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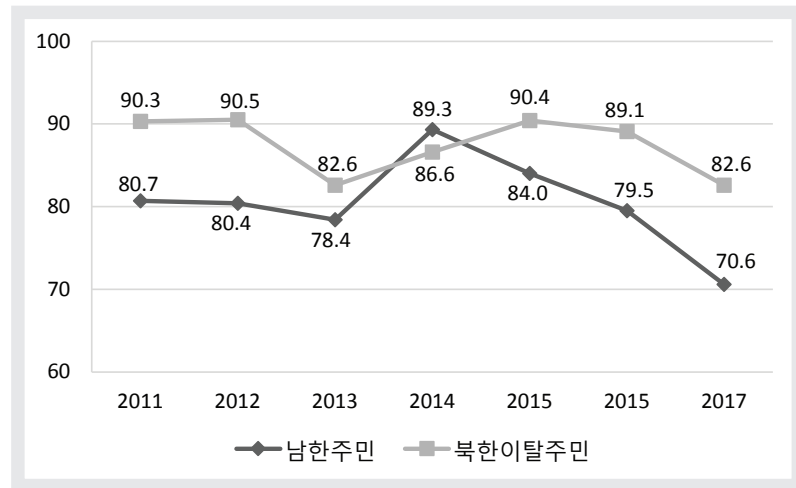
2) 이번 조사는 9월 3일에 단행된 제6차 북핵 실험이 반영되지 않았다.

의식도 2015년 이래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90.4% → 89.1% → 82.6%)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북핵이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권의 대북 협상 및 높은 대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아니면 이는 남한주민들의 안보불감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2009년 이래로 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주민은 북한 핵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높은 위협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13〉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

(단위: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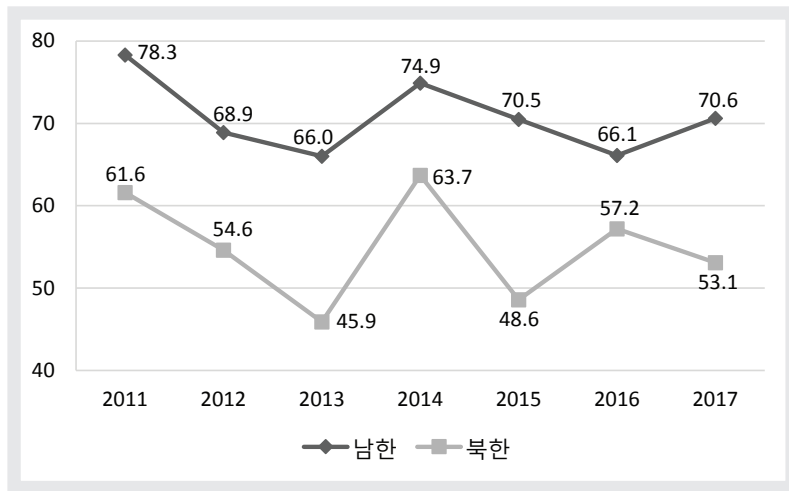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6%로 ‘없다’(29.4%)는 응답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즉, 2014년 74.9%에서 2015년 70.5%, 2016년 66.1%로 하락하다가 2017년 70.6%로 전년대비 4.5%p 상승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17년 2월부터 거의 매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남북 및 북미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도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승한 이유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과 ‘강대강’ 북미대립 및 남북관계 경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53.1%가 ‘있다’, 46.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1-2-1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은 2016년 57.2%에서 2017년 53.1%로 4.1%p 하락했다.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이 하락한 이유는 남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타

협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고, 무력보다는 경제제재와 같은 방법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2-14〉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연령, 지역, 도시화수준, 직업, 교육,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를 나타냈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위협 인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지역 모두 상승했다. 〈그림 1-2-15〉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의 경우 2016년 65.5%에서 2017년 70.6%로 5.1%p 상승했다. 충청권의 경우, 2016년 69.6%에서 2017년 70.2%로 0.6%p 상승했고, 호남권은 2016년 62.1%에서 2017년 70.4%로 8.3%p 상승했다. 영남권의 경우는 2016년 65.0%에서 2017년 69.3%로 4.3%p 상승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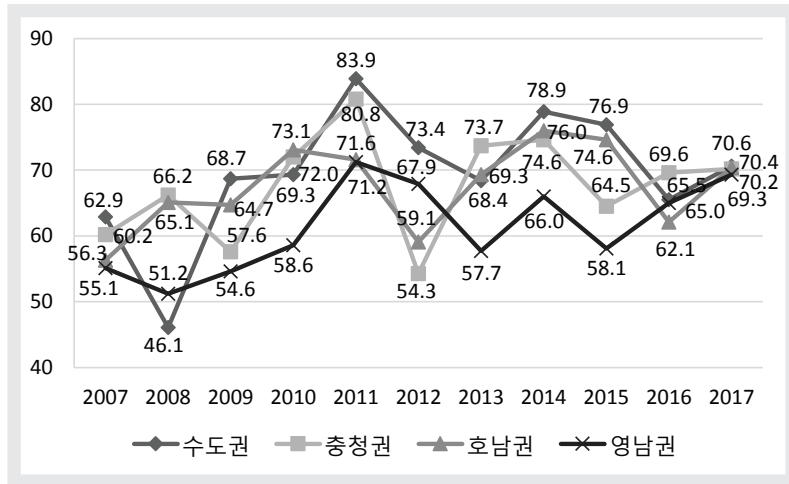
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7년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65.7%) > 충청권(61.8%) ≒ 수도권(61.5%) > 영남권(5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는 영남권(45.5%) > 수도권(38.5%) ≒ 충청권(38.2%) > 호남권(34.3%)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보불안의식이 낮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다.³⁾ 그러나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수도권(70.6%) ≒ 호남권(70.4%) ≒ 충청권(70.2%) > 영남권(6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당시 시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타협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무력도발에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중도적 성향(72.9%)의 사람들이 보수(69.1%)와 진보(6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도 66.8→72.9%, 보수 64.3%→69.1%, 진보 66.5%→68.5%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상승했고, 또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정근식 외, 『2016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77.

〈그림 1-2-15〉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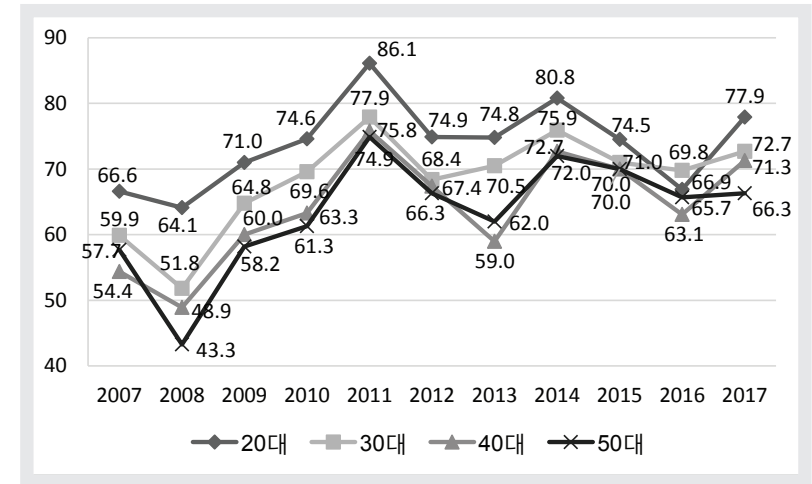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연령대별 위협 인식도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5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모두 상승했다. 20대의 경우, 2016년 66.9%에서 2017년 77.9%로, 30대는 2016년 69.8%에서 2017년 72.7%로 각각 11%p와 2.8%p 상승했다. 40대의 경우도 2016년 63.1%에서 2017년 71.3%로 8.2%p 상승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에는 2016년 65.7%에서 2017년 66.3%로 큰 변화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1-2-16〉 연령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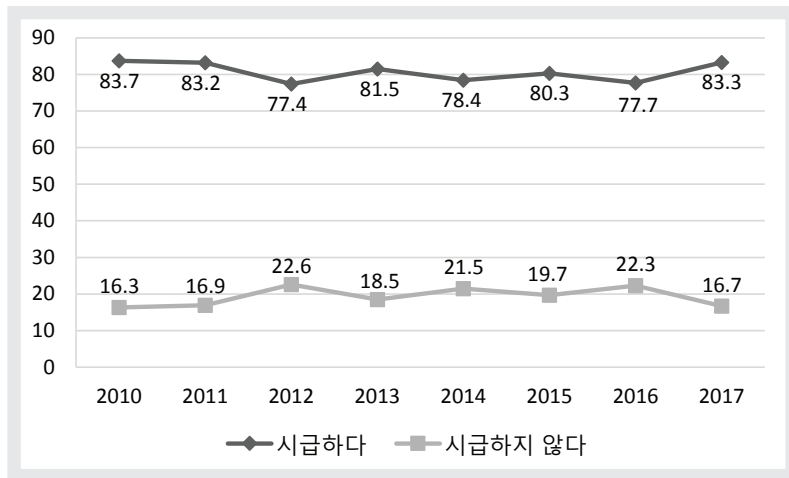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남한주민들은 ‘통일의 목적’ 중 두 번째로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를 높게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6.3%→29.7%→32.5%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남한주민들은 ‘대북문제 해결의 시급성’으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80.3%→77.7%→83.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2-17〉 대북문제의 시급성

(단위: %)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사회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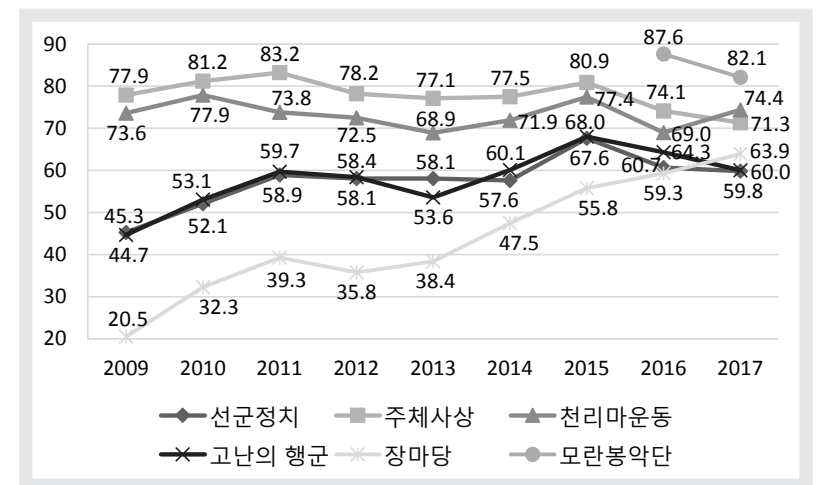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 및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6년과 비교할 때 2017년은 장마당, 천리마운동 등에서 대북인지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주체사상과 고난의 행군 등에서는 대북인지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장마당의 경우, 2016년 59.3%에서 2017년 63.9%로 4.6%p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장마당의 경우에는 2012년 35.8%에서 2013년 38.4%로 증가한 이래로 2014년 47.5%, 2015년 55.8%, 2016년 59.3%, 2017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

했다. 천리마운동의 경우에는 2016년 69.0%에서 2017년 74.4%로 5.4%p 상승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74.1%에서 2017년 71.3%로 2.8%p 소폭 하락했다. 고난의 행군 경우에도 2016년 64.3%에서 2017년 60.0%로 4.3%p 하락했다. 그리고 2016년(87.6%) 첫 조사 항목인 모란봉악단의 경우에도 2017년 82.1%로 전년대비 5.5%p 하락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경우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군정치의 경우, 2016년 60.7%에서 2017년 60.0%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리하면,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알고 있다기보다는 들어봤다는 수준일 수도 있다. 만약 단순히 들어본 수준이라면, 이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매체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 및 정보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2-18〉 북한사회 인지도

(단위: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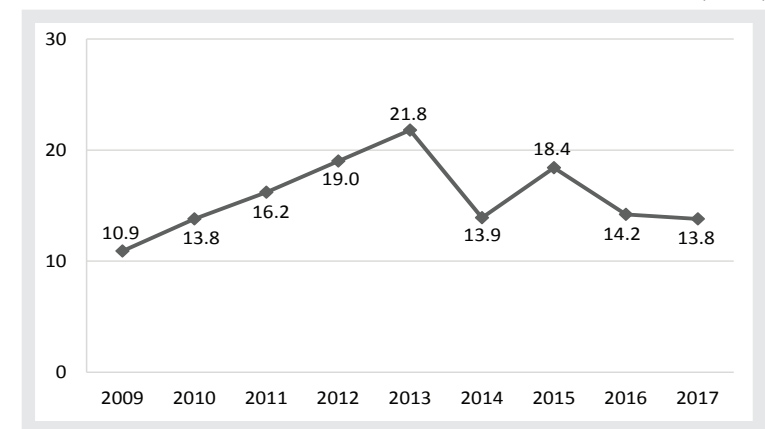
금강산·개성공단·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은 2.1% → 4.7%로 늘었고,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은 14.2% → 13.8%로 감소했다.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은 21.6% → 29.3%로,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도 0.6% → 2.9%로 증가했다. 북한방문이나 대북지원 활동 경험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을 잘 나타낸다. 탈북민의 국내입국 수는 2009년 2,914명(남 662명, 여 2,252명), 2010년 2,402명(남 591명, 여 1,811명), 2011년 2,706명(남 795명, 여 1,911명), 2012년 1,502명(남 404명, 여 1,098명), 2013년 1,514명(남성 369명, 여성 1,145명), 2014년 1,397명(남성 305명, 여성 1,092명), 2015년 1,275명(남성 251, 여성 1,024명), 2016년 1,418명(남성 302명, 여성 1,116명), 2017년 1,127명(남성 188명, 여성 939명)이다.⁴ 그리고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은 2009년 10.9%, 2010년 13.8%, 2011년 16.2%, 2012년 19.0%, 2013년 21.8%, 2014년 13.9%, 2015년 18.4%, 2016년 14.2%, 2017년 13.8%이다.

최근 3년간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이 줄어든 것은 국내 입국 탈북민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이 국내 입국 탈북민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이 증가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강대강 북미 대립 등으로 인한 언론의 빈번한 보도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민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북한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지만, 유튜브나 구글 등에서 북한 관련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회적 방법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림 1-2-19〉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

(단위: %)



〈표 1-2-1〉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남: 662 여: 2,252	남: 591 여: 1,811	남: 795 여: 1,911	남: 404 여: 1,098	남: 369 여: 1,145	남: 305 여: 1,092	남: 251 여: 1,024	남: 302 여: 1,116	남: 188 여: 939

* 통일부 통계 (2017.12)

남한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과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주민들은 선거방식(91.8%), 언어사용(82.5%),

4] 통일부(<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62.2%)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선거방식(97.0%), 언어사용(90.9%),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81.1%)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남한주민이(평균 76.9%) 북한주민(평균 88.6%) 보다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해 다소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중 가족중시(29.1%p)가 가장 격차가 컸고, 선거방식(5.2%p)에서 가장 격차가 낮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간 이질감은 선거방식이(97.0%) 가장 컸고, 사회복지가(80.3%) 가장 낮았다. 남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간 이질감은 북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선거방식(91.8%)에서 가장 크게 나왔고, 가족중시(57.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남한		북한		격차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선거방식	92.4%	91.8%(1)	94.2%	97.0%(1)	1.8%p	5.2%p
언어사용	81.3%	82.5%(3)	93.5%	90.9%(3)	12.2%p	8.4%p
생활풍습	77.8%	77.1%(4)	89.1%	96.2%(2)	11.3%p	19.1%p
가족중시	64.6%	57.3%(6)	90.6% (가치관)	86.4%(4)	26%p	29.1%p
사회복지	94.9%	90.5%(2)	96.4% (생활수준)	80.3%(5)	1.5%p	10.2%p
돈에 대한 중시	-	62.2%(5)	-	81.1%(6)	-	18.9%p
역사인식	-	-	94.9%	-	-	-
평균	82.2%	76.9%	93.1%	88.6%	10.9%p	11.7%p

6. 소결

2017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하락하였다. 즉,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14.8%에서 16.2%로 1.4%p 증가한 반면, 협력대상 인식은 43.7%에서 41.9%로 1.8%p 하락하였다. 지난 1년의 변화만을 보면 대북 적대인식이 강화되고 협력의식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5차 북핵 실험과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비방 및 위협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지역별 인식을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영남권은 2014년 33.7%, 2015년 31.9%, 2016년 36.2%, 2017년 36.6%로 대체로 일정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별 인식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인식도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20대 45.2%, 30대 42.4%, 40대 38.5%, 50대 44.5%로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17.4%, 30대 16.2%, 40대 16.8%, 50대 14.2%로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한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영남권이 21.9%

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호남권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도 40.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에는 호남권 32.3%, 영남권 28.2%, 충청권 28.7%, 수도권 28.1%로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6년 호남권 32.2%, 영남권 37.0%, 충청권 34.9%, 수도권 24.8%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호남권과 충남권, 수도권과 영남권의 구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를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0-30%에서 진보, 중도, 보수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의 경우 30%대를 유지하며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중도의 경우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는 20% 초반에서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를 살펴보면, 20대 26.2%, 30대 30.4%, 40대 29.0%, 50대 28.1%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된다. 특히, 2014년 이래로 20대의 북한정권 신뢰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위협의식은 2014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남한주민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89.3%가 위협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2015년 84.0%, 2016년 79.5%, 2017년 70.6%로 매년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위협의식도 2015년 이래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의식 감소는 그것이 일종의 협상 수단으로써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즉, 남한주민들은 북한 핵무기를 단순한 협상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권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니면 이는 남한주민들의 안보불감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듯이 북한 핵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높은 위협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70%이상으로 높게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20-50대 모두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60-70%로 높게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좀 더 상승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주민들은 통일의 목적 중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32.5%)를 두 번째로 많이 지목했다. 또한 83.3%의 남한주민들이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는 2016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정부 등장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2016년과 2017년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북미 간 대결, 남북 대화와 협력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인식은 2016년 57.2%에서 2017년 53.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인식이 하락한 이유는 남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

한 정부가 비록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무력보다 경제제재 등의 방법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선군정치 59.5%, 주체사상 71.3%, 천리마운동 74.4%, 고난의 행군 60.0%, 장마당 63.9%, 모란봉악단 82.1% 등 남한주민의 대북 인지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7년은 장마당, 천리마운동 등에서 대북인지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주체사상과 고난의 행군 등에서는 대북인지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6년 첫 조사 항목인 모란봉악단의 경우에도 87.6% → 82.1%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경우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선군정치의 경우에는 2016년(60.7%)과 2017년(60.0%)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남한주민의 대북 인지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알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들어본 수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매체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 및 정보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주민들은 남북한 간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주민은 ‘선거방식’을 북한과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지목했고, ‘가족중시’를 가장 차이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주민도 ‘선거방식’을 남북한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생활풍습’을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중시’를 가장 차이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경색되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고, 서로는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군사적 조치와 대응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과 미

국의 ‘말 폭탄’ 대결과 소외되는 듯한 남한의 입장은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남한에는 이전 정권과 다른 정치적 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표출되었다. 그러나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제5차, 6차 핵실험과 거의 매달에 걸쳐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다. 많은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 또는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예측은 맞았고,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는 언제든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2017년의 조사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두 정부 시기에 형성되었던 남한주민들의 대북인식 변화를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7년은 전년에 이어 공식적인 남북교류협력이 부재한 해였다. 이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조기 정권교체에 따라 진보정권이 집권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벌써 20여 년이 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이전의 것과는 달리 기술적 측면에서 훨씬 발전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6차 핵실험은 굉장히 파급력이 컸다”며 “새로운 장치를 썼는데, 5차 실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강했던 것을 보면 그 장치가 수소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번 실험이 만약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며 “첫 번째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했으니 기술면에서 많이 향상한 것이고, 두 번

째로는 “제한적인 우라늄을 가지고 이번 수소탄 실험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⁵⁾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 흐름의 판도를 뒤엎는 역할을 했다”며 “수소탄을 이야기 하자면 북한이 지금까지 실행한 실험 중에서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이 수소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6년 걸렸고, 중국은 3-4년이 걸렸다. 그래서 북한은 더욱 더 집중적으로 개발에 몰두했다.”며 “북한의 수소탄 개발은 아마 성공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⁶⁾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가들도 기술력의 발전과 그 파급력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다. 2017년 11월 28일, 북한은 사거리가 8천100마일(약 1만 3천36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우레케 하였다.⁷⁾ 북한은 수십 년간 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나 올해 공개된 여러 신형 미사일은 관련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시어 코튼 연구원은 “올해 기록적인 수의 신형 미사일이 보였다.”며 “올해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 대부분이 기존에 보지 못한 미사일이었다.”고 밝혔다.⁸⁾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여 재래식 전력 확충도 지속해서 추진하

5) 송승중,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인터뷰. “아리랑TV 외교안보토론 ‘PENINSULA24’- 아리랑TV, 북한 핵 무기 기술 어디까지 와 있나,” 2017년 9월 13일 방송

6)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위원 인터뷰. “아리랑TV 외교안보토론 ‘PENINSULA24’- 아리랑TV, 북한 핵 무기 기술 어디까지 와 있나,” 2017년 9월 13일 방송

7) 지난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최장 사정거리가 2천500마일(약 4천23km)이었고, 올해 7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일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3천400마일(약 5천472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라고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년 사이 북한이 이룬 기술 발전이 눈에 띈다.

8) “北 미사일 기술 올해 비약적 발전…신형 미사일만 6회 공개,” 『연합뉴스』, 2017년 12월 22일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 개발에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⁹⁾ 실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기간 대응차원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기 중에는 핵과 그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 관련 무기가 많기는 했지만, 300미리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 S-300 급 대공미사일 등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신형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전차로켓 등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도 계속 공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병진노선의 추진 결과 경제상황 역시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과연 얼마나 그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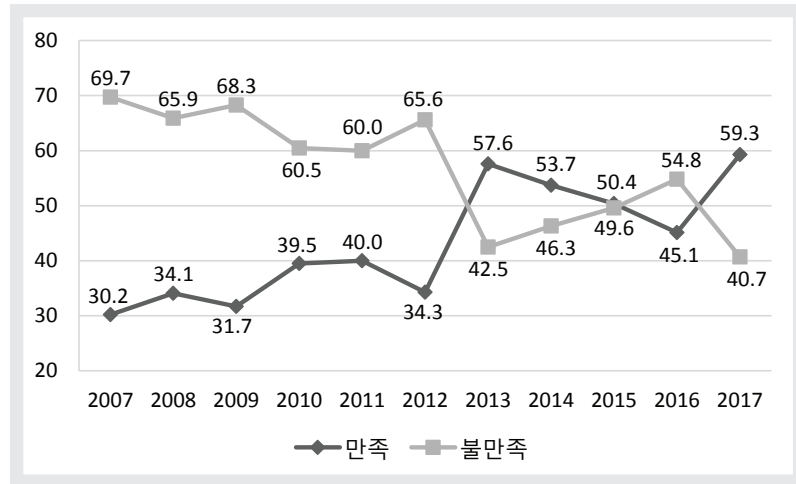
9)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구식인 재래식 무기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DMZ 근처의 장거리 포병 화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이동식 탄도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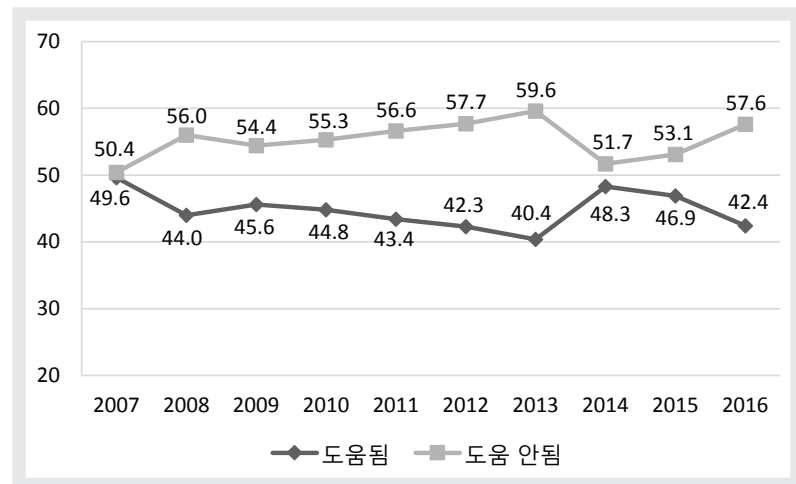
2013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만족도가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증가하여 59.3%를 기록하였다.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고, 통일대박론을 거쳐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증대하여 국민들의 인식 역시 점차 회의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심스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두 달 뒤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이므로, 사실상 본격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방향/아젠다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정부에 대한 회의감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의 복합적인 표현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대한 만족·불만족 응답 비율
(단위: %)



〈그림 1-3-2〉 대북지원의 북한 주민 생활기여도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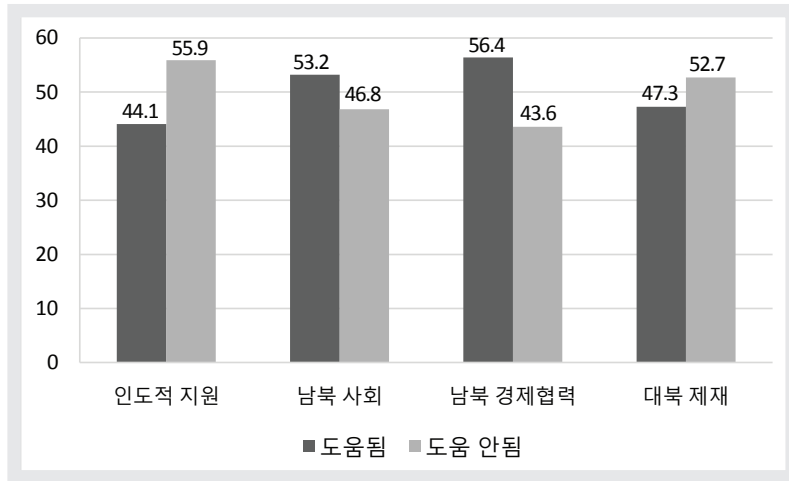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효용성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점차 회의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조사부터 2016년 조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조사되고 있다. 2014년에만 잠시 그 격차가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그 이전과 이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한다. 〈그림 1-3-3〉이 이를 어느정도 설명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대북제재나 인도적 지원보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의 개혁 개방에 효용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북한과 협력 및 교류하는 형태로 쌍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그림 1-3-3〉 대북정책별 북한 개혁개방 효용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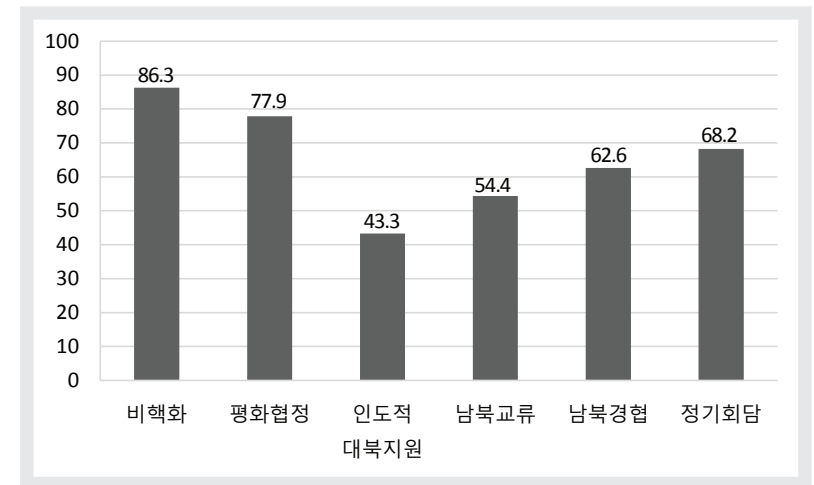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해서 비핵화(86.3%), 평화협정(77.9%), 정기회담 (68.2%), 남북경협(62.6%), 남북교류(54.4%), 인도적 대북지원 (4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핵 문제로 20년이 넘는 긴 기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역시 국민들의 우선순위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따른 남북 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분야의 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기회담, 남북교류협력 등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정

이자 수단일 뿐,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시급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4〉 대북사안별 시급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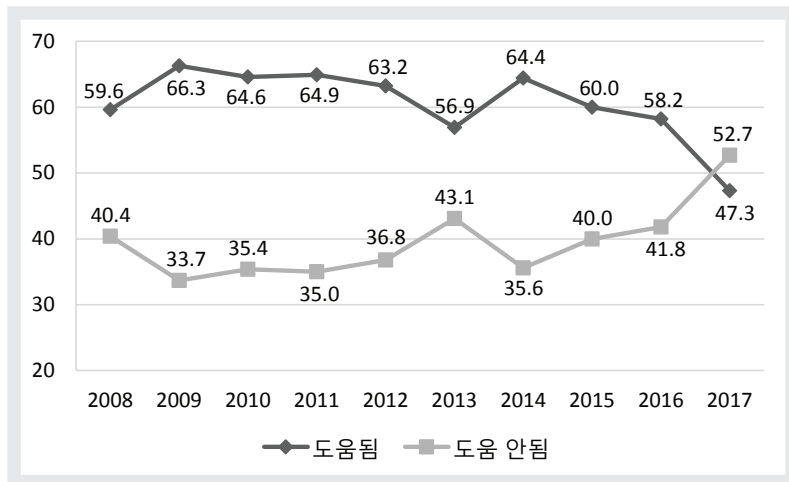


2017년 한 해 동안 급변해 온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비핵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상회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50% 이하인 47.3%를 기록한 것이다. 과거 조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60% 전후의 양상을 유지해 왔던 것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이 아닐 수 없다. 2016년까지는 북한의 핵실험이 직전에 있어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나, 2017년도에는 확연히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1-3-5〉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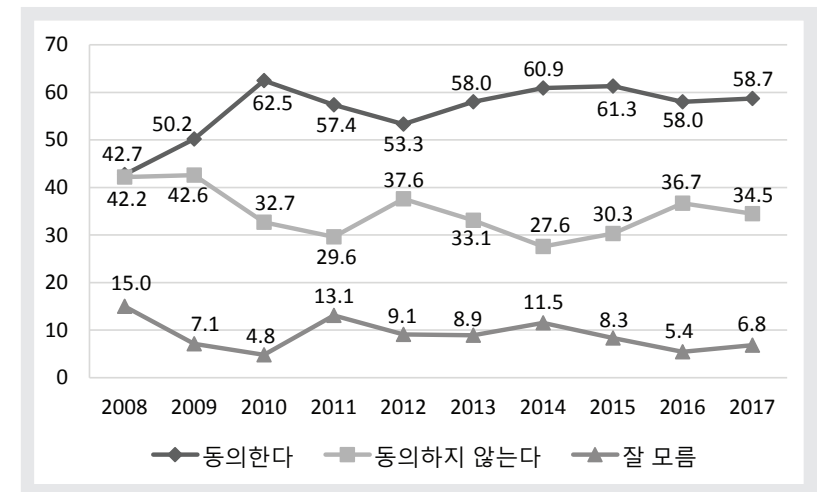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이 체결한 합의사항을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가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다. 2008년 조사부터 2017년 조사까지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동의한다는 비율이 6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0% 전후로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10)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기존 남북합의, 특히 정상 간 합의까지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은 일관되게 합의사항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1-3-6〉 남북합의 사항 계승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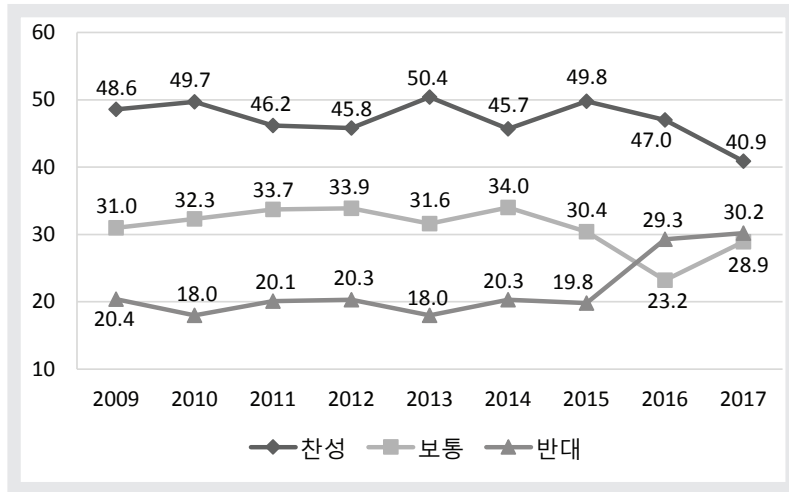
(단위: %)



개성공단 유지/재개(2016년부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2016년부터 반대의 응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으로써 유지에서 재개로 질문이 변경되었다. 특히, 2016년-2017년 사이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개성공단 유지와 재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회의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그림 1-3-7〉 개성공단 유지/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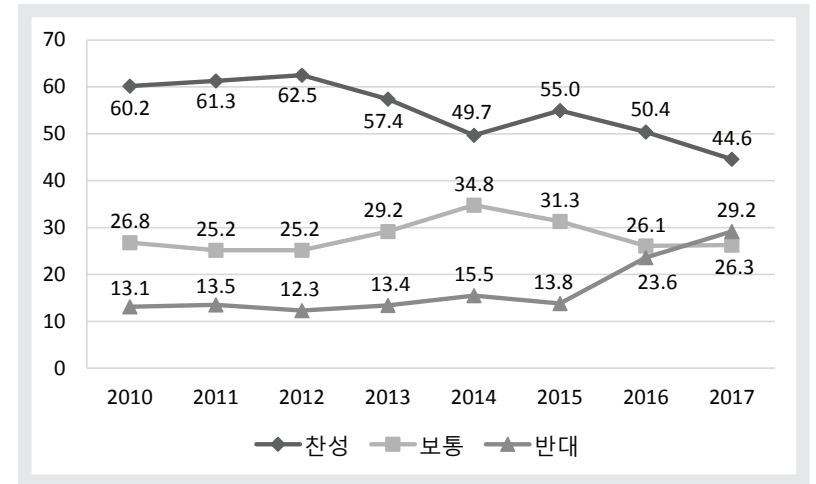
(단위: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찬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조사에 비하면 찬성이 16%가량 하락하였고, 10%대를 오갔던 반대가 2017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30%에 가까워졌다. 대북현금유입과 유입된 현금의 핵개발 전용 등에 대한 의혹이 결국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민족적, 정서적 공감대를 상회하여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켰다고 분석된다.

〈그림 1-3-8〉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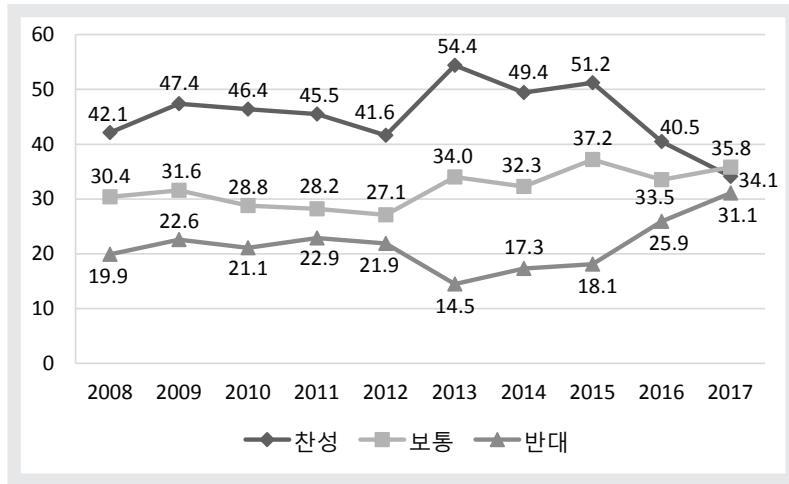
(단위: %)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이 34.1%, 반대가 31.1%, 보통이 35.8%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지지율이 높음에 따라, 대북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1/3이 넘는 응답자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핵문제-남북관계-교류협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9〉 북핵 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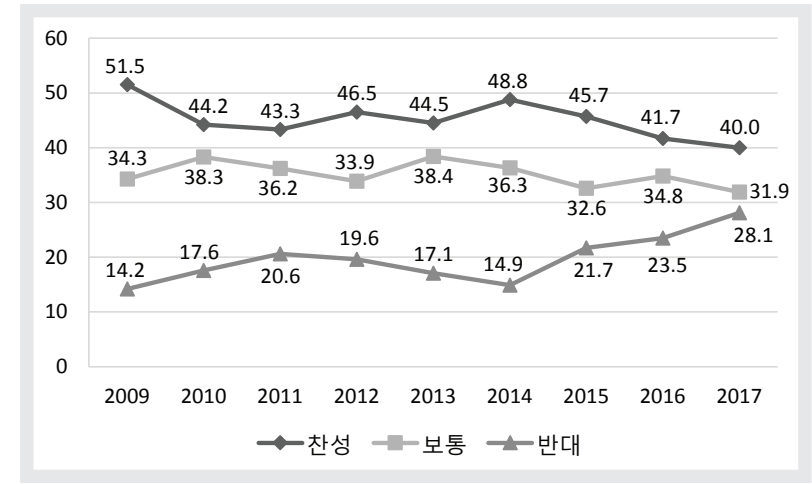
(단위: %)



‘대북 뼈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중단에 대해서는 찬성이 40%, 반대가 28.1%, 보통이 31.9%의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부가 대북 뼈라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기에 2016년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찬성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가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뼈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국민들 사이에 주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정보유입의 문제를 떠나서 뼈라 살포 행위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긴장의 고조를 고려한다면 뼈라 살포 문제는 간단히 찬성, 반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10〉 대북 뼈라 살포 중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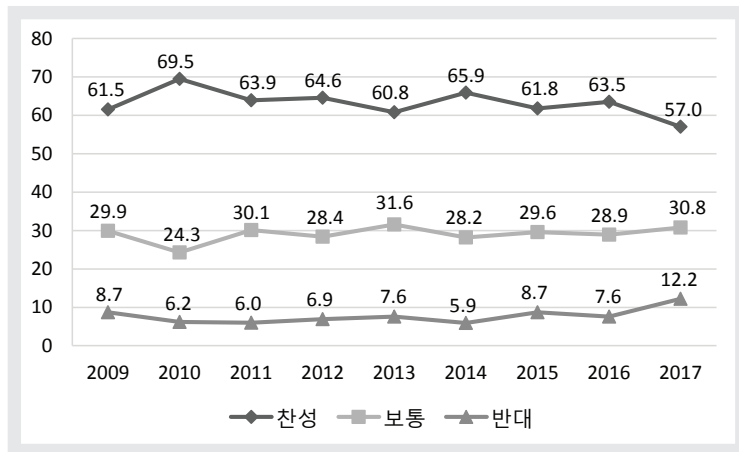
(단위: %)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57.0%, 반대가 12.2%, 보통이 30.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7년 조사에서 감소하긴 하였으나,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해왔다. 2017년 조사의 반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 역시 10% 전후로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이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유보층이 30%대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분석된다.

〈그림 1-3-11〉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단위: %)



4.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도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좌절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논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¹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와 존 맥케인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의 유사한 언급들과 함께, 한국의 자유한

11)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철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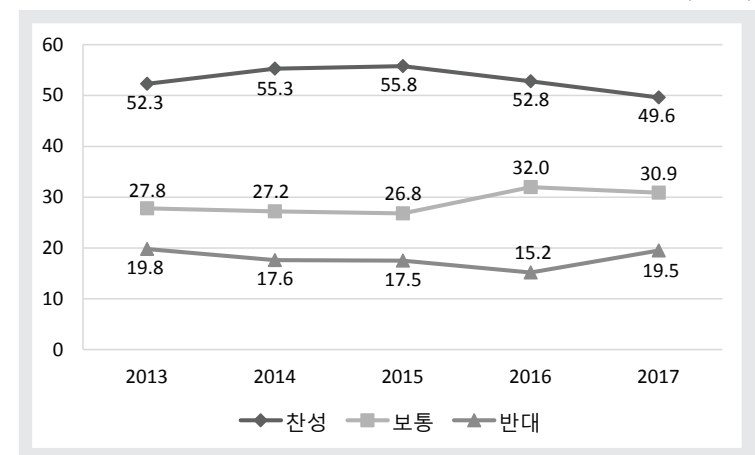
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논란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 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무장 요구를 일축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외교 전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민심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미세하게 하락하긴 했으나, 찬성 49.6%, 반대 19.5%, 보통 30.9%로 여전히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2013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50% 전후의 응답자들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2〉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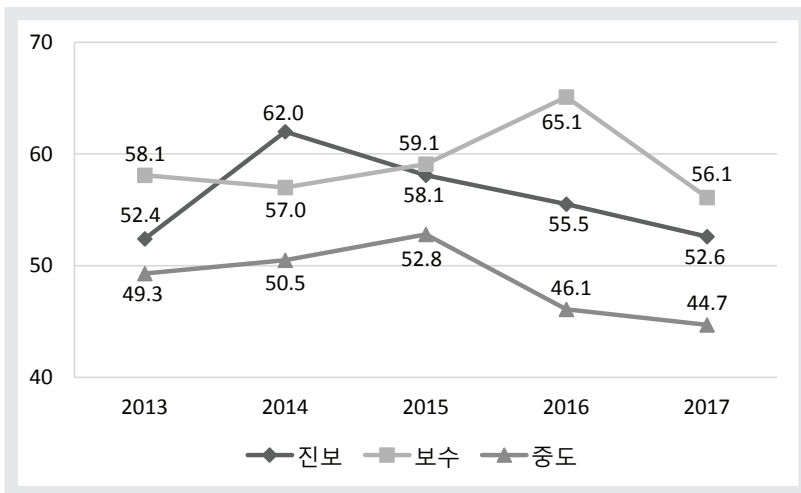
(단위: %)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가 56.1%, 진보가 52.6%, 중도가 44.7%로 나타난다. 2013년 조사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중도층에서의 찬성률이 가장 낮다는 점이 눈에 띄며, 진보와 보수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보수의 찬성률이 65.1%에 달했으나, 2017년도의 조사에서는 56.1%로 낮아진 부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는 지속적이었으며, 오히려 2017년도에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에 여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아마도 이미 핵무기 보유에 대해 2016년부터 사회적·공개적으로 논의되어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그림 1-3-13〉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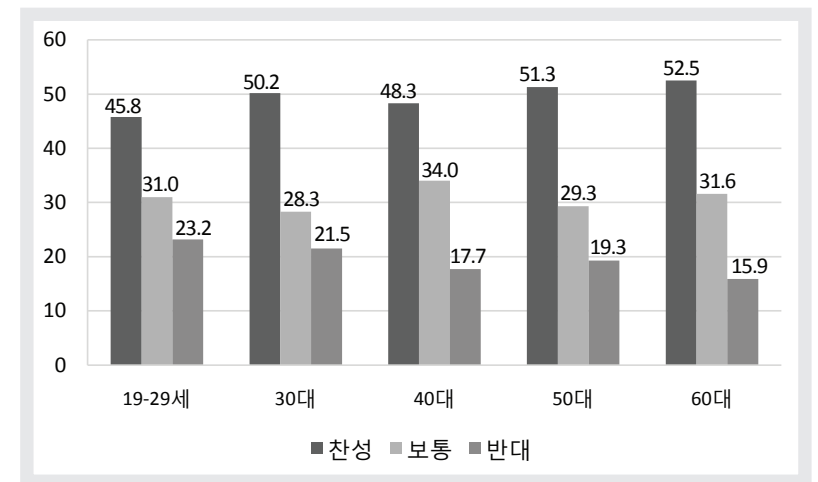
(단위: %)



연령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52.5%, 50대가 51.3%, 40대는 48.3%, 30대는 50.2%, 19-29세는 45.8%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조사에서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60대 이상이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19-29세가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차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 1-3-14〉 연령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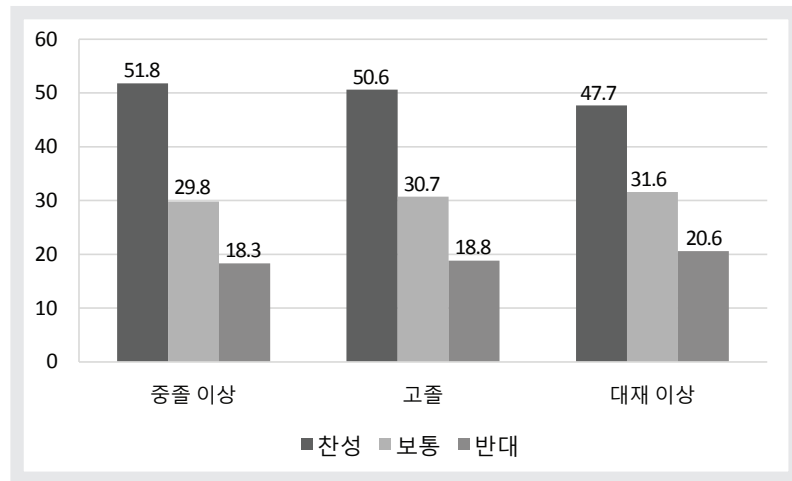
(단위: %)



교육수준에 따른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중졸 이상의 51.8%가 찬성, 고졸의 50.6%, 대학 재학 이상의 47.7%가 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높다고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일반화하기에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분류 역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5〉 교육수준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단위: %)



5. 소결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작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고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각도 점차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이는 국민들이 제재나 지원 등의 일방적 대북정책보다는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 등의 쌍방향적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보다 높은 효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2017년의 조사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9.3%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 대한 회의감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시기가 새 정부 출범이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특정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나 그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7년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한 해였음을 대변하듯, 86.3%의 응답자가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평화협정 77.9%, 정교회담 68.2%, 남북경협 62.6%, 남북교류 54.4%, 인도적 대북지원 43.3%로 위와 같은 순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핵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잡으면서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결과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 사안별 의견을 검토해 보면, 우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이 체결한 합의사항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주장 동의 비율이 60% 전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2016년부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최근 들어 반대의 응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견해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서는 찬성이 34.1%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지지율이 높음에 따라, 대북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는 결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대북 뼈라 살포 중단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가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 사이에 아직 주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끝으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에 감소치를 보이긴 하나,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60%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해 왔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내정 간섭이라는 인식보다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017년 조사에서 미세하게 하락하긴 했으나, 2013년 조사 이후 50% 전후의 응답자들이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해 오고 있다.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찬성을 보면 중도층에서 가장 낮고, 진보와 보수에서 뚜렷한 추세를 찾기는 어렵다. 교육수준별 찬성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령별 조사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60대 이상이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19-29세가 찬성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핵무기 자체 보유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수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북한 핵 미사일 위기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경우, 한국도 자체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 서론

2016-17년 한국과 미국의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대규모 촛불 행렬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 거리와 인터넷에서의 촛불 행진과 태극기 부대 간 경쟁과 대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집무 등을 거치면서 결국 2017년 5월 9일 문재인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도 극적이었다. 2017년 11월 8일 대통령선거인단을 정하는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힐러리 후보보다 지지를 적게 받았지만, 주별로 선거인단을 정하는 미국 대통령 선

거제도에 따라 승자가 되었다.¹² 2017년 1월 20일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다시 강한 미국”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반면,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기존 집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영향이 더 커져 “시진핑의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규약에 명시되었다. 시진핑을 황제로 칭하는 현상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강한 일본을 되찾자”라고 외치는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추문에도 불구하고 견재하다. 아베 총리에 대한 국내 지지기반이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18년째 집권 중이며, 6년 추가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선거에 의하여 정당성을 얻고 있다.

북한에서는金正은의 집권이 안정적인 듯하다.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하여 집권의 안정성을 과시한金正은은 국제사회를 향하여 호전적 입장과 유화적 입장을 섞어 표명할 정도로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극심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던 희망적 전망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한다.金正은의 장기집권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12]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가 받은 표가 62,985,134(46.1%),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가 받은 표가 65,853,652(48.2%)였지만, 트럼프 후보는 394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했고(63.4%), 힐러리 후보는 227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deral Elections 2016 (December 2017), pp.5-6].

2016-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 도전으로 인하여 긴박했다. 북한은 증폭형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만들었고 세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마친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도전은 동아시아에 전쟁 공포를 몰고 왔다. 정상들이 “화염과 분노,” “불바다”와 같은 호전적 언사를 사용하였고, 대규모 군사훈련이 한반도와 주변 해상, 육상, 공중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상 황을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할 정도였다.¹³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강한 지도자의 행보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통일평화연구원은 2017년 한국인의 통일외교를 조사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2017년 한국인의 의식조사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이 10년간 동일하거나 또는 비교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서 변화와 추세를 동시에 포착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친밀감, 위협감,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다.

2. 핏줄보다는 이념에 기반을 둔 친밀감

한국인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주변국에 대한 한

국인의 친밀감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이었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한국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표 1-4-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단위: %)

남한 주민의 인식						북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76.2	74.9	78.3	73.8	72.9	미국	1.5	1.4	2.1	0.0	0.0
일본	5.1	4.3	3.9	5.2	8.6	일본	0.0	0.0	0.07	0.07	0.0
북한	11.0	8.9	8.1	10.8	11.4	한국	13.0	16.2	22.9	15.0	22.7
중국	7.3	10.3	8.8	9.7	5.4	중국	83.2	79.7	72.9	76.8	71.2
러시아	0.5	1.0	0.9	0.4	0.1	러시아	2.3	2.7	1.4	6.5	6.1
합계 (명)	1200	1200	1200	1200	1196	합계 (명)	131	148	144	138	132

한국인은 주변국 중 미국에 가장 친밀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표 1-4-1〉가 보여주듯이, 미국을 향한 한국인의 친밀감은 압도적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53.3%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상승하여 2015년 78.3%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2016-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미국을 향한 친밀감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집권당의 변화는 아직 한국인의 친밀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13] 청와대, “한·캐나다 회담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청와대 뉴스룸(2017년 7월 8일).

일본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8.6%로 나왔다.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후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아직 10%를 넘지 못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2013년부터 2015년 일본을 향한 친밀감이 감소하던 추세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핵도전이 심해지고 중국의 압박을 경험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라는 잠재적 생각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해석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감은 10% 주변에서 움직인다. 2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7년 북한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가 24%였지만, 남북한 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핵도전 지속으로 북한을 향한 친밀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북한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10.8%에서 11.4%로 약간 상승했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 2017년 상반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유지되는 현상이 이례적으로 보인다.¹⁴

중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5.4%까지 떨어졌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이래 세 번째 낮은 수치다. 2016-17년 북한의 핵도전이 진행될 때,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

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고 한국 입장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도입한 사드에 대하여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였다. 박근혜 행정부 시기 한중 정상회담이 8차례 진행되었을 정도 한중 관계가 좋아 보였으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2016년 하반기에 무너졌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감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움직이는 한국인의 마음을 감성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7년 조사 결과는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2007년 이후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거의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미국 팀을 향한 응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한, 양국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북한을 떠난 마음이 미국으로 안착하기보다는 표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1-4-2〉 북한과 미국 간 가상 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한 팀	76.5	67.7	70.2	61.7	66.2	56.7	61.0	52.2	47.4	44.2
미국 팀	7.0	8.4	8.6	12.9	11.3	13.4	11.6	12.5	17.5	17.8
양팀 응원	6.4	9.8	9.9	10.9	9.8	11.2	11.7	14.8	15.6	14.2
응원 없음	10.0	13.5	10.9	14.3	12.8	18.7	15.7	20.4	19.4	23.9
기타	0.0	0.1	0.1	0.2	0.0	0.0	0.0	0.0	0.1	0.0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4] 2016년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진은 대북 친밀감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북한의 핵도전, 국제제재를 둘러싼 갈등,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북핵 문제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대북 친밀감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이해하기 어려웠다.[정근식 외, 2017, 『2016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124]. 2017년 조사에서도 대북 친밀감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는데,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2007년 조사 이후 미국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높았던 조사가 6회였고, 반대 경우는 4회였다. 북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남성이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높았던 조사가 6회였고, 반대 경우는 4회였다. 매년 조사에서 확인되는 미세한 성별 차이는 매년 조사에서 확인되는 미세한 성별 차이는 의미 있는 추세로 해석되기 어렵다.

〈표1-4-3〉 성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합계(명)
2013	남성	75.6	10.7	7.7	5.2	0.8	599
	여성	76.7	11.3	6.8	5.0	0.2	601
2014	남성	75.5	8.4	11.4	3.3	1.3	605
	여성	73.3	10.9	9.3	5.8	0.7	589
2015	남성	75.7	9.8	9.8	3.8	0.8	610
	여성	79.8	7.6	7.6	3.6	1.4	590
2016	남성	73.7	11.3	10.0	4.4	0.5	608
	여성	71.1	10.8	11.3	6.3	0.1	591
2017	남성	72.3	11.7	5.9	8.9	1.2	606
	여성	74.1	11.2	4.9	8.6	1.2	590

연령대별 친밀감은 수렴 현상을 보인다. 2007년 조사에서 20대 응답자 중 46.7%가 미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았고 60대 이상 응답자 중 76.5%가 미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았었다. 연령대 간 차이가 30%p 정도였다. 반면, 2013년 조사부터 연령대별 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이 연령대 사이에 거의 유사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친밀감에서 세대 간 차이를 찾기 어렵다.

큰 틀에서는 세대 간 수렴 현상이 일어나지만, 20대의 친밀감이 특이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대의 마음이 북한을 떠나는 현상이 2015년 조사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5년 조사부터 북한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는 응답자의 비율이 20대에서 최저점을 보인다. 2015년 조사 시점이 ‘목함지뢰’ 사건 이전임을 고려하면, 2015년 조사 결과는 특정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2016년 이후 조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향한 20대의 기피 정도가 매우 강하다. 둘째, 2017년 조사를 보면, 20대의 대미 친밀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2013년 조사부터 2016년 조사까지는 미국을 향한 20대의 친밀감이 60대 이상의 친밀감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의 이미지 변화는 20대에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표 1-4-4〉 연령대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9-29세	56.9	60.1	62.7	62.4	64.3	80.8	76.6	83.1	75.6	69.9
30-39세	53.3	67.7	64.7	67.4	61.0	74.5	72.3	76.8	70.5	70.6
40-49세	57.2	66.2	73.1	66.4	61.6	69.8	73.9	74.9	72.6	73.7
50-59세	72.0	76.9	83.5	73.0	72.8	78.5	73.8	73.9	69.5	75.3
60대 이상	78.8	81.6	80.2	85.4	78.9	82.0	77.8	81.4	74.7	75.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한										
19-29세	13.8	18.5	17.2	15.1	22.4	8.8	8.5	4.0	7.3	9.7
30-39세	26.5	17.3	17.9	15.5	22.3	10.2	9.5	7.6	9.3	11.8
40-49세	26.1	17.4	12.8	20.2	23.8	16.1	12.0	10.2	11.7	11.5
50-59세	13.6	10.3	9.8	14.8	15.3	9.6	9.1	13.0	14.9	10.0
60대 이상	10.0	9.2	12.8	9.0	14.7	7.0	7.4	8.1	11.3	14.5
중국										
19-29세	6.7	7.9	5.0	4.3	5.1	4.4	7.3	8.0	9.8	3.1
30-39세	9.9	4.5	3.8	4.1	7.1	6.5	11.0	10.1	13.1	6.3
40-49세	7.2	7.9	3.9	6.8	5.5	8.5	8.7	9.5	10.6	5.7
50-59세	7.5	4.1	4.1	7.0	5.4	8.5	13.8	7.9	10.7	7.3
60대 이상	6.3	3.4	3.5	1.1	6.3	9.0	12.0	8.1	9.0	4.4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을 향한 친밀감이 개별 조사 안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연도별 친밀감이 변동하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을 향한 친밀감이 학력별로 다르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을 향한 마음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 일본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비율이 대학교에서 수학했던 응답자 중 일본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비율보다 낮은 추세를 보인다. 저학력자들이 일본을 향한 감정적 반대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표 1-4-5〉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3			2014			2015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미국	75.9	75.5	81.6	75.5	73.7	72.8	76.7	80.2	72.9
일본	5.2	5.2	3.5	5.3	3.5	5.4	4.1	3.9	0.8
북한	12.4	10.4	8.8	9.9	9.7	7.6	8.3	7.9	14.0
중국	6.2	8.3	6.1	8.5	12.3	10.9	10.3	6.5	10.1
러시아	0.4	0.5	0.0	0.9	0.8	3.3	0.5	1.4	2.3
합계(명)	502	575	114	587	513	92	580	491	129
	2016			2017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미국	72.7	72.8	69.1	70.7	74.5	77.0			
일본	6.7	4.3	5.1	10.3	8.2	5.2			
북한	8.4	12.5	14.7	12.2	10.3	13.3			
중국	12.0	10.1	8.8	5.8	5.7	3.0			
러시아	0.2	0.3	2.2	0.9	1.3	1.5			
합계(명)	476	585	136	533	525	135			

지지 정당별 친밀감은 통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도-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미국에게 더 강한 친밀감을 보이고 북한과 중국에게 덜 친밀감을 보인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친밀감은 보수 정당 지지자와 중도-진보 성향의 정당 지지자 중간이었다. 정당별 친밀감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정당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2016년 조

사와 2017년 조사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미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은 비율이 65.5%에서 73.3%로 상승하였다. 이 변화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2017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 1-4-6〉 주요 지지정당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3			2014			2015		
	새누리	민주	지지 없음	새누리	새정치 민주 연합	지지 없음	새누리	새정치 민주 연합	지지 없음
미국	81.4	70.2	75.3	79.6	73.0	73.9	80.4	70.7	78.1
북한	7.4	14.0	11.9	7.4	11.2	9.6	7.3	13.4	8.3
중국	6.6	7.9	7.7	9.0	11.2	10.1	8.9	11.0	8.2
일본	4.0	7.9	4.8	3.7	3.7	5.1	1.9	4.9	4.2
러시아	0.6	0.0	0.6	0.3	0.8	1.3	1.6	0.0	1.1
합계 (명)	349	178	649	324	241	593	316	164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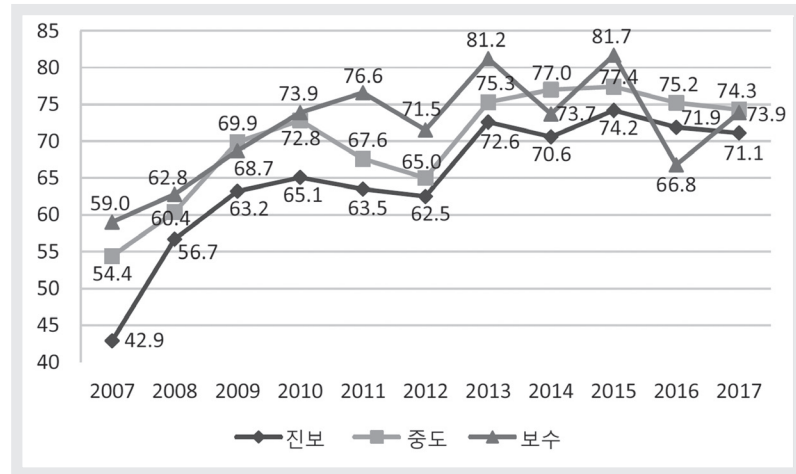
	2016			2017		
	새누리	더불어 민주	무당파	자유한국	더불어 민주	무당파
미국	77.9	65.5	73.2	75.2	73.3	73.2
북한	11.0	13.6	9.7	12.4	14.9	8.8
중국	7.6	13.6	9.7	4.4	4.6	5.1
일본	3.2	6.3	7.0	5.8	6.1	12.4
러시아	0.3	1.0	0.4	2.2	1.1	0.4
합계(명)	317	206	545	137	457	467

〈그림 1-4-1〉은 미국을 향한 친밀감과 정치 성향 간 관계를 보여주는 데, 세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미국을 향한 친밀감이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보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항상 높다.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도 미국을 향하여 강한 친밀감을 가지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미국을 향하여 매우 강한 친밀감을 가진다. 둘째, 10년 전에 비하여 정치 성향 사이에 수렴 현상이 진행되었다.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을 향한 친밀감이 정치 성향별로 최대 16% 차이가 났지만, 2017년 조사에는 미국을 향한 친밀감이 정치 성향별로 최대 3.2%에 불과하다. 셋째, 2016년 조사에 비하여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가진 대미 친밀감이 증가하였다. 2007년 조사 이후 추세를 보면 2016년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보였던 저조한 대미 친밀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2007년 조사 이후 7차례 미국을 향하여 최고 친밀감을 보였고, 2016년을 제외하면 항상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는 미국에게 더 높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조사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보인 대미 친밀감이 가장 크지는 않았지만, 중도 성향의 대미 친밀감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¹⁵⁾

15) 2016년 정치 성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는 일관되게 예외적 현상을 보였다. 보수 성향의 대미 친밀감이 다른 정치 성향보다 가장 낮았고, 보수 성향의 대북 친밀감이 다른 정치 성향보다 최고였다. 2016년 조사 결과를 검토한 연구진이 이 조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지만(정근식 외, 2017, p.131).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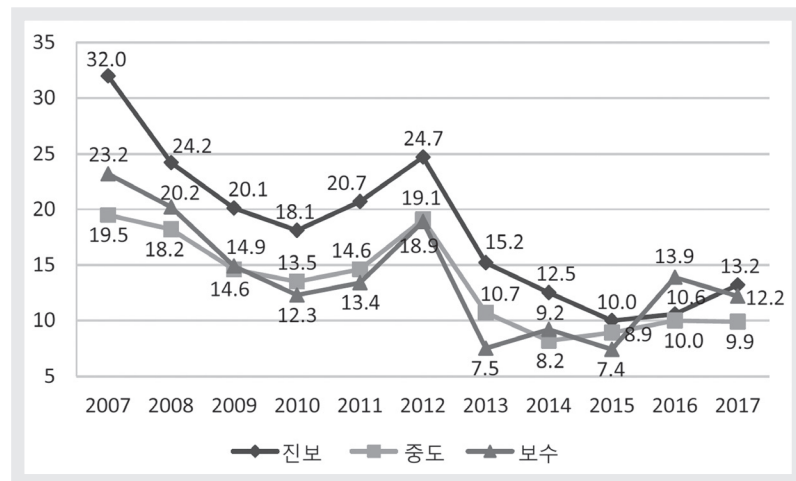
〈그림 1-4-1〉 정치 성향별 대미 친밀감

(단위: %)



〈그림 1-4-2〉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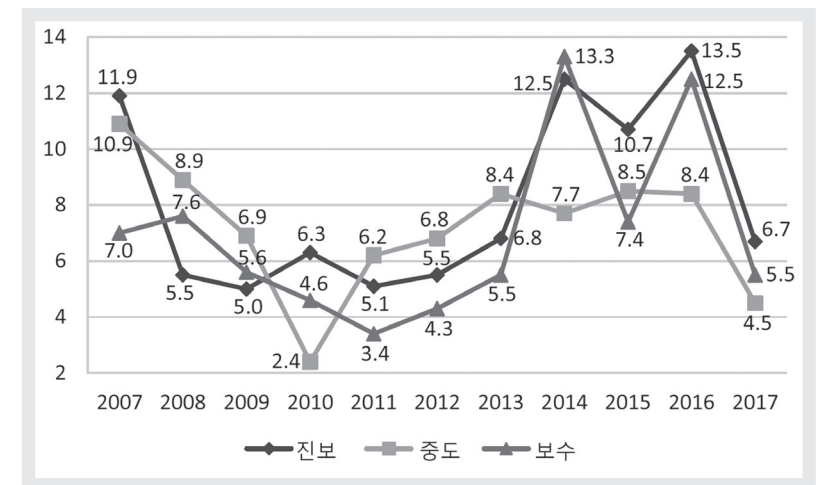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4-2〉는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을 보여주는데, 정치 성향별 대미 친밀감의 대칼코마니 현상이 나타난다. 2016년 조사결과를 제외하면, 진보 성향의 대북 친밀감이 다른 정치 성향보다 높지만, 보수 성향의 대북 친밀감이 다른 정치 성향보다 낮다. 2007년 이후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이 수렴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2007년 조사에서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의 최대 차이가 12.5%p지만, 2017년 조사에는 정치 성향별 대북 친밀감의 최대 차이가 3.3%p이다.

〈그림 1-4-3〉 정치 성향별 대중 친밀감

(단위: %)



2017년 조사에서 정치 성향별 대중 친밀감이 모두 급락한다. 2016-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정치 성향을 초월하여 중국에 대한 친밀감을 떨어뜨렸다고 추정된다. 정치 성향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 친밀감이 정치 성향별로 수렴했다. 대중 친밀감의 중기 추

세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한 가지 관측된다. 2010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중도 성향의 대중 친밀감이 보이는 진폭이 다른 정치 성향보다 현저하게 작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응답자가 변화하는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현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추정된다.

3. 고착되는 북방 위협감

한국인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로부터 위협감을 느낄까? 북한의 핵도전, 아베 행정부의 우경화 경향, 힘을 통한 문제해결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러시아 군부의 영향력 증가,¹⁶ 중국 군사력의 증가¹⁷ 등 주변 5개국이 모두 화해보다는 대결적 입장을 취하는 시점에서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인의 위협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이다. 응답자가 한국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표 1-4-7〉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남한 주민의 인식						북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4.4	5.4	4.7	4.7	5.0	미국	71.4	73.8	65.7	84.1	75.8
일본	16.0	24.6	16.1	10.0	7.8	일본	6.8	9.7	12.6	3.6	5.3
북한	56.9	49.8	54.8	66.7	62.4	한국	1.5	2.1	1.4	2.9	1.5
중국	21.3	17.6	23.3	16.8	23.0	중국	20.3	14.5	19.6	8.0	15.2
러시아	1.3	2.6	1.3	1.7	1.8	러시아	0.0	0.0	0.7	1.4	0.0
합계 (명)	1200	1199	1200	1200	1200	합계 (명)	121	133	145	143	138

한국인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았다. 2009년부터 북한발 위협감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6년 조사에서 최고점(66.7%)에 달했다. 전년도 조사보다 북한발 위협감이 소폭 하락했지만(66.7% → 62.4%), 여전히 많은 한국인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북한발 위협감이 소폭 하락한다. 2016-2017년 사이 조사결과와 국제정세를 종합하면, 2016년 북한발 위협감이 최고점을 찍은 조사 결과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반영하였다고 추정된다.

한국인은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꼽았다. 2010년 천안함포격과 연평포격 이후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행보로 인하여 한국인의 중국 위협감이 악화되어, 2011년 조사에서 최고점(33.6%)을 기록했다. 박근혜 행정부의 등장 이후 한중관계가 복원되면서 2016년

16] Andrew Osborn and Jack Stubbs, “Russia’s Defense Minister Has Been Showing Up in Unexpected Places as the Military Increases Its Influence under Putin,” Reuters (2017.12.13)

17] 중국의 군사비는 2006년 4,410억 위안에서 2016년 1조 431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in Local Currency, 1997–2006” &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in Local Currency, 2007–2016,” p.11 & 18.

중국발 위협감이 16.8%까지 완화되었다. 반면, 2016년 하반기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이 진행되자,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중국발 위협감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일본발 위협감은 현저하게 줄었다. 박근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위반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발 위협감도 악화되었다. 2014년 조사에서 무려 24.6% 응답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일본을 꼽았었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일본발 위협감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만이 일본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국으로 꼽았다. 북한의 핵도전과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은 잠재적 위협국으로 일본보다는 현재적 위협국으로 북한과 중국에 관심을 둔다고 보인다.

2016-17년 사이 미국발 위협감의 변화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2017년 조사에는 미국발 위협감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 재임기 한국인 중 21.2%가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했었던 현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 초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약간 상승했지만, 의미 있는 추세로 판단할 정도가 아니다.

성별 위협감 차이에 관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세 가지 추세가 발견된다. 첫째, 북한발 위협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연도별 성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 연도 사이에는 순위가 변동된다. 2007년 조사 이후 여성의 북한발 위협감이 높았던 사례가 7회, 남성의 북한발 위협감이 높았던 사례가 4회다. 둘째,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표현했다.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이래 2008년을 제외하고(남성 14.6%; 여성 14.7%), 중국을 한반도 평화위협국으로 꼽은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성별 차이는 실질적 의미와 통계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셋째,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졌다. 2010년 조사와 2015년 조사를 제외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꼽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감을 평가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의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이 현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1-4-8〉 성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단위: %)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합계(명)
2013	남성	3.7	59.6	22.0	13.9	0.8	599
	여성	5.2	54.2	20.6	18.1	1.8	601
2014	남성	4.8	48.4	20.0	24.5	2.8	605
	여성	6.3	50.3	15.8	25.8	1.9	589
2015	남성	5.7	54.4	23.3	15.4	1.1	610
	여성	3.7	55.6	23.2	16.1	1.4	590
2016	남성	3.9	64.4	20.2	10.8	0.7	608
	여성	6.1	65.4	14.7	11.2	2.5	591
2017	남성	4.0	62.2	24.0	8.4	1.5	606
	여성	6.1	62.6	22.0	7.1	2.2	590

연령별 위협감 조사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첫째, 연령별 수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조사에서 20대 이하 응답자 중 21.6%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 중 6.3%만이 한반도 평화의 위협국으로 미국을 꼽았다. 북한발 위협

을 평가하는데도 2012년까지는 연령별 차이가 심각했었다. 반면 2013년 이후 연령별 차이가 미세해졌다. 오히려 20대 이하 응답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꼽는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아졌다. 둘째,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이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북한발 위협감을 더 약하게 가지고 있으며,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 20대 이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위협감,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위협감을 가졌었는데, 2017년 조사에도 이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이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10년 동안의 사회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연령대별 상이한 위협감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표 1-4-9〉연령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9-29세	21.6	20.1	11.9	12.0	11.0	3.6	4.0	4.0	4.4	4.0
30-39세	17.2	13.4	9.3	8.9	12.1	4.4	6.4	6.3	5.9	7.7
40-49세	15.8	12.1	6.9	10.4	9.4	6.6	7.6	4.7	5.8	4.2
50-59세	10.7	3.6	6.2	5.1	6.9	3.0	4.7	4.3	6.1	5.4
60대 이상	6.3	3.4	1.2	1.1	5.3	4.0	2.8	4.3	2.3	3.9
북한										
19-29세	32.7	51.5	50.5	52.3	44.7	59.2	54.8	57.8	67.8	64.2
30-39세	31.8	49.8	51.9	43.0	40.8	58.5	47.9	54.0	63.6	56.8
40-49세	33.9	51.8	57.4	35.5	45.6	49.8	41.6	57.8	61.7	62.1
50-59세	36.9	57.9	61.3	52.0	51.7	59.6	50.2	52.6	62.7	62.3
60대 이상	33.8	58.6	66.3	56.2	67.4	61.0	60.2	52.4	70.1	66.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19-29세	13.4	9.6	23.1	24.0	28.2	21.6	17.7	24.4	17.1	21.7
30-39세	14.6	17.9	25.6	36.4	32.6	20.4	21.5	23.6	17.4	24.8
40-49세	14.4	15.4	27.9	39.4	33.9	26.9	19.1	20.7	19.7	26.1
50-59세	15.0	21.0	20.6	33.6	30.3	15.6	16.0	26.5	18.6	22.3
60대 이상	18.8	19.5	22.1	31.5	20.0	22.0	8.3	21.0	14.0	19.7

학력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간 관계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관측된다. 첫째,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한 해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대학 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일본을 더 높은 비율로 꼽는다. 학력에 따라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달라지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위협감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둘째, 고학력자의 위협감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위협 인식이 조사 당시 사건을 반영하여 변화하지만, 고학력자의 위협감이 가지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예를 들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반영하는 2016년 조사에 대학 교육을 경험하며 북한을 평화위협국으로 꼽은 비율이 64.3%로 전년에 비하여 5.7% 상승에 그쳤다. 반면, 중졸 이하 학력의 경우 2015년 50.4%에서 69.1%로 상승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저학력자 응답자들이 조사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표 1-4-10〉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3			2014			2015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미국	5.6	3.3	5.3	5.4	5.4	6.5	4.7	4.3	7.0
일본	15.1	16.7	16.7	21.9	29.4	20.7	14.7	15.3	22.5
북한	57.2	56.5	56.1	51.5	46.4	52.2	58.6	51.9	50.4
중국	21.1	22.3	18.4	19.0	16.4	16.3	20.9	27.5	17.8
러시아	1.0	1.2	3.5	2.0	2.3	4.3	1.2	1.0	2.3
합계(명)	502	575	114	587	513	92	580	491	129

	2016			2017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미국	5.7	5.3	1.5	4.9	5.3	4.4
일본	11.3	10.1	14.0	8.0	7.2	8.9
북한	64.3	64.3	69.1	60.4	64.3	62.2
중국	17.9	18.5	12.5	24.7	21.8	21.5
러시아	0.8	1.9	2.9	2.1	1.3	3.0
합계(명)	476	585	136	533	525	135

주변국에 대한 지지 정당별 위협 인식은 두 가지 특이점을 보인다. 첫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위협감,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감을 가진다. 반면, 중도-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감,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감을 표출했다. 2017년 조사에서 지지정당별 차이가 사라졌는데, 이는 과거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대

거 중도-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2017년 조사에서 특이하게 지지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위협국으로 꼽은 비율이 보수당 지지자 가운데 북한을 평화 위협국으로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2007년 조사부터 2016년 조사까지는 무당파의 북한 위협감이 보수 정당 지지자와 진보 중도 정당 지지자 사이에 있었다. 2016년까지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2017년 조사에서 진보 중도 정당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2017년 조사 결과가 다른 조사연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나왔다고 추정된다.

〈표 1-4-11〉 주요 지지정당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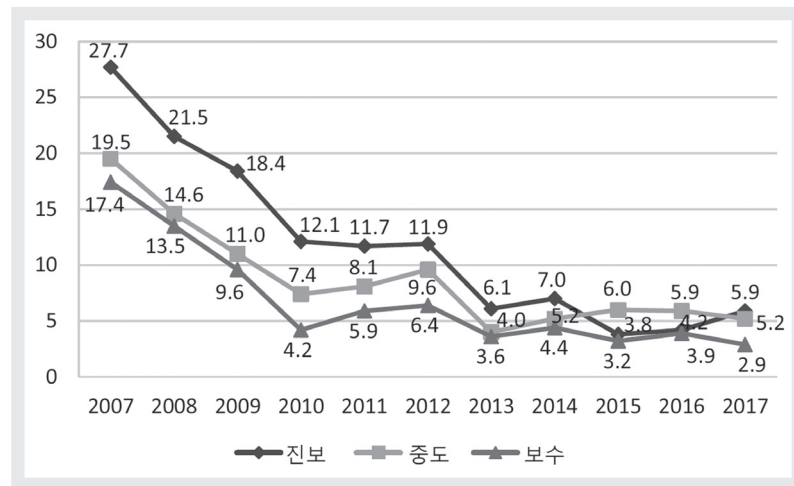
	2013			2014			2015		
	새누리	민주	지지 없음	새누리	새정치 민주 연합	지지 없음	새누리	새정치 민주 연합	지지 없음
미국	2.6	6.7	4.5	2.2	7.0	6.2	4.4	6.1	4.7
북한	60.2	49.4	57.6	56.7	40.5	49.4	57.3	47.6	55.5
중국	20.0	21.3	22.0	14.2	20.7	18.6	18.7	28.0	24.2
일본	15.8	21.9	14.5	24.5	30.2	23.1	18.7	16.5	14.4
러시아	1.7	0.6	1.4	2.5	1.7	2.7	1.0	1.8	1.3
합계(명)	349	178	649	324	241	593	316	164	708

	2016			2017		
	새누리	더불어민주	무당파	자유한국	더불어민주	무당파
미국	3.5	5.8	4.6	3.6	5.7	2.8
북한	69.7	58.7	67.2	61.3	61.4	66.4
중국	15.5	19.4	17.2	22.6	24.9	22.6

	2016			2017		
	새누리	더불어민주	무당파	자유한국	더불어민주	무당파
일본	9.5	16.0	8.8	8.0	7.0	7.7
러시아	1.9	0.0	2.2	4.4	1.1	0.6
합계(명)	317	206	545	137	457	467

〈그림 1-4-4〉 정치 성향별 대미 위협감

(단위: %)



〈그림 1-4-4〉는 정치 성향별 대미 위협감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다. 첫째, 대미 위협감이 정치 성향 사이에서 수렴되었다. 2007년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 27.7%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은 반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 17.4%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10년 전과 달리 양 정치 성향 간 차이가 3%p에 불과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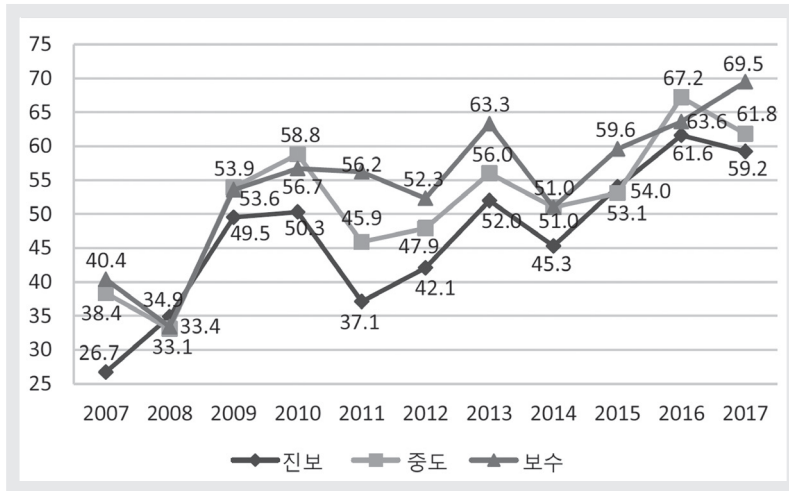
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하자,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더 꼽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그림 1-4-5〉는 정치 성향별 대북 위협감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모든 정치 성향에서 북한발 위협감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영되었던 2008년 조사 이후 북한발 위협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조사는 전년에 비하여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북한발 위협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2016: 63.6% → 2017: 69.5%). 둘째,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북한발 위협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보수 성향의 대북 위협감은 6차례 정치 성향별 위협감 중 최고에 도달했다. 중도 성향의 대북 위협감이 최고였던 시기는 세 차례있었다.

〈그림 1-4-6〉은 정치 성향별 대중 위협감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다. 첫째, 정치 성향별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크게 보인다. 시계열 결과를 보면, 정치 성향별 대중 위협감이 유사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7년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대중 위협감이 감소한 듯 나타나는데, 이는 보수 성향의 대북 위협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16-17년 사이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보다는 북한의 핵도전이 보수 성향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국으로 지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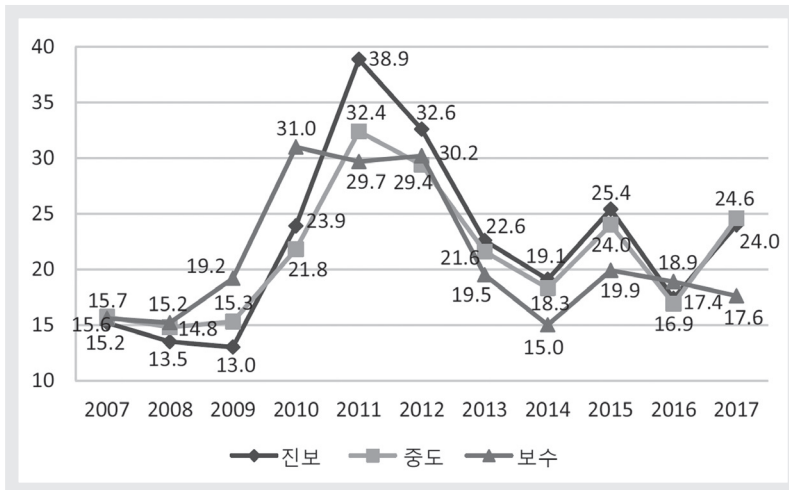
〈그림 1-4-5〉 정치 성향별 대북 위협감

(단위: %)



〈그림 1-4-6〉 정치 성향별 대중 위협감

(단위: %)



4.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통일평화연구원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응답자에게 특정 주변국이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 어느 분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특정 국가에 대하여 응답자가 구조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계열 관측에서 주변국에 대한 국가상이 변화하는지를 관측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변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질문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국가상이 한반도 분쟁에서 특정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절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이 증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2.3% 증가하였으며,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0.3% 증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힘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하자,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국가 이미지가 부정적 방향으로 바뀌는 듯한 기미가 보인다. 이 현상은 후속 조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1-4-12〉 미국의 국가 이미지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협력 대상	70.2	73.6	76.4	75.0	77.3	79.9	80.6	77.8	80.0	79.5
경쟁 대상	13.0	13.7	14.6	14.2	11.0	11.8	11.8	14.3	12.8	10.8
경계 대상	14.8	11.7	8.2	9.7	10.9	7.8	7.2	7.3	6.9	9.2
적대 대상	2.0	0.9	0.8	1.1	0.8	0.6	0.5	0.5	0.3	0.6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취할까?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써 1950년 이후 한국 방위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인 2016년 조사에는 73.3%의 한국인이 미국의 한국 지원을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인의 인식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6.8%p 하락하였고, 자국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4.8%p 증가하였으며 미세하지만 중립, 심지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가하였다.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예상되는 태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지원	57.4	65.1	74.7	72.4	72.8	75.2	72.7	71.3	73.3	66.5
북한 지원	1.4	0.7	0.7	1.6	1.8	1.6	1.6	4.7	2.6	3.3
자국 이익	37.4	32.3	23.0	24.1	23.8	20.9	24.0	22.1	22.5	27.3
중립	3.8	2.0	1.7	1.9	1.6	2.3	1.8	1.9	1.7	2.8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2) 중국의 국가 이미지

한국인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협력, 경쟁, 경계 중 어느 쪽으로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이는 경제 영역에서 한중간 경쟁 관계를 반영하는 듯하다. 반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포격, 2013년 한반도 위기 등 남북 간 긴장 직후에는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현안을 반영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변화한다.

〈표 1-4-14〉 중국의 국가 이미지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협력 대상	23.7	21.1	19.7	20.5	22.4	28.5	34.0	34.0	30.2	27.5
경쟁 대상	38.2	42.0	45.1	40.2	36.9	43.9	34.6	39.6	39.3	31.0
경계 대상	32.9	33.3	31.8	34.9	35.3	24.5	29.1	24.4	27.5	38.3
적대 대상	5.1	3.6	3.4	4.4	5.4	3.1	2.3	2.0	3.0	3.2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2016-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을 경험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2.7%p 감소하였고,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7%p 하락하였으며,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8%p 증가하였다. 중국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중국 경계감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5〉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예상되는 태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지원	4.5	3.1	3.3	2.4	1.3	3.3	5.4	5.4	5.8	1.3
북한 지원	30.4	38.5	55.5	62.8	58.3	49.7	42.0	46.5	44.5	52.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국 이익	52.2	50.8	37.4	31.0	37.5	41.4	46.6	43.3	43.6	40.1
중립	13.0	7.7	3.8	3.8	2.8	5.6	6.0	4.8	6.1	6.3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다시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 중 한중관계가 외형적으로 좋아보일 때, 한국인들 사이에 북중동맹이 끝났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리라는 예상이 확연히 감소했었다. 반면, 2016-17년을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했다.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5%p 감소,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9%p 증가, 자국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5%p 감소하였다.

3) 일본의 국가 이미지

한국인에게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경쟁과 경계로 정리된다. 한국인의 마음 속에서 일본의 상은 경쟁과 경계 사이에서 움직이는 현상이 주로 관측된다. 반면,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감소한다. 2016-17 북한의 핵도전이 강해지면서, 한국인의 마음 속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4%p 증가, 적대 대상으

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7%p 감소하였다. 심정적으로 여전히 일본에 대하여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북한발 위협이 강해지면서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표 1-4-16〉 일본의 국가 이미지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협력 대상	16.7	19.5	14.3	13.8	16.9	11.8	11.3	12.3	15.8	17.2
경쟁 대상	35.6	49.4	50.9	40.8	35.3	41.4	27.5	35.3	40.9	38.9
경계 대상	31.0	26.2	28.0	34.6	35.8	35.3	43.2	40.6	33.8	37.0
적대 대상	16.7	4.9	6.8	10.7	12.0	11.4	18.0	11.8	9.5	6.8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절대 다수의 한국인은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강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 고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말기 한일관계가 복원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속되고 있다. 2016-17년 북한발 위협 아래,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감이 미세하게 생겨,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차후 연구의 관심 대상이다.

〈표 1-4-17〉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예상되는 태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지원	14.7	24.6	17.1	15.3	11.6	11.3	8.1	7.9	8.9	10.4
북한 지원	4.3	3.7	2.3	3.2	5.0	2.9	7.1	8.5	6.3	5.0
자국 이익	69.4	66.0	71.6	74.3	75.4	75.1	75.4	71.9	74.7	73.8
중립	11.6	5.7	9.1	7.2	8.0	10.7	9.4	11.7	10.2	10.8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한국인의 인식에게 러시아는 관심 밖의 나라다. 한국인은 러시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쟁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서 러시아는 주로 경계 대상이다.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6-17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호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3% 증가하였다. 러시아를 경쟁 또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도 여전히 많지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6-17년 러시아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8% 감소하였다.

〈표 1-4-18〉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협력 대상	28.8	28.1	21.7	24.7	24.0	22.8	22.8	22.0	20.3	20.9
경쟁 대상	35.2	39.8	40.6	39.3	32.9	38.5	30.9	39.6	38.8	32.0
경계 대상	31.9	29.8	33.5	33.1	38.1	34.8	42.4	34.7	37.7	43.0
적대 대상	4.1	2.3	4.3	2.8	5.0	4.0	3.9	3.7	3.3	4.1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다수의 한국인은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2017년 조사에서도 62.2%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수 한국인은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에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2016-17년 조사를 비교하면, 러시아를 향한 한국인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가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6% 감소,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2% 증가, 중립을 지킬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0% 감소하였다.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러시아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북한의 정책이 나타나면서, 러시아를 향한 한국인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

〈표 1-4-19〉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예상되는 태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지원	6.0	4.3	5.8	4.2	3.7	3.8	3.3	3.3	4.3	2.7
북한 지원	20.9	22.5	19.2	15.4	11.8	12.4	14.3	23.3	15.0	21.2
자국 이익	54.7	57.7	59.5	61.7	68.1	67.4	68.8	59.0	63.8	62.2
중립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4.3	17.0	14.0
합계 (명)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한국인의 마음

한반도의 통일에 필요한 내적 동력에 필적할 만큼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정치에서 비롯되었고, 한반도 안에서 사회 세력 간 갈등으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통일평화연구원은 주변국이 통일 과정에서 취할 행동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1-4-2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남한 주민의 인식					북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원함	40.6	41.1	48.1	37.8	40.2	19.5	21.1	33.1	18.8	23.5
	원하지 않음	59.4	58.9	51.9	62.2	59.8	80.5	78.9	66.9	81.2	76.5
	합계(명)	1200	1195	1200	1200	1200	133	147	145	138	132
중국	원함	18.3	19.2	22.3	14.9	14.7	16.7	14.9	14.4	17.4	14.4
	원하지 않음	81.7	80.8	77.7	85.1	85.3	83.3	85.1	85.6	82.6	85.6
	합계(명)	1200	1198	1199	1200	1200	132	148	146	138	132
일본	원함	14.4	12.6	14.0	14.9	1.3	6.8	6.8	8.3	10.9	3.8
	원하지 않음	85.6	87.4	86.0	85.1	98.7	93.2	93.2	91.7	89.1	96.2
	합계(명)	1200	1197	1199	1200	1200	132	146	145	138	132
러시아	원함	17.6	16.5	17.0	15.8	15.5	34.4	30.1	26.6	34.8	23.5
	원하지 않음	82.4	83.5	83.0	84.2	84.5	65.6	69.9	73.4	65.2	76.5
	합계(명)	1200	1195	1198	1200	1200	131	146	143	138	132

절대다수의 한국인은 주변국 중 어떤 나라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분단 상황을 주변국이 변경시킬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2007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2016년 조사 결과와 201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첫째,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2.4%p 증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북한의 핵도전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종종 비추면서 미국이 한반도(무력)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아베 행정부의 우경화를 바라보면서 한국인은 일본의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추정된다.

한국인은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에 대해서 한국인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 필요 정도에 대해 느낌도 증가하는 듯하다.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 역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다수의 한국인이 판단한다. 2016년 조사 결과와 201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이 4.5% 증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제제재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변국의 개입을 통하여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는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

〈표 1-4-21〉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단위: %)

	2008-15	2016	2017	2008-15	2016	2017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국	81.9	91.4	92.0	7.0	8.6	8.0
중국	74.7	82.4	82.8	14.1	17.6	17.3
일본	62.1	58.5	61.8	26.8	41.5	38.3
러시아	63.1	60.9	65.6	25.8	39.1	34.4

한국인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국의 공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국이 모두 현상을 유지하려 한

다고 한국인이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통일 과정에서 내적 동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주변국 가운데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 조사 문항이 2015년부터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언급하기 어렵다.

〈표 1-4-22〉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단위: %)

	2015	2016	2017
남북 협력	33.2	35.7	35.0
한미 협력	23.8	25.3	30.2
한중 협력	6.4	6.8	6.1
모두 중요	36.6	32.2	28.8
합계(명)	1200	1200	1200

〈표 1-4-23〉 정치 성향별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단위: %)

		남북 협력	한미 협력	한중 협력	모두중요	합계(명)
진보	2015	39.2	24.7	7.6	28.5	291
	2016	42.6	24.2	5.8	27.4	310
	2017	46.0	22.3	6.7	25.0	404
중도	2015	29.3	25.1	5.9	39.7	597
	2016	33.4	26.4	7.0	33.1	610
	2017	27.1	37.5	6.6	28.7	557
보수	2015	34.9	20.5	6.4	38.1	312
	2016	32.9	24.3	7.5	35.4	280
	2017	34.7	26.4	3.8	35.1	239

통일 과정에서 내적 동력과 주변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정도에 대하여 정치 성향별 차이가 관측되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남북 협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성치 성향별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이 관측되는데, 중기 추세로까지 이어질지 눈여겨볼 사안이다.

6. 소결

2017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면서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첫째, 주변국을 향한 한국인의 친밀감은 이제 혈연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향한 친밀감이 여전히 높고, 일본을 향한 친밀감이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을 향한 친밀감은 답보상태이고, 중국을 향한 친밀감이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관계가 증진되면서, 러시아를 향한 친밀감도 약화되었다. 둘째,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없다. 연도별로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성별 순위가 일정하지 않다. 셋째,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이 연령대 사이에 거의 유사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 간 친밀감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 넷째, 20대의 친밀감이 특이한 추세를 보인다. 북한을 향한 20대의 마음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냉정하다. 다섯째, 저학력자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 저학력자들이 아동기에 습득한 반일 감정을 교육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사로 추정된다. 여섯째,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도-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미국에게 더 강한 친밀감을 보이고 북한과 중국에게는 낮은 친밀감을 보인다.

주변국을 향한 위협감에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첫째, 북한과 중국발 위협감이 고착되었다. 2015년 남북한 국지전을 예상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목함지뢰 사건’ 이후 북한발 위협감이 소폭 감소하지만, 북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한국인에게 인식되고 있다. 2016-17년 사이 한중관계의 악화로 중국발 위협감도 악화되었다. 반면 일본발 위협감은 현저하게 줄었다. 둘째,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더 가지며,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미국발 위협감을 더 크게 느낀다. 성별 차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현상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령별 수렴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이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저학력자가 일본발 위협감을 더 느끼며, 현안에 따라 저학력자의 위협감이 더 많이 변동한다. 다섯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위협감,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감을 가진다.

통일과 관련된 인식조사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한국인은 주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든 주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서 통일에 필요한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한국인은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동의하며,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수

가 동의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와의 협조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소원한 북·중관계를 북·러관계의 강화로 타개하려는 북한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통일담론 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제6장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제7장 '위협인식(perceived threat)'과
탈북자·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제5장

통일담론 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¹⁸

1. 서론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을 지속하여 왔다. 분단 초기 이승만 정부는 통일교육보다는 북진무력통일을 위시한 방공·반공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정권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대부분 강력한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건설에 대한 중시와 함께, 체제 경쟁 속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반공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남북한 통일을 중점으로 한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노태우 정권부터라 볼 수 있다.¹⁹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남북관계의 완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시행,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통일교육은 다양한 담론을 통해 통합의 관점으로 보다 발전·확장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²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일 당위성 담론과 관련하여 통일교육과 다양한 이론적 담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의들은 대부분 이론적 수준에서 각각의 담론을 분류 및 비판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경향이 있다. 반면, 이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특히 각 담론에 영향을 받은 집단, 각 통일 담론에 속한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들의 통일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 담론에 속한 집단 자체에 대한 분석, 즉,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구성, 그리고 이들의 정책, 교육 등에 대한 입장과 영향에 대한 분석은 그간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 당위성 담론과 통일교육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결시킨 연구도 각각의 담론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세 가지 통일담론집단에 따른 특징과 이들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일의 당위성에 따라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익 담론 세 유형의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및 ANOVA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유형의 특징에 대한 분

18] 본 장은 김선, 김희정, 임수진 (2017) 통일당위성 담론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교육문화연구, 23(6)를 수정 보완한 것임.

19] 이범웅,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한 일고,” 『도덕윤리과교육』, 제40권 (2013), pp. 105-140.

20] 함규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연구,” 『통일인문학』, 제68권 (2016), pp. 383-415; 이석화·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제26권 2호 (2017), pp. 1-27.

석 결과를 통해 통일 당위성 담론 집단별 통일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적 함의 및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담론별 특징과 통일교육

본 장에서는 통일교육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통일당위성 담론인 민족주의 담론, 통일편익 담론, 보편가치 담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담론을 자원으로 한 통일교육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민족주의 담론

남북한 통일담론으로는 민족담론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담론은 분단된 이래 남한의 대북 통일, 북한의 대남 통일 담론에서 남북한 양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역사의식, 문화,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혈통주의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대표적으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상이하게 발달한 민족의 개념을 논의한 박명규²¹⁾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민족’은 이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정서, 감정, 즉 아비투스적 차원에서, 그 함유하는 남북한 간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힘을 제공한다고 설명

한다. 한반도의 민족주의를 분석한 Shin²²⁾은 남북한의 민족 논의는 정치적 산물이자 집합적 문화현상으로 정의한 스미스(Smith, 1995)의 개념을 차용하여, 한반도에서의 민족 개념은 ‘국가(nation)’적 차원과 ‘종족(ethnic)’적 차원에서의 민족의 개념이 뒤섞여 이들 사이에서 때에 따라 그 의미가 이동하거나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논한다. 또한 민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 논의를 분석한 한주희²³⁾는 통일과 통합을 위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박순성²⁴⁾은 민족, 국민국가, 민족공동체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주체를 논의하였다. 남북한 공동성명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발표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족(ethnicity)” 동질성에 기반하여, 외부와는 분리된 양 지역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상징적 언어이자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민족은 남북한 통일담론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은 통일을 상정하고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담론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남북한 통일은 민족자결의 이념을 통해 설명되는데,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임을 주장한다.²⁵⁾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민간교

22) Shin, G. W.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3) 한주희, “통일과 통합을 위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공존 가능성 모색: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현장으로의 활용,” 『민족사상』, 제8권 2호 (2014), pp. 195-227.

24)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pp. 77-104.

2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992 통일문답”,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71&mid=SM00000532> (2017.11.15)

21)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류가 활성화된 2000년대 초반 남북한 통합담론의 중요한 정서적이고 이론적인 자원으로서도 계속적으로 활용되었다.²⁶ 초기 통일교육에서 민족담론에 의거한 통일교육은 남북한 분단을 직접 경험한 분단 1세대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직관적으로 당연한 논리였으나, 세대가 변화하며 이러한 논의는 점차 정당성을 잃게 되며 새로운 담론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2) 통일편익담론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안정과 같은 국가경쟁력 증진 등을 근거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실용주의적 통일담론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대북 화합 및 포용 정책으로 통일정책이 수행되면서 나타난 논의로서, 정부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²⁷ 다시 말해, 남북한 양자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사회로 진입한 남한의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조 속에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수시장의 규모와 생산성을 확장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국가적인 이익과 손실에 관해 논의한 담론들이라 볼 수 있다.

실용주의적 통일담론은 대체로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같은 분단과 통일에서 나타나는 비용의 측면과 통일편익, 즉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수치화한 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담론들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담론의 등장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 통일비용과 관련한 논의들은 일찍이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을 경험한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다.²⁸ 독일의 경제통합 모델을 선행학습하고 이들의 노동생산성, 임금제, 화폐가치 등에서 나타나는 동서독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추계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통일을 목도한 남한 주민들에게서 통일은 점차 당위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질적으로는 공공재 축소와 복지혜택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개인 생활에 대한 비용 부담의 측면이 부각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경험한 분단 1세대에 비해, 분단 2, 3세대가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²⁹

3) 보편적 가치 담론

민족주의 통일담론 및 통일편익담론과 배척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통일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담론으로써 보편가치 통일담론이 있다. 이 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 정의(justice),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등 전 지구

26]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통일교육 지침서”, 자료마당 참조. <http://www.uniedu.go.kr/uniedu/home/main/mariner/list.do> (2017.11.15.).

2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pp. 355-388.

28] 권영경(2010)은 이러한 통일비용에 관한 초기 논의들이 개인 연구자들의 호기심과 추측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정확히 추계되지 않았으며 과대 추산된 측면이 있다고 논한다.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김영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5); 박광작, “독일통일 사례로 본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전망 및 과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2009) 참조.

29] 실제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40대 이상 응답자는 50% 이상으로 답변한 것에 비해, 20-30대 응답자의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5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7년 발표된 통일평화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20대는 41.4%, 30대는 39.6%, 40대 57.8%, 50대 62.2%, 60대 67.0%로 나타났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적으로 공유되며 다른 가치에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지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목표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보편가치 통일 담론은 “1990년대 말 이후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퇴조하고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담론이 강력해지는 현실과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평화 운동’담론”의 대두와 함께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³⁰

서보혁³¹은 통일을 “한반도 전역에 인류 보편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으로써 정의함으로써,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 인도주의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편주의 통일 담론은 평화가 “통일을 달성하는 조건 혹은 수단”으로써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통일운동에서 독립된 가치이자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변종현³³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의 복원”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통일담론과 “강하고 잘 사는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명제”로서의 통일편익담론보다 보편주의 통일담론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 혹은 목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평화, 인권, 정의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은 민족주의 통일담론이 내세우는 국가중심적인 관점 그리고 통일편익담론이 내세우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가치 통일담론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평화’라는 가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요한 갈통이 제안한 ‘적극적 평화’의 의미로써 해석되는데,³⁴ ‘적극적 평화’란 단순히 한반도에서 전쟁 혹은 국지적 충돌이 없다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넘어서, “경제적 빈곤, 정치적 탄압, 성적 인종적 차별”을 포함하는 분단체제 안에서의 구조적인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부재를 포함한다.³⁵ 구갑우³⁶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차용,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위험 사회, 환경 위기, 경쟁과 갈등의 이상화, 자살” 등을 포함하며, 남북통일과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처럼 적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는 보편주의 통일론의 발판으로써, 이는 통일의 근거, 방향,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단순히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화합을 지향하는 다면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다.

이석희·강정희³⁷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담론은 개념적으로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통일편익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통일로 인하여 보편

30] 함규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연구,” 『통일인문학』, 제68권 (2016), pp. 383-415.

31] 서보혁,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2014), 32(1), 7-32.

32] 서보혁·정옥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33] 변종현, “통일 필요성 논거의 새로운 정향,” 『윤리연구』, 제90권 (2013), pp. 115-136.

34] 이병수,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의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 28권 1호 (2017), pp.113-142; 박영균, “한반도의 문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통일인문학』, 제68권 (2016), pp.35-62.

35] 이병수, “통일과 평화의 길향관계: 통일이념, 통일국가형태, 민족성과 국가성,” 『시대와 철학』, 26권 1호 (2015)

36]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37]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제26권 2호 (2017), pp. 1-27.

가치가 실현되는 것 역시 통일편익의 일부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에 개념적 교집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논지의 전개에서는 통일담론에 따라 각각의 연구자가 집중하는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담론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왔지만 담론집단의 실체, 즉 통일담론을 지지하는 실제 담론집단이 어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는지, 담론집단이 통일의식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졌던 통일담론들의 실제 지지집단에 대한 연구는 담론의 실체에 근접하여 구체화된 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담론집단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통일교육과 교육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담론을 지지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집단별 통일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통일교육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경향과 흐름을 분석하여 왔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며 표본크기는 총 1,200 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오차는 $\pm 2.8\%$ (95% 신뢰수준)이다.

2) 연구도구

(1) 통일담론집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조사 문항 중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5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표 2-5-1〉 통일당위성 담론집단 설문문항

변수	유형	설문문항
통일 당위성 담론집단	민족주의담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보편가치담론	남북간의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통일편익담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통일당위성 담론별 집단분석을 위해 민족주의, 보편가치, 통일편익집단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표 2-5-1〉에서 제시된 문항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민족주의담론은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주의적으로 확보하려는 입장으로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었고 같은 민족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족 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편적 가치 담론은 남북의 통일을 단지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한된 민족사적 과제가 아닌 인류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세계사적 사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여기서 인류보편가치란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정의, 화해 인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의미한다. 통일은 전쟁 위험이 높고 갈등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도적 차원에서 악조건과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인류보편가치이므로 보편가치담론은 ‘남북 간의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일편익담론은 통일 이후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국익 및 국민의 ‘편익’ 이른바 ‘통일편익’에서 찾는 담론이다. 이에 실리주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문항을 사용하였다.

(2)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과 5점 Likert 척도(‘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된 응답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코딩하여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0.0(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세 개의 통일담론 집단별로 통일의식의 각 분야별 문항(통일의 필요성, 탈북자 인식

등)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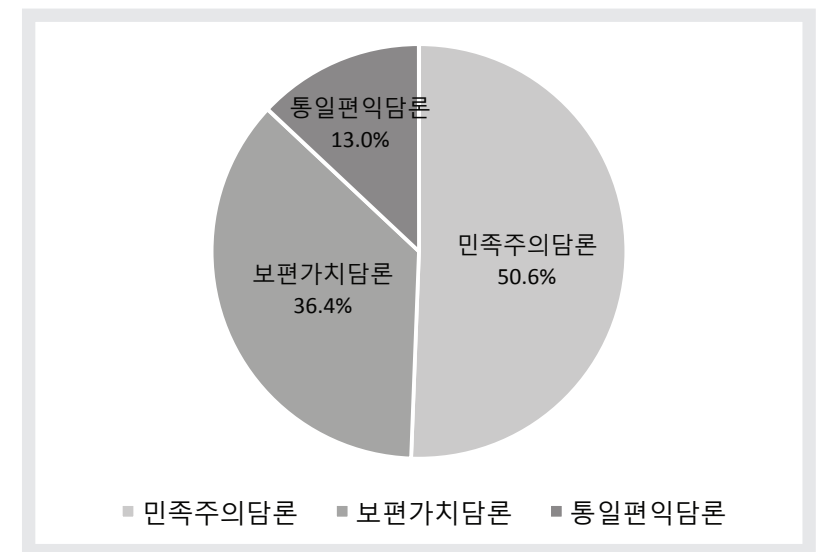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1) 담론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1) 통일담론집단 분포

〈그림 2-5-1〉 통일담론집단 분포

(단위: %)



통일담론집단 분포를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은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보편가치담론집단이 36.4%, 마지막

으로 통일편익담론집단이 13.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민족주의가 통일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우며³⁸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에 대한 지향은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담론을 전제” 하며 “민족을 떠나서는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할 근거나 논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편가치담론집단은 남북 간의 전쟁위협을 없애고,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으로서 평화, 인권 등 통일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통일편익집단은 통일을 통해 한반도 경제와 세계사회 내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집단이다. 이 결과는 약 13%로 나타나 다른 두 담론집단에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일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 비관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통일편익의 실익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의 경제적 영향을 낙관적으로 보고 통일의 당위성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이 집단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담론집단별 연령대/교육수준/소득수준 분포

담론집단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담론 집단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편가치담론집단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통일편익담론집단은 19-29세에서 27.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세 집단 중

20-30대 집단의 비율이 47%에 달하는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담론집단별로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담론집단별 특징이 세대별 특징을 포함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담론집단별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담론 집단에서는 고졸이 47.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재/대졸 이상이 36.7%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은 대재/대졸 이상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42.3%였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은 대재/대졸 이상이 54.2%로 나타나 세 집단 중 대재/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론집단별 소득수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모두 400-449만 원 구간이 각 집단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해당구간에서는 보편가치담론집단이 25.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500만 원 이상 모든 구간에서 통일편익담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담론집단별 연령대/교육수준/소득수준 분포

		민족주의담론 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 집단 (n=437)		통일편익담론 집단 (n=155)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연령대	19-29세	87	14.3	97	22.2	42	27.1
	30-39세	99	16.3	92	21.1	31	20.0
	40-49세	136	22.4	91	20.8	37	23.9
	50-60세	136	22.4	98	22.4	25	16.1
	60세 이상	149	24.5	59	13.5	20	12.9

38] 송두율, “통일시대를 맞아 보내는 철학적 소록,” 『철학과 현실』, 제47권 (2000), pp.28-38.

		민족주의담론 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 집단 (n=437)		통일편익담론 집단 (n=155)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19	3.1	9	2.1	2	1.3
	중졸이하	71	11.7	26	5.9	8	5.2
	고졸	286	47.1	185	42.3	55	35.5
	대재/대졸 이상	223	36.7	216	49.4	84	54.2
	대학원 이상	5	0.8	1	0.2	6	3.9
소득 수준	49만 원 이상	1	0.2	1	0.2	0	0
	50~99만 원	10	1.6	4	0.9	1	.6
	100~149만 원	16	2.6	7	1.6	5	3.2
	150~199만 원	63	10.4	21	4.8	6	3.9
	200~249만 원	56	9.2	32	7.3	12	7.7
	250~299만 원	69	11.4	34	7.8	9	5.8
	300~349만 원	96	15.8	67	15.3	16	10.3
	350~399만 원	64	10.5	60	13.7	29	18.7
	400~499만 원	107	17.6	111	25.4	31	20.0
	500~599만 원	78	12.9	69	15.8	26	16.8
	600~699만 원	21	3.5	15	3.4	9	5.8
	700만 원 이상	25	4.1	16	3.7	11	7.1

각 담론집단별 연령대 및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담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의 연령대가 보편가

치담론과 통일편익담론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생활 세계가 크게 다른 여러 세대가 동시에 함께 살고 있으며 이는 특히 우리 국민 내부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³⁹⁾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담론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일편익담론집단이 민족주의담론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편가치담론, 민족주의담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2-5-2>의 연령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편익담론집단의 연령대가 경제활동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3> 연령대/교육수준/소득수준의 담론집단별 차이

변인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437)	통일편익담론 (n=155)	F
	M (SD)	M (SD)	M (SD)	
연령대	3.27(1.37)a	2.84(1.36)b	2.68(1.37)b	18.43***
교육수준	3.68(6.77)	3.40(.70)	3.54(.71)	0.43
소득수준	7.53(4.42)a	7.95(2.13)ab	8.19(2.28)b	3.07*

*p < .05, **p < .01, ***p < .001

(3) 성별에 따른 통일담론집단 분포

성별에 따른 담론집단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표준화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²⁾의 값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빈도에서

39)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평화』, 제7권2호 (2015).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통일편의담론 집단에서 남자가 63.9%, 여자가 36.1%로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의 경우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통일편의담론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실용적,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이 좀 더 통일의 당위성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성별에 따른 담론집단 분포

변인	남자 n(%)	여자 n(%)	전체 n(%)	χ^2 (df)
민족주의담론	298(48.9)	309(52.4)	607(50.6)	12.22** (2)
보편가치담론	212(34.8)	225(38.1)	437(36.4)	
통일편의담론	99(16.3)	56(9.5)	155(13.0)	
N(%)	609(100.0)	590(100.0)	1,199(100.0)	

*p < .05, **p < .01, ***p < .001

(4) 담론집단별 광역권 분포

담론집단별 거주지를 광역권별 분포로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담론 집단은 수도권에 39.9%가 살고, 영남권에 29.5%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가치담론집단에서는 표본 집단의 수도권 비율(41.7%) 대비 수도권의 비율이 44.4%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편의담론집단은 표본 집단의 호남권 비율(12.3%) 대비 호남권의 비율이 14.8%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족주의담론집단에서는 표본 집단의 영남권 비율(26.9%) 대비 영남권의 비율이 29.5%로 높게 나타나 집단별로 거주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담론집단의 거주지 분포 특징은 통일 당위성에 있어서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5-5〉 담론집단별 광역권, 사회계층, 생활수준개선도 분포

		민족주의담론 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 집단 (n=437)		통일편의담론 집단 (n=155)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광역권	수도권	242	39.9	194	44.4	64	41.3
	중부권	84	13.8	47	10.8	22	14.2
	호남권	73	12.0	51	11.7	23	14.8
	영남권	179	29.5	108	24.7	35	22.6
	강원	19	3.1	21	4.8	6	3.9
	제주	10	1.6	16	3.7	5	3.2

2) 담론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 인식 차이

담론집단 간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알아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이 민족주의담론집단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민족주의담론집단이 보편가치담론집단에 비해 남북한 통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 당위성으로서의 민족주의가 한국적 현실에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주의담론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일편의담론집단, 마지막으로 보편가치담론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편의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보편가치담론이 가장 낮으며, 민족주의담론이 중간, 통일편익담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편가치담론집단은 민족주의담론, 통일편익담론집단보다 통일의 편익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이 통일의 편익에서도 일관되게 실용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6〉 담론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의 차이

변인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437)	통일편익담론 (n=155)	F
	M (SD)	M (SD)	M (SD)	
통일의 필요성	3.56(1.08)a	3.32(1.10)ab	3.48(1.13)b	6.20**
통일편익	2.34(.63)a	2.22(.62)b	2.51(.06)c	12.04***

*p<.05, **p<.01, ***p<.001

3) 담론집단 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북한정권통일의지, 북한의 변화는 담론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갈등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 보편가치담론집단이 민족주의담론, 통일편익담론집단에 비해 남북 간의 무력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력갈등은 무력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체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의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하여 도출한 변수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북한의 핵 위협 체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다고 응답하는 경우 북한과 무력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보편가치담론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과 무력갈등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은 통일의 당위성을 현재의 갈등 수준을 낮추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

는 데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 역시 보편가치담론집단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5-7〉 담론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의 차이

변인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437)	통일편익담론 (n=155)	F
	M (SD)	M (SD)	M (SD)	
북한정권 통일의지	1.90(.75)	1.85(.76)	1.90(.77)	.672
북한의 변화	2.18(.78)	2.13(.81)	2.19(.79)	.527
무력갈등	2.77(.52)a	2.95(.51)b	2.77(.58)a	16.489***

*p<.05, **p<.01, ***p<.001

4) 담론집단 간 탈북자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자들은 남북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별로 동의하지 않음은 2점, 다소 동의함 3점,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통일편익담론집단에 비해 민족주의담론 집단이 남한거주 탈북자가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담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탈북자 친근도 또는 수용도가 높은 이유는 담론 자체에서 보이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당위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혈통주의 논리 속에서 민족담론은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하에 공동체적 동질감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이질화를 완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친근도를 높일 수 있는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

족주의담론 집단의 높은 연령 특성과 통일의 필요성에서의 높은 응답 결과와 함께 이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세대별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차이가 있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연령인 60대 이상이 우호적이라는 결과⁴⁰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탈북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⁴¹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통일편의담론이 남북한의 경제력과 통일 이후의 경제규모에 대한 낙관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담론의 기반이 거시적 경제 담론에서 낙관적일 뿐 실제 공동체적 동질감이나 내부 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8〉 담론 집단 간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변인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437)	통일편의담론 (n=155)	F
	M (SD)	M (SD)	M (SD)	
이질화해소	2.57(.63)a	2.54(.67)ab	2.42(.70)b	3.115*

*p < .05, **p < .01, ***p < .001

5) 담론집단 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1) 남남갈등

남남갈등은 사회문제(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이

념갈등, 환경파괴, 표현의 자유, 부정부패, 저출산 고령화, 지역갈등의 10가지 항목에 대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별로 심각하지 않다 2점, 약간 심각하다 3점, 매우 심각하다 4점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민족주의담론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남한 내 갈등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편가치담론 집단은 북한의 무력갈등에 이에 남남갈등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남북한 갈등의 민감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징을 보여준다.

(2) 경제상황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다소 불만족 2점, 다소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코딩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주의담론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담론 집단은 남남갈등을 가장 낮게, 남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과도 연결됨을 추측할 수 있다.

40]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아태연구』, 제19권3호 (2012), pp.5-34.

41] 정회옥, “계층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격차를 중심으로,” 제25권 4호 (2016), pp.167-198.

〈표 2-5-9〉 담론집단 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변인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436)	통일편익담론 (n=155)	F
	M (SD)	M (SD)	M (SD)	
남남갈등	3.01(.44)a	3.17(.39)b	3.13(.43)b	9.649***
경제상황	2.27(.62)a	2.17(.62)b	2.21(.64)b	3.424*

*p<.05, **p<.01, ***p<.001

5. 소결

본 장에서는 통일당위성 담론집단의 인구학적 특징 및 통일의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세 가지 담론을 회고하는 한편 이들의 차이점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일담론 집단별로 구분되는 인구학적 특징 및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분석은 각 담론 집단에 대한 통일교육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각 담론집단별 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일당위성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이 중첩된 남남갈등의 구조를 상당부분 보여주며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당위성의 개념은 남북 및 남남 갈등의 중요한 요인을 함축하는 변수로

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좀 더 탐색하고 남남갈등과 그 해소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당위성 담론 각 논의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민족주의담론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반면, 통일편익담론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으며, 민족주의담론집단은 상대적으로 영남권 비율이, 보편가치담론집단은 수도권비율이, 통일편익담론집단은 호남권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인구학적 특징의 차이 이외에도 담론 집단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별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민족주의집단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가장 높다. 통일의 편익이 높다고 인식한 통일편익담론집단은 남북한 이질화해소에 탈북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한 경향을 보이고, 경제적 실리와 실용성에 민감한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보편가치담론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뿐 아니라 통일편익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가치담론집단이 실질적으로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 통일의 낮은 필요성과도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의 통일 의지가 다른 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집단의 특화된 통일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주장되었던 민족주의 담론에 의거한 통일교육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민족주의 담론은 이산가족과 같은 남북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저하와 세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이유로 점차 그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학계 및 일반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통일의 정당성과 이유를 확보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다른 두 개 담론에 비해 민족주의 담론이 통일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염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의 경우, 민족주의담론 및 통일편익담론집단에 비해 남북 간의 무력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교육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이해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⁴² 보편가치집단이 주장하는 바가 ‘평화’의 추구를 통한 통일 및 분단 상황의 극복인 반면, 동시에 북핵 위협 및 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는 결과는 “북한을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의 대상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북한관”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⁴³ 다시 말해 보편가치담론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반면, 남북한 군사적 위기상황 같은 정치적 이

슈에 따라 그 입장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조정아가 북한이해교육이 남북관계 및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달라지는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던 부분과도 부합되는 바이다.⁴⁴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회구성원 각자에 따라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누군가에겐 북한은 기회의 땅이며 또 누군가에겐 삶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통일당위성 담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존재함을 나타내지만,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 통일의 당위성 담론을 개발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통합은 통일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이자 핵심 개념인데,⁴⁵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질적인 문화 간 사회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전환되는 긴 시간이 수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박성춘·이슬기의 주장과 같이, “통일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가 이념적 논쟁, 정략적 계산, 당파적 주장 및 경제적 타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치적 논쟁이나 시민적 주장과 구분되는 독자적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다시 말해,

44]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p.292.

45]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2016)

46] 김선, “German Education Reforms during Unification: Lessons for Korea,” 『외국학 연구』, 제35권 (2016), pp.419-450.

47]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2016), pp.43.

42]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2016); 변종현,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한 통일의 상호작용,” 『윤리연구』, 제103권 (2015), pp.59-82;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p.285-306.

43] 변종현,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한 통일의 상호작용,” 『윤리연구』, 제103권 (2015), pp.70.

‘통일담론’ 및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항 개발을 통해 국민의 통일담론의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⁴⁸⁾

이렇듯 이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담론을 중심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이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담론별 맞춤형교육의 개발이나, 여러 담론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기존 통일담론에 새롭게 다문화적 통일담론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담론으로 간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생활 문화적 접근, 공동체주의 등이 등장하였다.⁴⁹⁾ 통일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민족주의, 통일편익, 보편적 가치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에서는 모두 남북한의 같음과 다름의 인정,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등을 인정하는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학계 논의가 추상적인 이론과 담론에 의거한 통일교육 개발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통일교육이 어떠한 효과와 가능성,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게 계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 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민족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타자로 인식하는 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담론집단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집단에 따른 새로운 담론개발과 담론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이러한 여러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일당위성 담론 집단을 분류하고 분석함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당위성 담론은 각 담론을 주장하는 학자마다 그 개념적 경계에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 가지에 개념적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당위성 담론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의견이 상충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일당위성 담론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당위성 담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8) 박찬석, “시민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56권 (2017), pp.83-107, pp.102.

49)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2호 (2012), pp.51-70.

제6장

경제평가와 통일의식⁵⁰

1. 서론

경제평가는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로, 특히 선거와 투표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⁵¹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평가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칠까?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하는 시민들의 정치태도를 일

50] 본 장의 내용은 정동준,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외교조사 설문결과 분석,” 『담론201』 20권 3호(2017)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51] Christopher J. Anderson, “The End of Economic Voting? Contingency Dilemmas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007), pp. 271-296; Russell J. Dalton,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5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2008); Michael S. Lewis-Beck, “Does economics still matter? Econometrics and the vote,”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1 (2006), pp. 208-212; Erik R. Tillman, “Economic Judgments, Party Choice, and Voter Absten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no. 9 (2008), pp. 1290-1309.

컸는 것으로⁵² 통일, 북한, 대북정책,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포괄한다. 이러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는 세계 유일무이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특수하게 관찰되는 독특한 정치현상으로, 한국인들의 이념적 정치공간을 가르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⁵³ 이렇게 한국인의 정치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일의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지는 많은 연구에 의해 다루어졌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가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이고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이나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과거 서독 및 서유럽 선진국들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상당했음을 생각해 보면, 통일 및 남북 간의 통합 과정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남한의 몫이 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비용을 국민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보다 좋다고 여길수록 그러한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여유가 있을 것

52]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5집 2호 (2013), p. 75.

53] 강원택, “남남 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2004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2004); 정동준,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 개념화와 측정,” 『의정연구』, 제23권 2호 (2017), pp. 67-108;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집 4호 (2016), pp. 105-126.

이란 점에서, 경제평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비단 통일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한 북한에 얼마나 포용적인 자세로 다가갈 것인지의 문제들도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영향 받을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상황이 보다 여유 있을 때 이러한 비용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증적으로도 과연 경제평가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까?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날까? 만일 나타난다면 그러한 경제평가의 영향력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날까? 본 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된 『통일의식조사』의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이어지는 장에서는 경제평가와 통일의식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 간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변수가 일련의 통일의식에 미칠 독립적 영향력(independent effects) 및 상호적 영향력(interaction effects)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것이다. 이 후 분석에 사용될 자료와 변수에 대해 소개한 다음, 본격적인 통계분석을 실시, 그 결과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논의

경제는 투표 참여와 투표 선택 등의 정치행동과 정당일체감, 정책별 입장 등의 정치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사람들의 정치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변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슈⁵⁴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의 영향력이 정당일체감, 쟁점별 입장 등 다른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면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고, 더욱이 시민들의 주관적 경제 인식이란 자신들이 기존에 한 행동 및 가지고 있던 태도에 의해 편향되기 쉽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한 가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변수라는 점에서⁵⁶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제변수는 크게 거시적 경제상황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

54] Michael S. Lewis-Beck and Mary Stegmaier,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2000), pp. 183-219.

55] Geoffrey Evans and Robert Andersen,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1 (2006), pp. 194-207; Geoffrey Evans and Mark Pickup, "Reversing the Causal Arrow: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in the 2000-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Cycl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4 (2010), pp. 1236-1251; 김성연, "한국 선거에서 경제 투표의 영향: 제18대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2016), pp. 109-130.

56] Anderson, "The End of Economic Voting."

가로 나누어 다루어진다. 거시적 경제상황은 보통 국민총생산, 일인당국민총생산 증가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는데 특히 집합적 차원의 투표율 및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시계열 및 국가간 비교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주관적 경제평가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현재까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를 평가하는 시점이 최근 몇 달, 혹은 몇 년 간의 과거를 말하는지, 아니면 미래를 일컫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사회경제적 평가(sociotropic)'인지,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관한 평가(pocketbook)'인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사회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하다면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오히려 전보다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과 시점에 따라 경제는 여러 종류의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없이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주로 투표행동과의 관계에서 분석되어 왔고, 그러한 경제투표(economic voting)에 관한 이론들은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국가들에 편향된 채 발전되어 왔다.⁵⁷ 경제투표는 나름의 학문 영역을 구축하며 비교

정치와 정치행동 연구에 많은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하였지만, 경제변수가 투표를 넘어 여타 정치행동 및 태도에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특히 현재 정립된 경제투표 이론들이 대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다른 비서구권 국가의 독특한 정치 환경 안에서 경제라는 요인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는 그만큼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유일무이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독특한 환경은, 경제변수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그간 한국의 정치공간을 나누어 온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통일과 북한, 그리고 일련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의 선거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경제투표 이론들을 수정·보완하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실행되었지만,⁵⁸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평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통일의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대부분 몇몇 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양적 자료를

57] Alexander C. Pacek,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3 (1994), pp. 723-744; Joshua A. Tucker, *Regional Economic Voting: Russia, Poland, Hungary, 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1990-1999*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58] 가상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2008), pp. 33-57; 강우진,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책성향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013), pp. 213-233;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 의원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제18권 2호 (2012), pp. 5-38; 윤종빈,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2008), pp. 59-83; 이내영·안종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2호 (2013), pp. 5-36.

바탕으로 진행되었다.⁵⁹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여러 요인들이 한국인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루어졌는데, 먼저 나이, 성별, 출신지역, 교육과 소득수준 같은 기본적인 사회배경 변수들,⁶⁰ 그리고 세대별로 상이하게 경험한 역사적 상황⁶¹이 한국인들의 서로 다른 통일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혀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진환⁶² 역시, 시기별로 급변해 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들이 한국인들의 통일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또한 권영승과 이수정⁶³은 젊은 세대의 통일관을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세계화와 다문화와 같은 문화적 맥락이 이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배한동⁶⁴과 변종헌⁶⁵ 역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통일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59]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인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권 (2015), pp. 72-93;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집 1호 (2014), pp. 167-206.

60]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177-204; 황태희·최영준·최우선·주형민, "누가 북한을 이해하고 오해하는가?: 남·북한주민 인식조사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2017), pp. 243-289.

61]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평화』, 7집 2호 (2015), pp. 3-41; 김창남,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연구," 『주관성 연구』, 제29호 (2014), pp. 121-143.

62]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인식 변천."

63]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인식: N세대 대학생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 제1권 2호 (2011), pp. 1-38.

64] 배한동, "한국 대학생의 통일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권 2호 (2001), pp. 303-349.

65] 변종헌, "20대 통일인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157-186.

이에 더하여 일련의 연구들은⁶⁶ 정치에 대한 태도, 구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일체감이 통일에 대한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⁶⁷ 북한에 대한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유대감,⁶⁸ 통일에 대한 기대 이익과 같은 합리적 계산⁶⁹ 등 여러 요인들이 한국인의 통일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통일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는 경제가 정치행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변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놀랄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통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사실상 남한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내지는 좋다고 평가하면) 그만큼 비용 지불에 대해 관대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통일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제가 어렵

66] 박명규·정은미·김병로·장용석·최규빈·김병조·강원택·황정미, "정파적 태도와 통일 이슈," 박명규 편, 『2015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 220-249;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인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2016), pp. 131-162; 한관수·장윤수,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1호 (2012), pp. 63-88.

67]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인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2호 (2009), pp. 63-102.

68]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69] 최우선·황태희·최영준·주형민,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pp. 84-112.

다 판단되면 통일이 수반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줄어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남한의 경제사정이 좋고 부강하다고 느낄수록 북한이 가하는 안보적 위협들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인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호황일 때는 국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불황일 경우에는 퍼주기식 정책이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위에서도 보았듯이 단순히 경제에 대한 평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다른 요인들과의 혼재효과(confounding effects)를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럴지라도 경제평가는 한국인의 통일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한 가지로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3. 가설

본 장에서 분석할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남한의 시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혹은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북한이 남한에게 어떤 대상인지, 지원과 협력의 대상인지 아니면 경계와 위협의 대상인

지를 묻는 질문과 더불어 최근 한반도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 등 일련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통일인식에 대해 국민들의 경제평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통일은 북한보다는 남한에 더 큰 비용을 지우게 될 것이고, 통일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경제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우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야, 통일이라는 대업 역시 아무리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꺼이 줄어지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경제상황에 보다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통일에 대해 더 간절한 염원을 가지며, 통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1: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가질 것이다.

북에 대한 위협 인식 역시 경제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북한을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지는 곧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와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반비례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체제와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북한보다 우월하다 여긴다면, 북한을 위협의 대상이라 여기기보다는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

로 보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선동하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도 보다 의연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위협 인식에 대한 이론들도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상대적 힘의 차이가 벌어질 경우 경쟁이 악화되어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이는 곧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⁷⁰⁾ 이러한 점에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곧 북한 및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을 낮추게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2: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설문조사가 묻고 있는 일련의 대북정책들이 모두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 포용적 통일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평가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호의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같은 정책들은 모두 남한 사회에 일정한 비용의 지불을 요한다는 점에서, 역시 경제상황이 좋을 때 그 같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3: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포용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70) Menandro Sarion Abanes, Ethno-religious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Contact Avoidance: An empirical study on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LIT Verlag, 2014); Peer Scheeper, Merove Gijssberts and Marcel Coenders,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8, no. 1 (2002), pp. 17-34.

그런데 이러한 경제평가와 통일인식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앞선 연구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한국인의 통일인식 형성에는 경제평가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는가에 따라 통일의식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수로 먼저,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내영⁷¹⁾과 최우선 등⁷²⁾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예전보다 더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을 얼마나 크다고 보는가에 따라 통일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을 비용보다는 이익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그러한 비용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경제평가가 그리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 어차피 통일로 인해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든 아니든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을 이익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평가의 영향력이 더 작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가설 4: 통일을 이익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71)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72) 최우선·황태희·최영준·주형민,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당일체감이 경제평가와 갖는 상호작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당일체감은 “특정 선호정당에 대한 장기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인 동일시”를 의미하는데,⁷³ 일단 정당일체감이 형성되면 마치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팬과 같이 그 정당의 강령 및 정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평가를 하는 면이 강화된다.⁷⁴ 이를 통일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수록 진보적인 대북관과 통일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정한 비용이 들더라도 같이 가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그러한 진보적인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은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진보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경제평가와 통일인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진보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얼마나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하는지, 즉 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내영⁷⁵은 선행 연구를 통해 민족정체성 모델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가짐을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통일을 민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통일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의 경우, 통일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만한 국내 경제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만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실용주의를 넘어 민족정체성의 입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현재의 경제상황은 그리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중시하는 집단에게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관계는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설 6: 통일을 민족의 과업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단된 지 어언 반세기가 훌쩍 넘어가면서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에 여러 문화적, 정서적 차이들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주민들을 얼마나 같은 민족으로 여기는지, 즉 정서적으로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간접적으로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느끼는 수용적 태도로 측정해볼 수 있다. 즉, 탈북민에 대해 친근하게

73]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New York: Wiley, 1960).

74] Dong-Joon Jung, "Irrationalizing the rational choice model of vo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sanship on turnout decisions in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50 (December 2017), pp. 26-38; Lilliana Mason,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1 (2015), pp. 128-145.

75]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느끼는 사람이 북한주민에게도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며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경제평가라는 실용적, 합리적 요인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즉, 북에 있는 주민들을 나와 같은 동포로 여기며 가깝게 느낄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못할지라도 진취적인 통일에 대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가설 7: 북한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 방법

본 분석에서 사용할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인식조사』의 설문결과 자료이다. 2007년부터 올해인 2017년까지 매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통일인식조사』는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지 11년차를 맞이하면서 기초적인 시계열 분석 역시 가능하다는 점은 자료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7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에 걸쳐 1,2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올해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지난 2007년부터의 결과를 모두 사용하여, 가능한 넓은 범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될 변수는 총 아홉 개로, 먼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필요성(“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염원(“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4: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3: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현재대로가 좋다, 1: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통일 예상시기(“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등, 세 항목을 사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는지’(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견해’(1: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4: 매우 위협을 느낀다) 등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간 정기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⁷⁶⁾를 묻는(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76] 2017년도 설문에서는 이전까지와 달리 해당 정책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로 문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지만 결과분포에 있어 이전 문항과 큰 차이가 없고, 의미상으로도 일맥상통하다 여겨져 본 분석에서는 같은 변수로 취급하였다. 2017년의 결과를 제외한 변수를 사용하여도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주된 독립변수인 경제평가 변수로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4점 척도의 문항(1:매우 불만족 - 4:매우 만족)을 사용하였다. 평가의 시점을 ‘현재’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란 점에서 이는 회고적 평가에 가깝다 할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2017년에 미래의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으나, 이전까지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부득이하게 전망적 평가에 대한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의 투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회고적 평가가 선거에 따라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도 한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⁷⁷⁾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과 보상을 하는 책임성의 기제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⁷⁸⁾ 회고적 경제평가의 영향력은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경제적 평가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주머니 사정이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분석되면 좋았겠지만, 설문에서 조사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개인적 경제 사정보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투표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볼 때,⁷⁹⁾ 사회경제적 평가만을 독립변수로 삼은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변수의 구성에 있어 이러한 점들은 향후 설문 문항의 추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변수와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사용될 변수로 먼저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은 ‘통일이 남한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을 사용하였다. 설문에서는 이러한 집합적 차원의 이익과 별도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익도 묻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경제평가 변수가 집합적 차원에서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여기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본다면 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집합적 차원의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보다 직관적으로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든 상호작용 변수는 이분법적 더미(dummy) 변수로 만들었다. 통일의 기대이익의 경우,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은 1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0으로 분류하였다.

정당일체감의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응답⁸⁰⁾을 기반으

77) 강우진,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 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이내영·안중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78) Dong-Joon Jung, “Does Partisanship Hurt Electoral Accountability? Individual-Level and Aggregate-Level Comparisons of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forthcoming; 오현주·송진미·김정아·강원택,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3호 (2014), pp. 69-97; 장승진, “제20대 총선의 투표 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50집 4호 (2016), pp. 151-169.

79) 강원택,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제14권 1호 (2008), pp. 31-58; 이현우,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1998), pp. 97-150.

80) 정당일체감이 사회적 집단을 기반으로 형성된 장기적인 애착심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당 지지를 정당일체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선호의 강도를 구분하여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설문의 경우 그러한 강도에 대한 질문이 존재하지 않고, 또 많은 기존 연구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를 정당일체감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본 문항을 사용하였다.

로 각 조사년도⁸¹⁾에서 진보정당으로 분류된 정당⁸²⁾을 지지한 경우를 1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를 고른 응답자를 1로, 그 외의 다른 이유(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위협 해소, 북한이 잘 살도록, 남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도록 등)를 고른 응답자를 0으로 표시하였다. 북한주민과의 유대감은 기술하였듯이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가’란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친근하게 느끼는 응답자를 1로, 별로 또는 전혀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0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 외에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인구통계적 변수들 -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신지역(호남 혹은 영남 출신), 정치적 이념 - 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 분석의 표본이 2007년부터의 시계열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조사년도가 갖는 그 시점만의 특수한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같은 년도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끼리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집단(년도)별

특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추정의 편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³⁾ 집단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본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델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델은 각 집단을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 모델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론적으로 각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영향력을 일괄적으로 통제하여 집단 내 개인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⁸⁴⁾ 특히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같이 집단(조사년도)의 수가 적은 경우(11개)에는 집단을 또 하나의 상위수준으로 만들어 다층적 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조사년도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모델에 포함하였다.

5. 분석 및 결과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의 평균값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2-6-1>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전반적인 경제평가의 추이를 간단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국민들의 경제평가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최저점을 보이다가 이명박 정권 중기로 가면서 점차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권 말기로

81] 정당일체감에 대한 질문은 2011년 설문부터 포함되었기에, 정당일체감과의 상호작용을 검정한 모델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응답자는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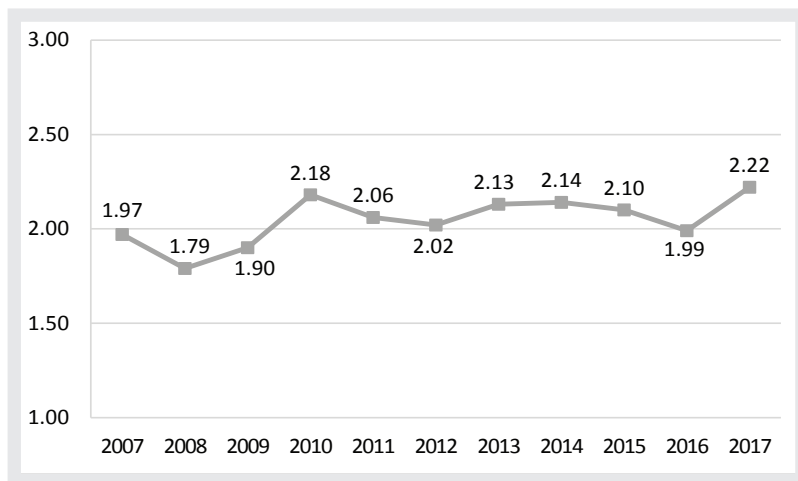
82] 조사년도 별로 진보정당으로 분류된 정당은 다음과 같다: 2011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2012년(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2013년(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2014년(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2015년(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2016년(더불어민주당, 정의당), 2017년(더불어민주당, 정의당).

83] Sophia Rabe-Hesketh and Anders Skrondal,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ume 1*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2012), pp. 1-3.

84] Andrew Bell and Kelynn Jones,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ling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1 (2015), pp. 133-153; Tom S. Clark and Drew A. Linzer,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2 (2015), pp. 399-408.

가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악화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등되었다.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내리막 길을 걸었다. 2016년에 2점 이하로 떨어진 경제평가는 이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듯 2017년의 경제평가는 2.22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2-6-1〉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2007-2017)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경제평가가 통일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표 2-6-1〉은 경제평가 수준에 따라 각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보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통일인식 역시 긍

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경제평가가 1(매우 불만족)에서 4(매우 만족)로 좋아짐에 따라,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증가하고(3.45 → 3.82),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며(2.72 → 2.96), 그리고 통일이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4.16 → 3.67)하였다. 즉, 위의 가설에서 예상한 바대로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은 더욱 긍정적인 통일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평가가 좋아질수록 북한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감소하였지만, '매우 만족한다'란 응답에서는 오히려 평균치가 증가하였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은 이와 반대로 경제평가가 '매우 불만족'에서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으로 갈수록 위협으로 느끼는 응답이 증가하다 '매우 만족'에 이르러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즉, 표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평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정기회담 변수에서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른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변수의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높은 효용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1〉 경제평가 정도에 따른 종속변수별 평균치

현재 경제상황 평가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 시기	북한 위협 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 문화 교류의 효용성	경제 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 회담
1(매우 불만족)	3.45	2.72	4.16	2.68	3.01	2.43	2.68	2.68	2.79
2(다소 불만족)	3.53	2.76	3.97	2.64	3.02	2.49	2.70	2.71	2.87
3(다소 만족)	3.67	2.84	3.73	2.60	3.05	2.57	2.77	2.77	2.94
4(매우 만족)	3.82	2.96	3.67	2.63	2.88	2.55	2.78	2.82	2.86

이상을 통해 보면, 경제평가와 통일인식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 관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경제평가와 비교적 선형(linear)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은 단순히 변수 간 값에 따른 빈도의 분포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떠한 인과적 추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은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평가란 하나의 요인만을 사용한 단변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경제변수와 통일인식, 양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와 통일인식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일련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순위로짓(ordered logistic)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6-2〉에 정리된 회귀분석의 결과, 위에서 제시되었던 가설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성별, 교육과 소득수준, 출신지역 등 일련의 사회배경 변수와 이념성향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경제평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의 경우,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로 하고 통일을 더 염원하며, 통일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로짓모델이 비선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표에 나타난 계수만으로는 경제 만족도의 증가가 어느 정도로 종속변수를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종속변수 값을 가질 확률(odds)을 의미하는 오즈비(odds ratio)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오즈비를 통해 보면 경제만족도가 1단위 올라갈 때, 통일을 보다 필요로 하고 원할 확률이 각각 21%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변수들의 척도를 생각할 때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에서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그리고 매우 만족으로 한 단위씩 올라갈 때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역시 한 단위 올라갈 확률이 21%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렇게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 통일이 보다 멀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할 확률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긍정적인 경제평가를 할수록 통일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가설 2에서 예상한대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위협 인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과 북핵에 대한 인식, 두 항목 모두 경제평가와 유의미한 부(否)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다. 오즈비의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한 수준 올라갈 경우, 북한을 보다 위협적인 적대 대상으로 인식할 확률이 10% 정도 감소하고, 북핵에 대한 위협을 보다 느낄 확률 역시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대북정책에 관한 결과를 보면, 역시 가설 3이 예측한 바와 같이 네 항목 모두에서 경제평가는 유의미한 정(正)의 영향력을 보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이 대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정기적 회담 등 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끌어안는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표 2-6-2〉 경제평가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04	*** (1.04)	0.04	*** (1.04)	-0.03	*** (0.97)	-0.01	*** (0.99)	0.00	*** (1.00)
여성	-0.46	*** (0.63)	-0.34	*** (0.71)	0.30	*** (1.35)	-0.15	*** (0.86)	0.25	*** (1.29)
교육수준	0.30	*** (1.35)	0.26	*** (1.30)	-0.25	*** (0.77)	-0.08	*** (0.92)	0.07	** (1.07)
소득수준	-0.04	** (0.96)	-0.04	** (0.96)	0.01	(1.01)	0.04	** (1.04)	0.00	(1.00)
호남지역 출신	0.60	*** (1.83)	0.58	*** (1.79)	-0.19	*** (0.82)	-0.45	*** (0.64)	0.15	*** (1.17)
영남지역 출신	-0.30	*** (0.74)	-0.37	*** (0.69)	0.22	*** (1.24)	0.18	*** (1.19)	-0.04	(0.96)
이념성향	-0.22	*** (0.80)	-0.20	*** (0.82)	0.18	*** (1.20)	0.15	*** (1.16)	0.10	*** (1.10)
경제평가	0.19	*** (1.21)	0.19	*** (1.21)	-0.28	*** (0.75)	-0.11	*** (0.90)	-0.06	** (0.94)
응답자수	13,121		13,120		13,117		13,120		13,120	
Log-Likelihood	-18769.17		-13228.58		-21548.64		-17774.21		-14636.62	

변 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 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02	*** (1.02)		0.02	*** (1.02)		0.01	*** (1.01)		0.02	*** (1.02)	
여성	-0.16	*** (0.85)		-0.11	*** (0.89)		-0.10	*** (0.90)		-0.19	*** (0.83)	
교육수준	0.25	*** (1.28)		0.30	*** (1.35)		0.19	*** (1.21)		0.24	*** (1.27)	
소득수준	0.04	** (1.05)		0.06	*** (1.06)		0.07	*** (1.07)		0.07	*** (1.07)	
호남지역 출신	0.79	*** (2.19)		0.69	*** (1.99)		0.71	*** (2.03)		0.66	*** (1.93)	
영남지역 출신	-0.27	*** (0.77)		-0.32	*** (0.73)		-0.28	*** (0.76)		-0.32	*** (0.72)	
이념성향	-0.25	*** (0.78)		-0.22	*** (0.80)		-0.26	*** (0.77)		-0.22	*** (0.80)	
경제평가	0.17	*** (1.18)		0.14	*** (1.15)		0.10	*** (1.10)		0.13	*** (1.14)	
응답자수	13,120			13,119			13,118			13,118		
Log-Likelihood	-15678.57			-15338.91			-15350.90			-15178.34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연도별 더미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평가의 영향력은 과연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날까? 통일의식을 결정짓는 다른 요인들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않을까? 즉, 기존연구를 통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통일 기대이익, 당파성, 민족정체성 등의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표 2-6-3〉부터 〈표 2-6-6〉에서는 위와 동일한 모델에 각각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⁸⁵⁾ 분석 결과, 상호작용 변수에 따라 그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85) 지면 관계상 다른 통제변수의 결과는 표에서 생략하였다.

먼저 통일 기대이익과 상호작용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위의 <표 2-6-2>에 나타난 경제평가 계수와 일관되게 반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의 기대이익 변수가 경제평가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통일이 한국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통일에 대한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도 많은 통일의식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일의 예상시기와 북한의 위협 인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통일 기대이익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7개 항목에서는 모두 일정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가설 4의 예상이 맞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6-3> 경제평가와 통일 기대이익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7	*** (1.19)	0.18	*** (1.19)	-0.27	*** (0.77)	-0.12	*** (0.89)	-0.15	*** (0.86)
통일 기대이익	1.48	*** (4.39)	1.35	*** (3.85)	-0.99	*** (0.37)	-0.67	*** (0.51)	-0.32	*** (0.73)
경제평가× 통일 기대이익	-0.10	** (0.91)	-0.09	* (0.91)	0.05	(1.05)	0.07	(1.07)	0.17	*** (1.19)
응답자수	13,119		13,118		13,115		13,118		13,118	
Log-Likelihood	-18014.96		-12748.51		-21168.35		-17642.26		-14627.33	

변 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 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6	*** (1.18)		0.17	*** (1.18)		0.12	*** (1.13)		0.18	*** (1.19)	
통일 기대이익	1.07	*** (2.91)		1.19	*** (3.30)		1.09	*** (2.96)		1.20	*** (3.32)	
경제평가× 통일 기대이익	-0.08	* (0.92)		-0.14	*** (0.87)		-0.13	*** (0.88)		-0.17	*** (0.84)	
응답자수	13,118			13,117			13,116			13,116		
Log-Likelihood	-15317.91			-14982.01			-15057.34			-14856.3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해당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반면 정당일체감의 경우, 이러한 가설이 지지받지 못하였다. <표 2-6-4>에 나타난 대로, 경제평가와 진보적 정당에 대한 지지 간의 상호작용은 남북 간 정기회담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어떠한 통일의식 항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연결을 해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자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 지지 변수가 갖는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⁸⁶ 진보정당에 일체감을 가질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염원하며, 북한을 적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여러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함

86]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델에서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어떤 변수의 계수값은 나머지 구성변수가 모두 0일 때의 값이란 점에서, 그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을 계수값만으로 올바르게 파악하기는 힘들다(Braumoeller, 2004). 이러한 점에서 본 저자는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하고 정당지지 변수만을 추가한 모델을 돌려보았고, 그 결과 정당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되었다. 물론 한국인의 당파성이 출신지역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출신지역 변수를 통제한 본 모델의 특성상 몇몇 항목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데 실패하였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러한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진보정당을 지지하더라도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통일에 대한 바람이 떨어지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정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표 2-6-4〉 경제평가와 정당지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	(1.21)	0.20 ***	(1.23)	-0.28 ***	(0.75)	-0.14 ***	(0.87)	-0.06 *	(0.94)
진보정당 지지	0.25	(1.28)	0.35 **	(1.42)	-0.20	(0.82)	-0.26 *	(0.77)	-0.05	(0.95)
경제평가× 진보정당지지	-0.03	(0.97)	-0.07	(0.93)	0.01	(1.01)	-0.03	(0.97)	-0.02	(0.98)
응답자수	8,352		8,351		8,351		8,351		8,352	
Log-Likelihood	-11985.17		-8724.93		-13717.91		-11727.50		-9026.76	

변 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 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치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6 ***	(1.17)		0.15 ***	(1.16)		0.14 ***	(1.14)		0.18 ***	(1.20)	
진보정당 지지	0.56 ***	(1.75)		0.14	(1.15)		0.43 ***	(1.54)		0.50 ***	(1.64)	
경제평가× 진보정당지지	-0.07	(0.94)		0.00	(1.00)		-0.09	(0.91)		-0.13 *	(0.87)	
응답자수	8,352			8,351			8,350			8,350		
Log-Likelihood	-9988.45			-9834.42			-9750.29			-9630.90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해당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그렇다면 민족정체성의 경우는 어떨까? 민족정체성도 정당지지와 마찬가지로 경제평가와 그리 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개의 통일인식 항목 중 3개의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북정책에 대한 상호작용은 가설에서 기대한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경제평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민족적 당위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다지 굳건한 믿음과 대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태도는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도 여전히 경제평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심지어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들의 민족적 입장이란 것이 실용적 고려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표현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6-5〉 경제평가와 민족정체성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	(1.21)	0.18	***	(1.20)	-0.30	***	(0.74)	-0.11	***	(0.89)	-0.11	***	(0.90)
민족정체성	0.27	***	(1.31)	0.23	**	(1.26)	-0.23	**	(0.79)	-0.49	***	(0.61)	-0.37	***	(0.69)
경제평가× 민족정체성	-0.01		(0.99)	0.01		(1.01)	0.04		(1.04)	0.01		(1.01)	0.12	**	(1.12)
응답자수	13,087			13,086			13,083			13,086			13,086		
Log-Likelihood	-18654.87			-13152.19			-21487.46			-17605.86			-14583.46		

변 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2	***	(1.12)	0.09	***	(1.09)	0.07	**	(1.07)	0.13	***	(1.14)
민족정체성	-0.05		(0.96)	-0.14		(0.87)	0.04		(1.04)	0.12		(1.12)
경제평가× 민족정체성	0.11	**	(1.12)	0.12	**	(1.12)	0.06		(1.06)	0.00		(1.00)
응답자수	13,086			13,085			13,084			13,084		
Log-Likelihood	-15608.33			-15276.70			-15283.15			-15116.4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해당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이에 반해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경제평가의 효과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의 상호작용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표 2-6-2〉의 경제변수 계수와 반대 방향의 영향력을 보였고, 통계적 유의미성 또한 북한 위협대상 인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나타났다. 즉, 북한주민들을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에게서 경제 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한 것으로

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본 조사의 설문이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직접 묻기보다는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해석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향후 마주하게 될 통일사회에서 북한주민에 대해 형성될 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6-6〉 경제평가와 정서적 유대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22	***	(1.24)	0.21	***	(1.23)	-0.30	***	(0.74)	-0.11	***	(0.89)	-0.13	***	(0.88)
정서적 유대감	0.79	***	(2.20)	0.79	***	(2.21)	-0.60	***	(0.55)	-0.53	***	(0.59)	-0.35	***	(0.71)
경제평가× 정서적 유대감	-0.13	***	(0.88)	-0.12	**	(0.89)	0.09	*	(1.09)	0.05		(1.05)	0.17	***	(1.18)
응답자수	13,105			13,104			13,102			13,104			13,105		
Log-Likelihood	-18623.31			-13100.93			-21437.89			-17673.33			-14611.19		

변 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	(1.20)	0.16	***	(1.18)	0.13	***	(1.14)	0.16	***	(1.17)
정서적 유대감	0.68	***	(1.97)	0.74	***	(2.09)	0.75	***	(2.11)	0.72	***	(2.05)
경제평가× 정서적 유대감	-0.10	**	(0.91)	-0.11	**	(0.90)	-0.14	***	(0.87)	-0.13	**	(0.88)
응답자수	13,105			13,104			13,103			13,103		
Log-Likelihood	-15560.28			-15206.83			-15239.47			-15067.28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해당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6. 소결

본 장은 시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평가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인의 정치행동과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졌는데, 특히 투표의 결정에 있어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투표행동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이러한 경제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미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의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사회배경 변수, 세대별·시기별 역사적 상황, 이념성향 및 당파성, 민족정체성과 정서적 유대감 등 다양한 변인들이 분석되었지만 경제평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이 통일과 북한,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는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평가는 시민들의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통일이 더 일찍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통일의 시기를 보다 이르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경제평가가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

족할수록 북한을 위협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북핵에 대한 위협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경제평가에 긍정적일수록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남북 간 회담 등에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정치경제적 통합이 북한보다는 남한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정이 좋다고 느낄수록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갖는 영향력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술하였듯이 여러 사회배경 변수와 정치태도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 경제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평가가 기존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본 장은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정당일체감, 민족정체성과 정서적 유대감 등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위에서 나타난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과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경제평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이 통일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러한 긍정적 인식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통일은 이로운 것이니 통일을 원할 것이고, 설령 경제사정이 나쁘더라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 역시, 북한 사람들을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그들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 본 분석은 이러한 가설들이 맞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정당에 대한 지지와 통일의 민족적 당위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통일인식 항목 아홉 개 중 대부분 항목에서 해당 변수와 경제평가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도 경제와 통일인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는 점은, 그만큼 경제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인의 통일인식이 이념과 당파적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통일이라는 이슈 자체가 매우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정당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역시 크게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당파성을 초월하여 통일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의 기대이익에 따라 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위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민족적 당위 역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단순한 자기표현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에게선 경제평가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설문 문항 자체가 통일이 일단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그 이유를 물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

다. 통일을 별로 필요하다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느 선택이든 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통일에 별생각이 없거나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을 골랐을 수 있다. 어찌 되었건 통일의 이유를 민족정체성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민족적 입장이 실리적인 고려를 뛰어넘을 만큼 강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됨을 본 장의 결과는 말해준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더라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통일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이론적으로 본 장은 경제평가와 통일인식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평가가 투표행동과 당파성 같은 고전적인 정치행동과 태도를 넘어 보다 넓고 다양한 범주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통일인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한국인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요인들 외에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통일인식 논의에 있어 경제평가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회귀분석에 있어 경제평가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자칫 변수누락으로 인한 추정의 편향(misspecification)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인식 연구에서 경제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본 장은 통일, 보다 넓게 서로 다른 사회 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결국 경제적, 물질적 요인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됨을 보여준다. 이는 한발 앞서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동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인종 구성과 정치공동체 구성 간의 간극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지만, EU가입 등 외부적으로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갈등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북 간의 통일은 동일한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종 간 갈등과는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집단이 모여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역시 비슷한 강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할 때 그러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집단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당파성을 초월하여 경제가 통일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본 장의 분석결과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특히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과 안보는 늘 한국사회를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이슈였음을 볼 때,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진보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포용정책도 안정적인 경제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본 장의 결과는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민심이 돌아서고 지지기반이 줄어들면서 정책의 효용성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국정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튼튼한 경제적 근본을 갖춰 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갈 때,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위협인식(perceived threat)’과 탈북자·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1. 서론

한반도는 이제 분단 70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늘 뜨거운 현안이 동시에 매우 오래된 쟁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도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예컨대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강화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동질감도 약화되고 있다. 세대에 따라, 정치적 지향에 따라 북한 체제 및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국민 내부의 인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⁸⁷

주지하다시피 통일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대북 관계나 정부 정책의 변화,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의 남북대화 단절, 북핵 위기의 지속적인

고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 등은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군사·정치적 요인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차원, 일상적 삶의 문제들이 국민들의 통일 인식과 교차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 지형의 변화는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명시적 암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한 사회 내부에서 양극화, 계층 및 세대별 균열, 새로운 격차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사회적 위협감과 불안감, 존재론적 안전(ontological security)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학자 기든스에 의하면 존재론적 안전이란 대다수 사람들이 자아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기 주변의 사회적 물질적 행위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⁸⁸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세계는 존재론적 안전을 위협하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되고 있다. 테러, 환경위기나 기상이변과 같은 외적인 사건과 더불어, 사회 내부의 격차와 이질감의 확대,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혐오의 만연, 점차 개인화되는 일상과 공동체의 약화 등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다. ‘나’의 존재론적 안전이 흔들린다는 느낌, 더욱 민감해지는 위협 인식은 정치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여론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87] 황정미, “사회적 위협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제23권 2호(2016), p.312; 박명규 외, 『2015 통일외교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88]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1).

이 장에서는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이 통일과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탈북자 지원 정책과 대북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통일 비용'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듯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통일은 사회 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전환시키는 사건이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부담이 요구되는 것이다. 통일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이라면, 이미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비용은 그 체감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탈북자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다.

자신의 존재론적 안전이 위협받는다 고 느낄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의 소수자 혹은 나와는 다른 타자를 포용하려는 태도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놓고 다양한 집단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위협 인식은 주류집단 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소수자에 대한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위협 인식 개념은 집단 간 경쟁이론을 전제한다.⁸⁹⁾ 한 사회의 다수자 집단은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집단 위협, 혹은 집단 간 관계에서 느끼는 위

협은 그 내용에 따라 경제적 위협과 문화적 위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⁰⁾ 경제적 위협은 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의 정책 지원 등 가치 있는 재화들을 놓고 벌어지는 집단 간 경쟁과 연관된다. 이와 달리 문화적 위협은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사뭇 다른 도덕, 규범, 가치를 신봉하는 이민자 집단이 기존의 문화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⁹¹⁾

위협 인식은 개인적 위협(personal threat)과 집합적 위협(collective threat)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할 수도 있다.⁹²⁾ 개인적 위협인식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고 과거보다 지위가 하락했다는 불안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집합적 위협은 가령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외집단(outgroup)이 늘어나면 사회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이 확보하고 있던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집단 간 경쟁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또는 위협적인지에 대한 평소의 인식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사회적 갈등이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동시에 위협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불신 내지 무력감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89] Scheepers, P., M. Gijssels, and Marcel Coenders,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8 No. 1 (2002), pp. 17-34; Quillian, Lincoln,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August (1995), pp. 586-611.

90] Schlueter, Elmar, B. Meuleman, and E. Davidov,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erceived group threat: A multilevel study of 27 Wester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2013), pp. 670-682.

91] 황정미, "사회적 위협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p.321.

92] Scheepers et al.,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미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위협 인식이 대북 지원이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 문제에 관한 인식이 단지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태도 뿐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담론 지형이나 인식의 역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위협 인식 이외의 다른 변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내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포용적 태도를 위축시킨다면, 반대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문화다양성,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적 가치에 대한 신념들은 역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하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2절에서는 분석 방법인 다중회귀 분석의 모델을 소개하고, 위협인식을 비롯한 주요 개념들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3절은 주요 변인들의 기술 분석, 즉,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위협인식의 추이 등을 2017년 조사 결과 및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4절은 두 가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다루며, 5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정리한다.

2. 분석 방법

1) 위협인식의 측정

위협 인식은 기존연구에서 주로 이민자에 대한 주류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다. 가령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주로 교육수준이 낮고 저숙련 직업 종사하는 시민들이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별 비교분석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거리감이나 편견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⁹³⁾

그런데 기존의 위협 인식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이민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를 분석할 때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 예로 유럽 사회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가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경쟁악화가 위협 인식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⁹⁴⁾,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기에는 수적으로 적은 집단이다. 또한 분단체제의 지속은 군사적 긴장과 북핵 위기 등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 왔다. 따라서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안보 위협 요인도 분석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93]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7); Quillian, Lincoln,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August(1995), pp. 586-611.

94] Polavieja, Javier G., "Labour-Market competition, recession and anti-immigrant sentiments in Europ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drivers of competitive threat," *Socio-Economic Review*, 2016 (published online February 22, 2016), pp. 1-23.

〈표 2-7-1〉 위협인식: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비고
안보 위협	핵무기 위협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한반도 전쟁 가능성	
경제 위협	한국 경제 만족도 (불만)	개인적 위협
	생활수준 개선 (악화)	
사회문제 심각성	빈부격차	집합적 위협
	실업문제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을 측정하는 척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위협 인식을 안보위협, 경제위협, 사회 문제 심각성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안보위협에는 북한의 핵으로 인한 위협,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경제위협은 개인의 경제 및 재정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는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얼마나 악화 혹은 개선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 환경에 대한 위협은 집합적 수준에서 느끼는 우리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척도 점수가 높아지도록 통일하기 위해 일부 문항의 코딩을 변경하였다.

2)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이 장의 분석에서 종속 변인은 두 가지, 탈북자 지원정책과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이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표현은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로 되어 있다. 통일이나 북한관련 정책 중 주민 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만을 포함하였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문항은 2017년 조사에서 문항 표현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분석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대로 포함했다.

다중회귀분석의 모델은 아래 표와 같다. 회귀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인구사회 변인,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수준만을 투입한다. 2단계에서는 위협 변인, 그리고 3단계에는 가치관 변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각 단계별 설명력의 변화(R^2 변량)를 고찰한다. 가치관 변인들은 기존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된 변인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정치적 이념성향(진보/중도/보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민족적 자긍심)을 포함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다문화 수용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10년 이상 지속된 통일의식 조사의 특성상 시기별로 특정 문항이 삽입, 누락되거나 일부 문항 표현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되, 되도록 긴 기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표 2-7-2〉 다중회귀분석 모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인	인구/ 사회 변인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가구소득		
	위협 인식		• 안보위협 • 경제위협 • 사회문제 심각성	
	가치관			• 민주주의 지지 (2017) • 다문화수용성 (2012-) • 한국인 자긍심 • 진보/중도/보수 • 통일 필요성
종속변인		탈북자 지원정책 지지		
		•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4점 척도)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된다” (2007-2016) •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된다” (2017) (4점 척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 인식이 높으면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지원에 반대할 것이다.(가설1). 둘째, 위협 인식이 높으면 대북 지원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가설2). 셋째, 위협 인식의 이러한 영향은 응답자의 가치관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이다.(가설3). 주요 가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위협 인식의 세

가지 차원, 즉 안보 위협, 경제위협, 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각각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3. 기술 분석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태도는 2007년부터 2012년경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진동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에는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대화 단절, 무력 충돌, 북핵 위기, 군사적 긴장 등 지난 10년간 발생한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 없이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 흐름을 본다면 탈북자에 대한 포용의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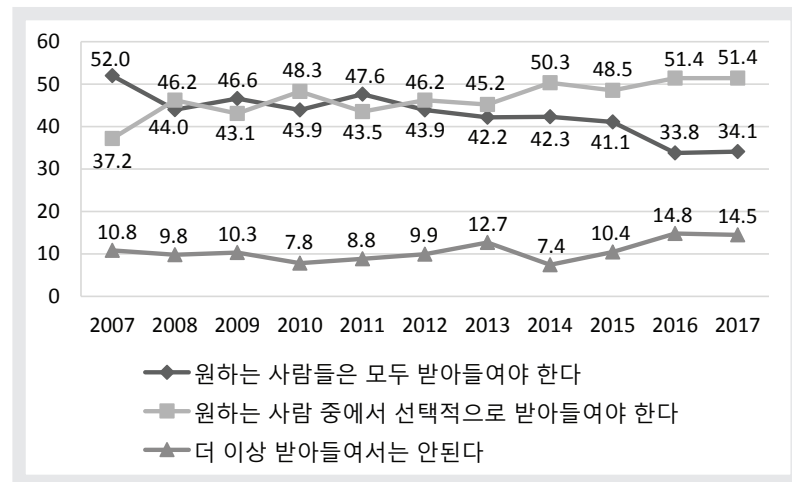
탈북자를 남한 사회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 52.0%에서 2017년 34.1%로 상당히 감소한 반면,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4.5%로 증가하였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1.4%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탈북자를 민족의 일원으로 일단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게 선택적

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탈북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척도이다.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탈북자를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각각 얼마나 꺼리는지를 조사하였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 11년 동안 완만하게 거리감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점 이하의 수용, 3점은 중립, 그리고 4점 이상은 꺼린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거리감의 순서로 보면 동네 이웃(평균 척도점수 2.66), 직장동료(2.71), 사업동반자(3.28), 결혼상대(3.55)로 갈수록 거리감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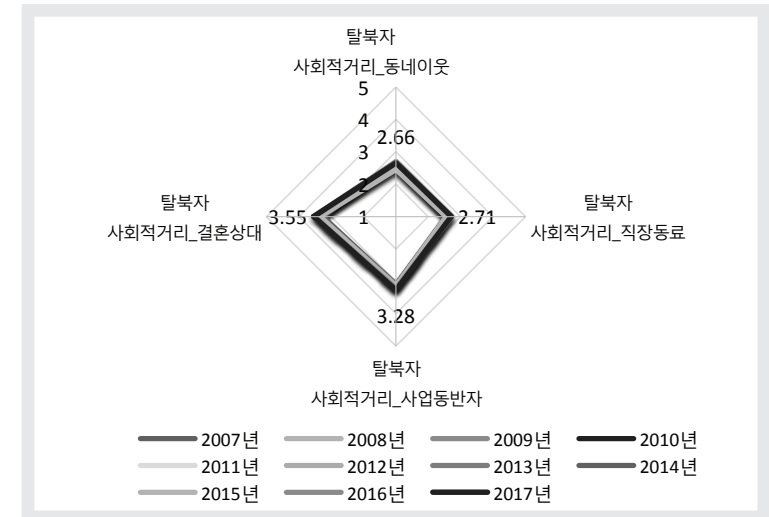
〈그림 2-7-1〉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 (2007-2017)

(단위: %)



〈그림 2-7-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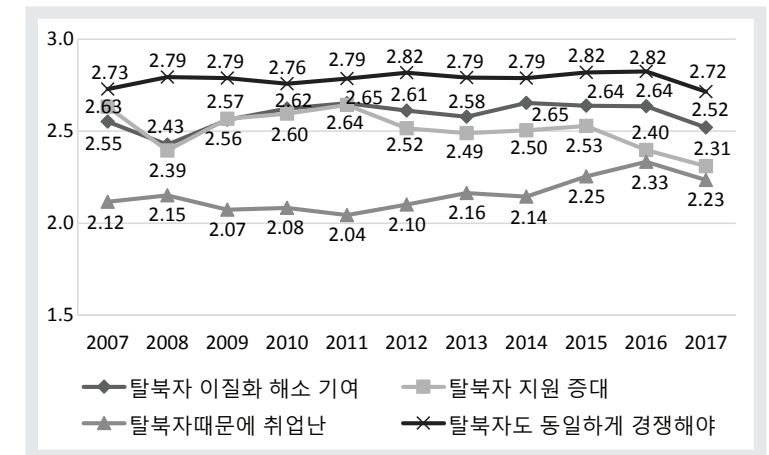
(단위: 척도점수)



※ 1점: 전혀 거리지 않음 - 5점: 매우 꺼림(리코드)

〈그림 2-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2007-2017)

(단위: 척도점수)



※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함)

탈북자의 남한사회 내 역할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태도도 완만한 변화를 보인다. 먼저 '탈북자도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태도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2017년 조사에서 약간 낮아졌다. '탈북자 때문에 취업난이 심해진다'는 태도, 즉 탈북자 증가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계심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2017년 조사에서 약간 떨어졌다. 이 두 항목은 탈북자에 대한 특혜(경쟁 면제)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올해 들어 다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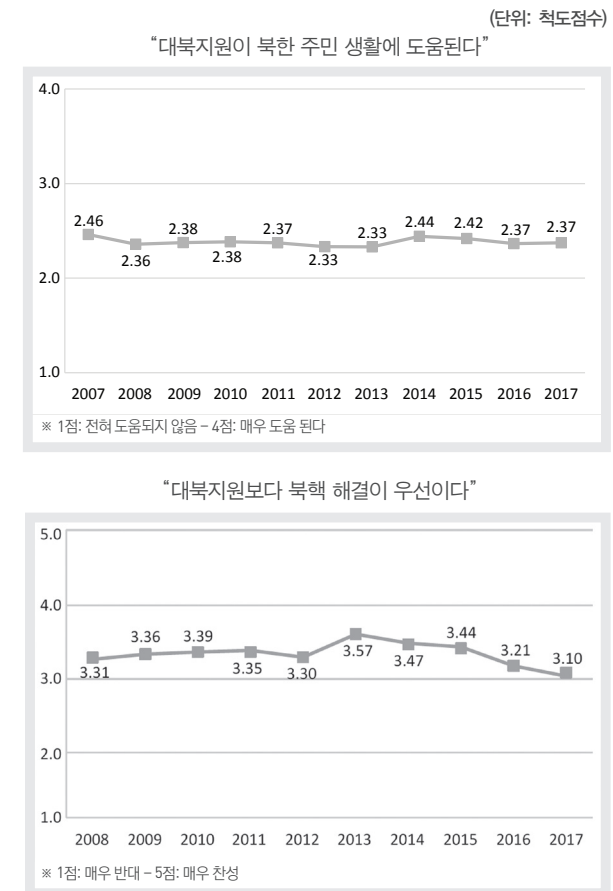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 정부 지원에 대한 지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확연하게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점 척도 평균값 기준으로 2007년 2.63에서 2017년 2.31로 낮아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범위, 복지 재원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점차 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의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2년과 2013년에 가장 낮았고 2014년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북 지원이 군사비나 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정치적 공방, 지원 물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점 척도에서 2.33점에서 2.46점 사이의 점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견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7-4〉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007-2017)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2017년 2.31)보다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2017년 2.37)은 약간 높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탈북자나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지원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008년 이후 점차 고조되어 2013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기준 3.57점)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북한의 연속되는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난 10년 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5점 척도 기준 3.10점) 전체적으로 보면 5점 척도 중 3점, 즉, 중립에서 약한 지지 사이에 있는 수준이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모든 지원이나 교류를 동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조금씩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3) 위협인식의 변화

(1)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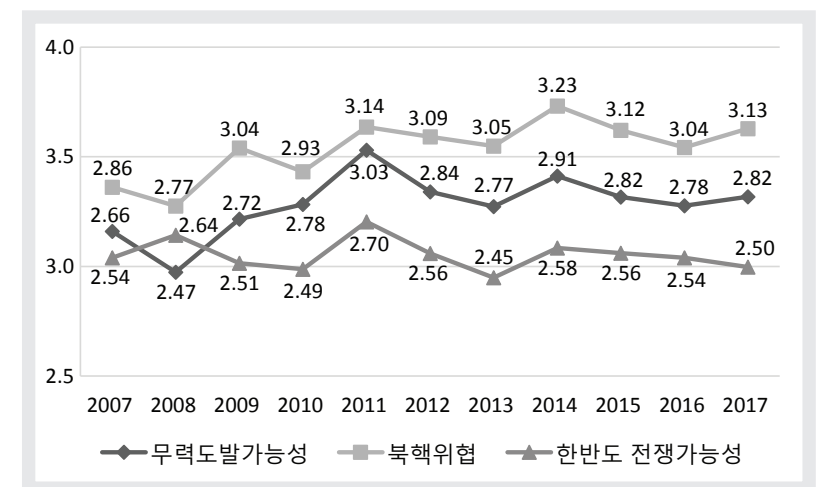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인식은 완만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응답자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북핵 위협이다. 2007년 조사에서 척도점수 기준(4점 척도) 2.86점이던 것이 2017년에는 3.13점으로 상당히 높아졌다.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위협 인식 또한 높아진 것이

다.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2011년 가장 높아졌다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 목함지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북핵 위협 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은 북핵이나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 인식보다 한층 더 낮게 나타난다. 2011년에 약간 고조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간헐적인 무력 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보위협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완만하게 더 불안감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5〉 안보위협 인식의 변화 (2007-2017)

(단위: 척도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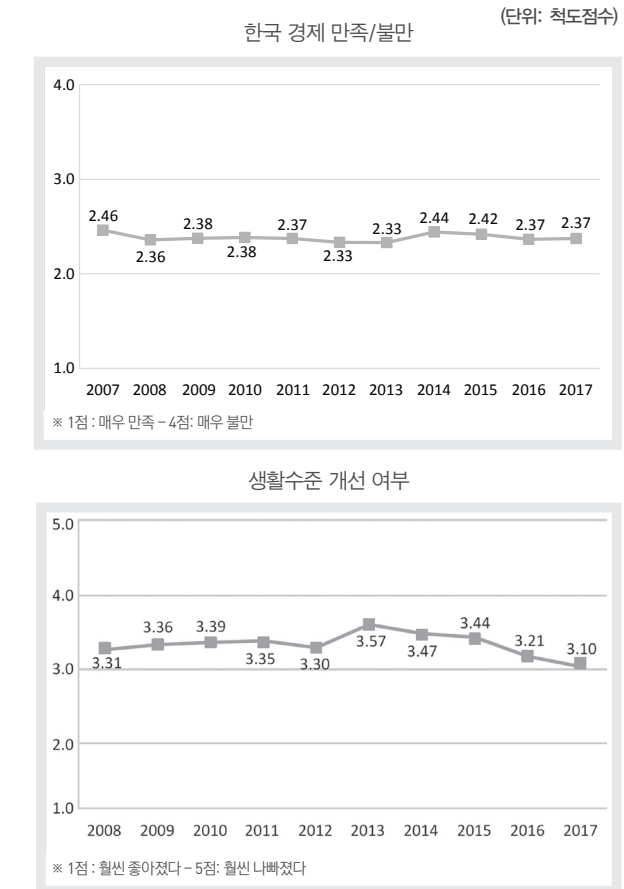


※ 1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없다 - 4점: 매우 위협을 느낀다/ 많이 있다

(2) 경제위협 인식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워킹 푸어(working poor)나 하우스 푸어(house poor) 등 새로운 빈곤의 등장은 경제적 위협 인식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지난 10여 년 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위협 인식이 극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만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척도 점수 기준으로 3점 이상, 즉 불만을 느끼는 수준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는 2.8에서 3.01 사이의 점수가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약한 불만의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불만이 낮아진 것은 2017년 조사결과이다.(척도 점수 2.77) 또한 자신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은 2.01에서 2.29 사이의 척도 점수, 즉,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불만의 정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이 이전보다 약간 나아졌다는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림 2-7-6〉 경제위협 인식의 변화 (2007-2017)



(3)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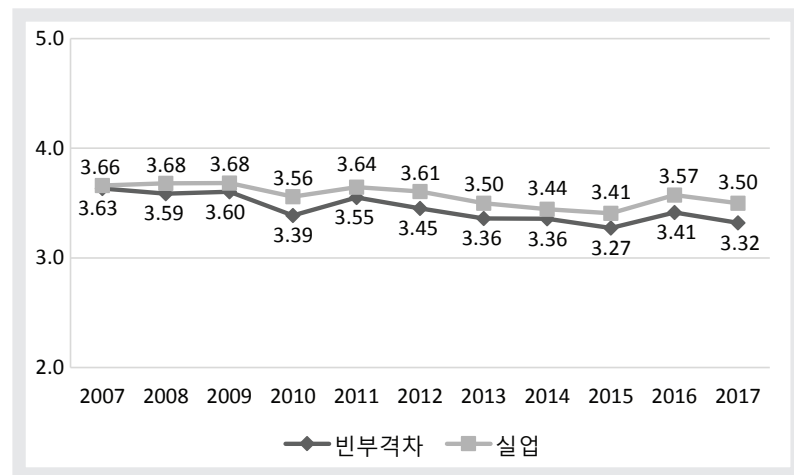
경제적인 위협 인식이 주로 개인의 재정형편 변화에서 느끼는 개인적 차원의 위협인식이라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느끼는 집합적 위협

인식의 수준을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다. 집합적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는 4점 척도 기준으로 3.5점 전후의 평균 점수, 즉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실업이나 빈부격차에 대해 느끼는 위기의식은 안보 위협 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빈부격차나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했지만, 이후 실업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태도가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실업은 생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실업과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7-7〉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변화 (2007-2017)

(단위: 척도 점수)



※ 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4점: 매우 심각하다

4. 분석 결과

1) 위협 인식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종속 변인으로, 그리고 인구사회 변인, 위협 인식, 가치관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각 연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10년간의 전체적인 태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2008-2017)

먼저 회귀 분석의 1단계에서 인구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졸이하의 응답자들은 그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교육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5, 2016년에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 탈북자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이 탈북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국내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위협 변인들이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가설1).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여 탈북자 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은 2011년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2012년, 2014년, 그리고 2017년에는 안보 위협에 민감한 사람들이 오히려 탈북자 지원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여길수록 북한

체제에서 탈출해 온 탈북자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7-3〉 회귀분석 1 : 탈북자 지원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1.442***	1.782***	1.509***	1.750***	1.370***	1.253***	1.345***	.805**	1.763***	2.309***
남성(d)	.050	-.009	.042	.066	.070	.040	.043	.047	.058	-.041
19-29세 (d)	-.055	-.080	-.024	-.079	.036	-.026	.007	-.042	-.130	-.012
30대 (d)	.026	-.047	-.015	-.049	-.103	-.073	.026	-.014	-.077	-.060
50대(d)	-.075	.146*	-.005	.032	.041	-.036	-.001	.033	-.057	.035
60대 이상(d)	-.081	-.128	-.171	.054	-.004	-.027	-.012	-.022	.059	.061
중졸이하(d)	-.147	-.173*	-.058	-.141	-.279**	-.033	.098	.018	-.052	.070
대재이상(d)	.013	.182***	.140**	.175***	.083	.054	.047	.032	.053	-.038
소득										
200 미만(d)	-.109	.031	.228**	-.084	.124	-.050	.102	-.225*	-.176*	-.113
200_299 (d)	-.053	-.001	.092	-.009	.068	.009	.050	-.093	-.010	.068
400 이상 (d)	.085	.039	.209	.078	.005	.023	.048	.062	.054	.049
위협 인식										
북핵위협	.011	-.018	-.012	-.060*	-.041	-.017	-.012	.002	-.023	.074*
무력도발 가능성	-.015	.037	-.032	.020	.022	.022	.070*	.017	.040	.048
한반도 전쟁가능성	-.025	.026	.032	.063*	.074*	-.003	-.053	-.002	-.003	.006
생활수준 불만	.014	.016	.013	-.042*	.000	.004	-.011	.029	-.007	-.017
한국경제 불만	-.034	-.095**	-.106**	.004	-.049	-.064	-.030	.001	-.012	.019
빈부격차 심각성	.017	.059	.099*	.064	.029	-.011	-.036	.089*	.006	-.035
실업문제 심각성	.043	.036	.078	-.035	.005	.040	.026	.002	-.062	-.053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56
다문화 수용성					.119***	.176***	.090**	.153***	.104***	.180***
한국인 자긍심	.143***	.007	.042	.066*	-.005	.082*	.133***	.165***	.043	-.002
진보(d)	.045	.145**	.134**	.124**	.077	-.030	.049	-.016	-.023	.106*
보수(d)	-.003	-.051	-.047	-.013	-.042	-.103	.052	-.071	-.140*	-.007
통일 필요성	.190***	.138***	.123***	.139**	.154***	.121***	.121***	.086***	.116***	.126***
R ²	.153	.116	.117	.126	.159	.107	.085	.112	.080	.126
F	9.784***	7.211***	7.323***	8.002***	9.920***	6.307***	4.851***	6.642***	4.639	7.271***
R ² 변량(위협)	.014	.017	.025	.016	.020	.010	.010	.018	.006	.015
R ² 변량(가치관)	.107	.058	.051	.065	.091	.079	.061	.079	.053	.100

경제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가정하였듯이(가설1), 경제적 위협을 느낄수록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효과가 회귀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지만 계수들은 주로 음의 부호로 나타난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불안하게 느낄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앞으로 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0년과 2015년에는 빈부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탈북자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계수들이 음의 부호로 바뀌고 있어 추후 분석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경제적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설1은 경제적 위협 요인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관 요인들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설3)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치관 중에서 가장 일관되고 뚜렷한 통계적 영향을 보여준다.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사람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 찬성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이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 이념 성향보다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R2 변량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위협 변인보다는 가치관 변인이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는 효과가 더 크다. 위협 인식은 종속변인에 0.6%-2.5%에 영향을 미친 반면, 가치관 변인들은 5.3%-10.7%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도 위협 인식보다는 가치관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회귀 분석을 통해 경제적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향후 '내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가 확산될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도 더 높아질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분석에서는 경제적 위협 인식의 부정적 효과가

가치관 요인들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 적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 다문화 수용성의 확대는 탈북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떠받치는 중요한 지지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협 인식과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두 번째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위협 인식이 대북 지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단, 2017년에는 문항의 표현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곧 북한주민에 대한 지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1단계에서 인구사회적 변인이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대북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2012년까지는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소득이나 연령별 차이가 약간 나타나지만 일관된 방향은 뚜렷하지 않다. 고학력층이 탈북자를 포용하거나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등의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표 2-7-4〉 회귀분석 2: 대북지원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2.088***	2.121***	2.199***	2.243***	1.903***	2.237***	2.680***	1.746***	2.181***	1.601***
남성(d)	.109*	-.010	-.006	.028	.028	.001	-.019	-.034	-.003	.004
19-29세 (d)	.010	-.029	-.032	-.070	-.097	-.155*	.036	.017	-.123	.047
30대 (d)	.074	-.065	-.200**	-.075	-.014	-.047	.053	.079	-.049	.064
50대(d)	-.001	-.075	-.007	.055	.027	-.016	.010	.005	.034	.172*
60대 이상 (d)	.022	-.122	-.092	-.131	-.109	.159	.002	.139	-.085	.225**
중졸이하(d)	.162	-.080	-.078	-.011	-.078	-.240*	-.167	-.026	.077	-.018
대재이상(d)	.130*	.057	.143*	.153**	.109*	.058	-.045	-.081	-.002	.077
소득 200미만(d)	-.227**	.111	.093	-.012	.170*	-.072	-.010	-.115	-.167	-.038
200_299 (d)	-.098	.027	-.021	.109	-.014	.027	-.006	-.071	-.030	.099
400이상 (d)	-.089	.098	-.059	-.023	.025	.012	-.022	.029	-.049	.046
위협 변인										
북핵위협	.039	.035	.015	-.105	-.055	-.012	.028	-.025	-.023	-.047
무력도발 가능성	-.049	-.054	-.044	-.024	-.059	.073*	-.051	-.007	.024	.026
한반도 전쟁 가능성	.032	.009	-.038	.004	-.010	.057	.005	-.068	-.050	.023
생활수준 불만	.006	.002	-.017	-.021	.075**	.004	.008	.053*	.032	-.016
한국경제 불만	-.128***	-.131***	-.063	-.068*	-.081*	-.111**	-.117**	-.048	-.074	.013
빈부격차 심각성	-.007	-.001	.017	-.056	-.074	-.070	-.007	.067	-.006	-.095*
실업문제 심각성	.028	.043	-.043	.079	.012	.093	-.025	-.035	-.044	.027
가치관 변인										
민주주의가치										.034
다문화 수용성					.097***	.016	-.104***	.113***	.102***	.091***
한국인 자긍심	.002	-.020	.028	.024	.057	-.129**	.034	-.009	.001	.012

가치관 변인										
진보(d)	.033	.205**	.051	.100	.083	-.009	-.005	.161**	.081	.136**
보수(d)	-.049	-.085	-.162*	-.123*	-.148*	-.062	-.001	.105	-.089	-.205**
통일 필요성	.139***	.152***	.167***	.148***	.146***	.114***	.149***	.132***	.104***	.110***
R ²	.100	.095	.094	.112	.130	.070	.082	.093	.059	.088
F	6.073***	5.810***	5.734***	6.967***	7.795***	3.965***	4.677***	5.375***	3.335***	4.860***
R ² 변량(위협)	.020	.020	.010	.025	.024	.019	.020	.017	.006	.008
R ² 변량 (가치관)	.045	.061	.061	.061	.076	.031	.056	.064	.043	.068

위협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안보 위협은 대북지원 정책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여길수록 북한주민 지원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이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이런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경제 위협은 뚜렷하게 대북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강화한다. 경제위협을 측정하는 두 가지 문항에서 일부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2012년, 2015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에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리고 경제 위협의 영향은 앞에서 분석한 탈북자 지원 정책보다 북한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경제적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탈북자 지원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더 부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탈북자는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접촉할 수 없는 외부자라는 차이가 있다. 동시에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도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대북 지원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위협 인식의 영향은 앞의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위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불만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상과는 달리 안보 위협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치관 요인들은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북 지원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적 성향이 곧 북한에 반대하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미치는 효과도 주목해 볼 만 하다. 만약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민족적 동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이러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인 자긍심의 효과는 거의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위협 인식과 가치관 요인에 의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R2 변량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가설3) 위협 인식 변인들은 종속 변인에 대해 0.6%-2.5%의 설명력을 갖는 반면, 가치관 변인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3.1%-6.8%의 설명력을 보인다. 위협 인식이 높아지면 북한주민 지원정책에 반대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위협 인식의 효과는 가치관 요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위협 인식의 영향력은 2015년 이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치관 변인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이다.

5. 소결

위협 인식은 자신의 일상이 별일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즉,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높아진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분석하였듯이, 21세기의 사회는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기존의 공동체적 기반은 흔들리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환경 위기, 원전과 핵의 위협, 지구촌 각지의 테러 위협,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확산 등 안팎의 위협 지표들이 상승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관심에 기반하여, 위협 인식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인식과 북한 인식, 즉, 구체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본 장에서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협 인식은 안보 위협, 경제 위협, 그리고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7년부터 실시된 통일외교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위협 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인지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북핵으로 인한 위협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연평해전이나 목함지뢰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경제 위협, 즉 한국 경제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의 경제형편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약한 불만'의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서는 빈부격차보다 실업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척도점수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협 인식은 탈북자 지원 및 북한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선 최근 10여 년의 추세를 보면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지보다는 중립적인 태도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인식의 추세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이러한 위협 인식이 탈북자 및 북한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보위협보다는 경제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탈북자 및 북한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가치관 요인들, 즉,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위협 인식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이른바 '안보 불감증' 논의가 일면적인 동시에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안보 불감증'을 문제로 제기하는 논거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해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다지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의 수준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즉, '불감증'이라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전혀 뒷받침 될 수 없는 것이다. 2011년 이후 북핵으로 인한 위협 인식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점 이상, 즉 위협을 상당히 느끼는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2017년 조사에서

도 2016년보다 평균 점수가 더 상승하였다.(3.04 → 3.13) 이처럼 북핵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조사 결과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성숙한 안보 의식, 즉 핵실험이나 무력충돌로 인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 국면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는 안보 위협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적 위협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제적 불안이 높아질수록 탈북자나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보다 남한 사회의 경제위기나 실업 위기와 같은 경제적 변수들이 통일 인식, 대북 인식에 때로는 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적 위협 인식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가치관 변인들은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가치관 변인들의 긍정적 효과가 위협인식의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역으로, 만약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다양성 인식이 낮아진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포함한 소수자 포용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 장



결장

정권교체와 안보위기: 기대와 전망

2017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 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등 지속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던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진보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만큼의 전향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장밋빛 기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金正恩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남북관계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2017년,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비록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기는 하나,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반대로 오히려 진보정부 아래서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통일과 북한, 그리고 일련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 입장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여러 조사부문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이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통일의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남북 간의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시작 이래 가장 높은 비율(32.5%)을 보인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북한발 안보위협이 우리에게 가하는 경제적, 심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한 것이다.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응답은 줄어든 반면 아예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24.7%)을 기록한 것 역시, 계속되는 김정恩의 도발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새로이 들어선 진보정권 아래서도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이 통일의 현실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의식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핵 자체에 대한 위협인식은 감소하였지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복적인 북한의 핵실험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으나, 그만큼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북한의 행태에 점점 그 신뢰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북정책에 대한 효용성에

도 영향을 미쳐,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하의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남북 관계의 경색이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가 문항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먼저 소폭이나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감소하면서, 2017년의 여러 악재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오히려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정권교체로 인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뀔에 따라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상쇄된 결과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만족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계속해서 감소하였던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들어 크게 반등(45.1%→59.3%)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찬성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것에서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과거 진보정권에서 수차례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 같이 문재인 정부도 북한을 향한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우리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새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공감과 기대가

일부 조사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2017년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통일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통일의식조사』의 심화분석에서는 시대적 상황, 사회적 배경, 이념성향과 당파성,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부평가, 그리고 여러 관련 정치태도들을 그 요인으로 다루어왔다. 이에 더하여 올해에는 크게 교육, 경제평가, 그리고 위협인식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 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지배적, 이상적 가치와 규범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틀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크게 민족주의적, 통일편익적, 그리고 보편가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민족주의적 당위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통일의 편익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오히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머지 관점은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위협에 취약하여 상황에 따라 오히려 통일에 대한 필요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통일교육 담론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탈북민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소수집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사회통합적 담론이 통일교육에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담론을 통해 비단 남북 간의 통일이 아닌 보다 큰 차원

의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본 요인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다. 경제평가는 그간 많은 정치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한국인의 주요한 의식 중 한 가지인 통일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는 경제평가가 긍정적인 통일과 대북 인식에 기여함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당파성이나 통일의 민족당위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먹고사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나쁠 경우 통일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든 통일 논의의 바탕에 결국 경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본 분석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마찬가지로 탈북민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경제, 사회문제로 인한 위협 인식에 있어 탈북민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에 대한 위협인식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즉,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수록 탈북민과의 공존에서 오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 및 통합의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위협이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을 말해준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관용의 정신을 기르는 다문화적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위협인식으로 인한 부

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교육 담론의 결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북핵위기와 경기침체 등 여러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이 남북 관계에 상존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다문화적 가치의 함양이 있다는 것이다. 즉, 통일을 제도의 일치와 같은 단기적 ‘사건’이 아닌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함에 있어, 그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이 통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으나, 다문화적 가치의 제고를 통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러한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에 있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길러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통일교육과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해를 넘긴 2018년 1월 중순이다. 무술년 새해가 밝으면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서풍이 비추기 시작했다.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한층 우호적인 신호를 남한에 보낸 데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남북이 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추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그동안 닫혀있던 남북 간 대화의 창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2018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의식의 형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지, 내년의 조사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일의식조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해로 11주년째를 맞이한 통일의식조사는 그 동안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왔다. 특히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지속적인 설문을 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조사와는 차별화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일의식조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자료의 구축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념의 세분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통일 및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해 다차원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앞선 장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의 설문조사는 개념에 대한 뚜렷한 정의 없이 질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통일, 민주주의, 좌-우 이념 등의 정치적 개념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의 핵심주제인 통일의 경우, 통일을 각자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의식조사가 남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세분화와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통일을 어떤 것-일회적 사건 혹은 장기적 과정-으로 생각하는지,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체제-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가진 체제 혹은 모두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는 체제-라 여기는지, 이념적 '좌'와 '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등, 일련의 질문들을 남북한 의식조사 모두에 포함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간 비교연구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에 맞는 통일과 통합의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미래지향적인 통일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제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통일 담론에 기반한 질문들에 더하여 현재의, 나아가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설문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더 이상 빛바랜 옛날 얘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곧 맞이할 미래의 지향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통일과 통합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로는 정치공동체와 민족정체성 등 통일 후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등 남북이 서로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제도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 문화적 차이의 통합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통일상(像)을 제시해 줌으로써, 연구의 정책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1.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	± 2.8% (95% 신뢰수준)

〈주〉【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참조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20	20	20	19	17	96	194
	여자	20	19	20	20	19	98	
부산광역시	남자	8	7	8	9	8	40	81
	여자	7	7	8	9	10	41	
대구광역시	남자	6	5	7	7	6	31	62
	여자	6	5	7	7	6	31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8	6	36	71
	여자	6	7	8	8	6	35	
광주광역시	남자	5	4	5	5	4	23	46
	여자	5	4	5	5	4	23	
대전광역시	남자	6	5	5	5	4	25	48
	여자	5	4	5	5	4	23	
울산광역시	남자	4	4	5	5	3	21	40
	여자	3	4	5	4	3	19	
경기도	남자	23	24	28	26	18	119	235
	여자	21	23	28	25	19	116	
강원도	남자	5	4	5	5	5	24	46
	여자	4	3	5	5	5	22	
충청북도	남자	5	4	5	5	4	23	46
	여자	4	4	5	5	5	23	
충청남도	남자	6	6	7	6	6	31	59
	여자	5	5	6	6	6	28	
전라북도	남자	5	4	6	6	6	27	52
	여자	4	4	5	6	6	25	
전라남도	남자	4	4	5	6	6	25	49
	여자	3	4	5	6	6	24	
경상북도	남자	6	6	7	7	7	33	64
	여자	5	5	6	7	8	31	
경상남도	남자	7	7	9	9	7	39	76
	여자	6	7	8	8	8	37	
제주도	남자	3	3	4	3	3	16	31
	여자	2	3	4	3	3	15	
합계		226	222	264	260	228	1,200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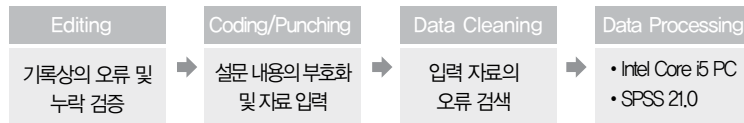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2)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7년 7월 3일 ~ 7월 28일 (26일간)

2.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모집단(2017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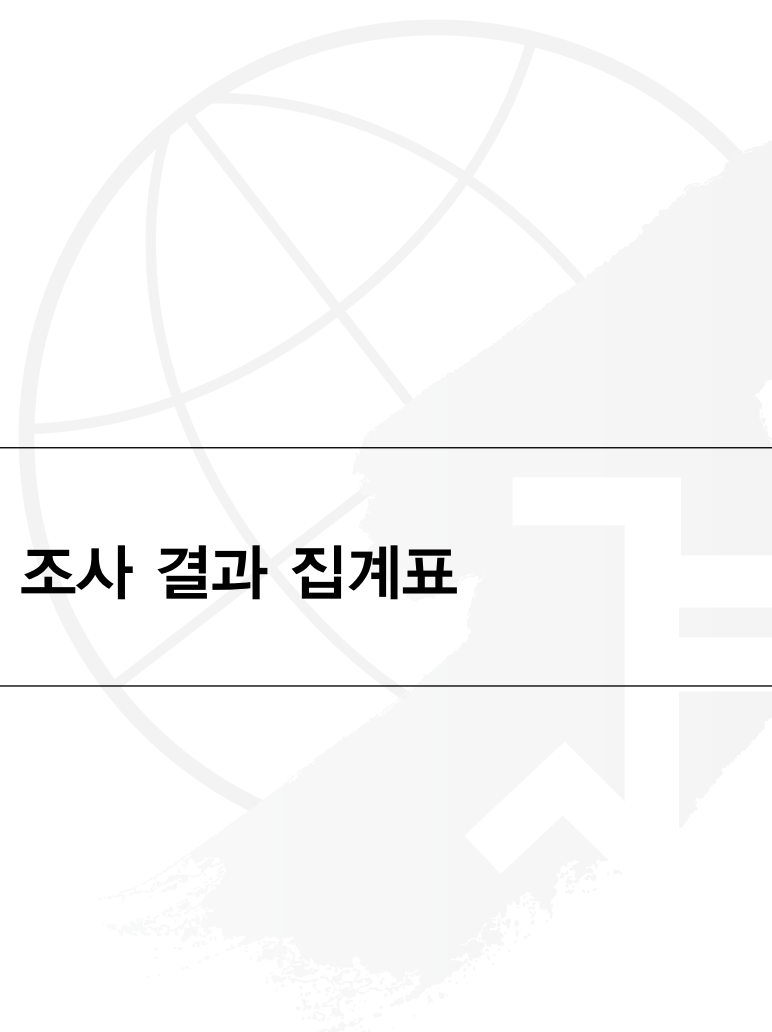
〈가중치 산출식〉

-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6(70~74세))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 층별 최종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3.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자	(609)	50.8	(607)	50.6
	여자	(591)	49.3	(593)	49.4
연령별	19 ~ 29세	(226)	18.8	(227)	18.9
	30대	(222)	18.5	(228)	19.0
	40대	(264)	22.0	(266)	22.2
	50대	(260)	21.7	(258)	21.5
	60대 이상	(228)	19.0	(222)	18.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5)	11.3	(131)	10.9
	고졸	(527)	43.9	(534)	44.5
	대재 이상	(535)	44.6	(532)	44.3
	무응답	(3)	0.3	(4)	0.3
직업별	농/수/축산업	(18)	1.5	(17)	1.4
	자영업	(273)	22.8	(270)	22.5
	블루 칼라	(351)	29.3	(348)	29.0
	화이트 칼라	(231)	19.3	(230)	19.2
	전업 주부	(208)	17.3	(216)	18.0
	학생/무직/기타	(117)	9.8	(116)	9.7
	무응답	(2)	0.2	(2)	0.2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35)	11.3	(131)	10.9
	200~299만원	(212)	17.7	(210)	17.5
	300~399만원	(333)	27.8	(337)	28.0
	400만원 이상	(519)	43.3	(522)	43.5
	무응답	(1)	0.1	(1)	0.1
지역별	수도권	(500)	41.7	(603)	50.3
	충청권	(153)	12.8	(124)	10.3
	호남권	(147)	12.3	(117)	9.7
	영남권	(323)	26.9	(307)	25.6
	강원	(46)	3.8	(35)	2.9
	제주	(31)	2.6	(14)	1.2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6.2	(561)	46.7
	중·소도시	(546)	45.5	(547)	45.6
	읍 / 면	(100)	8.3	(92)	7.7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4)	33.7	(407)	33.9
	중도	(557)	46.4	(557)	46.4
	보수적	(239)	19.9	(235)	19.6
종교별	불교	(219)	18.3	(214)	17.8
	기독교	(229)	19.1	(242)	20.2
	천주교	(60)	5.0	(56)	4.7
	종교 없음	(662)	55.2	(654)	54.5
	무응답	(30)	2.5	(34)	2.9



조사 결과 집계표

표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약간 필요 하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6.5	37.3	53.8	24.1	17.9	4.2	22.1	100.0
	남자	607	19.4	41.8	61.2	21.1	14.0	3.8	17.7	100.0
	여자	593	13.5	32.8	46.3	27.1	21.9	4.7	26.6	100.0
연령별	19~29세	227	9.4	32.0	41.4	24.7	25.0	8.9	33.9	100.0
	30대	228	11.1	28.5	39.6	31.7	24.6	4.0	28.7	100.0
	40대	266	17.0	40.8	57.8	23.2	16.1	2.9	19.0	100.0
	50대	258	18.9	43.1	62.0	24.3	12.2	1.5	13.7	100.0
	60대 이상	222	26.0	41.0	67.0	16.2	12.4	4.4	1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5.9	34.9	60.8	22.3	11.6	5.3	16.9	100.0
	고졸	534	13.9	41.1	55.0	23.9	17.0	4.0	21.0	100.0
	대재 이상	532	16.9	33.7	50.6	24.8	20.4	4.2	24.6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18.2	48.0	66.1	28.6	5.3	0.0	5.3	100.0
	자영업	270	22.8	45.3	68.1	17.5	11.5	2.8	14.4	100.0
	블루 칼라	348	13.8	32.8	46.5	25.3	23.3	4.9	28.2	100.0
	화이트 칼라	230	19.2	32.3	51.5	27.9	17.2	3.4	20.6	100.0
	전업 주부	216	11.4	37.3	48.7	27.7	20.0	3.6	23.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4.3	39.8	54.1	21.1	15.8	9.0	24.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2.6	37.0	59.7	21.3	14.9	4.1	19.0	100.0
	200~299만원	210	19.4	40.8	60.2	22.7	13.8	3.3	17.1	100.0
	300~399만원	337	15.4	35.5	50.9	27.0	19.2	2.9	22.1	100.0
	400만원 이상	522	14.5	37.1	51.6	23.5	19.4	5.5	24.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8	42.6	53.4	22.6	19.1	4.9	24.0	100.0
	충청권	124	29.2	32.2	61.4	27.7	9.5	1.4	10.9	100.0
	호남권	117	27.6	33.4	61.0	22.4	14.1	2.6	16.6	100.0
	영남권	307	16.4	32.9	49.3	23.2	22.2	5.3	27.5	100.0
	강원	35	26.6	24.0	50.6	41.0	8.4	0.0	8.4	100.0
	제주	14	34.3	19.5	53.7	43.3	0.0	2.9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3	41.2	55.5	22.1	17.7	4.7	22.4	100.0
	중·소도시	547	17.9	32.8	50.7	26.2	18.9	4.2	23.1	100.0
	읍 / 면	92	21.8	40.8	62.6	22.9	12.6	2.0	1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8.7	38.4	57.1	18.8	19.2	5.0	24.1	100.0
	중도	557	13.5	35.9	49.4	29.0	18.0	3.6	21.6	100.0
	보수적	235	19.8	38.9	58.8	21.5	15.4	4.4	19.8	100.0
종교별	불교	214	22.2	36.0	58.2	25.2	14.2	2.5	16.6	100.0
	기독교	242	16.5	38.0	54.6	22.9	18.2	4.3	22.5	100.0
	천주교	56	26.0	26.1	52.1	28.6	17.2	2.1	19.3	100.0
	종교 없음	654	14.2	38.7	52.9	23.2	19.1	4.8	23.9	100.0
	무응답	34	10.0	32.8	42.9	34.0	16.0	7.2	23.2	100.0

표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12.1	54.7	24.7	8.4	100.0
	남자	607	14.8	55.8	22.1	7.2	100.0
	여자	593	9.3	53.6	27.4	9.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2	43.0	33.9	12.9	100.0
	30대	228	9.3	46.9	36.7	7.1	100.0
	40대	266	10.0	63.6	19.5	6.8	100.0
	50대	258	11.2	64.8	15.8	8.2	100.0
	60대 이상	222	20.5	52.3	19.7	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0.2	48.0	19.4	12.4	100.0
	고졸	534	9.9	57.8	23.9	8.4	100.0
	대재 이상	532	12.2	53.2	27.1	7.6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66.6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12.5	65.9	5.7	15.8	100.0
	자영업	270	13.6	63.8	17.8	4.8	100.0
	블루 칼라	348	11.7	48.9	27.7	11.7	100.0
	화이트 칼라	230	15.1	52.3	26.0	6.6	100.0
	전업 주부	216	7.8	58.9	25.0	8.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1	46.7	32.2	10.0	100.0
	무응답	2	50.8	49.2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6.8	49.0	22.3	11.9	100.0
	200~299만원	210	15.1	54.5	21.9	8.5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0.7	57.3	24.6	7.4	100.0
	400만원 이상	522	10.7	54.5	26.7	8.2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9.0	55.5	29.2	6.3
충청권		124	26.8	50.0	16.4	6.8	100.0
호남권		117	17.0	54.2	18.7	10.1	100.0
영남권		307	11.0	52.2	23.5	13.4	100.0
강원		35	6.3	77.2	10.6	5.9	100.0
제주		14	15.2	65.2	19.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0	57.2	25.7	7.1	100.0
	중·소도시	547	13.5	51.7	25.8	8.9	100.0
	읍 / 면	92	16.5	57.2	12.4	14.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3.7	52.8	26.4	7.1	100.0
	중도	557	10.5	55.3	25.3	8.9	100.0
	보수적	235	13.2	56.6	20.4	9.8	100.0
	불교	214	17.5	51.9	20.9	9.7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8.7	62.6	22.2	6.5	100.0
	천주교	56	8.2	58.8	24.2	8.7	100.0
	종교 없음	654	12.6	51.7	27.0	8.7	100.0
	무응답	34	0.0	66.9	23.7	9.4	100.0

표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3	13.6	23.1	16.0	20.1	24.7	0.1	100.0
성별	남자	607	3.2	14.6	24.5	17.6	16.8	23.2	0.0	100.0
	여자	593	1.4	12.7	21.7	14.4	23.4	26.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	8.5	19.9	16.6	23.8	29.2	0.6	100.0
	30대	228	1.0	11.4	22.9	14.6	27.2	23.0	0.0	100.0
	40대	266	1.3	14.5	26.2	18.8	14.9	24.4	0.0	100.0
	50대	258	3.4	14.1	27.6	13.9	18.5	22.5	0.0	100.0
	60대 이상	222	4.7	19.6	17.8	16.2	16.8	24.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0	18.7	12.4	12.5	15.2	36.2	0.0	100.0
	고졸	534	2.7	11.5	24.8	15.9	21.1	23.9	0.0	100.0
	대재 이상	532	1.3	14.6	23.8	16.9	20.3	22.8	0.2	100.0
	무응답	4	0.0	0.0	65.7	34.3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5	5.3	9.8	22.4	11.9	45.1	0.0	100.0
	자영업	270	2.3	11.7	25.4	17.5	18.1	25.1	0.0	100.0
	블루 칼라	348	2.6	15.0	18.9	17.2	18.9	27.1	0.4	100.0
	화이트 칼라	230	1.3	17.3	27.0	17.3	19.9	17.3	0.0	100.0
	전업 주부	216	1.3	12.8	24.0	13.6	23.6	24.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0	9.9	21.8	10.7	23.7	28.9	0.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9	18.8	15.3	11.6	18.7	30.8	0.0	100.0
	200~299만원	210	3.4	19.6	23.7	15.4	15.9	22.0	0.0	100.0
	300~399만원	337	1.9	13.6	20.8	18.4	20.7	24.6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1.5	10.0	26.4	15.9	21.7	24.2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4	11.1	23.9	18.1	18.8	26.5	0.2	100.0
	충청권	124	5.1	26.2	30.9	9.9	19.9	8.1	0.0	100.0
	호남권	117	5.2	12.2	22.2	11.8	28.2	20.3	0.0	100.0
	영남권	307	1.3	13.9	19.5	15.5	19.9	29.9	0.0	100.0
	강원	35	7.1	14.9	25.3	24.3	7.1	21.4	0.0	100.0
	제주	14	3.1	15.5	5.9	9.2	42.7	23.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3	13.9	23.3	13.1	22.2	25.2	0.0	100.0
	중·소도시	547	1.8	13.3	21.7	18.9	17.8	26.1	0.2	100.0
	읍 / 면	92	5.5	14.0	30.8	16.5	19.8	13.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2	15.9	26.6	15.7	18.5	21.1	0.0	100.0
	중도	557	2.1	13.0	21.2	16.2	22.3	25.2	0.0	100.0
	보수적	235	3.0	11.3	21.9	16.3	17.4	29.6	0.5	100.0
종교별	불교	214	3.6	20.4	22.8	15.1	15.9	22.2	0.0	100.0
	기독교	242	1.7	15.8	23.8	17.7	19.9	21.0	0.0	100.0
	천주교	56	3.4	12.6	26.2	17.5	14.0	26.3	0.0	100.0
	종교 없음	654	2.2	10.9	22.9	15.6	22.0	26.2	0.2	100.0
	무응답	34	0.0	10.1	20.3	16.8	19.0	33.9	0.0	100.0

표4-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㉗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15.4	52.8	68.2	28.4	3.4	31.8	100.0
성별	남자	607	17.9	51.7	69.6	26.8	3.6	30.4	100.0
	여자	593	12.8	54.0	66.8	30.0	3.2	33.2	100.0
	19~29세	227	13.5	48.8	62.3	34.6	3.1	37.7	100.0
연령별	30대	228	15.4	53.6	69.0	27.6	3.4	31.0	100.0
	40대	266	15.9	51.2	67.1	27.5	5.4	32.9	100.0
	50대	258	15.2	58.2	73.4	23.7	2.9	26.6	100.0
	60대 이상	222	16.9	51.8	68.6	29.4	2.0	3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2	48.7	62.9	33.2	3.9	37.1	100.0
	고졸	534	13.6	56.7	70.3	26.2	3.5	29.7	100.0
	대재 이상	532	17.4	50.1	67.4	29.4	3.2	32.6	100.0
	무응답	4	32.3	33.4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7.8	43.4	71.2	28.8	0.0	28.8	100.0
	자영업	270	19.9	49.9	69.8	27.9	2.3	30.2	100.0
	블루 칼라	348	12.8	52.5	65.3	29.5	5.2	34.7	100.0
	화이트 칼라	230	18.9	48.8	67.7	29.1	3.2	32.3	100.0
	전업 주부	216	8.7	62.0	70.7	26.3	3.0	29.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8	52.7	68.6	29.2	2.2	31.4	100.0
	무응답	2	49.2	50.8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1.2	50.5	61.8	35.8	2.5	38.2	100.0
	200~299만원	210	19.5	50.3	69.7	25.8	4.5	30.3	100.0
	300~399만원	337	15.1	52.7	67.8	29.0	3.3	32.2	100.0
	400만원 이상	522	15.0	54.4	69.4	27.3	3.2	30.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3.4	54.8	68.3	28.3	3.4	31.7	100.0
	충청권	124	20.8	52.7	73.5	25.3	1.3	26.5	100.0
	호남권	117	24.0	52.3	76.4	22.2	1.5	23.6	100.0
	영남권	307	13.1	49.2	62.3	33.4	4.3	37.7	100.0
	강원	35	19.9	52.1	72.0	21.6	6.4	28.0	100.0
	제주	14	18.3	52.9	71.2	20.0	8.9	2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3.5	56.6	70.2	26.3	3.5	29.8	100.0
	중·소도시	547	14.5	51.2	65.7	31.9	2.4	34.3	100.0
	읍 / 면	92	31.8	39.2	70.9	20.6	8.4	29.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0.1	52.7	72.9	23.9	3.3	27.1	100.0
	중도	557	12.2	52.7	64.9	31.3	3.7	35.1	100.0
	보수적	235	14.7	53.2	67.9	29.3	2.8	32.1	100.0
종교별	불교	214	16.7	51.4	68.2	29.9	1.9	31.8	100.0
	기독교	242	13.6	61.1	74.7	23.4	2.0	25.3	100.0
	천주교	56	18.2	44.1	62.4	33.0	4.6	37.6	100.0
	종교 없음	654	15.4	51.2	66.7	29.2	4.1	33.3	100.0
	무응답	34	13.7	47.8	61.5	31.4	7.2	38.5	100.0

표4-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5.4	47.9	83.3	14.4	2.3	16.7	100.0
성별	남자	607	36.6	47.5	84.1	14.5	1.4	15.9	100.0
	여자	593	34.1	48.3	82.4	14.3	3.2	17.6	100.0
	19~29세	227	33.2	47.9	81.1	16.0	2.9	18.9	100.0
연령별	30대	228	34.6	46.9	81.6	16.0	2.4	18.4	100.0
	40대	266	31.6	55.5	87.1	11.7	1.2	12.9	100.0
	50대	258	38.9	42.9	81.8	14.9	3.3	18.2	100.0
	60대 이상	222	38.6	45.8	84.4	14.0	1.6	1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2.2	38.8	81.0	14.5	4.5	19.0	100.0
	고졸	534	33.5	50.0	83.5	14.8	1.7	16.5	100.0
	대재 이상	532	35.5	48.0	83.5	14.1	2.3	16.5	100.0
	무응답	4	33.4	66.6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5.4	37.3	92.7	0.0	7.3	7.3	100.0
	자영업	270	43.5	42.7	86.2	11.4	2.4	13.8	100.0
	블루 칼라	348	30.2	53.4	83.6	14.4	2.0	16.4	100.0
	화이트 칼라	230	33.7	48.9	82.6	14.6	2.8	17.4	100.0
	전업 주부	216	33.1	50.2	83.3	14.9	1.8	16.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6.2	38.9	75.1	22.7	2.2	24.9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38.1	35.5	73.6	23.2	3.2	2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36.6	47.4	84.0	14.6	1.3	16.0	100.0
	300~399만원	337	36.9	47.7	84.6	13.4	1.9	15.4	100.0
	400만원 이상	522	33.0	51.5	84.5	12.8	2.7	15.5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2.8	48.6	81.4	16.2	2.4	18.6	100.0
	충청권	124	32.9	52.0	85.0	13.7	1.3	15.0	100.0
	호남권	117	34.2	45.0	79.2	19.3	1.6	20.8	100.0
	영남권	307	42.8	45.5	88.4	9.7	1.9	11.6	100.0
	강원	35	23.7	58.7	82.4	8.8	8.8	17.6	100.0
	제주	14	43.6	32.7	76.3	20.8	2.9	2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6.4	50.6	86.9	11.6	1.5	13.1	100.0
	중·소도시	547	34.3	45.1	79.3	18.2	2.4	20.7	100.0
	읍 / 면	92	35.8	48.9	84.7	9.1	6.2	1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6.5	47.1	83.6	14.5	1.9	16.4	100.0
	중도	557	31.6	50.6	82.2	15.5	2.3	17.8	100.0
	보수적	235	42.2	43.1	85.2	11.9	2.9	14.8	100.0
	불교	214	37.7	49.3	87.0	10.4	2.6	13.0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40.5	44.7	85.2	13.1	1.7	14.8	100.0
	천주교	56	29.8	38.5	68.3	25.9	5.8	31.7	100.0
	종교 없음	654	33.3	49.4	82.7	15.3	2.0	17.3	100.0
	무응답	34	32.8	49.9	82.7	13.7	3.6	17.3	100.0

표4-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9	17.1	20.0	54.0	26.1	80.0	100.0
성별	남자	607	3.3	16.8	20.1	54.0	25.9	79.9	100.0
	여자	593	2.5	17.4	19.8	54.0	26.2	80.2	100.0
	19~29세	227	2.2	17.1	19.3	57.3	23.3	80.7	100.0
연령별	30대	228	2.3	16.3	18.6	57.6	23.8	81.4	100.0
	40대	266	3.1	16.5	19.6	52.7	27.7	80.4	100.0
	50대	258	3.1	17.1	20.3	51.5	28.2	79.7	100.0
	60대 이상	222	3.6	18.4	22.0	51.3	26.7	78.0	100.0
	중졸 이하	131	2.8	17.6	20.4	53.8	25.8	79.6	100.0
	고졸	534	3.0	15.2	18.1	53.4	28.5	81.9	10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32	2.8	18.8	21.6	54.8	23.6	78.4	100.0
	무응답	4	0.0	32.3	32.3	33.4	34.3	67.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2.5	12.5	75.6	11.9	87.5	100.0
	자영업	270	3.5	12.9	16.5	55.4	28.1	83.5	100.0
	블루 칼라	348	1.5	17.0	18.5	53.3	28.2	81.5	100.0
	화이트 칼라	230	2.3	21.8	24.1	50.2	25.7	75.9	100.0
	전업 주부	216	3.2	16.0	19.2	56.7	24.1	80.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4	19.6	26.0	52.3	21.7	74.0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100.0
	200만원 미만	131	2.1	14.7	16.9	54.5	28.7	83.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4.2	13.8	18.0	61.3	20.6	82.0	100.0
	300~399만원	337	1.4	17.2	18.6	56.6	24.8	81.4	100.0
	400만원 이상	522	3.5	18.9	22.4	49.2	28.5	77.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0	16.5	19.4	56.3	24.3	80.6	100.0
	충청권	124	1.2	18.0	19.2	50.6	30.2	80.8	100.0
	호남권	117	6.5	21.3	27.8	52.9	19.3	72.2	100.0
	영남권	307	1.8	15.2	17.0	51.5	31.5	83.0	100.0
	강원	35	2.0	27.7	29.7	52.7	17.6	70.3	100.0
	제주	14	8.9	14.1	23.0	54.5	22.5	77.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6	15.5	18.1	54.7	27.3	81.9	100.0
	중·소도시	547	2.7	17.5	20.2	54.5	25.3	79.8	100.0
	읍 / 면	92	5.4	24.7	30.1	46.8	23.2	6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1	19.8	23.9	55.1	21.0	76.1	100.0
	중도	557	2.6	16.6	19.2	54.6	26.2	80.8	100.0
	보수적	235	1.5	13.5	14.9	50.5	34.5	85.1	100.0
종교별	불교	214	4.6	20.7	25.3	47.3	27.5	74.7	100.0
	기독교	242	2.1	15.4	17.5	53.4	29.1	82.5	100.0
	천주교	56	2.9	14.1	17.1	56.9	26.1	82.9	100.0
	종교 없음	654	2.7	17.5	20.2	55.9	23.9	79.8	100.0
	무응답	34	0.0	3.6	3.6	59.1	37.3	96.4	100.0

표4-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8	50.5	66.4	31.5	2.1	33.6	100.0
성별	남자	607	18.7	48.5	67.2	30.8	2.1	32.8	100.0
	여자	593	13.0	52.6	65.6	32.2	2.2	34.4	100.0
	19~29세	227	13.7	52.1	65.9	32.5	1.7	34.1	100.0
연령별	30대	228	15.6	51.6	67.2	30.3	2.5	32.8	100.0
	40대	266	17.9	46.1	64.0	34.5	1.5	36.0	100.0
	50대	258	17.3	48.5	65.9	32.0	2.1	34.1	100.0
	60대 이상	222	14.1	55.5	69.6	27.5	2.9	3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7	44.7	59.4	36.7	3.9	40.6	100.0
	고졸	534	12.5	50.9	63.4	34.4	2.2	36.6	100.0
	대재 이상	532	19.6	51.5	71.1	27.3	1.6	28.9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0.1	34.8	44.9	47.8	7.3	55.1	100.0
	자영업	270	17.4	44.4	61.8	35.2	3.0	38.2	100.0
	블루 칼라	348	14.4	51.6	66.0	31.1	2.9	34.0	100.0
	화이트 칼라	230	22.5	50.7	73.3	26.4	0.3	26.7	100.0
	전업 주부	216	10.4	56.1	66.5	31.7	1.7	33.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4.8	52.0	66.8	32.0	1.2	33.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1.5	43.3	54.8	43.1	2.1	45.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7.3	47.7	65.1	32.4	2.5	34.9	100.0
	300~399만원	337	15.1	51.2	66.3	30.4	3.3	33.7	100.0
	400만원 이상	522	16.8	53.0	69.8	29.0	1.2	30.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6.7	52.9	59.6	39.2	1.2	40.4	100.0
	충청권	124	40.3	42.4	82.7	16.1	1.2	17.3	100.0
	호남권	117	33.4	47.1	80.6	15.4	4.1	19.4	100.0
	영남권	307	15.2	51.1	66.3	30.9	2.9	33.7	100.0
	강원	35	19.7	50.9	70.6	21.5	7.9	29.4	100.0
	제주	14	50.5	36.9	87.4	9.7	2.9	12.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5.1	52.6	67.7	31.1	1.3	32.3	100.0
	중·소도시	547	14.4	51.0	65.5	31.7	2.8	34.5	100.0
	읍 / 면	92	28.7	35.4	64.1	32.7	3.2	35.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4	50.2	69.6	28.3	2.1	30.4	100.0
	중도	557	13.5	48.4	62.0	35.7	2.3	38.0	100.0
	보수적	235	15.2	56.2	71.4	27.0	1.6	28.6	100.0
종교별	불교	214	13.4	55.1	68.5	29.9	1.5	31.5	100.0
	기독교	242	16.3	54.2	70.5	27.7	1.8	29.5	100.0
	천주교	56	21.9	45.7	67.6	29.5	3.0	32.4	100.0
	종교 없음	654	16.4	47.5	64.0	33.6	2.5	36.0	100.0
	무응답	34	6.6	61.7	68.3	31.7	0.0	31.7	100.0

표4-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9.3	45.1	64.4	31.8	3.8	35.6	100.0
성별	남자	607	20.7	46.4	67.1	29.0	3.9	32.9	100.0
	여자	593	17.8	43.8	61.6	34.7	3.7	38.4	100.0
	19~29세	227	20.1	46.1	66.1	30.7	3.2	33.9	100.0
연령별	30대	228	18.7	43.4	62.0	33.4	4.6	38.0	100.0
	40대	266	18.6	40.7	59.4	37.0	3.6	40.6	100.0
	50대	258	20.6	46.8	67.4	28.7	3.9	32.6	100.0
	60대 이상	222	18.3	49.1	67.4	28.8	3.8	32.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3	44.3	58.6	34.0	7.4	41.4	100.0
	고졸	534	17.7	45.2	62.9	33.2	3.9	37.1	100.0
	대재 이상	532	22.2	45.5	67.7	29.4	2.9	32.3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4.7	42.8	57.5	42.5	0.0	42.5	100.0
	자영업	270	21.4	43.0	64.4	30.8	4.8	35.6	100.0
	블루 칼라	348	18.8	45.5	64.3	31.5	4.2	35.7	100.0
	화이트 칼라	230	24.1	44.8	68.9	28.3	2.8	31.1	100.0
	전업 주부	216	11.7	46.1	57.8	37.4	4.9	42.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1.3	48.8	70.1	28.8	1.1	29.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3.9	48.6	62.4	33.7	3.8	37.6	100.0
	200~299만원	210	20.6	48.1	68.7	26.4	4.9	31.3	100.0
	300~399만원	337	18.9	39.0	57.9	37.8	4.3	42.1	100.0
	400만원 이상	522	20.4	46.8	67.2	29.7	3.1	32.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4.1	41.6	55.6	40.6	3.8	44.4	100.0
	충청권	124	29.7	48.4	78.1	21.9	0.0	21.9	100.0
	호남권	117	25.7	49.6	75.3	20.7	4.0	24.7	100.0
	영남권	307	22.3	46.3	68.6	26.1	5.3	31.4	100.0
	강원	35	17.6	69.8	87.3	10.1	2.5	12.7	100.0
	제주	14	35.5	41.4	76.9	16.8	6.4	2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8.6	47.3	66.0	30.6	3.5	34.0	100.0
	중·소도시	547	18.6	44.4	63.1	32.9	4.1	36.9	100.0
	읍 / 면	92	27.0	35.4	62.5	33.3	4.2	37.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2.0	43.6	65.6	30.3	4.2	34.4	100.0
	중도	557	15.8	44.7	60.5	36.5	3.0	39.5	100.0
	보수적	235	22.7	48.8	71.5	23.5	5.1	28.5	100.0
종교별	불교	214	21.2	45.5	66.7	31.4	1.9	33.3	100.0
	기독교	242	15.9	48.6	64.4	32.5	3.1	35.6	100.0
	천주교	56	22.7	42.5	65.2	24.8	10.0	34.8	100.0
	종교 없음	654	19.7	44.3	64.0	32.0	4.0	36.0	100.0
	무응답	34	18.3	36.7	55.0	37.7	7.3	45.0	100.0

표4-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0.3	44.8	75.1	21.6	3.3	24.9	100.0
성별	남자	607	33.0	42.3	75.4	21.7	2.9	24.6	100.0
	여자	593	27.4	47.3	74.8	21.5	3.8	25.2	100.0
연령별	19~29세	227	33.6	44.6	78.3	19.3	2.5	21.7	100.0
	30대	228	28.7	46.4	75.1	21.5	3.3	24.9	100.0
	40대	266	30.7	45.7	76.4	21.9	1.7	23.6	100.0
	50대	258	31.5	40.9	72.5	21.9	5.7	27.5	100.0
	60대 이상	222	26.5	46.7	73.2	23.3	3.5	2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1.9	41.4	63.4	28.9	7.8	36.6	100.0
	고졸	534	27.6	47.0	74.6	22.3	3.1	25.4	100.0
	대재 이상	532	35.3	43.7	79.0	18.5	2.5	21.0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5.2	42.2	67.4	22.1	10.6	32.6	100.0
	자영업	270	32.6	41.0	73.6	22.0	4.4	26.4	100.0
	블루 칼라	348	29.7	47.0	76.7	20.9	2.4	23.3	100.0
	화이트 칼라	230	32.9	47.4	80.3	17.6	2.1	19.7	100.0
	전업 주부	216	24.8	46.6	71.5	23.9	4.6	28.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0	39.8	72.8	24.4	2.8	27.2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9.6	44.8	64.4	29.5	6.1	35.6	100.0
	200~299만원	210	31.9	39.8	71.7	24.1	4.1	28.3	100.0
	300~399만원	337	29.4	46.6	75.9	21.1	3.0	24.1	100.0
	400만원 이상	522	32.9	45.6	78.5	18.9	2.6	21.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3.2	49.6	72.9	24.1	3.0	27.1	100.0
	충청권	124	56.1	33.9	90.0	10.0	0.0	10.0	100.0
	호남권	117	40.1	40.0	80.1	18.5	1.4	19.9	100.0
	영남권	307	28.9	41.5	70.4	23.5	6.0	29.6	100.0
	강원	35	32.7	47.9	80.6	16.9	2.5	19.4	100.0
	제주	14	47.3	36.6	83.9	9.7	6.4	16.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0.8	45.5	76.2	21.7	2.0	23.8	100.0
	중·소도시	547	29.1	45.2	74.3	21.3	4.4	25.7	100.0
	읍 / 면	92	34.2	38.3	72.4	22.5	5.1	27.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2.5	42.1	74.6	20.8	4.6	25.4	100.0
	중도	557	26.3	47.8	74.2	23.5	2.3	25.8	100.0
	보수적	235	35.7	42.2	77.9	18.3	3.7	22.1	100.0
종교별	불교	214	26.2	42.3	68.5	26.0	5.5	31.5	100.0
	기독교	242	33.9	42.6	76.5	20.2	3.3	23.5	100.0
	천주교	56	32.4	44.2	76.6	17.8	5.6	23.4	100.0
	종교 없음	654	31.0	45.5	76.5	20.8	2.6	23.5	100.0
	무응답	34	12.5	62.9	75.4	24.6	0.0	24.6	100.0

표4-7.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 비핵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4.5	31.8	86.3	11.7	2.0	13.7	100.0
성별	남자	607	56.4	30.6	87.0	11.5	1.5	13.0	100.0
	여자	593	52.7	32.9	85.6	11.9	2.5	14.4	100.0
연령별	19~29세	227	49.6	36.1	85.7	12.6	1.7	14.3	100.0
	30대	228	56.8	31.8	88.6	9.5	1.9	11.4	100.0
	40대	266	56.9	28.6	85.4	13.8	0.8	14.6	100.0
	50대	258	57.8	29.1	86.9	10.6	2.5	13.1	100.0
	60대 이상	222	50.7	34.2	84.9	11.8	3.3	15.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9.2	31.2	80.4	13.4	6.2	19.6	100.0
	고졸	534	52.5	32.8	85.3	13.5	1.2	14.7	100.0
	대재 이상	532	58.1	30.6	88.6	9.5	1.8	11.4	100.0
	무응답	4	34.3	65.7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70.4	11.8	82.2	7.3	10.6	17.8	100.0
	자영업	270	58.3	27.2	85.5	12.6	2.0	14.5	100.0
	블루 칼라	348	57.5	30.4	87.9	10.8	1.3	12.1	100.0
	화이트 칼라	230	53.4	32.6	86.0	12.2	1.8	14.0	100.0
	전업 주부	216	47.5	38.7	86.2	10.9	2.8	13.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1.1	33.3	84.4	13.6	2.0	15.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48.8	27.6	76.3	20.8	2.9	2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49.0	35.6	84.6	12.2	3.2	15.4	100.0
	300~399만원	337	58.7	28.2	87.0	10.1	2.9	13.0	100.0
	400만원 이상	522	55.4	33.6	89.0	10.2	0.8	11.0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5.8	31.5	87.3	12.3	0.4	12.7	100.0
	충청권	124	51.5	34.6	86.1	12.6	1.3	13.9	100.0
	호남권	117	63.6	23.9	87.5	11.2	1.3	12.5	100.0
	영남권	307	51.4	33.6	84.9	9.9	5.2	15.1	100.0
	강원	35	33.0	45.4	78.4	15.7	5.9	21.6	100.0
	제주	14	76.7	9.9	86.6	10.5	2.9	13.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7.5	32.9	90.5	8.5	1.0	9.5	100.0
	중·소도시	547	52.3	30.9	83.2	15.0	1.8	16.8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49.6	29.8	79.4	11.5	9.1	20.6	100.0
	진보적	407	57.0	31.0	87.9	10.0	2.1	12.1	100.0
	중도	557	51.1	33.1	84.3	14.1	1.6	15.7	100.0
	보수적	235	58.5	29.9	88.3	8.9	2.8	11.7	100.0
종교별	불교	214	47.9	35.1	83.0	13.3	3.7	17.0	100.0
	기독교	242	57.3	33.6	90.8	8.1	1.1	9.2	100.0
	천주교	56	61.0	30.1	91.0	9.0	0.0	9.0	100.0
	종교 없음	654	55.2	29.9	85.1	13.1	1.9	14.9	100.0
	무응답	34	54.0	36.9	90.9	5.4	3.7	9.1	100.0

표4-8.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㉑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8	35.4	43.3	47.5	9.3	56.7	100.0
성별	남자	607	8.9	38.1	47.0	44.1	8.9	53.0	100.0
	여자	593	6.8	32.7	39.4	50.9	9.7	60.6	100.0
	19~29세	227	5.7	32.2	37.9	55.4	6.7	62.1	100.0
연령별	30대	228	9.7	30.9	40.6	49.7	9.7	59.4	100.0
	40대	266	6.5	38.5	45.0	44.9	10.1	55.0	100.0
	50대	258	9.0	39.6	48.5	43.9	7.5	51.5	100.0
	60대 이상	222	8.3	35.0	43.3	44.2	12.5	56.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9.2	33.9	43.1	43.4	13.5	56.9	100.0
	고졸	534	5.8	36.0	41.8	49.1	9.1	58.2	100.0
	대재 이상	532	9.6	35.3	44.9	46.9	8.2	55.1	100.0
	무응답	4	0.0	33.4	33.4	32.3	34.3	66.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4.8	24.8	49.6	11.9	38.5	50.4	100.0
	자영업	270	8.7	34.2	42.8	46.6	10.6	57.2	100.0
	블루 칼라	348	7.4	32.4	39.9	52.0	8.1	60.1	100.0
	화이트 칼라	230	10.0	42.4	52.4	39.7	7.9	47.6	100.0
	전업 주부	216	5.2	36.2	41.4	49.3	9.4	58.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3	33.4	38.8	53.1	8.1	61.2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9.2	34.8	44.0	46.0	10.0	56.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9.6	38.9	48.5	40.4	11.1	51.5	100.0
	300~399만원	337	8.0	31.9	39.9	48.3	11.8	60.1	100.0
	400만원 이상	522	6.7	36.6	43.2	50.0	6.8	56.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0	31.7	36.7	55.9	7.4	63.3	100.0
	충청권	124	19.5	50.1	69.7	26.4	3.9	30.3	100.0
	호남권	117	15.3	44.9	60.2	34.6	5.2	39.8	100.0
	영남권	307	6.2	34.1	40.3	43.6	16.0	59.7	100.0
	강원	35	4.2	32.4	36.6	52.8	10.6	63.4	100.0
	제주	14	9.4	24.5	33.9	44.4	21.7	66.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6.4	37.7	44.2	48.0	7.8	55.8	100.0
	중·소도시	547	7.9	33.6	41.6	48.2	10.2	58.4	100.0
	읍 / 면	92	15.8	32.1	47.8	39.5	12.7	5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3	37.0	46.3	46.0	7.6	53.7	100.0
	중도	557	7.1	33.4	40.5	51.0	8.5	59.5	100.0
	보수적	235	6.9	37.5	44.5	41.6	13.9	55.5	100.0
종교별	불교	214	6.4	38.0	44.4	45.3	10.3	55.6	100.0
	기독교	242	6.7	40.3	46.9	46.6	6.4	53.1	100.0
	천주교	56	6.4	32.7	39.1	50.1	10.8	60.9	100.0
	종교 없음	654	8.6	33.9	42.5	47.8	9.6	57.5	100.0
	무응답	34	13.0	18.2	31.2	54.9	13.8	68.8	100.0

표4-9.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㉒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10.2	44.2	54.4	41.4	4.1	45.5	0.1	100.0
성별	남자	607	10.3	45.0	55.3	40.5	4.0	44.6	0.2	100.0
	여자	593	10.1	43.3	53.5	42.4	4.1	46.5	0.0	100.0
	19~29세	227	8.7	47.4	56.1	40.6	3.3	43.9	0.0	100.0
연령별	30대	228	9.2	41.0	50.2	44.2	5.2	49.4	0.4	100.0
	40대	266	9.7	41.0	50.7	45.1	4.2	49.3	0.0	100.0
	50대	258	11.5	45.5	57.0	39.0	4.0	43.0	0.0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22	11.9	46.5	58.3	38.0	3.7	41.7	0.0	100.0
	중졸 이하	131	12.3	43.1	55.4	42.6	2.0	44.6	0.0	100.0
	고졸	534	9.2	44.0	53.2	42.0	4.9	46.8	0.0	100.0
	대재 이상	532	10.8	44.9	55.7	40.2	3.9	44.1	0.2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0.1	34.1	54.3	45.7	0.0	45.7	0.0	100.0
	자영업	270	11.4	39.8	51.2	44.2	4.6	48.8	0.0	100.0
	블루 칼라	348	9.5	46.5	56.0	39.6	4.4	44.0	0.0	100.0
	화이트 칼라	230	11.2	47.2	58.4	38.7	2.5	41.2	0.4	100.0
	전업 주부	216	8.8	42.6	51.4	44.0	4.6	48.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8.7	46.9	55.6	39.6	4.8	44.4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1.3	49.3	60.6	37.6	1.7	39.4	0.0	100.0
	200~299만원	210	13.9	37.4	51.4	42.6	6.0	48.6	0.0	100.0
	300~399만원	337	9.2	39.8	49.0	44.9	6.1	51.0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9.1	48.5	57.6	39.6	2.6	42.2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4	38.2	43.6	52.2	4.2	56.4	0.0	100.0
	충청권	124	24.5	54.1	78.6	18.7	1.9	20.6	0.7	100.0
	호남권	117	22.0	55.1	77.1	22.3	0.6	22.9	0.0	100.0
	영남권	307	9.7	47.3	57.1	37.5	5.4	42.9	0.0	100.0
	강원	35	6.1	48.1	54.2	36.9	8.8	45.8	0.0	100.0
	제주	14	12.3	46.3	58.6	35.0	6.4	41.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8.9	45.1	54.0	42.7	3.2	46.0	0.0	100.0
	중·소도시	547	9.5	43.9	53.4	41.5	5.1	46.6	0.0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22.4	40.2	62.6	33.3	3.1	36.4	1.0	100.0
	진보적	407	13.6	44.3	57.9	38.8	3.3	42.1	0.0	100.0
	중도	557	8.1	44.8	52.8	43.5	3.5	47.0	0.2	100.0
	보수적	235	9.5	42.6	52.1	41.1	6.9	47.9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7.9	48.7	56.6	39.5	3.9	43.4	0.0	100.0
	기독교	242	10.0	44.7	54.7	43.4	2.0	45.3	0.0	100.0
	천주교	56	13.5	43.0	56.5	37.4	6.1	43.5	0.0	100.0
	종교 없음	654	11.0	43.1	54.1	40.8	5.0	45.8	0.1	100.0
	무응답	34	6.7	33.7	40.4	59.6	0.0	59.6	0.0	100.0

표4-10.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2.0	50.4	62.5	33.8	3.6	37.4	0.1	100.0
성별	남자	607	13.9	51.9	65.7	31.2	3.1	34.3	0.0	100.0
	여자	593	10.2	49.0	59.1	36.4	4.2	40.7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3	49.4	62.6	33.2	4.2	37.4	0.0	100.0
	30대	228	11.6	46.2	57.8	38.7	3.6	42.2	0.0	100.0
	40대	266	10.4	51.1	61.5	35.0	3.1	38.1	0.4	100.0
	50대	258	13.3	54.3	67.6	29.2	3.2	32.4	0.0	100.0
	60대 이상	222	11.8	50.6	62.4	33.4	4.2	37.6	0.0	100.0
	중졸 이하	131	16.8	43.6	60.3	36.6	3.1	39.7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0.1	51.8	61.8	34.2	3.8	38.0	0.2	100.0
	대재 이상	532	12.9	50.7	63.6	32.8	3.6	36.4	0.0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1.9	35.7	57.6	42.4	0.0	42.4	0.0	100.0
	자영업	270	12.3	50.9	63.2	32.4	4.4	36.8	0.0	100.0
	블루 칼라	348	11.4	50.5	61.9	33.9	4.2	38.1	0.0	100.0
	화이트 칼라	230	14.2	51.5	65.6	31.9	2.5	34.4	0.0	100.0
	전업 주부	216	8.1	51.0	59.1	37.0	3.4	40.4	0.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2	47.3	62.6	33.8	3.6	37.4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6.6	43.3	59.9	36.6	3.4	40.1	0.0	100.0
	200~299만원	210	11.1	50.6	61.8	34.8	3.4	38.2	0.0	100.0
	300~399만원	337	9.7	51.9	61.6	33.3	5.1	38.4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12.8	51.3	64.1	32.9	2.8	35.7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7.8	49.1	56.8	39.9	3.3	43.2	0.0	100.0
	충청권	124	25.7	59.5	85.1	12.2	2.6	14.9	0.0	100.0
	호남권	117	26.7	49.8	76.5	19.2	4.3	23.5	0.0	100.0
	영남권	307	9.9	50.6	60.5	35.0	4.2	39.2	0.3	100.0
	강원	35	8.3	45.3	53.6	41.9	4.5	46.4	0.0	100.0
	제주	14	9.4	45.2	54.6	36.0	9.5	45.4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7	53.7	64.4	32.8	2.8	35.6	0.0	100.0
	중·소도시	547	10.9	48.4	59.3	36.0	4.6	40.5	0.2	100.0
	읍 / 면	92	27.1	43.1	70.2	27.0	2.8	29.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5.5	52.7	68.2	29.4	2.4	31.8	0.0	100.0
	중도	557	11.0	48.8	59.8	36.2	3.8	40.0	0.2	100.0
	보수적	235	8.4	50.4	58.8	35.8	5.4	41.2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10.7	58.1	68.7	29.5	1.8	31.3	0.0	100.0
	기독교	242	10.7	49.9	60.5	36.3	3.2	39.5	0.0	100.0
	천주교	56	14.7	44.5	59.1	37.0	3.8	40.9	0.0	100.0
	종교 없음	654	13.4	48.8	62.2	33.4	4.2	37.6	0.2	100.0
	무응답	34	0.0	48.0	48.0	44.9	7.1	52.0	0.0	100.0

표4-1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㉕ 평화협정 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3.9	54.0	77.9	20.3	1.8	22.1	100.0
성별	남자	607	24.3	56.1	80.4	17.4	2.2	19.6	100.0
	여자	593	23.6	51.8	75.4	23.2	1.4	24.6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2	54.7	77.9	20.2	1.9	22.1	100.0
	30대	228	23.8	55.4	79.3	18.4	2.3	20.7	100.0
	40대	266	23.7	52.9	76.6	22.0	1.4	23.4	100.0
	50대	258	25.2	54.2	79.4	18.5	2.2	20.6	100.0
	60대 이상	222	23.6	53.0	76.6	22.2	1.2	23.4	100.0
	중졸 이하	131	22.8	49.9	72.8	26.9	0.3	27.2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22.4	54.2	76.6	21.2	2.2	23.4	100.0
	대재 이상	532	25.9	54.7	80.7	17.6	1.8	19.3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1.9	40.9	62.9	29.9	7.3	37.1	100.0
	자영업	270	24.1	54.7	78.8	19.1	2.1	21.2	100.0
	블루 칼라	348	25.4	53.7	79.1	18.2	2.7	20.9	100.0
	화이트 칼라	230	22.9	57.7	80.6	19.0	0.4	19.4	100.0
	전업 주부	216	22.5	49.1	71.6	27.8	0.6	28.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4.9	56.0	80.8	16.6	2.5	19.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5.7	49.1	74.8	23.5	1.7	25.2	100.0
	200~299만원	210	25.8	54.9	80.7	18.4	0.9	19.3	100.0
	300~399만원	337	21.7	54.9	76.5	20.5	2.9	23.5	100.0
	400만원 이상	522	24.1	54.4	78.5	20.0	1.5	21.5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7.8	56.7	74.4	24.1	1.4	25.6	100.0
	충청권	124	35.5	57.2	92.7	7.3	0.0	7.3	100.0
	호남권	117	41.6	44.8	86.4	12.1	1.5	13.6	100.0
	영남권	307	25.5	51.7	77.2	20.0	2.8	22.8	100.0
	강원	35	13.2	51.3	64.5	31.0	4.5	35.5	100.0
	제주	14	32.0	44.9	76.9	13.6	9.5	23.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4.7	56.6	81.3	18.0	0.7	18.7	100.0
	중·소도시	547	21.5	52.2	73.6	23.6	2.8	26.4	100.0
	읍 / 면	92	33.7	49.2	82.9	14.0	3.1	17.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7.3	56.4	83.8	14.5	1.7	16.2	100.0
	중도	557	22.2	51.0	73.2	24.7	2.1	26.8	100.0
	보수적	235	22.2	56.8	79.0	19.7	1.3	21.0	100.0
종교별	불교	214	19.0	57.1	76.1	22.0	1.9	23.9	100.0
	기독교	242	28.0	53.9	81.9	17.5	0.5	18.1	100.0
	천주교	56	30.9	43.1	74.0	22.2	3.8	26.0	100.0
	종교 없음	654	23.5	53.6	77.2	20.7	2.2	22.8	100.0
	무응답	34	22.3	60.2	82.5	17.5	0.0	17.5	100.0

표5.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계
		%	%	%	%	%	%	%
전 체	1200	40.3	10.5	32.5	4.0	12.5	0.1	100.0
성별								
남자	607	40.1	9.6	30.0	4.5	15.8	0.0	100.0
여자	593	40.5	11.4	35.1	3.5	9.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31.0	8.6	38.8	4.4	17.2	0.0	100.0
30대	228	33.6	11.5	36.6	4.6	13.6	0.0	100.0
40대	266	38.4	12.4	31.7	3.7	13.7	0.0	100.0
50대	258	44.2	8.4	34.5	3.5	9.0	0.4	100.0
60대 이상	222	54.5	11.5	20.7	3.9	9.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9.7	16.7	21.9	3.9	7.7	0.0	100.0
고졸	534	45.8	9.2	31.5	3.2	10.0	0.2	100.0
대재 이상	532	32.1	10.3	36.5	4.8	16.3	0.0	10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68.2	5.1	26.7	0.0	0.0	0.0	100.0
자영업	270	40.4	11.0	31.9	4.7	12.0	0.0	100.0
블루 칼라	348	42.1	10.2	32.8	3.9	10.7	0.3	100.0
화이트 칼라	230	36.9	11.0	32.6	3.7	15.8	0.0	100.0
전업 주부	216	42.1	12.5	34.1	3.7	7.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2.9	6.5	31.8	4.5	24.3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6.7	19.1	21.1	3.7	9.3	0.0	100.0
200~299만원	210	48.4	12.5	24.6	5.2	9.3	0.0	100.0
300~399만원	337	36.0	12.4	34.6	3.2	13.4	0.3	100.0
400만원 이상	522	38.1	6.3	37.3	4.1	14.1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8.7	10.0	35.0	3.6	12.6	0.0	100.0
충청권	124	47.6	7.8	27.5	2.9	14.1	0.0	100.0
호남권	117	42.6	6.8	31.9	3.0	15.6	0.0	100.0
영남권	307	41.7	14.0	28.1	5.5	10.4	0.3	100.0
강원	35	27.9	13.4	39.5	6.7	12.6	0.0	100.0
제주	14	26.4	3.1	53.5	0.0	16.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8.4	7.4	35.7	4.4	13.9	0.2	100.0
중·소도시	547	42.7	14.0	29.5	2.8	10.9	0.0	100.0
읍 / 면	92	37.8	8.9	30.8	8.5	14.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6.1	10.9	36.4	2.6	14.1	0.0	100.0
중도	557	40.9	9.2	32.2	4.5	13.0	0.2	100.0
보수적	235	46.2	13.1	26.7	5.2	8.8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48.5	9.3	27.0	5.3	9.5	0.4	100.0
기독교	242	36.9	9.9	31.7	7.6	13.9	0.0	100.0
천주교	56	38.9	4.4	45.2	1.7	9.7	0.0	100.0
종교 없음	654	39.3	11.5	33.1	2.5	13.6	0.0	100.0
무응답	34	35.5	13.6	41.5	3.6	5.8	0.0	100.0

표6.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5	43.6	52.1	40.2	7.6	47.9	100.0
성별								
남자	607	11.3	45.7	57.0	36.2	6.8	43.0	100.0
여자	593	5.7	41.4	47.1	44.4	8.5	52.9	100.0
연령별								
19~29세	227	6.4	36.8	43.2	44.1	12.7	56.8	100.0
30대	228	7.5	40.2	47.7	47.6	4.7	52.3	100.0
40대	266	10.5	52.8	63.3	30.7	6.1	36.7	100.0
50대	258	7.5	44.7	52.2	41.8	6.0	47.8	100.0
60대 이상	222	10.5	41.8	52.3	38.4	9.3	47.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9.9	33.4	43.3	49.0	7.8	56.7	100.0
고졸	534	5.4	46.2	51.6	40.5	7.9	48.4	100.0
대재 이상	532	11.3	43.3	54.7	37.9	7.4	45.3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28.0	33.2	54.2	12.5	66.8	100.0
자영업	270	10.4	47.6	58.0	35.1	6.9	42.0	100.0
블루 칼라	348	7.5	41.3	48.8	44.8	6.4	51.2	100.0
화이트 칼라	230	10.7	42.8	53.6	41.0	5.4	46.4	100.0
전업 주부	216	4.5	47.2	51.8	40.5	7.8	48.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0.7	37.1	47.8	35.4	16.8	52.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8.0	32.7	40.8	49.2	10.0	59.2	100.0
200~299만원	210	5.5	46.6	52.1	40.1	7.9	47.9	100.0
300~399만원	337	8.9	43.2	52.1	41.3	6.6	47.9	100.0
400만원 이상	522	9.6	45.5	55.1	37.3	7.7	44.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1	46.4	50.5	43.1	6.4	49.5	100.0
충청권	124	18.5	44.5	63.0	31.1	5.9	37.0	100.0
호남권	117	19.4	43.4	62.8	34.0	3.1	37.2	100.0
영남권	307	8.4	37.0	45.4	42.1	12.5	54.6	100.0
강원	35	11.2	54.1	65.3	28.0	6.6	34.7	100.0
제주	14	15.4	32.7	48.1	41.6	10.4	51.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6.9	45.7	52.5	41.3	6.1	47.5	100.0
중·소도시	547	9.6	42.2	51.8	39.7	8.5	48.2	100.0
읍 / 면	92	12.1	39.5	51.5	36.9	11.6	48.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0.6	42.2	52.8	41.1	6.2	47.2	100.0
중도	557	7.3	45.9	53.2	38.6	8.2	46.8	100.0
보수적	235	7.6	40.6	48.3	42.7	9.0	51.7	100.0
종교별								
불교	214	10.3	46.9	57.2	35.2	7.6	42.8	100.0
기독교	242	7.4	46.9	54.3	38.5	7.2	45.7	100.0
천주교	56	5.5	46.9	52.4	42.7	4.9	47.6	100.0
종교 없음	654	8.8	41.5	50.3	41.6	8.1	49.7	100.0
무응답	34	3.6	34.9	38.4	54.4	7.2	61.6	100.0

표7.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전 체		1200	3.9	20.0	23.9	57.5	18.6	76.1	100.0
성별	남자	607	5.2	22.6	27.8	55.7	16.5	72.2	100.0
	여자	593	2.6	17.4	20.0	59.4	20.6	8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2.7	15.4	18.1	54.1	27.8	81.9	100.0
	30대	228	2.0	19.8	21.8	60.6	17.6	78.2	100.0
	40대	266	5.1	26.5	31.5	51.6	16.9	68.5	100.0
	50대	258	3.8	19.9	23.7	61.3	15.0	76.3	100.0
	60대 이상	222	5.7	17.6	23.3	60.5	16.2	76.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3	18.4	23.7	57.8	18.5	76.3	100.0
	고졸	534	3.3	18.8	22.1	59.7	18.2	77.9	100.0
	대재 이상	532	4.1	21.6	25.7	55.2	19.1	74.3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66.6	100.0
	농/수/축산업	17	10.8	24.9	35.7	37.8	26.5	64.3	100.0
	자영업	270	3.8	22.9	26.7	59.4	13.9	73.3	100.0
	블루 칼라	348	4.4	15.9	20.3	57.5	22.2	79.7	100.0
	화이트 칼라	230	4.3	21.1	25.4	58.1	16.5	74.6	100.0
	전업 주부	216	2.1	21.8	23.9	58.8	17.3	76.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3	18.8	23.1	52.6	24.2	76.9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0	14.2	20.2	63.2	16.6	79.8	100.0
	200~299만원	210	4.3	23.9	28.2	56.5	15.4	71.8	100.0
	300~399만원	337	4.3	18.0	22.3	60.8	16.9	77.7	100.0
	400만원 이상	522	2.9	21.3	24.2	54.3	21.4	75.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3	22.8	24.2	59.6	16.2	75.8	100.0
	충청권	124	10.7	18.2	28.9	54.8	16.3	71.1	100.0
	호남권	117	2.8	21.6	24.5	50.6	25.0	75.5	100.0
	영남권	307	6.5	16.1	22.6	54.9	22.5	77.4	100.0
	강원	35	4.9	12.4	17.3	78.2	4.5	82.7	100.0
	제주	14	3.1	8.9	12.0	53.6	34.4	88.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9	24.1	26.0	57.9	16.0	74.0	100.0
	중·소도시	547	4.2	14.9	19.1	58.5	22.4	80.9	100.0
	읍 / 면	92	13.9	26.3	40.2	48.8	11.0	59.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5	22.8	28.2	51.1	20.7	71.8	100.0
	중도	557	3.1	20.2	23.2	60.2	16.6	76.8	100.0
	보수적	235	3.1	15.0	18.1	62.3	19.6	81.9	100.0
종교별	불교	214	4.8	20.9	25.7	59.1	15.2	74.3	100.0
	기독교	242	2.4	24.7	27.1	56.4	16.4	72.9	100.0
	천주교	56	4.0	19.0	22.9	66.6	10.5	77.1	100.0
	종교 없음	654	4.3	18.2	22.6	56.4	21.0	77.4	100.0
	무응답	34	0.0	18.2	18.2	61.9	19.9	81.8	100.0

표8-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5	15.3	16.8	20.7	40.4	22.1	62.5	100.0
성별	남자	607	1.4	18.0	19.5	20.1	39.8	20.7	60.5	100.0
	여자	593	1.6	12.5	14.1	21.3	41.1	23.5	64.6	100.0
	19~29세	227	1.3	9.8	11.2	27.0	38.7	23.1	61.8	100.0
연령별	30대	228	1.2	18.3	19.5	16.7	40.9	22.9	63.8	100.0
	40대	266	3.2	15.0	18.2	20.0	39.1	22.8	61.8	100.0
	50대	258	1.0	18.5	19.5	18.6	42.7	19.1	61.8	100.0
	60대 이상	222	0.7	14.3	15.0	21.4	40.8	22.8	63.6	100.0
	중졸 이하	131	0.0	16.6	16.6	24.5	37.7	21.2	58.9	100.0
	고졸	534	1.5	15.8	17.3	17.7	41.8	23.1	65.0	10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32	1.9	14.1	16.0	22.8	39.8	21.4	61.2	100.0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5	12.7	18.2	5.1	33.8	42.8	76.6	100.0
	자영업	270	1.2	18.3	19.5	22.0	35.9	22.5	58.5	100.0
	블루 칼라	348	1.0	11.7	12.7	19.9	45.0	22.4	67.4	100.0
	화이트 칼라	230	2.1	20.0	22.1	19.8	38.5	19.6	58.1	100.0
	전업 주부	216	1.3	13.7	15.0	20.5	42.4	22.1	64.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6	11.3	13.9	24.5	39.4	22.3	61.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8	13.9	15.6	23.7	37.7	22.9	60.7	100.0
	200~299만원	210	1.5	16.3	17.8	21.8	42.9	17.5	60.4	100.0
	300~399만원	337	1.6	18.1	19.7	21.8	36.2	22.3	58.5	100.0
	400만원 이상	522	1.4	13.5	14.9	18.8	42.7	23.6	66.4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7	17.0	17.7	18.4	46.4	17.5	63.9	100.0
	충청권	124	4.8	10.9	15.7	32.2	31.5	20.6	52.1	100.0
	호남권	117	3.5	10.3	13.9	25.2	34.1	26.8	60.9	100.0
	영남권	307	0.9	15.9	16.8	17.5	36.0	29.6	65.7	100.0
	강원	35	2.4	12.9	15.3	36.8	32.7	15.1	47.9	100.0
	제주	14	3.1	13.3	16.4	6.4	31.4	45.8	77.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	14.6	15.7	19.4	41.1	23.9	64.9	100.0
	중·소도시	547	1.6	14.8	16.4	21.7	41.4	20.5	61.9	100.0
	읍 / 면	92	4.0	22.5	26.5	21.9	30.9	20.7	5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0	18.4	20.5	20.1	40.4	19.0	59.5	100.0
	중도	557	1.3	13.9	15.3	22.0	41.3	21.4	62.7	100.0
	보수적	235	1.1	13.1	14.2	18.5	38.4	29.0	67.3	100.0
종교별	불교	214	0.7	19.5	20.2	21.1	40.2	18.5	58.7	100.0
	기독교	242	2.3	14.3	16.7	19.5	43.5	20.4	63.8	100.0
	천주교	56	3.7	17.4	21.0	18.5	38.8	21.7	60.5	100.0
	종교 없음	654	1.4	14.6	16.0	20.8	39.4	23.9	63.3	100.0
	무응답	34	0.0	5.8	5.8	28.0	42.9	23.2	66.1	100.0

표8-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1	15.1	17.3	26.1	35.7	20.9	56.6	100.0
성별	남자	607	3.0	15.0	17.9	26.3	35.1	20.7	55.8	100.0
	여자	593	1.3	15.3	16.6	25.9	36.4	21.2	57.5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	16.0	17.6	28.3	33.2	20.9	54.1	100.0
	30대	228	1.6	8.4	10.0	27.3	37.5	25.2	62.7	100.0
	40대	266	1.1	18.1	19.3	24.9	35.6	20.3	55.8	100.0
	50대	258	3.0	16.4	19.4	25.9	37.3	17.5	54.8	100.0
	60대 이상	222	3.5	16.1	19.6	24.4	34.7	21.4	56.1	100.0
	중졸 이하	131	1.7	12.7	14.4	34.7	34.1	16.8	50.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3.5	15.9	19.4	22.3	36.9	21.4	58.3	100.0
	대재 이상	532	0.9	14.6	15.5	27.7	35.2	21.6	56.8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0.0	18.2	18.2	14.9	33.9	32.9	66.8	100.0
	자영업	270	3.0	14.5	17.5	26.9	36.0	19.7	55.7	100.0
	블루 칼라	348	1.6	12.8	14.4	24.8	38.5	22.3	60.8	100.0
	화이트 칼라	230	2.1	16.4	18.5	23.9	36.3	21.3	57.6	100.0
	전업 주부	216	1.6	18.2	19.8	27.3	35.1	17.8	52.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	13.2	16.4	32.3	27.8	23.5	51.3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0.6	17.6	18.2	30.0	34.1	17.7	51.8	100.0
	200~299만원	210	1.2	15.6	16.8	24.9	37.8	20.5	58.3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2.9	14.8	17.8	25.9	35.7	20.7	56.3	100.0
	400만원 이상	522	2.4	14.5	16.9	25.7	35.2	22.2	57.3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3	1.6	13.4	15.0	26.5	42.9	15.6	58.5	100.0
	충청권	124	1.4	14.6	15.9	34.3	24.4	25.3	49.8	100.0
	호남권	117	3.9	11.0	15.0	22.1	33.7	29.2	62.9	100.0
	영남권	307	2.5	20.0	22.5	24.5	27.7	25.3	53.0	100.0
	강원	35	2.1	21.7	23.9	23.5	31.1	21.5	52.6	100.0
	제주	14	10.3	6.2	16.5	9.1	28.3	46.1	74.5	100.0
	대도시	561	3.0	14.4	17.4	23.3	36.7	22.5	59.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5	15.1	16.5	27.2	36.3	20.0	56.2	100.0
	읍 / 면	92	0.9	19.7	20.5	36.1	26.1	17.3	43.4	100.0
	진보적	407	2.4	16.9	19.2	27.8	32.1	20.9	53.0	100.0
	중도	557	2.1	15.2	17.3	27.0	37.3	18.4	55.7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35	1.9	11.9	13.7	21.0	38.2	27.0	65.2	100.0
	불교	214	3.7	21.6	25.3	22.1	33.4	19.3	52.6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5	12.8	14.3	27.9	39.3	18.5	57.8	100.0
	천주교	56	5.1	11.8	17.0	21.3	39.7	21.9	61.7	100.0
	종교 없음	654	1.7	14.7	16.4	26.8	34.0	22.9	56.9	100.0
	무응답	34	0.0	5.9	5.9	33.4	51.1	9.7	60.8	100.0

표8-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4.3	19.8	24.1	20.4	35.9	19.6	55.5	100.0
성별	남자	607	4.5	22.1	26.6	20.8	33.9	18.7	52.6	100.0
	여자	593	4.1	17.5	21.6	19.9	38.0	20.5	58.6	100.0
연령별	19~29세	227	2.7	20.3	23.0	22.0	34.9	20.1	55.0	100.0
	30대	228	5.5	12.7	18.2	25.2	36.2	20.4	56.6	100.0
	40대	266	3.5	25.8	29.3	20.4	31.0	19.4	50.3	100.0
	50대	258	4.2	20.8	25.0	17.0	38.1	19.8	57.9	100.0
	60대 이상	222	5.6	18.3	23.9	17.7	40.0	18.4	58.4	100.0
	중졸 이하	131	4.6	19.0	23.6	20.9	39.7	15.8	55.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4.0	18.7	22.8	18.8	37.6	20.9	58.4	100.0
	대재 이상	532	4.3	21.0	25.3	21.9	33.4	19.4	52.8	100.0
직업별	무응답	4	32.3	33.4	65.7	0.0	34.3	0.0	34.3	100.0
	농/수/축산업	17	5.5	34.7	40.2	11.0	39.2	9.6	48.8	100.0
	자영업	270	7.3	15.5	22.8	22.2	38.5	16.5	55.1	100.0
	블루 칼라	348	3.8	20.9	24.7	19.0	32.7	23.5	56.3	100.0
	화이트 칼라	230	3.1	22.0	25.1	17.4	38.3	19.2	57.5	100.0
	전업 주부	216	2.8	18.7	21.5	22.8	38.3	17.4	55.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7	21.5	24.3	23.4	30.7	21.7	52.4	100.0
	무응답	2	49.2	50.8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5.0	17.4	22.5	25.8	37.4	14.3	51.7	100.0
	200~299만원	210	2.6	18.7	21.3	22.9	37.3	18.5	55.8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4.9	19.8	24.6	19.4	36.6	19.3	55.9	100.0
	400만원 이상	522	4.4	21.0	25.3	18.6	34.5	21.6	56.0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3	1.9	14.3	16.2	21.6	43.2	19.0	62.2	100.0
	충청권	124	6.1	22.1	28.1	20.6	29.7	21.6	51.2	100.0
	호남권	117	8.1	35.0	43.2	18.3	31.5	7.0	38.5	100.0
	영남권	307	6.6	23.1	29.6	18.3	26.8	25.2	52.1	100.0
	강원	35	4.4	29.7	34.1	30.4	26.7	8.8	35.6	100.0
	제주	14	9.0	13.8	22.8	3.1	38.5	35.6	74.1	100.0
	대도시	561	4.3	17.5	21.8	20.7	36.8	20.7	57.5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4.6	20.8	25.4	19.8	36.6	18.1	54.7	100.0
	읍 / 면	92	2.0	28.3	30.3	21.4	26.7	21.6	48.3	100.0
	진보적	407	6.6	22.9	29.5	18.5	33.8	18.2	52.0	100.0
	중도	557	3.1	18.3	21.4	21.7	37.7	19.1	56.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35	3.0	18.2	21.2	20.3	35.5	23.1	58.6	100.0
	불교	214	5.4	24.0	29.4	18.3	31.8	20.5	52.3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2.5	17.6	20.1	22.4	34.2	23.3	57.5	100.0
	천주교	56	9.0	19.3	28.3	22.2	33.8	15.7	49.5	100.0
	종교 없음	654	4.4	19.6	23.9	19.4	38.0	18.6	56.6	100.0
	무응답	34	0.0	15.2	15.2	34.2	38.2	12.3	50.6	100.0

표8-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전 체		1200	1.2	6.2	7.4	24.7	47.5	20.4	67.9	100.0
성별	남자	607	1.8	5.1	6.9	26.4	46.5	20.1	66.7	100.0
	여자	593	0.6	7.3	7.9	23.0	48.4	20.8	69.1	100.0
	19~29세	227	0.8	6.9	7.7	22.7	48.8	20.8	69.6	100.0
연령별	30대	228	1.6	6.0	7.6	23.2	45.9	23.3	69.2	100.0
	40대	266	0.7	6.2	7.0	28.6	46.4	18.0	64.4	100.0
	50대	258	1.5	5.8	7.2	24.3	47.1	21.3	68.5	100.0
	60대 이상	222	1.4	6.0	7.4	24.2	49.3	19.1	6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6	5.7	6.3	27.6	44.6	21.5	66.1	100.0
	고졸	534	1.0	6.3	7.3	24.5	46.9	21.3	68.2	100.0
	대재 이상	532	1.6	6.1	7.7	24.0	48.8	19.5	68.3	100.0
	무응답	4	0.0	0.0	0.0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0.0	0.0	36.3	54.1	9.6	63.7	100.0
	자영업	270	2.5	4.3	6.8	23.3	52.2	17.7	69.9	100.0
	블루 칼라	348	0.7	4.4	5.2	24.3	47.1	23.4	70.5	100.0
	화이트 칼라	230	1.8	7.0	8.8	24.7	46.2	20.3	66.6	100.0
	전업 주부	216	0.0	9.7	9.7	25.1	45.7	19.6	65.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7	8.7	9.4	25.6	43.2	21.9	65.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	5.6	6.8	29.6	41.5	22.1	63.6	100.0
	200~299만원	210	1.2	7.8	9.0	28.4	44.4	18.2	62.6	100.0
	300~399만원	337	1.3	5.8	7.1	25.8	45.9	21.2	67.1	100.0
	400만원 이상	522	1.1	5.9	7.0	21.2	51.3	20.5	71.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6.3	6.4	26.7	50.6	16.2	66.8	100.0
	충청권	124	3.3	6.6	9.9	22.1	50.5	17.5	68.0	100.0
	호남권	117	2.0	4.7	6.7	28.9	49.9	14.6	64.4	100.0
	영남권	307	2.2	6.9	9.0	19.9	39.4	31.6	71.0	100.0
	강원	35	0.0	4.3	4.3	35.0	45.2	15.4	60.7	100.0
	제주	14	3.1	0.0	3.1	7.4	46.7	42.8	89.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6	6.7	8.3	23.7	47.9	20.1	68.1	100.0
	중·소도시	547	0.7	3.8	4.5	24.9	49.3	21.2	70.6	100.0
	읍 / 면	92	1.8	17.1	18.9	30.2	33.3	17.7	5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0	6.8	8.8	26.2	46.2	18.9	65.1	100.0
	중도	557	0.9	6.3	7.2	25.7	47.3	19.8	67.1	100.0
	보수적	235	0.4	4.9	5.3	20.0	50.1	24.6	74.7	100.0
종교별	불교	214	1.5	10.3	11.8	24.9	38.7	24.6	63.3	100.0
	기독교	242	0.8	5.3	6.0	24.7	52.5	16.8	69.2	100.0
	천주교	56	3.7	11.2	14.9	19.6	44.3	21.2	65.5	100.0
	종교 없음	654	1.1	4.9	6.0	24.8	49.3	19.9	69.2	100.0
	무응답	34	0.0	2.9	2.9	31.4	35.6	30.1	65.7	100.0

표8-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0.9	7.7	8.6	25.2	43.4	22.8	66.2	100.0
	남자	607	1.2	8.5	9.8	24.8	43.9	21.5	65.4	100.0
	여자	593	0.5	6.8	7.3	25.7	42.9	24.1	67.0	100.0
연령별	19~29세	227	0.0	6.9	6.9	23.7	42.6	26.8	69.5	100.0
	30대	228	1.7	8.5	10.2	23.3	44.9	21.5	66.4	100.0
	40대	266	0.4	9.5	9.8	25.3	43.7	21.2	64.9	100.0
	50대	258	1.3	6.1	7.3	27.5	39.7	25.5	65.2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22	1.1	7.4	8.5	26.0	46.8	18.7	65.5	100.0
	중졸 이하	131	0.0	6.7	6.7	25.3	45.7	22.3	68.0	100.0
	고졸	534	0.7	7.6	8.2	25.5	45.2	21.1	66.3	100.0
	대재 이상	532	1.3	7.6	8.9	25.1	41.2	24.7	65.9	100.0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5.3	5.3	23.1	49.7	22.0	71.7	100.0
	자영업	270	2.0	6.7	8.7	24.6	47.1	19.6	66.7	100.0
	블루 칼라	348	0.8	6.9	7.7	20.8	44.2	27.3	71.5	100.0
	화이트 칼라	230	0.7	10.2	10.9	25.5	41.2	22.4	63.5	100.0
	전업 주부	216	0.3	7.9	8.2	31.3	40.6	20.0	60.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5.3	5.3	28.9	42.5	23.3	65.8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6	5.3	5.9	25.9	44.7	23.5	68.2	100.0
	200~299만원	210	0.8	9.2	10.0	23.1	50.2	16.7	66.9	100.0
	300~399만원	337	0.8	7.6	8.3	28.2	43.6	19.9	63.5	100.0
	400만원 이상	522	1.1	7.8	8.8	23.9	40.4	27.0	67.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7.5	7.7	26.0	45.3	21.1	66.4	100.0
	충청권	124	0.0	13.8	13.8	26.4	42.0	17.7	59.8	100.0
	호남권	117	4.8	4.1	8.9	24.0	47.5	19.7	67.2	100.0
	영남권	307	0.9	7.3	8.3	24.0	39.6	28.1	67.7	100.0
	강원	35	0.0	8.4	8.4	30.5	37.0	24.1	61.1	100.0
	제주	14	6.0	0.0	6.0	6.6	41.7	45.7	87.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	8.0	9.1	24.9	42.3	23.7	66.1	100.0
	중·소도시	547	0.6	6.6	7.2	25.6	44.4	22.7	67.2	100.0
	읍 / 면	92	1.0	12.3	13.3	25.2	44.5	17.1	6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5	9.9	11.4	26.7	38.4	23.5	61.9	100.0
	중도	557	0.5	6.9	7.4	25.6	48.1	19.0	67.0	100.0
	보수적	235	0.6	5.8	6.4	21.8	41.3	30.5	71.8	100.0
종교별	불교	214	1.4	7.8	9.1	24.2	46.3	20.3	66.7	100.0
	기독교	242	1.1	10.5	11.7	27.9	35.5	25.0	60.5	100.0
	천주교	56	3.4	11.6	15.1	15.6	46.0	23.3	69.3	100.0
	종교 없음	654	0.3	6.5	6.8	25.5	44.8	22.9	67.7	100.0
	무응답	34	3.0	2.9	5.9	24.1	50.7	19.4	70.1	100.0

표8-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1.5	7.7	9.2	20.8	39.3	30.6	70.0	100.0
	성별									
	남자	607	2.0	9.1	11.1	20.6	39.3	29.0	68.3	100.0
연령별	여자	593	1.0	6.3	7.3	21.0	39.4	32.3	71.7	100.0
	19~29세	227	0.5	5.6	6.1	21.6	39.7	32.6	72.3	100.0
	30대	228	1.8	6.6	8.4	19.3	43.6	28.6	72.2	100.0
연령별	40대	266	1.8	9.7	11.4	21.2	38.1	29.3	67.4	100.0
	50대	258	1.4	9.0	10.4	21.5	40.0	28.1	68.1	100.0
	60대 이상	222	1.9	7.3	9.2	20.4	35.4	35.1	7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	6.2	7.6	23.5	35.4	33.5	68.9	100.0
	고졸	534	0.8	8.9	9.8	19.7	40.2	30.3	70.5	100.0
	대재 이상	532	2.0	6.7	8.7	21.4	39.5	30.4	69.9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2.3	65.7	0.0	34.3	0.0	34.3	100.0
	농/수/축산업	17	5.3	12.8	18.1	10.3	37.7	34.0	71.7	100.0
	자영업	270	1.3	6.9	8.2	21.3	41.0	29.5	70.5	100.0
직업별	블루 칼라	348	1.3	6.9	8.2	19.9	36.8	35.0	71.8	100.0
	화이트 칼라	230	2.6	8.0	10.6	22.1	39.1	28.2	67.4	100.0
	전업 주부	216	0.3	9.0	9.3	23.5	37.4	29.7	67.1	100.0
직업별	학생/무직/기타	116	1.1	7.5	8.5	16.8	48.2	26.5	74.7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6	8.1	9.7	20.4	37.0	32.8	69.8	100.0
	200~299만원	210	1.2	9.8	11.0	20.0	40.8	28.2	69.0	100.0
	300~399만원	337	1.4	8.8	10.1	20.3	43.0	26.6	69.6	10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22	1.7	6.1	7.8	21.4	37.1	33.6	70.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	8.2	9.2	18.4	40.6	31.7	72.4	100.0
	충청권	124	0.0	12.8	12.8	32.1	36.4	18.7	55.1	100.0
	호남권	117	3.4	6.0	9.4	23.4	41.1	26.1	67.2	100.0
지역별	영남권	307	1.6	6.2	7.7	20.2	37.3	34.7	72.0	100.0
	강원	35	6.7	4.3	11.0	25.9	43.2	19.9	63.1	100.0
	제주	14	6.0	0.0	6.0	3.2	31.0	59.8	90.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0	9.2	11.2	18.0	40.4	30.4	70.9	100.0
	중·소도시	547	0.9	6.2	7.1	22.2	38.5	32.2	70.7	100.0
	읍 / 면	92	2.0	8.1	10.1	30.0	37.7	22.3	6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0	10.2	13.2	21.2	37.1	28.4	65.6	100.0
	중도	557	0.6	7.2	7.8	20.6	42.4	29.2	71.6	100.0
	보수적	235	1.0	4.8	5.8	20.6	36.0	37.6	73.6	100.0
종교별	불교	214	2.9	8.7	11.5	20.5	37.4	30.6	68.0	100.0
	기독교	242	1.1	9.2	10.3	21.6	38.3	29.8	68.1	100.0
	천주교	56	3.4	11.7	15.1	16.9	36.7	31.3	68.0	100.0
종교별	종교 없음	654	0.9	6.7	7.6	21.4	40.0	31.0	71.0	100.0
	무응답	34	3.0	5.7	8.7	13.0	51.2	27.1	78.3	100.0

표9.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전 체	전 체	1200	26.5	27.2	46.3	100.0
	성별					
	남자	607	26.8	29.0	44.2	100.0
연령별	여자	593	26.2	25.3	48.5	100.0
	19~29세	227	22.8	30.2	47.0	100.0
	30대	228	24.3	27.2	48.5	100.0
연령별	40대	266	26.7	31.8	41.5	100.0
	50대	258	26.8	23.8	49.4	100.0
	60대 이상	222	31.9	22.5	4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2.7	19.0	48.3	100.0
	고졸	534	27.0	26.0	47.0	100.0
	대재 이상	532	24.2	30.3	45.5	100.0
직업별	무응답	4	65.7	34.3	0.0	100.0
	농/수/축산업	17	17.6	12.5	69.8	100.0
	자영업	270	30.3	27.5	42.2	100.0
직업별	블루 칼라	348	24.6	27.0	48.4	100.0
	화이트 칼라	230	25.0	31.3	43.7	100.0
	전업 주부	216	29.1	20.9	50.1	100.0
직업별	학생/무직/기타	116	21.2	33.4	45.4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7.8	19.0	53.1	100.0
	200~299만원	210	22.2	34.3	43.5	100.0
	300~399만원	337	25.5	29.3	45.2	10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22	28.5	25.1	46.4	100.0
	무응답	1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2.6	30.1	37.2	100.0
	충청권	124	23.0	20.5	56.5	100.0
	호남권	117	23.6	17.8	58.6	100.0
지역별	영남권	307	17.6	27.4	55.0	100.0
	강원	35	21.9	32.5	45.7	100.0
	제주	14	22.2	20.8	56.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5.8	28.6	45.5	100.0
	중·소도시	547	27.7	26.5	45.8	100.0
	읍 / 면	92	23.6	22.3	5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1.2	27.1	41.8	100.0
	중도	557	24.1	29.9	46.1	100.0
	보수적	235	24.1	21.1	54.8	100.0
종교별	불교	214	29.1	24.5	46.3	100.0
	기독교	242	32.5	19.0	48.4	100.0
	천주교	56	37.8	24.7	37.5	100.0
종교별	종교 없음	654	22.9	31.4	45.7	100.0
	무응답	34	17.7	23.9	58.4	100.0

표10.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성별	전 체	1200	36.3	32.5	31.1	100.0
	남자	607	36.1	32.0	31.9	100.0
	여자	593	36.6	33.1	30.3	100.0
연령별	19~29세	227	31.6	36.8	31.6	100.0
	30대	228	33.5	33.3	33.3	100.0
	40대	266	42.1	32.9	25.1	100.0
	50대	258	34.3	29.9	35.8	100.0
	60대 이상	222	39.6	30.0	30.3	100.0
	중졸 이하	131	42.4	27.4	30.2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36.3	30.2	33.5	100.0
	대재 이상	532	34.7	36.1	29.2	100.0
	무응답	4	65.7	34.3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0.2	4.7	85.1	100.0
	자영업	270	39.7	29.1	31.2	100.0
	블루 칼라	348	35.3	29.8	34.9	100.0
	화이트 칼라	230	37.0	35.9	27.1	100.0
	전업 주부	216	37.5	36.1	26.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0.7	40.1	29.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1.8	28.1	40.1	100.0
	200~299만원	210	28.3	36.3	35.4	100.0
	300~399만원	337	38.0	32.1	30.0	100.0
	400만원 이상	522	39.7	32.5	27.8	100.0
	무응답	1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0.9	33.4	25.7	100.0
	충청권	124	39.3	22.2	38.5	100.0
	호남권	117	38.0	24.7	37.3	100.0
	영남권	307	26.1	37.9	35.9	100.0
	강원	35	30.1	38.8	31.1	100.0
	제주	14	41.2	17.4	41.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7.2	38.4	24.5	100.0
	중·소도시	547	36.9	28.3	34.8	100.0
	읍 / 면	92	28.1	21.8	50.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2.5	27.1	30.4	100.0
	중도	557	30.9	38.5	30.5	100.0
	보수적	235	38.5	27.7	33.8	100.0
종교별	불교	214	37.8	34.3	27.9	100.0
	기독교	242	40.8	30.2	29.0	100.0
	천주교	56	42.7	27.5	29.9	100.0
	종교 없음	654	33.9	33.6	32.5	100.0
	무응답	34	33.0	25.8	41.2	100.0

표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 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무응답	계
			%	%	%	%		
성별	전 체	1200	45.3	37.6	13.5	3.4	0.2	100.0
	남자	607	45.7	37.0	13.9	3.2	0.2	100.0
	여자	593	44.8	38.1	13.2	3.7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42.3	42.7	12.3	2.7	0.0	100.0
	30대	228	45.2	35.2	14.9	4.1	0.6	100.0
	40대	266	50.7	35.0	11.7	2.2	0.5	100.0
	50대	258	37.9	40.7	16.9	4.5	0.0	100.0
	60대 이상	222	50.5	34.2	11.5	3.8	0.0	100.0
	중졸 이하	131	53.9	27.0	13.5	5.6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45.6	37.3	13.4	3.7	0.0	100.0
	대재 이상	532	43.2	40.2	13.5	2.7	0.5	100.0
	무응답	4	0.0	66.6	33.4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73.0	7.4	14.4	5.1	0.0	100.0
	자영업	270	46.7	36.7	11.9	4.3	0.5	100.0
	블루 칼라	348	46.0	35.9	13.9	4.2	0.0	100.0
	화이트 칼라	230	46.1	37.1	13.7	3.0	0.0	100.0
	전업 주부	216	43.8	39.2	14.9	1.4	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7.4	46.8	12.2	3.5	0.0	100.0
	무응답	2	0.0	49.2	50.8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56.3	28.7	14.4	0.6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41.9	39.2	12.7	6.2	0.0	100.0
	300~399만원	337	45.9	34.0	15.6	3.8	0.7	100.0
	400만원 이상	522	43.3	41.5	12.3	2.8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1.7	40.2	14.8	2.9	0.4	100.0
	충청권	124	52.6	30.4	13.0	4.0	0.0	100.0
	호남권	117	47.6	39.4	11.7	1.3	0.0	100.0
	영남권	307	51.1	31.1	12.6	5.2	0.0	100.0
	강원	35	19.7	70.0	6.3	3.9	0.0	100.0
	제주	14	51.4	32.8	15.8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4.4	35.9	15.7	4.0	0.0	100.0
	중·소도시	547	42.7	41.3	12.5	3.1	0.5	100.0
	읍 / 면	92	65.9	26.0	6.2	1.9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6.7	37.5	12.6	2.9	0.3	100.0
	중도	557	42.6	39.1	14.4	3.6	0.2	100.0
	보수적	235	49.0	34.1	13.0	3.9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46.9	33.6	15.8	3.7	0.0	100.0
	기독교	242	47.1	35.9	14.0	3.0	0.0	100.0
	천주교	56	41.9	39.4	11.9	6.8	0.0	100.0
	종교 없음	654	44.1	39.9	12.4	3.2	0.4	100.0
	무응답	34	49.4	27.3	19.7	3.6	0.0	100.0

표1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3.0	41.9	6.2	22.6	16.2	0.1	100.0
	남자	607	14.1	39.6	6.7	22.1	17.4	0.2	100.0
	여자	593	11.9	44.3	5.8	23.0	14.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8	45.2	3.5	23.1	17.4	0.0	100.0
	30대	228	8.9	42.4	7.3	24.6	16.2	0.5	100.0
	40대	266	13.6	38.5	7.6	23.5	16.8	0.0	100.0
	50대	258	14.8	44.5	7.0	19.4	14.2	0.0	100.0
	60대 이상	222	16.6	39.1	5.4	22.5	16.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7.9	39.3	7.0	21.6	14.2	0.0	100.0
	고졸	534	11.5	38.9	6.7	24.5	18.1	0.2	100.0
	대재 이상	532	13.2	45.7	5.6	20.7	14.8	0.0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2.3	0.0	34.3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27.5	32.6	0.0	11.9	28.0	0.0	100.0
	자영업	270	12.6	42.3	8.1	19.1	17.4	0.5	100.0
	블루 칼라	348	11.3	42.7	7.5	22.7	15.8	0.0	100.0
	화이트 칼라	230	15.7	44.7	4.6	19.2	15.8	0.0	100.0
	전업 주부	216	13.9	36.6	4.2	33.0	12.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9.2	44.3	6.2	19.4	20.9	0.0	100.0
	무응답	2	50.8	49.2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7.8	33.6	7.9	23.5	17.2	0.0	100.0
	200~299만원	210	16.7	41.9	10.7	19.1	11.7	0.0	100.0
	300~399만원	337	9.4	46.8	6.2	22.4	14.8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12.7	40.8	4.0	23.9	18.6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3.7	40.4	6.0	25.3	14.5	0.2	100.0
	충청권	124	22.2	50.9	8.0	11.8	7.1	0.0	100.0
	호남권	117	14.7	49.9	6.8	17.7	10.9	0.0	100.0
	영남권	307	7.3	36.6	5.9	24.1	26.0	0.0	100.0
	강원	35	13.6	52.3	8.5	17.5	8.1	0.0	100.0
	제주	14	12.0	50.9	0.0	18.7	18.4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1	43.9	6.1	20.0	19.7	0.2	100.0
	중·소도시	547	14.8	39.5	6.6	25.1	14.0	0.0	100.0
	읍 / 면	92	20.0	44.2	5.0	23.0	7.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4.6	46.8	5.7	18.5	14.1	0.3	100.0
	중도	557	11.4	42.8	6.7	24.3	14.9	0.0	100.0
	보수적	235	14.1	31.3	6.2	25.5	22.8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16.6	40.6	4.6	22.7	15.6	0.0	100.0
	기독교	242	14.9	37.1	8.2	21.4	18.5	0.0	100.0
	천주교	56	5.4	50.2	7.9	25.3	11.2	0.0	100.0
	종교 없음	654	11.5	43.5	5.9	22.9	16.1	0.2	100.0
	무응답	34	19.5	39.9	6.6	19.8	14.2	0.0	100.0

표13.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2.2	25.9	28.1	46.8	25.1	71.9	100.0
	남자	607	2.4	28.3	30.7	44.5	24.8	69.3	100.0
	여자	593	2.0	23.5	25.5	49.1	25.4	74.5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	23.9	26.2	46.7	27.1	73.8	100.0
	30대	228	1.3	29.1	30.4	43.3	26.3	69.6	100.0
	40대	266	1.7	27.3	29.0	48.3	22.7	71.0	100.0
	50대	258	1.4	26.7	28.1	50.2	21.7	71.9	100.0
	60대 이상	222	4.4	22.3	26.6	44.5	28.8	73.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4	22.8	28.1	45.7	26.2	71.9	100.0
	고졸	534	1.4	22.6	24.0	49.0	26.9	76.0	100.0
	대재 이상	532	2.2	29.8	31.9	45.1	23.0	68.1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34.3	100.0
	농/수/축산업	17	5.3	10.2	15.5	30.4	54.1	84.5	100.0
	자영업	270	2.0	24.1	26.1	46.6	27.3	73.9	100.0
	블루 칼라	348	1.7	26.0	27.7	46.2	26.1	72.3	100.0
	화이트 칼라	230	3.1	31.1	34.2	47.8	18.0	65.8	100.0
	전업 주부	216	2.1	23.1	25.2	49.9	24.9	74.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7	25.9	27.6	44.4	28.0	72.4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7.7	17.5	25.2	47.5	27.3	74.8	100.0
	200~299만원	210	1.9	28.5	30.4	50.0	19.6	69.6	100.0
	300~399만원	337	2.9	28.4	31.3	42.4	26.3	68.7	100.0
	400만원 이상	522	0.4	25.5	26.0	48.0	26.1	74.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6	24.3	24.8	49.2	25.9	75.2	100.0
	충청권	124	4.5	36.4	40.9	38.8	20.3	59.1	100.0
	호남권	117	1.9	40.4	42.3	39.0	18.7	57.7	100.0
	영남권	307	3.5	18.5	21.9	48.5	29.6	78.1	100.0
	강원	35	9.3	38.2	47.4	41.7	10.9	52.6	100.0
	제주	14	6.2	18.1	24.4	50.5	25.1	75.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8	25.7	26.5	46.5	27.0	73.5	100.0
	중·소도시	547	3.1	24.4	27.5	48.3	24.2	72.5	100.0
	읍 / 면	92	5.3	36.4	41.7	38.8	19.5	5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2	33.7	36.8	41.1	22.0	63.2	100.0
	중도	557	1.6	22.8	24.4	51.6	24.0	75.6	100.0
	보수적	235	1.9	20.1	21.9	45.0	33.0	78.1	100.0
종교별	불교	214	2.9	29.7	32.6	45.5	21.9	67.4	100.0
	기독교	242	2.3	27.3	29.6	45.4	25.0	70.4	100.0
	천주교	56	2.5	29.9	32.4	43.6	24.0	67.6	100.0
	종교 없음	654	2.0	23.9	25.9	47.9	26.2	74.1	100.0
	무응답	34	0.0	25.3	25.3	47.2	27.5	74.7	100.0

표14.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6	17.9	19.4	47.9	32.6	80.6	100.0
	남자	607	1.4	17.4	18.8	47.6	33.6	81.2	100.0
	여자	593	1.8	18.3	20.1	48.3	31.6	79.9	100.0
연령별	19~29세	227	1.7	13.2	14.9	45.3	39.8	85.1	100.0
	30대	228	1.0	16.3	17.3	53.6	29.1	82.7	100.0
	40대	266	1.4	21.2	22.6	46.4	31.0	77.4	100.0
	50대	258	1.4	17.7	19.1	48.5	32.4	80.9	100.0
	60대 이상	222	2.6	20.3	22.8	46.0	31.1	7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1	18.3	21.4	42.1	36.5	78.6	100.0
	고졸	534	0.9	17.3	18.2	49.9	31.9	81.8	100.0
	대재 이상	532	1.9	17.9	19.8	47.8	32.4	80.2	100.0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10.4	15.7	24.5	59.8	84.3	100.0
	자영업	270	1.7	18.1	19.8	43.9	36.4	80.2	100.0
	블루 칼라	348	1.3	15.9	17.2	51.3	31.5	82.8	100.0
	화이트 칼라	230	1.8	20.9	22.8	50.5	26.8	77.2	100.0
	전업 주부	216	2.3	19.0	21.3	50.2	28.5	78.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14.1	14.1	42.6	43.3	85.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3	14.7	19.0	51.5	29.4	81.0	100.0
	200~299만원	210	2.0	20.8	22.8	46.0	31.2	77.2	100.0
	300~399만원	337	1.7	15.9	17.6	48.2	34.2	82.4	100.0
	400만원 이상	522	0.7	18.7	19.4	47.7	32.9	80.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19.6	20.0	51.1	28.9	80.0	100.0
	충청권	124	6.8	31.6	38.3	39.5	22.2	61.7	100.0
	호남권	117	0.6	16.7	17.3	49.0	33.7	82.7	100.0
	영남권	307	1.5	9.1	10.6	44.7	44.7	89.4	100.0
	강원	35	6.9	22.6	29.4	53.2	17.3	70.6	100.0
	제주	14	3.1	9.2	12.3	34.6	53.1	87.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4	18.7	19.1	48.6	32.3	80.9	100.0
	중·소도시	547	2.6	15.0	17.6	49.0	33.5	82.4	100.0
	읍 / 면	92	2.9	29.5	32.3	38.0	29.7	67.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0	23.9	26.0	44.9	29.1	74.0	100.0
	중도	557	1.5	16.7	18.2	50.4	31.4	81.8	100.0
	보수적	235	1.0	10.0	11.1	47.2	41.7	88.9	100.0
종교별	불교	214	2.3	22.1	24.4	45.2	30.4	75.6	100.0
	기독교	242	0.3	21.1	21.4	44.8	33.8	78.6	100.0
	천주교	56	2.3	15.2	17.6	50.1	32.4	82.4	100.0
	종교 없음	654	1.8	16.0	17.8	49.5	32.7	82.2	100.0
	무응답	34	0.0	9.3	9.3	53.0	37.7	90.7	100.0

표15.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	10.3	11.7	24.6	45.4	18.3	63.7	100.0
	남자	607	1.5	11.0	12.4	24.6	46.2	16.8	63.0	100.0
	여자	593	1.4	9.6	11.0	24.6	44.6	19.8	64.4	100.0
연령별	19~29세	227	0.8	8.8	9.6	22.6	48.1	19.7	67.8	100.0
	30대	228	1.0	10.6	11.5	23.5	43.3	21.7	64.9	100.0
	40대	266	1.5	9.7	11.1	24.7	48.7	15.5	64.1	100.0
	50대	258	2.3	10.0	12.3	26.0	44.8	16.9	61.7	100.0
	60대 이상	222	1.6	12.6	14.2	26.1	41.5	18.3	59.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1	10.1	12.2	21.9	45.1	20.8	65.9	100.0
	고졸	534	1.7	10.7	12.4	26.4	45.2	16.0	61.2	100.0
	대재 이상	532	1.0	10.0	11.0	23.2	45.8	20.1	65.8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65.7	34.3	0.0	34.3	100.0
	농/수/축산업	17	0.0	16.0	16.0	32.3	41.6	10.2	51.8	100.0
	자영업	270	1.2	10.4	11.6	24.2	42.9	21.2	64.2	100.0
	블루 칼라	348	0.8	11.9	12.7	24.0	45.3	17.9	63.3	100.0
	화이트 칼라	230	2.0	10.7	12.8	24.0	48.6	14.6	63.2	100.0
	전업 주부	216	2.6	8.1	10.7	27.7	45.8	15.7	61.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8	7.7	8.5	20.0	45.5	26.0	71.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2	6.4	8.6	24.6	48.6	18.3	66.8	100.0
	200~299만원	210	1.6	12.1	13.7	26.7	42.5	17.0	59.5	100.0
	300~399만원	337	1.6	10.6	12.2	25.2	44.3	18.3	62.6	100.0
	400만원 이상	522	1.0	10.4	11.4	23.4	46.5	18.7	65.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9.0	9.2	26.3	51.0	13.5	64.5	100.0
	충청권	124	5.0	18.9	23.9	18.4	35.2	22.6	57.7	100.0
	호남권	117	0.6	15.4	16.1	21.4	38.5	24.1	62.5	100.0
	영남권	307	2.5	7.9	10.5	24.4	42.8	22.3	65.1	100.0
	강원	35	2.3	8.4	10.7	32.8	32.5	24.0	56.5	100.0
	제주	14	3.1	2.8	5.9	18.3	40.9	34.9	75.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0	9.3	9.3	27.4	44.4	18.9	63.3	100.0
	중·소도시	547	1.6	10.6	12.2	21.0	48.6	18.2	66.8	100.0
	읍 / 면	92	9.1	14.7	23.7	29.2	32.1	15.0	47.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8	13.1	14.9	25.0	42.9	17.3	60.1	100.0
	중도	557	1.2	7.6	8.8	27.3	47.4	16.5	63.9	100.0
	보수적	235	1.3	11.8	13.1	17.6	45.0	24.3	69.3	100.0
종교별	불교	214	1.6	12.1	13.8	31.7	40.6	14.0	54.6	100.0
	기독교	242	1.1	9.3	10.4	29.7	41.4	18.4	59.8	100.0
	천주교	56	2.5	7.6	10.1	11.7	45.1	33.1	78.2	100.0
	종교 없음	654	1.5	10.4	11.8	21.3	48.4	18.5	66.9	100.0
	무응답	34	0.0	8.8	8.8	28.8	46.0	16.5	62.5	100.0

표16.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무응답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6	28.3	31.9	47.1	20.8	68.0	0.1	100.0
	남자	607	3.6	27.4	31.0	47.0	21.8	68.8	0.2	100.0
	여자	593	3.6	29.2	32.9	47.3	19.8	67.1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5.3	24.1	29.4	52.3	18.3	70.6	0.0	100.0
	30대	228	3.8	24.6	28.4	51.8	19.8	71.6	0.0	100.0
	40대	266	3.6	30.9	34.6	47.1	18.0	65.1	0.4	100.0
	50대	258	1.8	32.1	34.0	41.6	24.4	66.0	0.0	100.0
	60대 이상	222	3.8	28.9	32.7	43.5	23.8	67.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5	32.5	37.0	39.9	23.2	63.0	0.0	100.0
	고졸	534	3.1	28.4	31.6	47.9	20.5	68.4	0.0	100.0
	대재 이상	532	3.9	26.7	30.6	48.5	20.7	69.2	0.2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2.2	12.2	22.5	65.3	87.8	0.0	100.0
	자영업	270	4.8	26.4	31.3	41.2	27.5	68.7	0.0	100.0
	블루 칼라	348	3.1	29.0	32.1	49.2	18.7	67.9	0.0	100.0
	화이트 칼라	230	4.7	29.3	34.0	49.9	15.6	65.5	0.4	100.0
	전업 주부	216	1.2	32.4	33.6	49.0	17.4	66.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2	22.0	27.2	50.5	22.3	72.8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9	20.1	25.1	52.2	22.7	74.9	0.0	100.0
	200~299만원	210	4.8	29.3	34.1	43.5	22.3	65.9	0.0	100.0
	300~399만원	337	3.2	27.4	30.6	45.5	23.7	69.1	0.3	100.0
	400만원 이상	522	3.1	30.6	33.7	48.5	17.8	66.3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0	27.7	29.7	51.1	19.1	70.3	0.0	100.0
	충청권	124	4.6	29.2	33.8	46.9	19.3	66.2	0.0	100.0
	호남권	117	7.7	40.5	48.3	38.0	13.8	51.7	0.0	100.0
	영남권	307	4.0	24.8	28.8	43.4	27.5	70.9	0.3	100.0
	강원	35	6.6	34.5	41.1	36.9	22.0	58.9	0.0	100.0
	제주	14	12.3	9.7	22.0	61.1	16.9	78.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9	32.9	35.8	48.3	15.9	64.2	0.0	100.0
	중·소도시	547	3.7	23.5	27.3	47.6	25.0	72.6	0.2	100.0
	읍 / 면	92	7.2	29.1	36.3	37.3	26.4	63.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2	28.6	33.8	47.6	18.6	66.2	0.0	100.0
	중도	557	3.1	29.8	32.9	46.3	20.6	66.9	0.2	100.0
	보수적	235	2.0	24.4	26.4	48.3	25.3	73.6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2.0	32.0	34.0	46.6	19.4	66.0	0.0	100.0
	기독교	242	3.1	33.2	36.4	42.8	20.8	63.6	0.0	100.0
	천주교	56	3.7	28.0	31.6	51.4	17.0	68.4	0.0	100.0
	종교 없음	654	4.3	25.9	30.3	47.7	21.8	69.6	0.2	100.0
	무응답	34	3.6	16.6	20.1	63.3	16.5	79.9	0.0	100.0

표17.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전 체		1200	15.0	55.6	70.6	25.5	3.9	29.4	100.0
성별	남자	607	14.9	53.8	68.7	27.4	3.9	31.3	100.0
	여자	593	15.2	57.4	72.6	23.5	3.9	27.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0	61.9	77.9	21.3	0.8	22.1	100.0
	30대	228	17.4	55.3	72.7	24.4	2.9	27.3	100.0
	40대	266	11.9	59.4	71.3	25.5	3.2	28.7	100.0
	50대	258	15.7	50.6	66.3	27.5	6.2	33.7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22	14.7	50.7	65.3	28.4	6.2	34.7	100.0
	중졸 이하	131	13.7	48.5	62.2	27.1	10.7	37.8	100.0
	고졸	534	13.7	57.1	70.8	25.4	3.8	29.2	100.0
	대재 이상	532	16.8	56.0	72.8	24.8	2.4	27.2	100.0
	무응답	4	0.0	32.3	32.3	67.7	0.0	67.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9.3	70.8	80.1	7.4	12.5	19.9	100.0
	자영업	270	15.9	51.1	67.0	26.5	6.5	33.0	100.0
	블루 칼라	348	13.5	59.9	73.4	23.4	3.2	26.6	100.0
	화이트 칼라	230	16.8	49.7	66.5	32.0	1.5	33.5	100.0
	전업 주부	216	13.3	56.6	69.8	25.6	4.5	30.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8.5	61.1	79.5	18.0	2.4	20.5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5.3	49.8	65.1	27.9	7.0	34.9	100.0
	200~299만원	210	17.7	54.3	72.0	23.4	4.5	28.0	100.0
	300~399만원	337	12.6	57.9	70.4	25.5	4.1	29.6	100.0
	400만원 이상	522	15.5	56.0	71.5	25.7	2.8	28.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3	60.3	70.6	26.5	2.9	29.4	100.0
	충청권	124	19.1	51.1	70.2	27.2	2.6	29.8	100.0
	호남권	117	30.8	39.6	70.4	24.7	5.0	29.6	100.0
	영남권	307	15.1	54.2	69.3	24.3	6.4	30.7	100.0
	강원	35	23.9	56.6	80.5	17.0	2.5	19.5	100.0
	제주	14	26.3	55.7	82.0	18.0	0.0	18.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5.5	57.9	73.4	22.6	4.0	26.6	100.0
	중·소도시	547	12.4	56.2	68.6	28.2	3.1	31.4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27.9	37.8	65.6	26.6	7.8	34.4	100.0
	진보적	407	13.2	55.2	68.5	27.8	3.8	31.5	100.0
	중도	557	15.5	57.3	72.9	23.9	3.2	27.1	100.0
	보수적	235	17.1	52.1	69.1	25.1	5.8	30.9	100.0
종교별	불교	214	16.2	53.9	70.1	24.3	5.5	29.9	100.0
	기독교	242	13.6	60.4	74.0	22.8	3.2	26.0	100.0
	천주교	56	22.3	48.9	71.3	23.5	5.3	28.7	100.0
	종교 없음	654	14.6	55.3	69.8	26.4	3.7	30.2	100.0
	무응답	34	14.3	49.6	64.0	36.0	0.0	36.0	100.0

표18-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4.1	15.3	40.4	40.2	100.0
	남자	607	4.7	18.2	44.4	32.6	100.0
	여자	593	3.4	12.3	36.3	48.0	100.0
연령별	19~29세	227	2.2	13.9	37.5	46.5	100.0
	30대	228	5.2	17.1	42.4	35.4	100.0
	40대	266	4.7	12.6	42.8	39.8	100.0
	50대	258	3.4	17.8	42.0	36.8	100.0
	60대 이상	222	5.1	15.1	36.7	43.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2	10.6	33.4	53.9	100.0
	고졸	534	3.7	17.8	41.5	37.0	100.0
	대재 이상	532	5.0	14.1	40.8	40.1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67.7	32.3	100.0
	농/수/축산업	17	4.6	20.4	19.1	55.8	100.0
	자영업	270	4.6	13.1	45.6	36.6	100.0
	블루 칼라	348	3.9	17.8	38.8	39.5	100.0
	화이트 칼라	230	5.2	15.8	44.1	34.9	100.0
	전업 주부	216	4.0	13.1	34.2	48.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	15.3	40.5	42.7	100.0
	무응답	2	0.0	0.0	50.8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3.0	13.7	36.0	47.2	100.0
	200~299만원	210	3.4	20.7	39.8	36.1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5.6	17.4	40.7	36.2	100.0
	400만원 이상	522	3.7	12.1	41.5	42.7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5	13.1	39.8	44.6	100.0
	충청권	124	2.5	10.5	53.4	33.6	100.0
	호남권	117	7.9	21.4	27.1	43.6	100.0
	영남권	307	5.3	18.1	41.1	35.5	100.0
	강원	35	12.9	26.3	47.8	13.0	100.0
	제주	14	6.2	12.9	30.0	50.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2	15.1	39.2	41.4	100.0
	중·소도시	547	3.5	14.9	43.7	37.9	100.0
	읍 / 면	92	6.7	18.6	28.3	46.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6	17.1	41.9	36.4	100.0
	중도	557	2.8	15.8	38.4	43.0	100.0
	보수적	235	6.2	10.9	42.7	40.1	100.0
종교별	불교	214	3.5	14.3	38.8	43.3	100.0
	기독교	242	5.2	17.0	37.2	40.6	100.0
	천주교	56	6.9	15.2	38.7	39.2	100.0
	종교 없음	654	3.8	14.7	42.0	39.5	100.0
	무응답	34	0.0	21.4	46.9	31.7	100.0

표18-2.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5.8	22.4	43.1	28.7	100.0
	남자	607	6.0	26.8	42.3	24.9	100.0
	여자	593	5.6	18.0	43.8	32.6	100.0
연령별	19~29세	227	4.7	17.0	41.8	36.4	100.0
	30대	228	6.9	20.3	47.8	25.0	100.0
	40대	266	6.7	21.9	42.8	28.5	100.0
	50대	258	4.4	32.0	42.0	21.5	100.0
	60대 이상	222	6.3	19.6	40.9	3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4	14.5	41.4	41.7	100.0
	고졸	534	5.2	24.8	42.9	27.0	100.0
	대재 이상	532	7.3	22.1	43.7	26.9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33.4	66.6	100.0
	농/수/축산업	17	4.6	22.4	52.5	20.5	100.0
	자영업	270	6.2	28.8	41.7	23.3	100.0
	블루 칼라	348	5.3	20.9	44.9	28.8	100.0
	화이트 칼라	230	6.2	20.0	46.8	27.0	100.0
	전업 주부	216	6.5	17.8	41.9	33.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5	26.1	33.8	35.6	100.0
	무응답	2	0.0	0.0	50.8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5.6	19.5	41.2	33.7	100.0
	200~299만원	210	4.6	29.8	44.0	21.7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8.0	24.5	42.4	25.1	100.0
	400만원 이상	522	4.9	18.9	43.5	32.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1	23.6	40.0	32.4	100.0
	충청권	124	1.9	15.9	59.4	22.8	100.0
	호남권	117	11.6	28.1	28.0	32.3	100.0
	영남권	307	7.9	18.4	49.7	24.0	100.0
	강원	35	8.8	41.8	32.3	17.1	100.0
	제주	14	12.2	22.7	38.7	26.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6.4	24.4	42.8	26.4	100.0
	중·소도시	547	4.9	21.9	43.8	29.3	100.0
	읍 / 면	92	7.5	13.4	40.2	38.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7.4	20.5	44.9	27.2	100.0
	중도	557	4.9	23.7	40.7	30.8	100.0
	보수적	235	5.4	22.8	45.5	26.4	100.0
종교별	불교	214	4.7	19.7	47.9	27.7	100.0
	기독교	242	8.2	22.5	39.0	30.3	100.0
	천주교	56	6.6	32.1	37.1	24.2	100.0
	종교 없음	654	5.2	22.1	42.7	30.0	100.0
	무응답	34	5.7	29.9	57.2	7.2	100.0

표18-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6.6	20.1	47.7	25.6	100.0
성별						
남자	607	7.8	23.8	45.9	22.6	100.0
여자	593	5.4	16.3	49.6	28.6	100.0
연령별						
19~29세	227	3.7	15.7	40.5	40.1	100.0
30대	228	5.6	13.2	55.8	25.4	100.0
40대	266	8.9	20.8	47.1	23.2	100.0
50대	258	6.3	28.4	47.3	17.9	100.0
60대 이상	222	8.3	21.2	47.9	22.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9	13.4	51.6	31.1	100.0
고졸	534	6.0	24.3	47.9	21.8	100.0
대재 이상	532	7.9	17.7	46.7	27.7	100.0
무응답	4	0.0	0.0	34.3	65.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1.9	17.3	48.7	22.1	100.0
자영업	270	9.3	24.5	43.2	23.0	100.0
블루 칼라	348	5.9	19.1	50.2	24.8	100.0
화이트 칼라	230	5.5	18.5	51.1	24.9	100.0
전업 주부	216	5.5	18.0	53.4	23.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2	20.6	34.6	38.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2	14.2	48.2	28.4	100.0
200~299만원	210	5.6	31.5	42.4	20.5	100.0
300~399만원	337	8.7	21.5	45.5	24.3	100.0
400만원 이상	522	5.1	16.1	51.1	27.7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6.2	19.3	46.3	28.1	100.0
충청권	124	2.6	14.0	66.5	17.0	100.0
호남권	117	14.1	24.4	31.0	30.5	100.0
영남권	307	6.3	18.8	51.6	23.3	100.0
강원	35	4.7	52.1	26.1	17.1	100.0
제주	14	9.3	19.2	51.7	19.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4	21.4	48.4	22.7	100.0
중·소도시	547	5.5	20.2	47.2	27.2	100.0
읍 / 면	92	8.6	11.1	47.1	3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8.5	18.3	45.6	27.5	100.0
중도	557	5.4	20.1	49.0	25.5	100.0
보수적	235	6.2	23.2	48.3	22.3	100.0
종교별						
불교	214	3.9	19.9	51.5	24.7	100.0
기독교	242	11.6	19.9	49.2	19.4	100.0
천주교	56	7.5	28.2	37.4	26.9	100.0
종교 없음	654	5.6	18.9	46.7	28.8	100.0
무응답	34	5.7	33.1	51.1	10.1	100.0

표18-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4.4	15.9	39.7	39.9	100.0
성별						
남자	607	5.9	19.3	41.1	33.7	100.0
여자	593	2.9	12.4	38.4	46.3	100.0
연령별						
19~29세	227	2.7	9.3	31.5	56.4	100.0
30대	228	5.3	12.7	38.6	43.4	100.0
40대	266	4.1	18.0	44.9	33.0	100.0
50대	258	4.6	21.0	43.9	30.5	100.0
60대 이상	222	5.5	17.4	38.3	3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	12.1	39.6	46.8	100.0
고졸	534	4.2	18.2	40.9	36.6	100.0
대재 이상	532	5.4	14.6	38.8	41.1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6	9.9	46.9	38.6	100.0
자영업	270	4.4	20.7	40.5	34.3	100.0
블루 칼라	348	4.3	14.0	39.7	42.0	100.0
화이트 칼라	230	5.0	17.3	40.4	37.3	100.0
전업 주부	216	3.9	13.5	42.1	4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0	13.3	32.4	49.3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2	9.3	48.3	37.2	100.0
200~299만원	210	4.1	24.6	38.2	33.0	100.0
300~399만원	337	5.6	16.3	42.0	36.1	100.0
400만원 이상	522	3.6	13.8	36.6	45.9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4	13.7	39.0	43.8	100.0
충청권	124	2.5	11.5	45.8	40.1	100.0
호남권	117	10.5	21.4	29.5	38.7	100.0
영남권	307	4.7	15.8	44.2	35.2	100.0
강원	35	6.8	48.1	24.4	20.8	100.0
제주	14	3.1	22.1	42.1	32.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5	17.3	39.4	37.8	100.0
중·소도시	547	2.5	15.4	40.2	41.9	100.0
읍 / 면	92	9.6	10.4	38.6	4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6.5	15.7	35.7	42.1	100.0
중도	557	2.7	16.3	41.7	39.3	100.0
보수적	235	5.1	15.1	42.1	37.6	100.0
종교별						
불교	214	3.5	14.4	43.5	38.6	100.0
기독교	242	4.4	20.2	38.7	36.7	100.0
천주교	56	8.8	18.2	36.1	36.9	100.0
종교 없음	654	4.6	14.1	39.6	41.7	100.0
무응답	34	0.0	25.1	33.4	41.5	100.0

표18-5.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3.8	18.3	41.8	36.1	100.0
	남자	607	4.5	22.9	41.1	31.5	100.0
	여자	593	3.0	13.6	42.5	40.9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	13.5	38.1	47.1	100.0
	30대	228	3.6	14.7	46.2	35.5	100.0
	40대	266	3.2	20.3	45.8	30.6	100.0
	50대	258	5.2	22.1	40.0	32.7	100.0
	60대 이상	222	5.4	20.1	38.4	3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7	13.8	42.1	43.4	100.0
	고졸	534	3.8	19.9	42.0	34.3	100.0
	대재 이상	532	4.5	17.9	41.6	36.0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33.4	66.6	100.0
	농/수/축산업	17	4.6	15.1	39.9	40.3	100.0
	자영업	270	5.3	23.0	41.0	30.7	100.0
	블루 칼라	348	2.5	20.4	43.4	33.7	100.0
	화이트 칼라	230	4.4	18.2	42.6	34.9	100.0
	전업 주부	216	3.9	11.4	42.4	42.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5	15.1	36.4	46.1	100.0
	무응답	2	0.0	0.0	50.8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2.7	11.7	43.2	42.4	100.0
	200~299만원	210	3.5	18.9	46.3	31.3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4.8	22.0	40.0	33.2	100.0
	400만원 이상	522	3.5	17.4	40.7	38.4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수도권	603	2.7	16.8	46.4	34.1	100.0
	충청권	124	3.0	17.1	40.2	39.6	100.0
지역별	호남권	117	8.1	20.2	20.9	50.9	100.0
	영남권	307	4.3	21.1	40.9	33.7	100.0
	강원	35	4.7	21.6	50.9	22.8	100.0
	제주	14	6.2	9.6	28.4	55.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6	20.1	41.5	32.8	100.0
	중·소도시	547	1.6	17.8	43.4	37.3	100.0
	읍 / 면	92	5.6	10.7	34.5	4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4	18.9	40.4	36.3	100.0
	중도	557	2.8	16.1	43.8	37.3	100.0
	보수적	235	5.0	22.5	39.6	33.0	100.0
종교별	불교	214	3.4	12.2	47.5	36.9	100.0
	기독교	242	4.6	17.0	45.3	33.1	100.0
	천주교	56	6.8	16.4	38.2	38.6	100.0
	종교 없음	654	3.5	19.7	39.0	37.8	100.0
	무응답	34	0.0	43.0	40.2	16.8	100.0

표18-6.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모란봉 악단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7.8	28.8	45.5	17.9	100.0
	남자	607	8.9	32.6	43.3	15.1	100.0
	여자	593	6.7	24.9	47.7	20.7	100.0
연령별	19~29세	227	5.7	24.1	42.0	28.1	100.0
	30대	228	5.8	29.4	48.6	16.2	100.0
	40대	266	10.3	29.3	45.4	15.0	100.0
	50대	258	8.0	33.7	44.2	14.1	100.0
	60대 이상	222	8.8	26.7	47.5	1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6	17.5	52.4	25.4	100.0
	고졸	534	7.8	29.3	46.6	16.3	100.0
	대재 이상	532	8.6	31.3	42.8	17.3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33.4	66.6	100.0
	농/수/축산업	17	4.6	29.8	43.4	22.1	100.0
	자영업	270	10.6	32.4	40.3	16.7	100.0
	블루 칼라	348	7.2	26.7	49.2	17.0	100.0
	화이트 칼라	230	9.1	28.4	44.0	18.5	100.0
	전업 주부	216	5.9	28.2	49.6	16.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9	29.5	42.0	23.6	100.0
	무응답	2	0.0	0.0	50.8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8.8	18.3	51.8	21.1	100.0
	200~299만원	210	8.1	37.7	41.0	13.1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8.6	28.6	45.1	17.8	100.0
	400만원 이상	522	7.0	28.1	45.9	19.1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수도권	603	7.1	31.9	40.7	20.3	100.0
	충청권	124	4.4	25.8	52.1	17.7	100.0
지역별	호남권	117	16.2	32.5	26.4	24.9	100.0
	영남권	307	7.9	19.1	61.3	11.8	100.0
	강원	35	4.6	59.0	25.8	10.7	100.0
	제주	14	5.9	28.5	56.5	9.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9.3	31.0	47.1	12.5	100.0
	중·소도시	547	5.8	28.5	42.8	22.9	100.0
	읍 / 면	92	10.1	17.4	51.5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8.5	30.7	43.5	17.4	100.0
	중도	557	6.6	27.3	47.2	18.9	100.0
	보수적	235	9.5	29.1	45.0	16.4	100.0
종교별	불교	214	4.0	26.7	54.4	14.9	100.0
	기독교	242	12.2	30.2	41.6	16.0	100.0
	천주교	56	10.1	26.6	43.3	20.0	100.0
	종교 없음	654	7.6	26.8	45.4	20.1	100.0
	무응답	34	0.0	74.7	21.7	3.6	100.0

표19-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4.7	95.3	100.0
성별	남자	607	6.6	93.4	100.0
	여자	593	2.7	97.3	100.0
연령별	19~29세	227	3.4	96.6	100.0
	30대	228	3.4	96.6	100.0
	40대	266	3.7	96.3	100.0
	50대	258	6.8	93.2	100.0
	60대 이상	222	6.0	9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6.1	93.9	100.0
	고졸	534	4.6	95.4	100.0
	대재 이상	532	4.4	95.6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9.9	90.1	100.0
	자영업	270	6.0	94.0	100.0
	블루 칼라	348	6.5	93.5	100.0
	화이트 칼라	230	3.1	96.9	100.0
	전업 주부	216	2.0	98.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2	96.8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3.7	96.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7.6	92.4	100.0
	300~399만원	337	5.7	94.3	100.0
	400만원 이상	522	2.9	97.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8	95.2	100.0
	충청권	124	2.0	98.0	100.0
	호남권	117	2.7	97.3	100.0
	영남권	307	5.6	94.4	100.0
	강원	35	11.4	88.6	100.0
	제주	14	3.1	96.9	100.0
	대도시	561	3.4	96.6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5.5	94.5	100.0
	읍 / 면	92	8.0	92.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7	94.3	100.0
	중도	557	4.4	95.6	100.0
	보수적	235	3.6	96.4	100.0
종교별	불교	214	6.6	93.4	100.0
	기독교	242	2.7	97.3	100.0
	천주교	56	5.6	94.4	100.0
	종교 없음	654	4.6	95.4	100.0
	무응답	34	6.5	93.5	100.0

표19-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성별	전 체	1200	13.8	86.2	100.0
	남자	607	15.0	85.0	100.0
	여자	593	12.6	87.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1	89.9	100.0
	30대	228	16.6	83.4	100.0
	40대	266	12.3	87.7	100.0
	50대	258	13.8	86.2	100.0
	60대 이상	222	16.7	8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5	86.5	100.0
	고졸	534	13.3	86.7	100.0
	대재 이상	532	14.6	85.4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7.5	82.5	100.0
	자영업	270	12.8	87.2	100.0
	블루 칼라	348	12.9	87.1	100.0
	화이트 칼라	230	14.9	85.1	100.0
	전업 주부	216	16.2	83.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2.3	87.7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5.5	84.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4.8	85.2	100.0
	300~399만원	337	12.3	87.7	100.0
	400만원 이상	522	14.0	86.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6.1	83.9	100.0
	충청권	124	16.2	83.8	100.0
	호남권	117	11.5	88.5	100.0
	영남권	307	9.7	90.3	100.0
	강원	35	13.3	86.7	100.0
	제주	14	9.1	90.9	100.0
	대도시	561	16.7	83.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0.9	89.1	100.0
	읍 / 면	92	13.7	8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3.4	86.6	100.0
	중도	557	12.6	87.4	100.0
	보수적	235	17.5	82.5	100.0
종교별	불교	214	12.3	87.7	100.0
	기독교	242	18.7	81.3	100.0
	천주교	56	10.2	89.8	100.0
	종교 없음	654	13.0	87.0	100.0
	무응답	34	10.6	89.4	100.0

표19-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	%	%	%
전 체		1200	29.3	70.6	0.1	100.0
성별	남자	607	30.0	70.0	0.0	100.0
	여자	593	28.5	71.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28.2	71.3	0.5	100.0
	30대	228	33.3	66.7	0.0	100.0
	40대	266	28.8	71.2	0.0	100.0
	50대	258	29.1	70.9	0.0	100.0
	60대 이상	222	27.1	72.9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9.3	70.7	0.0	100.0
	고졸	534	28.7	71.3	0.0	100.0
	대재 이상	532	29.8	69.9	0.2	100.0
	무응답	4	32.3	67.7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8.2	61.8	0.0	100.0
	자영업	270	25.9	74.1	0.0	100.0
	블루 칼라	348	36.0	63.7	0.3	100.0
	화이트 칼라	230	27.9	72.1	0.0	100.0
	전업 주부	216	26.3	73.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3.9	76.1	0.0	100.0
	무응답	2	49.2	50.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4.8	75.2	0.0	100.0
	200~299만원	210	29.9	70.1	0.0	100.0
	300~399만원	337	29.3	70.3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30.2	69.8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6.7	63.1	0.2	100.0
	충청권	124	19.9	80.1	0.0	100.0
	호남권	117	16.5	83.5	0.0	100.0
	영남권	307	24.9	75.1	0.0	100.0
	강원	35	17.3	82.7	0.0	100.0
	제주	14	25.5	74.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0.8	69.0	0.2	100.0
	중·소도시	547	28.9	71.1	0.0	100.0
	읍 / 면	92	22.4	77.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0.7	69.0	0.3	100.0
	중도	557	25.7	74.3	0.0	100.0
	보수적	235	35.3	64.7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30.7	69.3	0.0	100.0
	기독교	242	32.1	67.9	0.0	100.0
	천주교	56	19.0	81.0	0.0	100.0
	종교 없음	654	27.7	72.1	0.2	100.0
	무응답	34	48.3	51.7	0.0	100.0

표19-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	%	%	%
전 체		1200	2.9	97.0	0.1	100.0
성별	남자	607	3.4	96.6	0.0	100.0
	여자	593	2.3	97.5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	97.1	0.5	100.0
	30대	228	3.3	96.7	0.0	100.0
	40대	266	3.4	96.6	0.0	100.0
	50대	258	3.9	96.1	0.0	100.0
	60대 이상	222	1.3	98.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1	97.9	0.0	100.0
	고졸	534	2.8	97.2	0.0	100.0
	대재 이상	532	3.2	96.6	0.2	100.0
	무응답	4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94.7	0.0	100.0
	자영업	270	1.9	98.1	0.0	100.0
	블루 칼라	348	1.9	97.7	0.3	100.0
	화이트 칼라	230	4.8	95.2	0.0	100.0
	전업 주부	216	3.2	96.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	96.7	0.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5	95.5	0.0	100.0
	200~299만원	210	2.9	97.1	0.0	100.0
	300~399만원	337	3.9	95.7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1.8	98.2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0	97.8	0.2	100.0
	충청권	124	0.7	99.3	0.0	100.0
	호남권	117	2.2	97.8	0.0	100.0
	영남권	307	5.3	94.7	0.0	100.0
	강원	35	7.1	92.9	0.0	100.0
	제주	14	3.1	96.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9	97.8	0.2	100.0
	중·소도시	547	2.9	97.1	0.0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8.3	91.7	0.0	100.0
	진보적	407	3.8	95.9	0.3	100.0
	중도	557	2.6	97.4	0.0	100.0
종교별	보수적	235	1.9	98.1	0.0	100.0
	불교	214	1.9	98.1	0.0	100.0
	기독교	242	2.1	97.9	0.0	100.0
	천주교	56	2.5	97.5	0.0	100.0
	종교 없음	654	3.5	96.4	0.2	100.0
	무응답	34	3.6	96.4	0.0	100.0

표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6.7	35.1	91.8	6.2	2.0	8.2	100.0
성별	남자	607	54.8	37.2	92.0	5.8	2.2	8.0	100.0
	여자	593	58.6	32.9	91.6	6.7	1.8	8.4	100.0
연령별	19~29세	227	57.2	37.8	95.0	4.1	0.9	5.0	100.0
	30대	228	58.0	31.6	89.6	6.2	4.2	10.4	100.0
	40대	266	53.3	37.5	90.7	7.0	2.3	9.3	100.0
	50대	258	60.1	30.9	91.0	7.5	1.5	9.0	100.0
	60대 이상	222	55.0	37.8	92.8	6.0	1.2	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2.9	36.4	89.2	10.1	0.7	10.8	100.0
	고졸	534	55.9	35.5	91.3	7.0	1.7	8.7	100.0
	대재 이상	532	58.4	34.4	92.8	4.6	2.6	7.2	100.0
	무응답	4	66.6	33.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3.8	47.0	70.8	23.9	5.3	29.2	100.0
	자영업	270	62.2	30.2	92.4	5.5	2.1	7.6	100.0
	블루 칼라	348	58.4	33.4	91.8	5.7	2.6	8.2	100.0
	화이트 칼라	230	56.4	37.3	93.7	5.6	0.7	6.3	100.0
	전업 주부	216	52.6	38.5	91.1	6.9	2.0	8.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1.9	38.9	90.7	7.1	2.2	9.3	100.0
	무응답	2	49.2	50.8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1.9	36.5	88.4	9.4	2.3	11.6	100.0
	200~299만원	210	49.0	39.6	88.6	7.6	3.8	11.4	100.0
	300~399만원	337	55.7	35.3	91.0	5.7	3.3	9.0	100.0
	400만원 이상	522	61.5	32.9	94.4	5.2	0.4	5.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0.9	43.1	94.0	4.1	1.9	6.0	100.0
	충청권	124	65.5	26.3	91.8	7.5	0.7	8.2	100.0
	호남권	117	75.5	19.7	95.2	3.4	1.4	4.8	100.0
	영남권	307	57.0	31.1	88.1	9.7	2.1	11.9	100.0
	강원	35	47.5	23.9	71.4	19.4	9.2	28.6	100.0
	제주	14	84.8	12.3	97.1	0.0	2.9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5.2	40.1	95.3	4.4	0.3	4.7	100.0
	중·소도시	547	56.2	33.2	89.4	7.3	3.2	10.6	100.0
	읍 / 면	92	68.6	15.6	84.2	11.0	4.7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8.4	33.5	91.9	5.7	2.4	8.1	100.0
	중도	557	54.8	36.7	91.5	7.0	1.5	8.5	100.0
	보수적	235	58.3	34.0	92.3	5.2	2.6	7.7	100.0
종교별	불교	214	55.8	37.6	93.3	4.9	1.8	6.7	100.0
	기독교	242	56.7	36.0	92.7	6.5	0.9	7.3	100.0
	천주교	56	68.1	26.5	94.6	1.5	3.9	5.4	100.0
	종교 없음	654	55.9	34.4	90.3	7.3	2.4	9.7	100.0
	무응답	34	59.5	40.5	100.0	0.0	0.0	0.0	100.0

표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사회복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2.4	28.1	90.5	7.4	2.1	9.5	100.0
성별	남자	607	62.4	27.9	90.3	7.3	2.5	9.7	100.0
	여자	593	62.4	28.3	90.7	7.6	1.7	9.3	100.0
연령별	19~29세	227	62.1	29.9	92.0	7.7	0.3	8.0	100.0
	30대	228	61.7	29.2	90.9	4.4	4.7	9.1	100.0
	40대	266	61.3	28.6	89.9	7.8	2.4	10.1	100.0
	50대	258	63.7	25.1	88.8	9.3	1.9	11.2	100.0
	60대 이상	222	63.0	28.2	91.2	7.7	1.2	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7.8	33.0	90.8	8.5	0.7	9.2	100.0
	고졸	534	59.7	28.9	88.5	9.3	2.2	11.5	100.0
	대재 이상	532	66.2	26.1	92.3	5.3	2.4	7.7	100.0
	무응답	4	66.6	33.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1.7	18.0	69.6	30.4	0.0	30.4	100.0
	자영업	270	62.6	26.0	88.6	7.7	3.7	11.4	100.0
	블루 칼라	348	66.5	26.1	92.5	5.4	2.0	7.5	100.0
	화이트 칼라	230	62.4	30.0	92.4	6.9	0.7	7.6	100.0
	전업 주부	216	58.8	31.6	90.4	7.2	2.5	9.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8.0	30.0	88.0	11.0	1.1	12.0	100.0
	무응답	2	49.2	50.8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0.1	28.8	88.9	9.5	1.6	11.1	100.0
	200~299만원	210	54.2	30.2	84.4	11.4	4.2	15.6	100.0
	300~399만원	337	61.2	26.9	88.1	8.7	3.3	11.9	100.0
	400만원 이상	522	66.9	27.9	94.8	4.5	0.6	5.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6.1	34.5	90.6	7.3	2.1	9.4	100.0
	충청권	124	64.8	25.9	90.7	7.9	1.4	9.3	100.0
	호남권	117	72.2	20.9	93.1	5.5	1.4	6.9	100.0
	영남권	307	69.9	20.8	90.7	7.4	1.9	9.3	100.0
	강원	35	54.5	19.2	73.7	17.1	9.2	26.3	100.0
	제주	14	81.3	15.8	97.1	0.0	2.9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60.3	32.7	93.0	6.2	0.8	7.0	100.0
	중·소도시	547	65.5	23.6	89.1	7.7	3.2	10.9	100.0
	읍 / 면	92	56.2	26.7	82.9	13.4	3.7	17.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65.2	25.2	90.4	7.0	2.7	9.6	100.0
	중도	557	57.2	33.5	90.7	7.6	1.7	9.3	100.0
	보수적	235	69.7	20.4	90.1	7.7	2.2	9.9	100.0
종교별	불교	214	64.4	27.2	91.5	7.1	1.4	8.5	100.0
	기독교	242	66.0	26.5	92.5	5.8	1.7	7.5	100.0
	천주교	56	65.5	20.6	86.1	12.3	1.6	13.9	100.0
	종교 없음	654	59.9	29.4	89.3	8.1	2.7	10.7	100.0
	무응답	34	66.6	33.4	100.0	0.0	0.0	0.0	100.0

표20-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3.6	48.9	82.5	15.2	2.3	17.5	100.0
성별	남자	607	31.5	50.7	82.2	14.7	3.1	17.8	100.0
	여자	593	35.7	47.1	82.8	15.7	1.5	17.2	100.0
연령별	19~29세	227	39.6	46.7	86.3	12.5	1.1	13.7	100.0
	30대	228	31.8	48.3	80.1	15.6	4.3	19.9	100.0
	40대	266	33.0	49.7	82.7	15.6	1.7	17.3	100.0
	50대	258	29.2	54.5	83.7	15.1	1.2	16.3	100.0
	60대 이상	222	35.1	44.3	79.4	17.3	3.3	20.6	100.0
	중졸 이하	131	31.8	42.4	74.2	22.0	3.8	25.8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29.3	51.1	80.4	17.5	2.1	19.6	100.0
	대재 이상	532	38.6	48.2	86.7	11.1	2.2	13.3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7.7	67.7	32.3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42.2	39.8	82.0	7.4	10.6	18.0	100.0
	자영업	270	30.6	50.7	81.3	16.7	2.0	18.7	100.0
	블루 칼라	348	33.5	46.7	80.2	18.0	1.9	19.8	100.0
	화이트 칼라	230	36.9	51.2	88.0	10.9	1.1	12.0	100.0
	전업 주부	216	29.4	51.2	80.6	16.9	2.5	19.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1.5	44.0	85.5	9.4	5.1	14.5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42.9	32.6	75.5	18.9	5.6	24.5	100.0
	200~299만원	210	29.7	52.0	81.7	14.7	3.6	18.3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28.6	53.3	81.9	15.1	3.0	18.1	100.0
	400만원 이상	522	36.1	48.8	84.9	14.6	0.5	15.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32.4	49.7	82.0	16.5	1.4	18.0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38.0	50.9	88.9	9.1	2.0	11.1	100.0
	호남권	117	38.7	44.6	83.3	14.6	2.1	16.7	100.0
	영남권	307	31.2	49.9	81.1	15.4	3.4	18.9	100.0
	강원	35	30.9	41.0	71.9	19.6	8.6	28.1	100.0
	제주	14	62.1	31.8	93.9	3.2	2.9	6.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2.8	55.0	87.8	11.3	0.9	12.2	100.0
	중·소도시	547	33.7	44.0	77.8	19.1	3.1	22.2	100.0
	읍 / 면	92	37.6	40.6	78.3	15.8	5.9	21.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3.9	48.4	82.3	15.0	2.6	17.7	100.0
	중도	557	32.3	50.5	82.8	15.4	1.8	17.2	100.0
	보수적	235	36.1	46.0	82.1	15.0	2.9	17.9	100.0
종교별	불교	214	35.4	46.1	81.5	15.6	2.9	18.5	100.0
	기독교	242	34.7	48.9	83.6	15.3	1.2	16.4	100.0
	천주교	56	36.7	46.9	83.6	11.2	5.3	16.4	100.0
	종교 없음	654	33.0	48.9	81.9	15.7	2.4	18.1	100.0
	무응답	34	21.4	69.3	90.7	9.3	0.0	9.3	100.0

표2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0.1	47.0	77.1	20.2	2.7	22.9	100.0
성별	남자	607	28.2	49.7	77.9	19.1	3.0	22.1	100.0
	여자	593	32.0	44.2	76.3	21.2	2.5	23.7	100.0
연령별	19~29세	227	33.8	43.4	77.2	18.6	4.2	22.8	100.0
	30대	228	30.2	45.7	76.0	20.7	3.3	24.0	100.0
	40대	266	28.0	49.4	77.4	21.3	1.4	22.6	100.0
	50대	258	29.6	48.5	78.1	19.6	2.3	21.9	100.0
	60대 이상	222	29.2	47.5	76.7	20.4	2.9	23.3	100.0
	중졸 이하	131	30.2	40.1	70.3	25.4	4.3	29.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27.4	51.1	78.5	19.3	2.2	21.5	100.0
	대재 이상	532	33.0	44.5	77.4	19.6	2.9	22.6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7.7	67.7	32.3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24.6	40.9	65.5	29.2	5.3	34.5	100.0
	자영업	270	28.4	51.0	79.4	18.6	2.1	20.6	100.0
	블루 칼라	348	30.0	46.5	76.5	21.5	2.0	23.5	100.0
	화이트 칼라	230	32.8	45.5	78.3	18.8	2.9	21.7	100.0
	전업 주부	216	28.3	46.8	75.1	22.3	2.6	24.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7	43.6	77.3	16.7	6.0	22.7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32.6	36.4	69.0	25.1	5.9	31.0	100.0
	200~299만원	210	22.9	53.8	76.6	19.9	3.5	23.4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29.3	46.5	75.9	21.3	2.9	24.1	100.0
	400만원 이상	522	32.9	47.2	80.1	18.3	1.6	19.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26.7	50.7	77.3	19.2	3.5	22.7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34.3	43.0	77.3	22.0	0.7	22.7	100.0
	호남권	117	39.7	47.8	87.5	11.1	1.4	12.5	100.0
	영남권	307	30.7	42.0	72.7	25.4	1.9	27.3	100.0
	강원	35	28.7	38.9	67.6	21.8	10.5	32.4	100.0
	제주	14	48.4	48.7	97.1	2.9	0.0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2.3	50.4	82.6	15.7	1.6	17.4	100.0
	중·소도시	547	27.2	45.1	72.3	24.0	3.7	27.7	100.0
	읍 / 면	92	34.2	37.7	71.9	24.2	3.8	2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0.9	45.7	76.6	21.4	2.1	23.4	100.0
	중도	557	29.9	48.1	78.0	19.2	2.9	22.0	100.0
	보수적	235	29.2	46.8	76.0	20.4	3.6	24.0	100.0
종교별	불교	214	27.7	49.4	77.0	20.9	2.0	23.0	100.0
	기독교	242	29.0	46.1	75.0	22.1	2.9	25.0	100.0
	천주교	56	35.8	47.7	83.4	12.8	3.8	16.6	100.0
	종교 없음	654	31.3	46.4	77.7	19.3	3.0	22.3	100.0
	무응답	34	20.8	48.8	69.6	30.4	0.0	30.4	100.0

표2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가족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전 체		1200	18.4	38.9	57.3	35.7	7.0	42.7	100.0
성별	남자	607	17.7	36.3	53.9	38.3	7.7	46.1	100.0
	여자	593	19.2	41.5	60.7	33.1	6.2	39.3	100.0
연령별	19~29세	227	25.6	34.8	60.4	34.3	5.3	39.6	100.0
	30대	228	17.6	38.6	56.2	31.7	12.1	43.8	100.0
	40대	266	16.7	41.2	57.9	35.9	6.2	42.1	100.0
	50대	258	16.2	40.0	56.2	38.2	5.6	43.8	100.0
	60대 이상	222	16.6	39.2	55.8	38.2	5.9	44.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8	43.8	58.5	37.0	4.5	41.5	100.0
	고졸	534	17.3	38.8	56.1	35.2	8.7	43.9	100.0
	대재 이상	532	20.5	37.8	58.3	35.7	5.9	41.7	100.0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66.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9.3	55.4	64.7	20.6	14.7	35.3	100.0
	자영업	270	12.2	38.3	50.5	42.7	6.7	49.5	100.0
	블루 칼라	348	23.5	33.7	57.2	33.5	9.2	42.8	100.0
	화이트 칼라	230	20.1	39.5	59.6	36.6	3.8	40.4	100.0
	전업 주부	216	14.9	45.0	60.0	32.9	7.2	4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2.4	40.3	62.6	31.6	5.7	37.4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20.0	41.2	61.2	32.7	6.1	38.8	100.0
	200~299만원	210	13.7	38.8	52.6	37.7	9.7	47.4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7.6	38.4	56.0	36.5	7.5	44.0	100.0
	400만원 이상	522	20.4	38.7	59.1	35.1	5.8	40.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5.8	41.7	57.5	33.8	8.7	42.5	100.0
	충청권	124	20.1	31.4	51.5	40.4	8.1	48.5	100.0
	호남권	117	26.4	42.4	68.8	25.7	5.5	31.2	100.0
	영남권	307	20.1	35.2	55.3	41.2	3.5	44.7	100.0
	강원	35	15.1	36.9	52.0	39.7	8.4	48.0	100.0
	제주	14	18.8	37.5	56.3	33.2	10.5	4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6.8	41.7	58.5	37.2	4.3	41.5	100.0
	중·소도시	547	19.4	35.3	54.7	35.2	10.2	45.3	100.0
	읍 / 면	92	22.5	42.9	65.5	30.0	4.6	3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7.2	42.5	59.7	31.7	8.6	40.3	100.0
	중도	557	17.9	38.0	55.9	38.2	5.9	44.1	100.0
	보수적	235	21.6	34.8	56.4	36.8	6.8	43.6	100.0
종교별	불교	214	16.1	41.0	57.2	36.1	6.8	42.8	100.0
	기독교	242	16.1	41.4	57.6	37.3	5.1	42.4	100.0
	천주교	56	18.8	47.0	65.8	24.3	9.9	34.2	100.0
	종교 없음	654	20.6	37.5	58.1	34.7	7.2	41.9	100.0
	무응답	34	6.6	20.0	26.6	60.3	13.0	73.4	100.0

표2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돈에 대한 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1.5	40.7	62.2	30.6	7.2	37.8	100.0
성별	남자	607	19.5	40.9	60.4	31.3	8.3	39.6	100.0
	여자	593	23.5	40.5	64.0	29.9	6.1	36.0	100.0
	19~29세	227	23.7	41.6	65.3	29.3	5.4	34.7	100.0
연령별	30대	228	22.0	34.9	56.9	34.3	8.8	43.1	100.0
	40대	266	23.1	38.5	61.6	31.2	7.2	38.4	100.0
	50대	258	16.3	46.6	63.0	30.8	6.2	37.0	100.0
	60대 이상	222	22.8	41.4	64.2	27.2	8.6	35.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1.3	38.7	60.0	32.4	7.6	40.0	100.0
	고졸	534	21.0	39.9	60.9	31.2	8.0	39.1	100.0
	대재 이상	532	22.2	42.1	64.3	29.3	6.4	35.7	100.0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66.6	100.0
	농/수/축산업	17	26.4	48.9	75.3	17.5	7.3	24.7	100.0
직업별	자영업	270	17.9	40.8	58.7	31.9	9.4	41.3	100.0
	블루 칼라	348	27.4	36.1	63.5	28.4	8.1	36.5	100.0
	화이트 칼라	230	22.1	40.7	62.8	31.0	6.2	37.2	100.0
	전업 주부	216	15.4	45.5	60.9	33.7	5.5	39.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2.2	43.8	66.0	29.2	4.9	34.0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25.8	41.5	67.3	24.9	7.8	32.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8.5	37.0	55.6	36.5	8.0	44.4	100.0
	300~399만원	337	19.5	38.0	57.5	34.1	8.4	42.5	100.0
	400만원 이상	522	22.9	43.8	66.7	27.3	6.0	33.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3	17.0	40.6	57.6	33.6	8.9	42.4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21.1	42.5	63.6	29.0	7.5	36.4	100.0
	호남권	117	39.8	33.9	73.7	20.8	5.5	26.3	100.0
	영남권	307	23.3	43.0	66.2	29.1	4.7	33.8	100.0
	강원	35	19.0	37.3	56.3	39.2	4.5	43.7	100.0
	제주	14	36.6	42.9	79.4	10.1	10.5	20.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0.5	44.9	65.3	29.9	4.7	34.7	100.0
	중·소도시	547	21.2	36.5	57.7	32.2	10.2	42.3	100.0
	읍 / 면	92	29.9	40.1	69.9	25.1	4.9	30.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3	44.8	64.1	29.5	6.4	35.9	100.0
	중도	557	21.1	39.7	60.8	32.3	6.9	39.2	100.0
	보수적	235	26.3	35.9	62.2	28.6	9.3	37.8	100.0
	불교	214	19.4	45.2	64.6	31.2	4.2	35.4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20.6	46.7	67.2	26.6	6.1	32.8	100.0
	천주교	56	22.7	45.4	68.2	24.5	7.4	31.8	100.0
	종교 없음	654	23.0	37.4	60.4	31.2	8.4	39.6	100.0
	무응답	34	10.1	26.1	36.1	53.7	10.2	63.9	100.0

표2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전 체		1200	32.8	49.9	82.8	14.5	2.7	17.2	100.0
성별	남자	607	31.3	49.6	80.8	17.0	2.2	19.2	100.0
	여자	593	34.4	50.3	84.8	12.0	3.3	15.2	100.0
	19~29세	227	29.6	53.5	83.1	15.1	1.8	16.9	100.0
연령별	30대	228	29.7	54.1	83.8	13.7	2.4	16.2	100.0
	40대	266	31.5	48.5	80.1	17.3	2.6	19.9	100.0
	50대	258	38.4	44.7	83.1	13.1	3.8	16.9	100.0
	60대 이상	222	34.5	49.8	84.3	13.0	2.7	1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6.7	44.3	81.0	13.6	5.3	19.0	100.0
	고졸	534	33.5	50.9	84.4	13.2	2.5	15.6	100.0
	대재 이상	532	31.5	50.7	82.2	15.5	2.3	17.8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7.8	53.8	71.6	23.2	5.3	28.4	100.0
	자영업	270	35.8	45.3	81.1	16.7	2.2	18.9	100.0
	블루 칼라	348	31.5	52.7	84.1	13.3	2.6	15.9	100.0
	화이트 칼라	230	30.2	50.1	80.3	17.7	2.0	19.7	100.0
	전업 주부	216	34.7	50.2	84.9	10.4	4.7	15.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4.7	52.4	87.1	11.5	1.4	12.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39.0	42.5	81.5	16.3	2.2	18.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30.1	53.1	83.2	12.2	4.5	16.8	100.0
	300~399만원	337	30.2	50.8	80.9	14.9	4.2	19.1	100.0
	400만원 이상	522	34.0	50.1	84.1	14.8	1.1	15.9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9.8	52.1	81.9	17.1	1.0	18.1	100.0
	충청권	124	24.3	53.5	77.8	20.9	1.4	22.2	100.0
	호남권	117	46.5	42.1	88.6	10.7	0.6	11.4	100.0
	영남권	307	37.9	46.4	84.3	8.7	7.0	15.7	100.0
	강원	35	21.9	61.1	83.0	10.5	6.4	17.0	100.0
	제주	14	41.7	39.8	81.5	15.4	3.1	18.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3.6	51.1	84.7	13.8	1.5	15.3	100.0
	중·소도시	547	32.3	49.9	82.2	14.5	3.2	17.8	100.0
	읍 / 면	92	31.2	43.1	74.3	18.7	7.0	25.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1.6	49.7	81.3	15.8	2.9	18.7	100.0
	중도	557	31.6	51.5	83.1	14.7	2.1	16.9	100.0
	보수적	235	37.9	46.6	84.5	11.8	3.7	15.5	100.0
	불교	214	28.6	55.2	83.8	13.1	3.2	16.2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35.2	49.5	84.8	13.2	2.0	15.2	100.0
	천주교	56	41.3	48.9	90.2	6.5	3.3	9.8	100.0
	종교 없음	654	32.1	48.7	80.8	16.3	2.9	19.2	100.0
	무응답	34	42.0	45.5	87.5	12.5	0.0	12.5	100.0

표2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49.3	38.1	87.4	8.2	3.1	11.3	1.3	100.0
성별	남자	607	49.6	38.2	87.8	8.5	2.5	11.1	1.1	100.0
	여자	593	49.0	37.9	86.9	7.9	3.6	11.6	1.5	100.0
연령별	19~29세	227	46.8	37.6	84.3	9.9	3.2	13.1	2.6	100.0
	30대	228	49.3	38.4	87.7	7.4	4.5	11.9	0.4	100.0
	40대	266	51.8	39.1	90.9	7.0	0.7	7.7	1.4	100.0
	50대	258	46.4	39.2	85.6	9.5	4.1	13.5	0.8	100.0
	60대 이상	222	52.5	35.6	88.1	7.4	3.3	10.7	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0.6	33.0	83.6	11.7	4.1	15.9	0.6	100.0
	고졸	534	50.1	40.2	90.3	6.5	2.4	8.9	0.9	100.0
	대재 이상	532	48.6	36.7	85.3	9.2	3.6	12.8	1.9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5.9	53.7	89.6	10.4	0.0	10.4	0.0	100.0
	자영업	270	52.9	36.1	89.1	6.4	3.0	9.4	1.5	100.0
	블루 칼라	348	52.6	34.0	86.6	8.7	3.4	12.1	1.3	100.0
	화이트 칼라	230	44.8	39.4	84.2	10.6	4.3	14.9	0.9	100.0
	전업 주부	216	48.3	42.0	90.2	6.8	2.2	9.0	0.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5.2	41.1	86.2	8.7	2.1	10.8	2.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2.8	32.0	84.7	11.2	3.5	14.7	0.6	100.0
	200~299만원	210	44.7	37.7	82.5	10.3	4.5	14.8	2.7	100.0
	300~399만원	337	49.0	36.9	85.9	9.1	3.8	13.0	1.2	100.0
	400만원 이상	522	50.4	40.5	90.9	6.1	1.9	8.0	1.0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7.0	39.8	86.8	9.9	2.3	12.2	1.0	100.0
	충청권	124	37.7	43.6	81.3	11.7	4.7	16.3	2.3	100.0
	호남권	117	53.4	37.6	91.0	5.6	2.1	7.7	1.2	100.0
	영남권	307	58.0	31.7	89.7	5.1	4.4	9.4	0.9	100.0
	강원	35	35.6	51.9	87.5	4.1	1.9	6.0	6.4	100.0
	제주	14	63.5	23.0	86.5	6.3	7.2	13.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0.5	41.3	91.8	5.8	1.2	7.0	1.2	100.0
	중·소도시	547	47.9	35.3	83.2	10.2	4.9	15.1	1.6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51.0	34.4	85.3	10.9	3.8	14.7	0.0	100.0
	진보적	407	45.8	41.9	87.7	8.0	4.0	12.0	0.3	100.0
	중도	557	46.4	39.5	85.9	9.2	3.2	12.4	1.7	100.0
	보수적	235	62.3	27.9	90.2	6.3	1.4	7.7	2.1	100.0
종교별	불교	214	45.0	43.4	88.4	8.5	1.8	10.3	1.4	100.0
	기독교	242	52.7	35.9	88.6	8.3	2.6	10.9	0.5	100.0
	천주교	56	52.3	31.4	83.6	6.5	6.7	13.3	3.1	100.0
	종교 없음	654	49.5	37.4	87.0	8.5	3.4	11.9	1.1	100.0
	무응답	34	43.9	42.8	86.7	3.1	3.0	6.0	7.3	100.0

표23.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한다	다소 찬성 한다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	%	%	%	%	%	%	%
성별	전 체	1200	7.6	50.2	57.9	36.9	5.0	0.2	5.3	100.0
	남자	607	7.2	52.8	60.0	33.9	6.0	0.2	6.2	100.0
	여자	593	8.1	47.6	55.7	39.9	4.1	0.3	4.4	100.0
연령별	19~29세	227	8.0	50.2	58.1	37.8	3.7	0.3	4.0	100.0
	30대	228	4.9	52.6	57.5	35.7	6.7	0.0	6.7	100.0
	40대	266	10.6	52.6	63.2	30.7	6.1	0.0	6.1	100.0
	50대	258	8.0	44.8	52.9	42.1	5.0	0.0	5.0	100.0
	60대 이상	222	6.0	51.3	57.4	38.3	3.4	0.9	4.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9	41.2	49.1	46.7	4.2	0.0	4.2	100.0
	고졸	534	6.8	50.5	57.3	37.7	4.8	0.2	5.0	100.0
	대재 이상	532	8.4	52.1	60.5	33.7	5.5	0.3	5.8	100.0
	무응답	4	0.0	67.7	67.7	32.3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7.6	47.6	52.4	0.0	0.0	0.0	100.0
	자영업	270	7.0	51.3	58.3	35.2	6.2	0.4	6.5	100.0
	블루 칼라	348	8.5	49.5	58.1	37.3	4.1	0.5	4.6	100.0
	화이트 칼라	230	10.6	49.5	60.1	33.0	6.9	0.0	6.9	100.0
	전업 주부	216	3.8	48.5	52.4	43.5	4.1	0.0	4.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8.8	54.9	63.7	32.0	4.3	0.0	4.3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0	45.9	54.9	38.0	6.4	0.7	7.1	100.0
	200~299만원	210	2.6	51.9	54.5	38.3	6.7	0.5	7.2	100.0
	300~399만원	337	6.7	46.0	52.7	42.3	4.8	0.2	5.0	100.0
	400만원 이상	522	9.9	53.3	63.2	32.6	4.2	0.0	4.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7.2	55.9	63.1	35.3	1.6	0.0	1.6	100.0
	충청권	124	6.1	45.7	51.8	37.8	10.4	0.0	10.4	100.0
	호남권	117	21.3	51.8	73.1	21.3	5.6	0.0	5.6	100.0
	영남권	307	3.3	43.3	46.6	45.5	7.2	0.7	7.9	100.0
	강원	35	12.8	36.9	49.7	32.4	16.0	1.9	17.9	100.0
	제주	14	8.9	19.4	28.4	46.4	25.2	0.0	25.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8.3	51.0	59.3	37.3	3.0	0.4	3.3	100.0
	중·소도시	547	6.6	50.5	57.2	36.3	6.4	0.1	6.6	100.0
	읍 / 면	92	9.4	43.6	53.0	37.7	9.3	0.0	9.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0.4	53.0	63.4	31.5	5.2	0.0	5.2	100.0
	중도	557	5.5	50.9	56.4	38.8	4.8	0.0	4.8	100.0
	보수적	235	7.8	43.9	51.7	41.7	5.4	1.2	6.6	100.0
종교별	불교	214	4.7	49.2	53.9	39.7	6.0	0.5	6.5	100.0
	기독교	242	8.3	49.5	57.8	37.0	5.2	0.0	5.2	100.0
	천주교	56	15.3	38.0	53.3	39.9	6.8	0.0	6.8	100.0
	종교 없음	654	8.1	51.1	59.2	35.8	4.8	0.3	5.1	100.0
	무응답	34	0.0	65.9	65.9	34.1	0.0	0.0	0.0	100.0

표24-1. 대북정책 도움 정도 - ㉠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전 체		1200	5.1	39.0	44.1	44.1	11.8	55.9	100.0
성별	남자	607	5.4	40.3	45.7	42.9	11.4	54.3	100.0
	여자	593	4.7	37.7	42.4	45.3	12.3	57.6	100.0
	19~29세	227	3.5	37.9	41.5	49.2	9.4	58.5	100.0
연령별	30대	228	5.0	37.0	42.0	47.8	10.3	58.0	100.0
	40대	266	4.4	38.6	42.9	42.3	14.8	57.1	100.0
	50대	258	5.7	40.7	46.4	42.0	11.6	53.6	100.0
	60대 이상	222	6.8	40.9	47.7	39.5	12.8	52.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6	38.6	46.1	38.4	15.5	53.9	100.0
	고졸	534	5.4	36.1	41.5	45.4	13.1	58.5	100.0
	대재 이상	532	4.1	41.9	46.1	44.4	9.5	53.9	100.0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5.4	22.9	48.3	23.7	28.0	51.7	100.0
	자영업	270	5.9	39.1	45.0	40.3	14.7	55.0	100.0
	블루 칼라	348	5.3	34.4	39.7	49.0	11.3	60.3	100.0
	화이트 칼라	230	3.3	43.4	46.7	44.6	8.8	53.3	100.0
	전업 주부	216	3.8	41.5	45.3	42.6	12.1	54.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4	40.8	46.2	43.6	10.1	53.8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5.3	38.0	43.3	39.8	16.9	56.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8.2	41.2	49.4	39.6	11.0	50.6	100.0
	300~399만원	337	5.0	37.6	42.5	44.6	12.9	57.5	100.0
	400만원 이상	522	3.9	39.4	43.3	46.6	10.1	56.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4	36.9	41.3	48.9	9.8	58.7	100.0
	충청권	124	5.2	56.9	62.1	31.6	6.3	37.9	100.0
	호남권	117	12.8	54.5	67.2	27.1	5.7	32.8	100.0
	영남권	307	3.1	32.6	35.7	44.7	19.6	64.3	100.0
	강원	35	6.6	24.1	30.7	53.8	15.5	69.3	100.0
	제주	14	6.2	25.5	31.8	49.6	18.6	68.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1	42.6	47.7	41.8	10.4	52.3	100.0
	중·소도시	547	4.5	34.8	39.3	46.7	14.0	60.7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8.5	42.2	50.7	41.9	7.5	49.3	100.0
	진보적	407	8.7	40.8	49.4	42.9	7.7	50.6	100.0
	중도	557	2.7	42.0	44.7	43.2	12.0	55.3	100.0
	보수적	235	4.4	29.0	33.4	48.0	18.6	66.6	100.0
종교별	불교	214	1.9	46.9	48.8	41.9	9.4	51.2	100.0
	기독교	242	7.2	40.8	48.0	39.9	12.2	52.0	100.0
	천주교	56	3.5	44.8	48.3	39.4	12.3	51.7	100.0
	종교 없음	654	5.3	36.0	41.2	46.5	12.2	58.8	100.0
	무응답	34	8.9	26.8	35.7	47.4	16.9	64.3	100.0

표24-2.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남북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전 체		1200	8.4	44.8	53.2	38.9	7.9	46.8	100.0
성별	남자	607	8.8	45.4	54.2	38.1	7.7	45.8	100.0
	여자	593	8.1	44.2	52.3	39.8	8.0	47.7	100.0
연령별	19~29세	227	8.9	42.9	51.8	40.4	7.8	48.2	100.0
	30대	228	6.2	49.5	55.7	35.9	8.4	44.3	100.0
	40대	266	10.3	43.3	53.6	40.0	6.4	46.4	100.0
	50대	258	6.8	43.6	50.4	41.4	8.2	49.6	100.0
	60대 이상	222	9.9	45.2	55.1	36.2	8.7	4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8.4	42.7	51.0	35.7	13.3	49.0	100.0
	고졸	534	6.7	43.6	50.3	41.3	8.3	49.7	100.0
	대재 이상	532	10.2	46.4	56.6	37.3	6.1	43.4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5.7	19.8	45.5	43.5	11.0	54.5	100.0
	자영업	270	9.5	42.2	51.7	39.8	8.4	48.3	100.0
	블루 칼라	348	7.7	42.1	49.8	43.2	7.0	50.2	100.0
	화이트 칼라	230	8.1	51.5	59.7	33.8	6.5	40.3	100.0
	전업 주부	216	5.4	49.3	54.7	35.8	9.5	45.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9	39.6	51.4	40.2	8.4	48.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5	38.0	44.5	42.1	13.4	55.5	100.0
	200~299만원	210	8.7	39.6	48.3	42.8	8.8	51.7	100.0
	300~399만원	337	8.2	48.3	56.5	36.2	7.3	43.5	100.0
	400만원 이상	522	8.9	46.5	55.4	38.2	6.4	44.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6.8	43.2	50.0	42.4	7.6	50.0	100.0
	충청권	124	18.6	49.3	67.9	24.5	7.6	32.1	100.0
	호남권	117	15.3	62.6	77.9	21.3	0.7	22.1	100.0
	영남권	307	5.0	41.5	46.6	42.6	10.8	53.4	100.0
	강원	35	6.4	29.1	35.4	53.4	11.2	64.6	100.0
	제주	14	12.2	36.3	48.5	45.5	6.0	51.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9	48.3	56.2	35.9	7.9	43.8	100.0
	중·소도시	547	8.8	40.1	48.9	42.8	8.3	51.1	100.0
	읍 / 면	92	9.5	51.5	61.0	34.0	5.0	3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2.8	46.0	58.8	37.0	4.2	41.2	100.0
	중도	557	6.0	47.2	53.2	38.7	8.1	46.8	100.0
	보수적	235	6.5	37.2	43.6	42.7	13.7	56.4	100.0
종교별	불교	214	7.5	45.2	52.7	41.2	6.1	47.3	100.0
	기독교	242	8.6	48.1	56.8	36.3	7.0	43.2	100.0
	천주교	56	6.9	42.2	49.2	41.3	9.6	50.8	100.0
	종교 없음	654	8.9	43.6	52.6	39.0	8.5	47.4	100.0
	무응답	34	5.3	45.5	50.8	38.3	10.8	49.2	100.0

표24-3.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남북 경제협력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4	47.0	56.4	35.6	8.0	43.6	100.0
성별	남자	607	10.0	49.3	59.2	33.4	7.3	40.8	100.0
	여자	593	8.8	44.8	53.5	37.8	8.7	46.5	100.0
	19~29세	227	9.8	49.0	58.7	34.1	7.2	41.3	100.0
연령별	30대	228	7.5	48.8	56.3	36.9	6.8	43.7	100.0
	40대	266	9.4	47.6	57.0	34.8	8.2	43.0	100.0
	50대	258	6.5	47.2	53.7	37.7	8.6	46.3	100.0
	60대 이상	222	14.3	42.3	56.7	34.2	9.1	4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9	40.0	53.8	36.8	9.4	46.2	100.0
	고졸	534	7.3	43.9	51.2	39.5	9.3	48.8	100.0
	대재 이상	532	10.4	52.1	62.5	31.1	6.4	37.5	100.0
	무응답	4	0.0	32.3	32.3	67.7	0.0	67.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5.4	17.6	43.0	44.0	12.9	57.0	100.0
	자영업	270	9.0	42.8	51.8	38.6	9.6	48.2	100.0
	블루 칼라	348	10.6	47.3	57.9	34.3	7.9	42.1	100.0
	화이트 칼라	230	9.6	51.6	61.2	34.3	4.6	38.8	100.0
	전업 주부	216	5.6	47.0	52.6	38.6	8.7	47.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0	51.6	62.6	27.8	9.6	37.4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1	33.9	43.0	45.2	11.8	57.0	100.0
	200~299만원	210	12.1	44.3	56.4	34.8	8.7	43.6	100.0
	300~399만원	337	6.2	49.8	56.0	35.2	8.8	44.0	100.0
	400만원 이상	522	10.4	49.8	60.2	33.6	6.2	39.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8.2	47.2	55.4	37.4	7.2	44.6	100.0
	충청권	124	16.7	60.5	77.2	18.3	4.5	22.8	100.0
	호남권	117	18.6	57.4	76.0	23.2	0.7	24.0	100.0
	영남권	307	5.6	39.3	45.0	42.7	12.3	55.0	100.0
	강원	35	4.3	36.3	40.7	42.1	17.3	59.3	100.0
	제주	14	12.2	33.1	45.3	39.2	15.5	54.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9.0	49.1	58.0	34.1	7.9	42.0	100.0
	중·소도시	547	9.5	44.8	54.3	37.4	8.3	45.7	100.0
	읍 / 면	92	11.3	47.7	59.0	33.9	7.1	41.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1.4	52.5	63.9	32.1	4.0	36.1	100.0
	중도	557	7.7	47.6	55.3	36.3	8.4	44.7	100.0
	보수적	235	9.9	36.3	46.2	39.8	14.0	53.8	100.0
종교별	불교	214	10.0	42.2	52.2	41.0	6.8	47.8	100.0
	기독교	242	8.6	48.6	57.2	35.3	7.5	42.8	100.0
	천주교	56	3.6	55.0	58.6	33.2	8.2	41.4	100.0
	종교 없음	654	10.2	47.3	57.5	34.5	8.1	42.5	100.0
	무응답	34	5.3	48.5	53.8	28.2	18.0	46.2	100.0

표24-4.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대북제재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0	41.3	47.3	45.4	7.3	52.7	100.0
성별								
남자	607	6.1	43.3	49.5	43.9	6.7	50.5	100.0
여자	593	5.8	39.3	45.1	46.9	8.0	54.9	100.0
연령별								
19~29세	227	6.3	39.1	45.4	46.4	8.2	54.6	100.0
30대	228	5.5	48.0	53.5	39.6	6.9	46.5	100.0
40대	266	3.7	42.4	46.1	46.0	7.9	53.9	100.0
50대	258	6.2	36.2	42.4	51.2	6.4	57.6	100.0
60대 이상	222	8.7	41.4	50.1	42.8	7.1	4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8.9	40.5	49.5	38.4	12.2	50.5	100.0
고졸	534	6.1	39.1	45.1	47.8	7.1	54.9	100.0
대재 이상	532	5.2	44.1	49.3	44.3	6.4	50.7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5.4	16.1	41.5	41.0	17.5	58.5	100.0
자영업	270	7.1	40.5	47.6	44.4	8.0	52.4	100.0
블루 칼라	348	4.8	47.0	51.8	41.1	7.1	48.2	100.0
화이트 칼라	230	5.8	43.8	49.6	44.2	6.2	50.4	100.0
전업 주부	216	4.5	37.4	41.9	51.7	6.4	58.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7.1	33.3	40.4	50.4	9.2	59.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4	34.3	40.6	45.4	14.0	59.4	100.0
200~299만원	210	8.0	44.2	52.3	40.7	7.1	47.7	100.0
300~399만원	337	5.6	44.4	50.0	41.1	8.9	50.0	100.0
400만원 이상	522	5.3	40.0	45.3	50.0	4.7	54.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6	39.2	44.8	50.2	5.1	55.2	100.0
충청권	124	8.5	50.0	58.6	35.8	5.7	41.4	100.0
호남권	117	10.6	49.4	60.0	36.3	3.7	40.0	100.0
영남권	307	4.2	40.4	44.6	43.2	12.2	55.4	100.0
강원	35	4.1	34.6	38.7	46.5	14.7	61.3	100.0
제주	14	6.0	26.7	32.7	45.2	22.1	67.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6	41.0	46.6	47.6	5.8	53.4	100.0
중·소도시	547	5.1	42.9	47.9	43.8	8.3	52.1	100.0
읍 / 면	92	13.5	34.2	47.7	41.2	11.1	5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6	44.4	50.0	44.6	5.4	50.0	100.0
중도	557	4.9	41.7	46.6	46.1	7.3	53.4	100.0
보수적	235	9.1	35.1	44.2	45.2	10.6	55.8	100.0
종교별								
불교	214	7.3	38.1	45.5	49.1	5.4	54.5	100.0
기독교	242	4.7	40.8	45.5	45.3	9.3	54.5	100.0
천주교	56	2.2	53.8	56.1	30.1	13.8	43.9	100.0
종교 없음	654	6.7	41.7	48.4	44.8	6.9	51.6	100.0
무응답	34	0.0	36.4	36.4	60.0	3.6	63.6	100.0

표25.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2	56.1	59.4	35.1	5.6	40.6	100.0
성별								
남자	607	4.3	56.5	60.8	33.5	5.6	39.2	100.0
여자	593	2.1	55.7	57.8	36.6	5.5	42.2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	57.4	59.7	37.0	3.3	40.3	100.0
30대	228	3.8	59.6	63.4	33.3	3.3	36.6	100.0
40대	266	3.5	55.3	58.8	34.3	6.9	41.2	100.0
50대	258	3.2	52.6	55.8	38.8	5.4	44.2	100.0
60대 이상	222	3.3	56.3	59.6	31.4	9.0	4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5	55.0	60.5	30.2	9.2	39.5	100.0
고졸	534	2.0	54.4	56.4	37.8	5.8	43.6	100.0
대재 이상	532	4.0	57.8	61.7	33.7	4.5	38.3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9	44.5	49.5	37.4	13.1	50.5	100.0
자영업	270	3.7	56.4	60.1	32.3	7.6	39.9	100.0
블루 칼라	348	3.6	56.5	60.0	34.3	5.6	40.0	100.0
화이트 칼라	230	3.0	56.7	59.7	37.7	2.6	40.3	100.0
전업 주부	216	1.5	56.3	57.8	36.0	6.3	42.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6	53.9	58.4	37.0	4.6	41.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8	56.2	62.0	28.2	9.9	38.0	100.0
200~299만원	210	1.8	54.9	56.6	38.1	5.2	43.4	100.0
300~399만원	337	2.0	55.1	57.2	36.0	6.8	42.8	100.0
400만원 이상	522	4.0	57.4	61.3	34.8	3.9	38.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2	59.3	61.5	35.1	3.4	38.5	100.0
충청권	124	7.3	54.5	61.8	34.2	4.0	38.2	100.0
호남권	117	6.8	58.9	65.7	32.7	1.7	34.3	100.0
영남권	307	1.6	52.9	54.5	34.1	11.4	45.5	100.0
강원	35	6.5	30.4	37.0	53.9	9.1	63.0	100.0
제주	14	9.3	45.8	55.1	35.8	9.1	44.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5	61.0	63.5	30.5	6.0	36.5	100.0
중·소도시	547	3.1	51.5	54.6	40.1	5.3	45.4	100.0
읍 / 면	92	8.1	54.2	62.3	32.5	5.2	37.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2	61.8	67.1	28.8	4.1	32.9	100.0
중도	557	2.0	54.7	56.8	39.5	3.7	43.2	100.0
보수적	235	2.6	49.6	52.1	35.2	12.6	47.9	100.0
종교별								
불교	214	2.5	60.9	63.4	27.1	9.5	36.6	100.0
기독교	242	2.5	59.7	62.2	33.0	4.8	37.8	100.0
천주교	56	7.6	37.2	44.7	46.6	8.7	55.3	100.0
종교 없음	654	3.5	54.1	57.6	37.8	4.6	42.4	100.0
무응답	34	0.0	71.9	71.9	28.1	0.0	28.1	100.0

표26.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다소 동의 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8.5	50.2	58.7	31.0	3.5	34.5	6.8	100.0
성별	남자	607	9.8	50.0	59.8	30.6	3.2	33.8	6.4	100.0
	여자	593	7.2	50.3	57.6	31.3	3.9	35.2	7.2	100.0
연령별	19~29세	227	6.7	48.6	55.3	34.9	2.0	36.9	7.8	100.0
	30대	228	7.6	53.6	61.1	28.4	3.0	31.4	7.5	100.0
	40대	266	6.6	54.7	61.2	28.5	4.3	32.7	6.0	100.0
	50대	258	9.8	46.0	55.9	33.3	3.4	36.7	7.4	100.0
	60대 이상	222	12.1	47.7	59.9	29.9	4.9	34.8	5.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6	48.4	63.1	28.6	4.5	33.1	3.8	100.0
	고졸	534	7.1	49.4	56.5	32.5	3.4	35.9	7.6	100.0
	대재 이상	532	8.6	51.0	59.5	30.2	3.4	33.6	6.8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0.6	67.1	77.6	10.2	12.2	22.4	0.0	100.0
	자영업	270	13.4	42.7	56.2	33.8	3.2	37.0	6.8	100.0
	블루 칼라	348	7.0	52.7	59.6	30.7	3.0	33.7	6.7	100.0
	화이트 칼라	230	6.6	55.9	62.5	28.3	2.3	30.7	6.9	100.0
	전업 주부	216	6.5	50.3	56.8	31.6	4.3	35.9	7.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9.4	44.8	54.2	32.9	5.6	38.5	7.3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0	44.9	56.9	28.1	8.4	36.5	6.6	100.0
	200~299만원	210	10.6	48.3	58.9	32.7	2.7	35.3	5.8	100.0
	300~399만원	337	9.6	47.4	56.9	33.1	3.7	36.8	6.3	100.0
	400만원 이상	522	6.0	54.1	60.1	29.7	2.5	32.2	7.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8	52.0	55.8	32.8	3.5	36.3	8.0	100.0
	충청권	124	10.6	49.6	60.2	25.4	5.3	30.7	9.1	100.0
	호남권	117	14.2	50.6	64.8	24.1	3.5	27.6	7.6	100.0
	영남권	307	14.4	49.7	64.2	29.9	2.7	32.6	3.3	100.0
	강원	35	10.7	30.0	40.7	44.5	6.2	50.6	8.7	100.0
	제주	14	12.5	35.2	47.6	46.3	2.9	49.2	3.2	100.0
	무응답									
지역 크기	대도시	561	9.2	51.3	60.5	30.1	2.3	32.4	7.1	100.0
	중·소도시	547	7.2	50.3	57.5	31.7	4.8	36.6	6.0	100.0
	읍 / 면	92	12.5	42.5	55.0	31.4	3.6	35.0	1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5	56.6	66.1	24.7	1.8	26.5	7.3	100.0
	중도	557	7.2	47.5	54.6	35.2	3.6	38.9	6.5	100.0
	보수적	235	10.0	45.4	55.4	31.6	6.3	37.9	6.6	100.0
	무응답									
종교별	불교	214	7.6	50.7	58.3	31.7	3.9	35.6	6.1	100.0
	기독교	242	7.1	56.8	63.9	27.4	2.7	30.0	6.0	100.0
	천주교	56	11.9	45.7	57.5	30.6	3.0	33.6	8.9	100.0
	종교 없음	654	9.5	48.4	57.9	32.3	3.8	36.1	6.1	100.0
	무응답	34	0.0	41.6	41.6	27.2	3.6	30.8	27.6	100.0

표27-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1.3	29.6	40.9	28.9	22.7	7.5	30.2	100.0
	남자	607	11.6	32.4	44.0	27.5	20.7	7.7	28.4	100.0
	여자	593	11.0	26.8	37.7	30.3	24.8	7.2	32.0	100.0
연령별	19~29세	227	9.1	28.7	37.8	35.3	20.2	6.6	26.9	100.0
	30대	228	9.7	34.9	44.6	28.9	21.7	4.7	26.4	100.0
	40대	266	14.9	27.8	42.8	25.8	24.2	7.3	31.5	100.0
	50대	258	12.2	25.7	38.0	29.8	23.2	9.1	32.3	100.0
	60대 이상	222	9.7	31.8	41.5	25.0	24.1	9.4	33.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9	26.9	40.8	32.2	20.7	6.3	26.9	100.0
	고졸	534	11.0	27.1	38.1	28.9	25.0	8.0	33.0	100.0
	대재 이상	532	11.0	32.4	43.4	28.2	21.1	7.3	28.4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4.9	40.4	45.3	27.7	21.1	5.9	27.0	100.0
	자영업	270	14.0	29.2	43.2	20.4	25.3	11.1	36.4	100.0
	블루 칼라	348	10.3	27.6	38.0	34.6	18.5	8.9	27.4	100.0
	화이트 칼라	230	12.2	33.3	45.5	30.4	19.6	4.5	24.1	100.0
	전업 주부	216	10.1	27.5	37.6	28.2	29.2	5.1	34.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9.5	30.3	39.8	30.5	24.5	5.2	29.7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9	26.4	39.4	32.7	20.6	7.3	27.9
	200~299만원	210	14.2	29.6	43.8	28.3	20.5	7.4	27.8	100.0
	300~399만원	337	12.2	30.5	42.7	24.1	24.2	9.1	33.3	100.0
	400만원 이상	522	9.2	29.9	39.1	31.3	23.1	6.5	29.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1.4	28.7	40.1	26.6	28.7	4.6	33.3	100.0
	충청권	124	11.8	28.4	40.2	41.9	8.4	9.5	17.9	100.0
	호남권	117	17.5	39.5	57.0	31.1	10.3	1.6	11.9	100.0
	영남권	307	8.7	28.9	37.6	26.8	22.2	13.3	35.5	100.0
	강원	35	10.9	21.3	32.2	28.4	24.5	14.9	39.4	100.0
	제주	14	9.1	32.5	41.6	39.9	6.1	12.4	18.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4	31.8	43.2	23.4	24.0	9.4	33.4	100.0
	중·소도시	547	10.6	26.4	36.9	34.0	23.0	6.1	29.1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15.0	35.7	50.6	31.8	13.7	3.9	17.5	100.0
	진보적	407	16.9	34.2	51.1	25.3	18.4	5.2	23.6	100.0
	중도	557	8.3	27.6	35.9	33.1	24.5	6.6	31.0	100.0
	보수적	235	8.7	26.5	35.2	25.2	26.2	13.5	39.6	100.0
종교별	불교	214	9.4	36.0	45.4	25.2	20.8	8.5	29.3	100.0
	기독교	242	15.4	30.0	45.4	21.6	25.9	7.1	33.0	100.0
	천주교	56	13.4	26.8	40.2	17.6	38.4	3.8	42.2	100.0
	종교 없음	654	10.5	27.3	37.8	34.2	20.8	7.3	28.1	100.0
	무응답	34	5.8	36.9	42.8	20.8	23.9	12.6	36.5	100.0

표27-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④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3.7	30.9	44.6	26.3	22.5	6.7	29.2	100.0
	남자	607	15.4	31.0	46.4	25.5	21.1	7.0	28.1	100.0
	여자	593	12.0	30.8	42.8	27.0	23.9	6.3	3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2.9	31.3	44.2	30.1	20.4	5.3	25.7	100.0
	30대	228	14.6	27.8	42.4	29.9	20.2	7.4	27.7	100.0
	40대	266	14.7	31.1	45.8	25.7	21.5	7.0	28.5	100.0
	50대	258	14.6	30.0	44.6	24.3	24.3	6.8	31.1	100.0
	60대 이상	222	11.4	34.3	45.7	21.5	26.1	6.7	3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0	27.6	42.6	26.6	25.1	5.7	30.8	100.0
	고졸	534	12.4	31.4	43.8	25.9	24.4	6.0	30.3	100.0
	대재 이상	532	14.8	30.7	45.5	26.7	20.2	7.6	27.8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4.9	45.9	50.8	5.3	21.1	22.8	43.9	100.0
	자영업	270	17.0	27.2	44.2	23.8	24.2	7.8	32.0	100.0
	블루 칼라	348	15.6	32.4	48.0	29.0	15.8	7.2	23.0	100.0
	화이트 칼라	230	15.2	29.9	45.1	22.3	26.1	6.5	32.5	100.0
	전업 주부	216	6.0	32.5	38.5	32.3	23.3	5.9	29.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3.6	29.9	43.4	23.9	30.7	1.9	32.7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4.2	29.2	43.4	27.0	25.0	4.6	29.6	100.0
	200~299만원	210	19.3	30.4	49.7	20.9	20.8	8.6	29.4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5.0	26.8	41.9	26.9	22.6	8.6	31.2	100.0
	400만원 이상	522	10.5	33.9	44.5	27.8	22.5	5.2	27.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3.9	30.6	44.4	24.5	26.9	4.2	31.1	100.0
	충청권	124	14.4	37.1	51.6	24.9	16.5	7.0	23.5	100.0
	호남권	117	23.6	40.9	64.5	21.7	12.9	0.9	13.8	100.0
	영남권	307	10.2	26.1	36.3	30.2	21.0	12.6	33.5	100.0
	강원	35	9.0	23.9	32.9	34.5	19.4	13.1	32.5	100.0
	제주	14	9.1	26.3	35.4	46.1	6.1	12.4	18.5	100.0
	대도시	561	12.8	31.4	44.2	24.4	23.8	7.6	31.4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4.4	28.6	43.0	28.2	22.3	6.4	28.7	100.0
	읍 / 면	92	15.2	41.0	56.2	25.5	15.5	2.7	1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8	37.9	57.8	24.2	14.8	3.2	18.0	100.0
	중도	557	10.0	27.8	37.8	27.9	26.9	7.4	34.3	100.0
	보수적	235	11.9	25.9	37.8	26.0	25.3	10.9	36.2	100.0
종교별	불교	214	9.6	36.1	45.7	29.0	19.1	6.3	25.3	100.0
	기독교	242	13.4	37.9	51.3	22.8	21.4	4.5	25.9	100.0
	천주교	56	16.9	29.2	46.0	26.0	20.6	7.4	28.0	100.0
	종교 없음	654	14.9	26.6	41.6	26.8	24.4	7.3	31.7	100.0
	무응답	34	13.2	32.3	45.5	24.4	19.2	10.9	30.1	100.0

표27-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④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2	23.9	34.1	35.8	25.8	4.3	30.1	100.0
	남자	607	9.9	23.3	33.2	34.0	27.5	5.3	32.8	100.0
	여자	593	10.5	24.6	35.1	37.6	24.1	3.3	27.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3	25.2	35.5	39.5	21.3	3.7	25.0	100.0
	30대	228	12.3	24.2	36.5	36.3	25.4	1.8	27.1	100.0
	40대	266	8.3	25.1	33.4	34.3	26.8	5.5	32.3	100.0
	50대	258	9.0	22.2	31.2	36.2	27.7	4.9	32.6	100.0
	60대 이상	222	11.6	23.0	34.6	32.6	27.6	5.3	3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0.0	20.5	30.5	36.8	26.2	6.5	32.7	100.0
	고졸	534	9.6	24.4	34.0	35.6	25.9	4.5	30.4	100.0
	대재 이상	532	10.9	24.4	35.4	35.7	25.4	3.5	28.9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34.3	65.7	0.0	65.7	100.0
	농/수/축산업	17	21.1	9.3	30.4	24.7	44.9	0.0	44.9	100.0
	자영업	270	8.1	22.3	30.4	35.8	27.1	6.7	33.8	100.0
	블루 칼라	348	12.7	25.1	37.8	35.3	23.8	3.1	26.9	100.0
	화이트 칼라	230	10.6	24.9	35.5	30.8	29.3	4.4	33.7	100.0
	전업 주부	216	9.8	25.1	34.9	39.6	23.4	2.1	25.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1	22.8	28.9	42.1	22.4	6.6	29.0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7.7	20.8	28.5	40.9	26.4	4.3	30.7	100.0
	200~299만원	210	9.9	20.8	30.8	37.0	25.9	6.3	32.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1.3	25.6	37.0	34.6	25.6	2.9	28.4	100.0
	400만원 이상	522	10.3	24.7	34.9	34.8	25.9	4.4	30.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3	22.5	32.9	36.1	28.1	2.9	31.0	100.0
	충청권	124	11.8	24.5	36.3	39.8	17.4	6.5	23.9	100.0
	호남권	117	12.0	29.9	41.9	28.7	24.1	5.3	29.4	100.0
	영남권	307	8.3	25.6	34.0	35.1	25.7	5.2	30.9	100.0
	강원	35	8.7	12.8	21.5	44.5	27.9	6.1	34.0	100.0
	제주	14	20.6	18.8	39.4	36.7	14.3	9.7	24.0	100.0
	대도시	561	11.2	22.1	33.3	33.1	28.6	5.0	33.6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9.1	26.6	35.7	37.9	23.8	2.6	26.4	100.0
	읍 / 면	92	10.8	19.1	30.0	39.2	21.4	9.5	30.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0.9	22.9	33.8	33.8	26.9	5.5	32.4	100.0
	중도	557	8.3	22.9	31.2	39.8	25.9	3.0	28.9	100.0
	보수적	235	13.6	28.0	41.6	29.5	23.7	5.2	28.9	100.0
종교별	불교	214	7.8	21.6	29.5	40.6	25.2	4.7	29.9	100.0
	기독교	242	10.4	26.9	37.3	31.3	27.3	4.1	31.4	100.0
	천주교	56	14.6	24.8	39.4	26.8	26.5	7.3	33.8	100.0
	종교 없음	654	10.9	24.0	34.9	36.4	24.7	4.0	28.7	100.0
	무응답	34	3.6	13.9	17.5	39.4	39.5	3.6	43.1	100.0

표27-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8.6	31.4	40.0	31.9	22.6	5.5	28.1	100.0
	남자	607	9.3	30.2	39.4	31.8	23.0	5.8	28.8	100.0
	여자	593	8.0	32.7	40.6	32.0	22.2	5.2	27.3	100.0
연령별	19~29세	227	9.8	29.6	39.4	36.6	19.0	5.1	24.1	100.0
	30대	228	8.4	30.4	38.8	29.7	27.2	4.4	31.6	100.0
	40대	266	7.6	32.0	39.6	33.5	22.2	4.6	26.8	100.0
	50대	258	9.1	31.6	40.8	31.0	22.4	5.9	28.2	100.0
	60대 이상	222	8.4	33.2	41.6	28.4	22.4	7.6	3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8.3	25.2	33.5	28.2	27.0	11.3	38.3	100.0
	고졸	534	7.4	33.5	40.9	31.1	22.6	5.4	28.0	100.0
	대재 이상	532	10.0	30.8	40.8	33.3	21.7	4.2	25.9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9.8	41.9	51.7	25.4	12.3	10.6	22.9	100.0
	자영업	270	12.2	25.0	37.2	32.2	22.7	8.0	30.6	100.0
	블루 칼라	348	9.6	30.3	39.9	32.2	22.5	5.4	27.9	100.0
	화이트 칼라	230	6.8	34.4	41.2	30.2	23.8	4.8	28.6	100.0
	전업 주부	216	3.1	37.5	40.6	31.8	24.2	3.4	27.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4	30.2	41.6	34.5	19.2	4.7	23.9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8.8	27.0	35.8	33.2	22.9	8.1	31.0	100.0
	200~299만원	210	7.5	27.9	35.4	32.8	24.6	7.2	31.8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9.1	33.5	42.5	30.1	22.6	4.8	27.4	100.0
	400만원 이상	522	8.8	32.6	41.4	32.2	21.8	4.6	26.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6	35.0	40.5	30.0	24.7	4.8	29.5	100.0
	충청권	124	10.6	31.6	42.2	39.1	13.0	5.7	18.7	100.0
	호남권	117	25.1	27.3	52.4	30.2	14.1	3.3	17.4	100.0
	영남권	307	6.2	26.2	32.4	34.0	26.4	7.2	33.6	100.0
	강원	35	12.9	31.0	43.8	28.5	19.1	8.6	27.7	100.0
	제주	14	28.6	23.8	52.4	28.8	12.8	6.0	18.8	100.0
	대도시	561	8.7	28.4	37.1	32.9	23.9	6.2	30.1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7.4	33.9	41.3	31.9	22.9	4.0	26.9	100.0
	읍 / 면	92	15.7	34.7	50.4	26.0	13.0	10.6	23.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8.8	33.2	42.0	34.8	19.8	3.4	23.2	100.0
	중도	557	7.6	32.0	39.6	30.5	23.0	6.9	29.9	100.0
	보수적	235	10.8	26.8	37.6	30.1	26.5	5.8	32.3	100.0
종교별	불교	214	9.0	34.5	43.5	32.5	18.8	5.2	24.0	100.0
	기독교	242	6.3	36.7	43.0	27.7	22.9	6.3	29.3	100.0
	천주교	56	12.3	34.7	47.0	27.6	20.6	4.8	25.4	100.0
	종교 없음	654	9.5	28.4	37.9	33.6	23.4	5.1	28.5	100.0
	무응답	34	0.0	26.6	26.6	31.4	31.1	10.9	42.0	100.0

표27-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3.8	43.2	57.0	30.8	11.0	1.2	12.3	100.0
	남자	607	14.7	44.3	59.0	29.9	9.4	1.7	11.1	100.0
	여자	593	12.8	42.1	54.9	31.6	12.7	0.8	13.5	100.0
연령별	19~29세	227	12.2	45.9	58.1	31.9	8.9	1.1	10.0	100.0
	30대	228	11.3	41.8	53.1	35.2	10.2	1.5	11.7	100.0
	40대	266	13.7	43.3	57.0	30.1	12.2	0.7	12.9	100.0
	50대	258	16.3	41.9	58.2	30.5	10.4	0.9	11.3	100.0
	60대 이상	222	14.9	43.5	58.4	26.0	13.5	2.1	1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4	39.0	50.4	29.5	17.2	2.9	20.1	100.0
	고졸	534	13.7	42.0	55.7	32.3	11.2	0.9	12.0	100.0
	대재 이상	532	14.5	45.4	59.8	29.5	9.5	1.2	10.6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0.0	29.8	29.8	40.3	24.6	5.3	29.9	100.0
	자영업	270	16.3	41.9	58.2	28.2	12.6	1.0	13.6	100.0
	블루 칼라	348	16.9	44.6	61.5	28.0	8.2	2.4	10.6	100.0
	화이트 칼라	230	13.9	38.2	52.1	37.7	9.9	0.4	10.3	100.0
	전업 주부	216	7.8	43.5	51.3	35.8	12.4	0.4	12.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6	52.5	64.1	21.2	13.9	0.7	14.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6.3	34.0	50.3	32.2	16.0	1.4	17.4	100.0
	200~299만원	210	14.1	37.3	51.4	32.6	14.5	1.5	16.0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2.5	42.7	55.2	32.3	10.5	2.1	12.5	100.0
	400만원 이상	522	13.8	48.3	62.1	28.6	8.8	0.5	9.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1	44.2	54.2	33.4	11.7	0.6	12.3	100.0
	충청권	124	25.5	43.7	69.2	23.9	5.5	1.4	6.9	100.0
	호남권	117	31.6	51.7	83.3	12.5	4.2	0.0	4.2	100.0
	영남권	307	7.2	41.0	48.2	35.0	14.3	2.5	16.8	100.0
	강원	35	19.7	25.3	45.0	33.4	17.2	4.5	21.6	100.0
	제주	14	48.3	22.7	71.1	28.9	0.0	0.0	0.0	100.0
	대도시	561	14.5	44.0	58.5	32.6	8.1	0.8	8.9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3.2	42.0	55.2	29.8	13.7	1.4	15.1	100.0
	읍 / 면	92	12.3	45.9	58.2	25.7	13.1	3.0	1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6.7	49.3	66.0	26.0	6.3	1.7	8.0	100.0
	중도	557	11.8	38.4	50.3	34.3	14.6	0.9	15.5	100.0
	보수적	235	13.2	44.1	57.3	30.8	10.9	1.1	12.0	100.0
종교별	불교	214	12.7	44.1	56.8	30.7	10.3	2.1	12.5	100.0
	기독교	242	11.2	49.3	60.6	29.3	9.2	0.9	10.1	100.0
	천주교	56	25.9	38.5	64.4	26.5	7.5	1.6	9.1	100.0
	종교 없음	654	14.3	40.3	54.6	31.7	12.7	1.1	13.7	100.0
	무응답	34	7.2	58.8	66.0	31.1	2.9	0.0	2.9	100.0

표27-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6.3	33.3	49.6	30.9	14.8	4.7	19.5	100.0
	남자	607	18.1	33.5	51.6	28.6	15.1	4.6	19.7	100.0
	여자	593	14.4	33.1	47.6	33.2	14.4	4.8	19.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6	32.2	45.8	31.0	18.5	4.7	23.2	100.0
	30대	228	15.2	35.0	50.2	28.3	15.4	6.1	21.5	100.0
	40대	266	17.1	31.2	48.3	34.0	13.0	4.7	17.7	100.0
	50대	258	16.9	34.5	51.3	29.3	15.4	3.9	19.3	100.0
	60대 이상	222	18.4	34.1	52.5	31.6	11.7	4.3	1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8.0	33.9	51.8	29.8	14.0	4.3	18.3	100.0
	고졸	534	14.4	36.2	50.6	30.7	13.5	5.2	18.8	100.0
	대재 이상	532	17.8	29.9	47.7	31.6	16.3	4.3	20.6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1.2	21.0	52.2	30.1	12.3	5.3	17.6	100.0
	자영업	270	18.6	29.6	48.3	32.4	13.8	5.6	19.3	100.0
	블루 칼라	348	17.4	33.4	50.7	31.0	12.6	5.7	18.3	100.0
	화이트 칼라	230	14.0	37.7	51.7	29.7	16.4	2.3	18.7	100.0
	전업 주부	216	13.4	35.0	48.5	33.9	13.9	3.8	17.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4	30.5	45.9	25.0	23.0	6.1	29.1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9.8	34.0	53.8	29.1	12.6	4.5	17.1	100.0
	200~299만원	210	16.7	26.5	43.2	30.6	20.8	5.4	26.2	100.0
	300~399만원	337	13.0	38.0	51.0	30.1	13.3	5.6	18.9	100.0
	400만원 이상	522	17.4	33.0	50.4	31.9	13.9	3.9	17.8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5.2	34.3	49.5	30.6	17.9	2.0	19.9	100.0
	충청권	124	9.3	37.6	46.9	37.3	10.2	5.6	15.8	100.0
	호남권	117	23.6	32.3	55.9	27.3	10.0	6.7	16.7	100.0
	영남권	307	18.3	31.9	50.2	29.6	12.1	8.0	20.1	100.0
	강원	35	15.6	23.9	39.4	29.8	19.4	11.4	30.8	100.0
	제주	14	18.2	19.3	37.5	47.4	6.0	9.2	15.1	100.0
	대도시	561	16.7	36.6	53.4	28.7	13.8	4.2	17.9	100.0
	중·소도시	547	14.5	30.4	44.9	32.3	17.5	5.3	22.8	100.0
정치적 성향	읍 / 면	92	24.1	30.5	54.5	36.2	4.6	4.7	9.3	100.0
	진보적	407	13.9	38.7	52.6	28.3	12.7	6.5	19.1	100.0
	중도	557	15.0	29.8	44.7	34.9	18.0	2.3	20.4	100.0
	보수적	235	23.5	32.6	56.1	25.9	10.7	7.3	18.0	100.0
종교별	불교	214	16.2	41.3	57.5	29.5	8.2	4.8	13.0	100.0
	기독교	242	11.8	39.8	51.6	29.6	15.1	3.6	18.8	100.0
	천주교	56	18.8	27.5	46.3	25.6	18.2	10.0	28.2	100.0
	종교 없음	654	18.2	29.0	47.2	31.8	16.3	4.7	21.0	100.0
	무응답	34	7.3	30.2	37.5	40.5	19.1	2.9	22.0	100.0

표28-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58.5	30.8	89.2	8.8	1.6	0.4	2.0	100.0
	남자	607	57.5	31.7	89.2	8.5	2.0	0.3	2.3	100.0
	여자	593	59.5	29.7	89.2	9.1	1.1	0.6	1.7	100.0
연령별	19~29세	227	56.0	32.7	88.7	8.9	1.4	1.0	2.4	100.0
	30대	228	60.8	33.3	94.1	4.0	1.2	0.8	2.0	100.0
	40대	266	63.2	25.7	88.9	9.8	1.3	0.0	1.3	100.0
	50대	258	54.9	33.5	88.4	10.8	0.8	0.0	0.8	100.0
	60대 이상	222	57.1	29.0	86.1	10.0	3.4	0.4	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3.0	32.0	85.0	10.9	3.4	0.7	4.1	100.0
	고졸	534	59.1	28.9	87.9	10.2	1.8	0.0	1.8	100.0
	대재 이상	532	59.4	32.3	91.7	6.6	0.9	0.8	1.6	100.0
	무응답	4	34.3	32.3	66.6	33.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2.5	32.2	74.7	12.8	7.2	5.3	12.5	100.0
	자영업	270	67.3	26.4	93.7	5.7	0.6	0.0	0.6	100.0
	블루 칼라	348	57.5	28.8	86.3	10.7	2.6	0.5	3.0	100.0
	화이트칼라	230	61.4	28.5	89.8	8.7	1.4	0.0	1.4	100.0
	전업 주부	216	50.7	38.3	89.0	9.4	0.8	0.8	1.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3.2	36.5	89.7	7.8	1.9	0.6	2.5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7.4	31.5	88.9	6.4	3.9	0.7	4.6	100.0
	200~299만원	210	54.4	34.8	89.2	8.1	2.3	0.4	2.7	100.0
	300~399만원	337	56.1	30.7	86.9	10.6	1.6	0.9	2.5	100.0
	400만원 이상	522	61.8	29.0	90.8	8.5	0.7	0.0	0.7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61.8	30.8	92.6	6.9	0.6	0.0	0.6	100.0
	충청권	124	48.5	37.4	85.9	9.6	4.5	0.0	4.5	100.0
	호남권	117	58.4	23.9	82.4	15.7	1.9	0.0	1.9	100.0
	영남권	307	57.5	32.0	89.5	8.1	1.5	0.9	2.4	100.0
	강원	35	41.6	20.8	62.4	22.6	8.6	6.4	15.0	100.0
	제주	14	66.9	27.0	93.9	6.1	0.0	0.0	0.0	100.0
	대도시	561	58.5	34.1	92.6	7.2	0.2	0.0	0.2	100.0
	중·소도시	547	59.7	27.4	87.0	9.4	3.1	0.4	3.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51.4	30.3	81.6	14.4	1.0	2.9	4.0	100.0
	진보적	407	58.1	31.1	89.2	9.5	0.6	0.7	1.3	100.0
	중도	557	54.2	32.5	86.7	11.1	1.8	0.3	2.1	100.0
	보수적	235	69.2	26.0	95.2	2.0	2.6	0.3	2.9	100.0
종교별	불교	214	48.0	37.5	85.5	13.0	1.1	0.4	1.5	100.0
	기독교	242	61.5	30.6	92.1	6.3	1.6	0.0	1.6	100.0
	천주교	56	57.8	30.1	87.9	10.5	0.0	1.6	1.6	100.0
	종교없음	654	60.3	28.9	89.2	8.3	1.9	0.5	2.4	100.0
	무응답	34	68.4	25.7	94.1	5.9	0.0	0.0	0.0	100.0

표28-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1.4	38.4	49.8	31.9	15.8	2.5	18.3	100.0
성별	남자	607	11.5	39.2	50.7	31.7	15.2	2.5	17.7	100.0
	여자	593	11.3	37.5	48.9	32.2	16.3	2.6	19.0	100.0
연령별	19~29세	227	9.9	40.4	50.3	33.5	13.3	2.9	16.2	100.0
	30대	228	13.3	37.6	50.9	33.7	12.9	2.5	15.4	100.0
	40대	266	12.2	38.5	50.7	31.0	16.2	2.1	18.3	100.0
	50대	258	13.2	34.2	47.4	34.9	15.3	2.5	17.8	100.0
	60대 이상	222	8.0	41.7	49.7	26.2	21.3	2.7	2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1	37.9	49.0	25.7	21.6	3.8	25.3	100.0
	고졸	534	10.5	34.9	45.4	35.9	16.7	2.0	18.7	100.0
	대재 이상	532	12.5	42.0	54.5	29.4	13.5	2.6	16.1	100.0
무응답		4	0.0	32.3	32.3	33.4	0.0	34.3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43.6	48.9	29.1	22.0	0.0	22.0	100.0
	자영업	270	9.5	40.7	50.3	29.7	17.1	2.9	20.0	100.0
	블루 칼라	348	11.7	34.2	45.9	34.9	16.5	2.7	19.2	100.0
	화이트칼라	230	15.6	39.4	55.0	29.3	14.4	1.4	15.8	100.0
	전업 주부	216	11.0	35.8	46.8	32.7	17.2	3.3	20.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8.6	47.0	55.7	31.9	10.1	2.3	12.4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7.9	44.1	52.0	26.7	16.7	4.6	21.3	100.0
	200~299만원	210	11.4	42.7	54.1	29.0	16.0	0.9	16.9	100.0
	300~399만원	337	11.1	30.7	41.9	38.1	17.2	2.9	20.1	100.0
	400만원 이상	522	12.5	40.0	52.5	30.5	14.5	2.5	17.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9.9	37.0	46.9	35.3	15.2	2.6	17.8	100.0
	충청권	124	18.5	50.7	69.1	20.0	10.2	0.7	10.9	100.0
	호남권	117	17.5	43.1	60.6	21.6	15.5	2.2	17.7	100.0
	영남권	307	9.2	35.0	44.2	32.8	20.1	3.0	23.0	100.0
	강원	35	9.0	31.6	40.6	42.1	10.9	6.4	17.3	100.0
	제주	14	18.6	39.4	57.9	32.9	9.1	0.0	9.1	100.0
	대도시	561	9.8	40.6	50.5	30.3	16.9	2.3	19.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1.4	37.5	48.9	33.3	14.9	2.8	17.8	100.0
	읍/면	92	21.1	29.6	50.7	33.5	13.8	2.0	15.8	100.0
	진보적	407	13.8	38.6	52.5	31.3	13.8	2.4	16.2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10.1	37.6	47.7	33.8	15.7	2.8	18.5	100.0
	보수적	235	10.2	39.7	50.0	28.5	19.4	2.2	21.5	100.0
	불교	214	10.6	37.3	47.9	33.0	17.5	1.6	19.1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9.2	44.3	53.6	29.5	14.2	2.7	16.9	100.0
	천주교	56	14.2	33.7	47.9	31.5	19.0	1.6	20.6	100.0
	종교없음	654	12.1	37.4	49.5	32.9	14.6	3.0	17.6	100.0
	무응답	34	14.2	28.7	42.9	23.8	33.3	0.0	33.3	100.0

표28-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3.9	39.6	53.5	33.1	11.8	1.6	13.4	100.0
성별	남자	607	15.3	39.1	54.4	32.1	12.1	1.4	13.5	100.0
	여자	593	12.5	40.0	52.6	34.1	11.4	1.9	13.3	100.0
연령별	19~29세	227	14.2	35.5	49.7	34.2	14.1	2.0	16.1	100.0
	30대	228	13.5	38.7	52.2	35.7	11.2	0.9	12.0	100.0
	40대	266	14.1	42.4	56.6	30.4	11.6	1.4	13.1	100.0
	50대	258	13.7	41.1	54.8	33.8	9.7	1.7	11.4	100.0
	60대 이상	222	13.9	39.5	53.4	31.7	12.7	2.2	1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7	40.9	52.6	32.9	12.8	1.6	14.5	100.0
	고졸	534	14.3	40.3	54.7	31.5	12.0	1.8	13.8	100.0
	대재 이상	532	14.1	38.5	52.7	34.7	11.1	1.5	12.6	100.0
무응답		4	0.0	32.3	32.3	33.4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9	40.4	45.3	42.3	12.4	0.0	12.4	100.0
	자영업	270	15.8	39.4	55.3	30.2	12.4	2.2	14.5	100.0
	블루 칼라	348	15.1	42.1	57.2	31.5	10.0	1.3	11.4	100.0
	화이트칼라	230	14.4	38.3	52.7	34.7	11.2	1.3	12.5	100.0
	전업 주부	216	9.1	41.4	50.6	33.7	14.2	1.6	15.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5	31.0	46.5	38.7	12.3	2.5	14.8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1.4	37.3	48.7	38.1	11.6	1.6	13.2	100.0
	200~299만원	210	11.0	39.0	50.0	39.3	10.2	0.4	10.6	100.0
	300~399만원	337	14.1	37.5	51.6	32.4	13.9	2.1	16.0	100.0
	400만원 이상	522	15.6	41.6	57.2	29.9	11.1	1.9	12.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2.6	40.3	52.9	32.5	12.6	2.1	14.6	100.0
	충청권	124	18.6	40.3	58.9	31.3	8.4	1.4	9.7	100.0
	호남권	117	27.2	33.4	60.6	32.2	6.6	0.6	7.2	100.0
	영남권	307	8.5	42.0	50.4	34.6	13.9	1.1	15.0	100.0
	강원	35	13.6	23.5	37.1	48.0	12.8	2.1	14.9	100.0
	제주	14	37.3	43.0	80.3	12.3	3.1	4.3	7.4	100.0
	대도시	561	15.0	38.6	53.6	31.2	13.4	1.8	15.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13.1	42.3	55.4	33.8	9.4	1.4	10.8	100.0
	읍/면	92	12.1	29.5	41.6	40.8	15.8	1.7	17.6	100.0
	진보적	407	16.1	39.7	55.8	32.0	10.5	1.7	12.2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12.0	38.2	50.2	35.8	12.4	1.6	14.0	100.0
	보수적	235	14.5	42.8	57.3	28.7	12.5	1.5	14.0	100.0
	불교	214	12.6	39.4	52.0	36.3	11.3	0.4	11.7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0.6	46.1	56.7	29.4	10.5	3.3	13.9	100.0
	천주교	56	21.3	37.5	58.8	27.6	13.6	0.0	13.6	100.0
	종교없음	654	15.3	37.0	52.3	33.9	12.2	1.6	13.8	100.0
	무응답	34	7.1	47.1	54.2	32.5	13.3	0.0	13.3	100.0

표28-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4.8	42.0	66.9	23.7	8.0	1.4	9.4	100.0
성별	남자	607	25.5	40.7	66.3	24.1	8.5	1.2	9.7	100.0
	여자	593	24.1	43.4	67.5	23.4	7.6	1.5	9.1	100.0
연령별	19~29세	227	18.2	45.1	63.3	25.5	9.5	1.6	11.1	100.0
	30대	228	26.9	40.3	67.3	24.9	6.9	1.0	7.9	100.0
	40대	266	25.2	46.3	71.6	18.7	8.6	1.2	9.8	100.0
	50대	258	27.7	41.0	68.7	23.0	6.6	1.7	8.2	100.0
	60대 이상	222	25.6	36.7	62.3	27.7	8.6	1.3	10.0	100.0
	중졸 이하	131	19.6	38.5	58.1	31.7	8.9	1.3	10.2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26.1	41.0	67.2	23.1	8.2	1.6	9.8	100.0
	대재 이상	532	25.0	44.2	69.2	22.2	7.7	0.9	8.6	100.0
	무응답	4	0.0	0.0	0.0	67.7	0.0	32.3	32.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9	35.6	40.5	39.8	19.7	0.0	19.7	100.0
	자영업	270	30.2	39.5	69.7	21.8	7.7	0.8	8.4	100.0
	블루 칼라	348	25.7	41.7	67.4	25.4	5.8	1.4	7.2	100.0
	화이트칼라	230	26.0	41.5	67.5	22.9	8.6	1.1	9.7	100.0
	전업 주부	216	21.3	46.2	67.5	22.0	8.9	1.6	10.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7.5	44.1	61.7	25.2	11.3	1.8	13.1	100.0
	무응답	2	0.0	0.0	0.0	50.8	0.0	49.2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18.7	36.8	55.5	31.5	11.6	1.4	1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9.5	40.5	59.9	30.9	8.3	0.9	9.2	100.0
	300~399만원	337	26.8	44.1	71.0	19.4	8.5	1.1	9.6	100.0
	400만원 이상	522	27.3	42.5	69.8	21.8	6.7	1.7	8.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3.2	42.6	65.8	23.4	9.5	1.2	10.7	100.0
	충청권	124	28.2	40.9	69.1	26.2	4.0	0.7	4.7	100.0
	호남권	117	29.6	41.0	70.6	24.7	4.0	0.7	4.7	100.0
	영남권	307	24.2	43.1	67.3	22.2	8.4	2.1	10.5	100.0
	강원	35	17.4	34.1	51.4	38.0	10.6	0.0	10.6	100.0
	제주	14	56.1	33.5	89.6	6.1	0.0	4.3	4.3	100.0
	대도시	561	26.1	43.5	69.6	19.5	9.5	1.4	11.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24.9	41.9	66.8	25.5	6.7	1.1	7.7	100.0
	읍/면	92	16.9	34.3	51.2	39.5	7.0	2.4	9.4	100.0
	진보적	407	25.8	40.1	65.9	22.6	9.1	2.4	11.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21.2	42.1	63.3	27.1	8.8	0.8	9.6	100.0
	보수적	235	31.8	45.4	77.1	17.7	4.4	0.8	5.2	100.0
	불교	214	20.4	38.6	59.0	31.4	8.6	1.0	9.6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25.9	45.8	71.7	19.9	6.2	2.2	8.4	100.0
	천주교	56	31.0	42.5	73.5	13.8	10.9	1.7	12.7	100.0
	종교없음	654	25.1	41.3	66.5	24.1	8.3	1.2	9.5	100.0
	무응답	34	28.8	50.7	79.5	13.1	7.4	0.0	7.4	100.0

표28-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7.0	31.5	38.5	42.3	16.8	2.4	19.2	100.0
성별	남자	607	7.0	32.1	39.1	41.0	17.6	2.3	19.9	100.0
	여자	593	7.0	31.0	38.0	43.6	15.9	2.6	18.4	100.0
연령별	19~29세	227	4.8	25.4	30.1	45.4	21.1	3.4	24.4	100.0
	30대	228	7.2	28.9	36.1	43.7	17.2	3.0	20.2	100.0
	40대	266	7.7	33.4	41.1	42.6	14.2	2.1	16.3	100.0
	50대	258	6.8	36.9	43.8	36.3	17.4	2.6	20.0	100.0
	60대 이상	222	8.5	32.0	40.5	44.2	14.1	1.1	15.3	100.0
	중졸 이하	131	5.4	34.4	39.8	41.9	16.6	1.6	18.2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8.2	32.0	40.2	40.2	17.1	2.6	19.7	100.0
	대재 이상	532	6.3	30.4	36.6	44.5	16.3	2.5	18.8	100.0
	무응답	4	0.0	32.3	32.3	33.4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9	25.4	30.3	43.2	19.1	7.4	26.5	100.0
	자영업	270	8.2	32.8	41.0	40.2	16.9	1.8	18.8	100.0
	블루 칼라	348	5.9	33.3	39.2	42.6	15.6	2.6	18.2	100.0
	화이트칼라	230	8.4	30.0	38.3	43.2	17.2	1.3	18.5	100.0
	전업 주부	216	7.3	33.2	40.4	40.6	16.2	2.8	19.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8	23.8	28.6	47.0	20.1	4.3	24.5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4.9	33.6	38.5	40.9	18.8	1.8	20.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8.3	29.8	38.1	40.2	19.0	2.7	21.7	100.0
	300~399만원	337	7.9	30.1	38.0	43.7	14.8	3.6	18.3	100.0
	400만원 이상	522	6.5	32.5	39.0	42.6	16.7	1.7	18.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2	29.2	34.4	40.2	22.7	2.7	25.4	100.0
	충청권	124	13.0	39.7	52.7	40.0	6.6	0.7	7.3	100.0
	호남권	117	13.1	33.8	47.0	43.3	7.8	2.0	9.7	100.0
	영남권	307	5.7	32.7	38.4	45.9	13.2	2.4	15.7	100.0
	강원	35	4.1	20.1	24.2	54.5	14.9	6.4	21.3	100.0
	제주	14	18.3	40.5	58.7	35.0	6.3	0.0	6.3	100.0
	대도시	561	5.9	32.1	38.0	40.3	19.2	2.5	21.7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8.0	31.1	39.2	43.1	15.1	2.7	17.7	100.0
	읍/면	92	8.1	30.0	38.0	49.4	11.8	0.8	12.6	100.0
	진보적	407	9.1	32.6	41.7	39.8	16.0	2.5	18.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6.0	30.6	36.6	44.2	17.2	2.0	19.2	100.0
	보수적	235	5.8	31.8	37.6	42.1	17.1	3.2	20.3	100.0
	불교	214	8.4	34.2	42.6	41.0	14.4	2.0	16.4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6.2	30.9	37.1	45.9	13.9	3.1	17.0	100.0
	천주교	56	8.6	27.9	36.6	43.3	18.5	1.6	20.1	100.0
	종교없음	654	7.1	31.9	39.0	40.5	18.0	2.5	20.5	100.0
	무응답	34	0.0	17.7	17.7	56.9	25.3	0.0	25.3	100.0

표29-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㉞ 탈북자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 하지 않음	전혀 친근 하지 않음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1	24.7	25.8	48.5	21.6	4.0	25.7	100.0
	남자	607	1.5	24.8	26.3	49.6	21.6	2.5	24.1	100.0
	여자	593	0.8	24.5	25.3	47.5	21.7	5.6	27.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1	18.8	20.0	49.6	23.0	7.4	30.4	100.0
	30대	228	1.2	20.2	21.3	53.7	20.5	4.5	24.9	100.0
	40대	266	1.5	25.2	26.7	47.2	23.1	3.0	26.1	100.0
	50대	258	1.1	27.5	28.6	47.4	20.4	3.6	24.0	100.0
	60대 이상	222	0.8	31.3	32.0	45.0	21.1	1.8	22.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32.2	32.2	45.2	20.6	2.0	22.6	100.0
	고졸	534	1.3	24.5	25.7	47.1	23.5	3.6	27.1	100.0
	대재 이상	532	1.3	23.0	24.3	50.6	20.1	4.9	25.1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32.3	32.3	67.7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0.0	19.3	19.3	52.5	28.2	0.0	28.2	100.0
	자영업	270	1.5	28.4	29.9	50.9	16.0	3.2	19.2	100.0
	블루칼라	348	1.1	23.9	24.9	47.1	24.6	3.4	28.0	100.0
	화이트칼라	230	2.2	21.8	24.0	53.8	18.0	4.1	22.1	100.0
	전업주부	216	0.3	25.9	26.2	44.1	25.6	4.0	29.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22.1	22.1	44.6	25.1	8.1	33.3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9	33.2	34.1	40.5	23.6	1.8	25.4
200~299만원	210	1.9	30.4	32.3	45.2	19.6	3.0	22.5	100.0	
300~399만원	337	1.2	24.9	26.1	49.7	21.3	2.9	24.1	100.0	
400만원 이상	522	0.9	20.1	21.0	51.2	22.1	5.7	27.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1	26.0	27.1	47.0	23.0	2.9	25.9	100.0
	충청권	124	0.6	27.2	27.8	55.3	13.5	3.5	17.0	100.0
	호남권	117	1.3	18.9	20.2	50.2	18.6	11.0	29.6	100.0
	영남권	307	1.2	23.2	24.4	47.7	24.1	3.9	27.9	100.0
	강원	35	2.2	15.1	17.3	56.6	21.6	4.5	26.1	100.0
	제주	14	3.1	47.7	50.8	40.0	6.3	2.8	9.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2	26.4	27.6	53.1	15.6	3.6	19.2
중·소도시	547	1.1	24.5	25.6	43.9	26.3	4.2	30.6	100.0	
읍/면	92	0.9	15.2	16.1	48.2	30.6	5.1	35.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7	25.0	27.7	45.8	22.4	4.1	26.6	100.0
	중도	557	0.5	22.7	23.2	52.7	20.8	3.4	24.2	100.0
	보수적	235	0.0	28.8	28.8	43.6	22.3	5.3	27.6	100.0
종교별	불교	214	0.0	29.6	29.6	48.6	19.8	2.0	21.9	100.0
	기독교	242	1.7	20.8	22.5	50.6	22.5	4.4	26.9	100.0
	천주교	56	2.1	27.5	29.6	54.1	14.7	1.6	16.3	100.0
	종교없음	654	1.3	23.2	24.5	47.8	22.7	4.9	27.6	100.0
	무응답	34	0.0	44.1	44.1	38.1	17.9	0.0	17.9	100.0

표29-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㉞ 조선족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 하지 않음	전혀 친근 하지 않음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	22.7	23.6	42.0	26.7	7.7	34.4	100.0
	남자	607	0.8	23.4	24.2	42.0	26.8	7.1	33.8	100.0
	여자	593	1.1	22.0	23.1	41.9	26.6	8.4	34.9	100.0
연령별	19~29세	227	0.9	15.2	16.0	42.3	29.5	12.2	41.7	100.0
	30대	228	0.6	21.0	21.6	42.4	28.2	7.8	36.0	100.0
	40대	266	1.2	21.8	23.0	46.2	23.1	7.7	30.8	100.0
	50대	258	0.8	26.3	27.1	40.3	26.4	6.2	32.6	100.0
	60대 이상	222	1.3	29.1	30.4	38.0	26.8	4.8	3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26.3	26.3	40.9	30.8	2.0	32.8	100.0
	고졸	534	0.7	23.6	24.3	41.7	25.6	8.4	34.0	100.0
	대재 이상	532	1.5	21.0	22.5	42.8	26.5	8.2	34.7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0.0	66.6	33.4	100.0	100.0
	농/수/축산업	17	0.0	24.0	24.0	25.8	50.2	0.0	50.2	100.0
	자영업	270	1.1	31.2	32.3	38.5	25.6	3.7	29.3	100.0
	블루칼라	348	1.0	17.1	18.1	47.8	26.0	8.1	34.1	100.0
	화이트칼라	230	1.8	18.8	20.6	45.1	24.5	9.9	34.3	100.0
	전업주부	216	0.4	26.3	26.7	39.4	25.8	8.2	34.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21.2	21.2	34.3	33.4	11.0	44.5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49.2	50.8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9	31.0	31.9	34.4	29.8	3.9	33.7	100.0
	200~299만원	210	1.0	21.1	22.2	52.9	18.6	6.3	24.9	100.0
	300~399만원	337	1.2	24.6	25.8	43.3	24.8	6.1	30.9	100.0
	400만원 이상	522	0.8	20.1	20.9	38.6	30.2	10.3	40.5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	24.9	25.9	39.4	24.7	10.0	34.7	100.0
	충청권	124	2.1	29.4	31.5	34.8	30.5	3.2	33.7	100.0
	호남권	117	0.6	19.5	20.2	44.6	24.6	10.7	35.3	100.0
	영남권	307	0.2	17.5	17.8	48.2	29.8	4.2	34.0	100.0
	강원	35	2.2	15.1	17.3	50.0	24.2	8.5	32.7	100.0
	제주	14	3.1	26.8	29.9	38.8	31.3	0.0	31.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6	25.3	25.9	43.9	23.3	6.8	30.2	100.0
	중·소도시	547	1.4	22.0	23.4	39.1	29.7	7.8	37.4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0.8	10.4	11.2	46.7	29.4	12.7	42.1	100.0
	진보적	407	1.6	23.8	25.4	36.6	27.9	10.1	38.0	100.0
	중도	557	0.7	19.8	20.6	46.4	26.6	6.5	33.0	100.0
	보수적	235	0.3	27.5	27.9	40.7	24.8	6.6	31.4	100.0
종교별	불교	214	0.4	25.3	25.7	42.9	24.7	6.7	31.4	100.0
	기독교	242	1.7	26.9	28.6	39.6	23.0	8.8	31.8	100.0
	천주교	56	0.8	24.6	25.4	41.2	28.4	5.0	33.4	100.0
	종교없음	654	0.7	20.8	21.5	41.7	28.7	8.1	36.8	100.0
	무응답	34	3.5	10.0	13.5	59.3	23.7	3.5	27.2	100.0

표29-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중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9	17.3	18.2	41.7	31.8	8.2	40.1	100.0
성별	남자	607	0.7	17.5	18.2	41.5	31.8	8.5	40.3
	여자	593	1.1	17.2	18.3	41.9	31.8	8.0	39.8
연령별	19~29세	227	0.3	11.5	11.8	39.5	36.5	12.2	48.7
	30대	228	1.3	18.3	19.6	46.4	26.2	7.8	34.0
	40대	266	0.6	18.1	18.7	39.3	32.8	9.2	41.9
	50대	258	1.1	18.3	19.4	42.8	30.8	7.0	37.8
	60대 이상	222	1.2	20.3	21.5	40.7	32.9	4.9	37.8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7	17.7	18.4	38.7	36.7	6.2	42.9
	고졸	534	0.6	17.4	18.1	42.4	30.8	8.7	39.6
	대재 이상	532	1.2	16.8	18.0	41.8	31.9	8.3	40.2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6.6	16.6	41.6	41.8	0.0	41.8
	자영업	270	0.8	20.4	21.2	40.0	29.9	8.8	38.8
	블루칼라	348	0.7	15.5	16.3	43.3	29.7	10.7	40.4
	화이트칼라	230	2.3	12.5	14.8	51.0	27.3	6.9	34.2
	전업주부	216	0.4	20.7	21.1	39.9	34.8	4.1	39.0
	학생/무직/기타	116	0.0	17.0	17.0	26.7	45.2	11.2	56.4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3	21.4	23.6	35.5	34.0	6.9	40.9
	200~299만원	210	0.3	17.8	18.1	46.5	28.4	7.0	35.4
	300~399만원	337	0.3	15.5	15.8	45.0	32.4	6.8	39.2
	400만원 이상	522	1.2	17.3	18.5	39.3	32.1	10.0	42.2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17.1	17.3	42.1	30.1	10.4	40.5
	충청권	124	6.2	25.7	31.9	37.9	27.3	2.9	30.3
	호남권	117	0.6	12.4	13.0	54.2	21.6	11.1	32.7
	영남권	307	0.2	17.4	17.7	36.2	40.4	5.8	46.1
	강원	35	0.0	4.3	4.3	56.2	37.4	2.0	39.5
	제주	14	3.1	23.3	26.4	38.0	29.5	6.1	35.6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3	18.8	19.1	42.0	32.1	6.8	38.9
	중·소도시	547	1.6	17.0	18.5	40.2	30.7	10.5	41.2
	읍/면	92	0.8	10.4	11.2	48.6	36.7	3.5	40.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2	17.2	18.5	41.7	29.1	10.7	39.8
	중도	557	0.6	17.9	18.5	40.4	34.1	7.0	41.1
	보수적	235	1.1	16.1	17.2	44.7	31.1	7.0	38.1
종교별	불교	214	0.0	17.3	17.3	42.8	34.2	5.7	39.9
	기독교	242	1.4	18.8	20.3	42.9	29.4	7.4	36.9
	천주교	56	0.8	27.0	27.8	32.7	33.3	6.2	39.5
	종교없음	654	1.0	16.4	17.4	41.5	31.7	9.4	41.1
	무응답	34	0.0	9.4	9.4	46.0	33.9	10.7	44.6

표29-4.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미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	36.0	37.4	41.7	18.5	2.4	20.9	100.0
성별	남자	607	1.7	36.9	38.6	39.1	19.8	2.5	22.4
	여자	593	1.1	35.0	36.1	44.4	17.2	2.3	19.5
연령별	19~29세	227	1.6	40.6	42.1	39.8	13.4	4.7	18.1
	30대	228	1.3	41.4	42.7	37.9	17.3	2.0	19.4
	40대	266	0.5	31.0	31.5	45.6	21.0	1.9	22.9
	50대	258	0.6	38.3	38.9	39.7	19.3	2.0	21.4
	60대 이상	222	3.2	29.0	32.2	45.2	21.1	1.5	22.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2	29.3	31.4	41.6	24.4	2.6	26.9
	고졸	534	1.1	35.3	36.3	42.4	19.2	2.0	21.2
	대재 이상	532	1.5	38.4	39.9	41.0	16.3	2.8	19.1
	무응답	4	0.0	34.3	34.3	33.4	32.3	0.0	32.3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6.6	16.6	20.9	62.6	0.0	62.6
	자영업	270	1.1	33.8	34.9	46.2	16.5	2.3	18.8
	블루칼라	348	1.2	37.0	38.2	39.5	19.9	2.4	22.3
	화이트칼라	230	2.2	38.4	40.6	43.2	14.0	2.2	16.2
	전업주부	216	0.6	36.9	37.5	40.7	20.0	1.8	21.8
	학생/무직/기타	116	2.7	35.0	37.7	39.5	18.4	4.4	22.8
	무응답	2	0.0	0.0	0.0	50.8	49.2	0.0	49.2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8	30.9	33.7	33.6	29.8	2.8	32.6
	200~299만원	210	0.9	34.9	35.8	36.5	26.0	1.7	27.7
	300~399만원	337	0.8	35.5	36.3	39.6	21.4	2.7	24.1
	400만원 이상	522	1.6	38.1	39.6	47.3	10.7	2.4	13.1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40.2	40.6	42.5	15.6	1.3	16.9
	충청권	124	5.5	36.7	42.2	48.7	8.4	0.7	9.0
	호남권	117	2.0	23.7	25.7	46.0	19.7	8.6	28.4
	영남권	307	0.8	34.3	35.1	32.6	29.2	3.0	32.3
	강원	35	2.1	20.9	23.0	63.6	11.4	1.9	13.4
	제주	14	12.2	24.6	36.8	53.8	6.6	2.8	9.4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9	40.0	40.9	41.2	16.4	1.5	17.9
	중·소도시	547	1.8	36.1	38.0	40.8	18.7	2.5	21.2
	읍/면	92	1.7	10.2	11.9	50.2	30.3	7.6	37.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1	34.3	35.4	43.7	17.3	3.6	20.9
	중도	557	0.6	36.4	37.0	41.2	20.4	1.5	21.8
	보수적	235	3.6	38.0	41.7	39.4	16.3	2.6	18.9
종교별	불교	214	0.4	33.1	33.5	41.1	24.6	0.8	25.4
	기독교	242	2.4	38.9	41.3	44.1	13.0	1.6	14.6
	천주교	56	2.3	38.4	40.8	44.7	13.2	1.3	14.6
	종교없음	654	1.3	34.4	35.7	41.5	19.3	3.4	22.8
	무응답	34	0.0	60.1	60.1	27.0	12.9	0.0	12.9

표29-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동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 체	1200	0.2	17.8	18.1	41.6	36.1	4.2	40.4	100.0	
성별	남자	607	0.2	18.1	18.3	43.1	35.1	3.5	38.6	100.0
	여자	593	0.3	17.6	17.8	40.0	37.2	5.0	42.2	100.0
연령별	19~29세	227	0.0	15.7	15.7	45.2	33.4	5.7	39.1	100.0
	30대	228	0.2	19.3	19.5	44.4	32.5	3.6	36.1	100.0
	40대	266	0.0	19.2	19.2	37.6	38.7	4.4	43.1	100.0
	50대	258	0.3	18.6	18.8	40.3	35.7	5.2	40.8	100.0
	60대 이상	222	0.7	15.9	16.7	41.2	40.1	2.1	42.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6	17.7	18.3	39.0	39.1	3.6	42.7	100.0
	고졸	534	0.2	16.4	16.6	40.7	38.2	4.5	42.7	100.0
	대재 이상	532	0.2	19.4	19.6	42.9	33.3	4.2	37.5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67.7	32.3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0.0	14.5	14.5	20.9	59.3	5.3	64.6	100.0
	자영업	270	0.2	14.5	14.6	43.6	37.8	4.0	41.8	100.0
	블루칼라	348	0.2	19.7	19.9	40.9	35.2	4.1	39.3	100.0
	화이트칼라	230	0.7	16.6	17.3	46.7	33.0	3.0	36.0	100.0
	전업주부	216	0.0	18.9	18.9	37.2	39.8	4.1	43.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21.5	21.5	40.0	30.5	8.0	38.5	100.0
	무응답	2	0.0	0.0	0.0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1.2	16.8	18.1	36.5	41.2	4.3	45.5	100.0
	200~299만원	210	0.0	21.1	21.1	37.5	38.4	3.1	41.4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0.0	18.3	18.3	41.5	35.9	4.2	40.1	100.0
	400만원 이상	522	0.2	16.3	16.5	44.6	34.1	4.7	38.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0	15.3	15.3	38.8	43.2	2.7	45.9	100.0
	충청권	124	1.3	31.4	32.7	48.4	16.3	2.7	19.0	100.0
	호남권	117	0.6	19.4	20.0	47.2	24.2	8.6	32.8	100.0
	영남권	307	0.0	15.9	15.9	39.3	38.4	6.4	44.7	100.0
	강원	35	0.0	21.1	21.1	60.7	13.8	4.5	18.2	100.0
	제주	14	3.1	27.1	30.2	54.1	12.9	2.8	15.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0	12.1	12.1	44.5	38.4	5.0	43.4	100.0
	중·소도시	547	0.4	24.7	25.1	38.0	34.4	2.5	36.9	100.0
	읍/면	92	0.8	11.9	12.7	45.0	32.6	9.7	4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0.1	18.9	19.0	42.5	32.8	5.6	38.4	100.0
	중도	557	0.0	16.3	16.3	41.1	39.5	3.1	42.6	100.0
	보수적	235	1.0	19.6	20.6	41.0	33.8	4.6	38.3	100.0
종교별	불교	214	0.0	16.4	16.4	45.6	34.8	3.2	38.0	100.0
	기독교	242	0.3	20.4	20.7	37.4	39.3	2.6	41.9	100.0
	천주교	56	0.8	25.9	26.7	40.8	26.7	5.9	32.5	100.0
	종교없음	654	0.2	17.2	17.5	42.2	35.5	4.9	40.3	100.0
	무응답	34	0.0	6.5	6.5	35.8	50.5	7.1	57.6	100.0

표29-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일본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 체	1200	0.2	18.7	19.0	42.6	30.6	7.7	38.4	100.0	
성별	남자	607	0.2	19.4	19.6	42.3	30.7	7.4	38.1	100.0
	여자	593	0.3	18.0	18.3	43.0	30.6	8.1	38.7	100.0
연령별	19~29세	227	0.0	18.4	18.4	45.6	28.3	7.7	36.0	100.0
	30대	228	0.5	22.9	23.4	39.0	31.7	5.9	37.6	100.0
	40대	266	0.3	14.9	15.3	44.9	30.2	9.6	39.9	100.0
	50대	258	0.3	20.2	20.5	41.4	30.2	7.8	38.1	100.0
	60대 이상	222	0.0	17.7	17.7	42.0	33.0	7.3	4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19.5	19.5	41.3	29.4	9.9	39.3	100.0
	고졸	534	0.0	18.9	18.9	41.7	30.9	8.5	39.5	100.0
	대재 이상	532	0.5	18.5	19.1	44.0	30.4	6.5	36.9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33.4	66.6	0.0	66.6	100.0
	농/수/축산업	17	0.0	9.9	9.9	15.3	62.0	12.7	74.7	100.0
	자영업	270	0.2	16.2	16.3	45.2	29.7	8.8	38.5	100.0
	블루칼라	348	0.0	20.9	20.9	43.1	27.2	8.8	36.0	100.0
	화이트칼라	230	1.0	18.2	19.2	43.8	31.3	5.8	37.1	100.0
	전업주부	216	0.0	19.0	19.0	40.8	34.1	6.1	40.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20.4	20.4	40.6	30.4	8.6	39.0	100.0
	무응답	2	0.0	0.0	0.0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0.0	19.7	19.7	32.0	36.9	11.3	48.2	100.0
	200~299만원	210	0.3	24.9	25.2	38.6	30.8	5.4	36.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0.0	17.9	17.9	42.9	32.3	6.9	39.2	100.0
	400만원 이상	522	0.4	16.6	17.0	46.9	27.8	8.4	36.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0	16.3	16.3	45.2	31.6	6.9	38.4	100.0
	충청권	124	1.3	22.5	23.8	40.9	32.8	2.5	35.3	100.0
	호남권	117	0.6	15.6	16.3	47.5	25.1	11.1	36.2	100.0
	영남권	307	0.0	21.5	21.5	37.2	31.6	9.7	41.3	100.0
	강원	35	0.0	24.9	24.9	37.7	23.8	13.5	37.4	100.0
	제주	14	3.1	37.1	40.2	38.2	15.6	6.0	21.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1	19.1	19.3	42.7	29.1	8.9	38.1	100.0
	중·소도시	547	0.2	19.2	19.5	42.5	32.4	5.5	38.0	100.0
	읍/면	92	0.8	13.2	14.0	43.0	29.3	13.7	43.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0.5	20.1	20.6	44.0	27.9	7.6	35.4	100.0
	중도	557	0.0	17.7	17.7	41.7	32.8	7.7	40.5	100.0
	보수적	235	0.3	18.6	18.9	42.5	30.4	8.2	38.6	100.0
종교별	불교	214	0.0	22.4	22.4	37.2	31.0	9.4	40.5	100.0
	기독교	242	0.3	23.3	23.6	45.9	25.6	4.9	30.5	100.0
	천주교	56	0.8	25.8	26.6	41.0	23.0	9.4	32.4	100.0
	종교없음	654	0.2	15.1	15.4	43.5	33.0	8.1	41.1	100.0
	무응답	34	0.0	20.8	20.8	39.6	32.5	7.2	39.7	100.0

표29-7.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2	8.7	8.9	39.8	41.8	9.6	51.3	100.0
성별	남자	607	0.2	9.6	9.8	40.1	41.9	8.2	50.1
	여자	593	0.1	7.7	7.8	39.5	41.6	11.0	52.6
연령별	19~29세	227	0.0	6.4	6.4	44.9	35.8	12.8	48.6
	30대	228	0.2	9.1	9.3	35.0	44.8	10.8	55.7
	40대	266	0.0	8.2	8.2	40.2	42.9	8.6	51.5
	50대	258	0.0	10.4	10.4	38.8	42.7	8.1	50.8
	60대 이상	222	0.7	9.1	9.8	40.1	42.3	7.9	50.1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6	12.0	12.5	40.3	39.9	7.2	47.2
	고졸	534	0.2	7.1	7.3	38.5	44.5	9.8	54.2
	대재 이상	532	0.1	9.5	9.6	40.8	39.6	10.0	49.6
	무응답	4	0.0	0.0	0.0	67.7	32.3	0.0	32.3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5.3	5.3	14.7	80.0	0.0	80.0
	자영업	270	0.2	6.2	6.4	44.1	41.8	7.8	49.6
	블루칼라	348	0.2	9.3	9.5	38.4	39.1	13.0	52.1
	화이트칼라	230	0.4	10.0	10.4	38.1	43.8	7.7	51.5
	전업주부	216	0.0	8.4	8.4	38.3	47.0	6.3	53.3
	학생/무직/기타	116	0.0	11.3	11.3	43.6	30.1	15.0	45.2
	무응답	2	0.0	0.0	0.0	50.8	49.2	0.0	49.2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	12.1	13.3	30.3	47.2	9.2	56.4
	200~299만원	210	0.0	16.8	16.8	39.3	38.2	5.7	43.9
	300~399만원	337	0.0	7.7	7.7	40.5	43.6	8.2	51.8
	400만원 이상	522	0.1	5.3	5.3	42.0	40.6	12.1	52.7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0	5.0	5.0	37.4	47.3	10.3	57.6
	충청권	124	1.3	17.0	18.3	48.3	29.1	4.2	33.4
	호남권	117	0.0	10.5	10.5	40.5	35.6	13.4	49.0
	영남권	307	0.0	10.3	10.3	38.5	41.8	9.5	51.3
	강원	35	0.0	15.2	15.2	56.4	23.9	4.6	28.4
	제주	14	3.1	27.1	30.2	47.9	12.4	9.5	21.9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0	5.5	5.5	39.9	44.0	10.6	54.6
	중·소도시	547	0.4	11.8	12.2	39.8	39.4	8.6	48.0
	읍/면	92	0.0	9.6	9.6	39.1	42.1	9.3	51.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0.1	8.6	8.7	38.0	40.4	12.8	53.2
	중도	557	0.0	8.7	8.7	40.5	43.0	7.8	50.8
	보수적	235	0.7	8.7	9.4	41.2	41.2	8.3	49.4
종교별	불교	214	0.0	12.0	12.0	38.8	42.2	7.0	49.2
	기독교	242	0.0	7.0	7.0	42.9	38.1	12.0	50.1
	천주교	56	0.8	13.3	14.1	41.1	36.1	8.7	44.8
	종교없음	654	0.2	8.1	8.4	39.2	42.8	9.6	52.4
	무응답	34	0.0	2.9	2.9	32.3	54.1	10.6	64.8

표30-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7	11.7	13.4	44.6	35.1	6.9	42.0	100.0
성별	남자	607	2.2	11.6	13.8	42.4	36.9	6.9	43.8
	여자	593	1.1	11.9	13.0	46.8	33.2	7.0	40.2
연령별	19~29세	227	3.6	9.2	12.8	49.1	30.9	7.2	38.1
	30대	228	1.8	14.3	16.1	40.8	36.3	6.8	43.1
	40대	266	0.5	9.0	9.4	45.8	36.9	7.9	44.8
	50대	258	2.2	12.8	14.9	47.4	31.2	6.5	37.7
	60대 이상	222	0.6	13.8	14.3	39.2	40.3	6.2	46.5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9	11.8	12.7	41.6	37.5	8.2	45.7
	고졸	534	1.9	12.9	14.8	45.9	32.6	6.7	39.3
	대재 이상	532	1.7	10.6	12.3	43.7	37.2	6.9	44.1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9.7	19.7	23.1	51.9	5.3	57.2
	자영업	270	0.6	11.1	11.7	44.9	37.3	6.1	43.4
	블루 칼라	348	1.4	11.0	12.5	46.4	32.9	8.2	41.1
	화이트칼라	230	3.4	10.8	14.2	44.6	36.4	4.8	41.2
	전업 주부	216	1.1	9.7	10.8	47.2	35.1	6.9	42.0
	학생/무직/기타	116	3.0	19.9	23.0	35.3	32.0	9.6	41.7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9	19.7	21.7	40.8	31.1	6.4	37.5
	200~299만원	210	1.0	10.5	11.5	39.8	41.7	7.0	48.7
	300~399만원	337	0.8	10.9	11.8	44.8	34.8	8.6	43.5
	400만원 이상	522	2.4	10.8	13.2	47.4	33.4	5.9	39.4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5	10.6	13.1	43.7	35.9	7.4	43.2
	충청권	124	0.6	15.9	16.4	53.9	25.3	4.4	29.6
	호남권	117	0.0	11.5	11.5	46.7	33.3	8.5	41.7
	영남권	307	0.7	13.0	13.6	41.1	39.0	6.3	45.2
	강원	35	4.3	8.4	12.8	47.8	30.3	9.2	39.5
	제주	14	6.2	6.0	12.2	52.4	29.1	6.3	35.5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8	8.7	9.4	50.1	34.7	5.8	40.5
	중·소도시	547	2.7	13.5	16.3	38.9	36.9	7.9	44.8
	읍/면	92	1.4	19.3	20.7	44.8	26.4	8.1	34.5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8	13.6	15.5	40.4	38.4	5.7	44.1
	중도	557	1.5	9.5	11.1	51.7	30.9	6.3	37.2
	보수적	235	1.8	13.6	15.4	35.0	39.1	10.5	49.6
종교별	불교	214	1.1	10.4	11.5	51.7	32.6	4.1	36.8
	기독교	242	0.9	13.3	14.2	41.6	37.2	7.0	44.2
	천주교	56	0.8	16.2	17.0	39.8	37.3	5.9	43.2
	종교없음	654	2.2	11.4	13.6	44.9	33.4	8.1	41.5
	무응답	34	3.6	6.6	10.2	23.0	63.4	3.5	66.9

표30-2.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4	13.5	15.9	43.5	34.0	6.6	40.6	100.0
성별	남자	607	2.3	13.6	15.9	41.2	36.8	6.1	42.9	100.0
	여자	593	2.4	13.4	15.8	46.0	31.2	7.0	38.2	100.0
연령별	19~29세	227	5.1	10.1	15.2	45.3	34.7	4.8	39.5	100.0
	30대	228	2.4	16.6	19.0	39.3	34.2	7.5	41.7	100.0
	40대	266	0.5	11.6	12.0	47.4	32.0	8.6	40.6	100.0
	50대	258	2.5	14.8	17.3	44.1	32.8	5.7	38.5	100.0
	60대 이상	222	1.7	14.4	16.1	40.8	37.0	6.1	4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9	15.7	16.6	41.4	34.8	7.1	41.9	100.0
	고졸	534	2.2	14.5	16.7	44.6	32.7	6.0	38.8	100.0
	대재 이상	532	2.9	12.0	15.0	42.6	35.4	7.1	42.4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7.2	7.2	38.0	54.8	0.0	54.8	100.0
	자영업	270	1.5	13.5	15.1	43.8	33.0	8.1	41.1	100.0
	블루 칼라	348	2.6	11.8	14.3	47.6	31.7	6.4	38.0	100.0
	화이트칼라	230	3.3	11.8	15.1	42.3	37.9	4.7	42.6	100.0
	전업 주부	216	0.6	15.3	15.8	44.6	31.6	7.9	39.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8	19.7	25.5	30.6	37.8	6.1	43.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5.0	19.4	24.4	41.1	26.9	7.7	3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0.0	12.3	12.3	40.9	40.8	5.9	46.8	100.0
	300~399만원	337	1.2	12.9	14.1	41.9	35.9	8.2	44.1	100.0
	400만원 이상	522	3.4	12.9	16.3	46.4	31.8	5.5	37.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5	13.1	16.6	42.8	34.0	6.6	40.6	100.0
	충청권	124	2.0	21.4	23.4	48.6	23.2	4.8	28.0	100.0
	호남권	117	0.0	13.6	13.6	44.1	34.7	7.7	42.4	100.0
	영남권	307	1.0	11.8	12.8	42.3	38.4	6.5	44.9	100.0
	강원	35	4.3	8.4	12.8	43.1	34.9	9.2	44.1	100.0
	제주	14	3.1	9.4	12.5	55.0	26.1	6.3	3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6	10.8	12.3	46.6	33.1	8.0	41.1	100.0
	중·소도시	547	3.2	15.1	18.4	40.0	36.3	5.4	41.7	100.0
	읍/면	92	2.4	20.0	22.5	46.3	26.0	5.2	31.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1	13.7	16.8	39.7	37.3	6.1	43.5	100.0
	중도	557	1.9	13.0	14.9	50.0	29.1	6.0	35.1	100.0
	보수적	235	2.3	14.2	16.4	34.9	40.0	8.6	48.6	100.0
	불교	214	1.0	13.5	14.6	51.0	29.8	4.6	34.4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2.4	12.8	15.2	42.2	36.3	6.3	42.6	100.0
	천주교	56	4.0	17.4	21.4	39.7	30.7	8.2	38.8	100.0
	종교없음	654	2.6	13.9	16.5	42.6	33.3	7.5	40.9	100.0
	무응답	34	3.6	3.0	6.6	30.1	63.3	0.0	63.3	100.0

표30-3.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㉕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8.7	34.3	43.0	36.2	17.3	3.4	20.8	100.0
성별	남자	607	7.7	35.3	43.0	32.5	20.7	3.8	24.5	100.0
	여자	593	9.7	33.4	43.1	40.0	13.9	3.1	17.0	100.0
연령별	19~29세	227	12.4	36.4	48.9	34.8	11.9	4.5	16.3	100.0
	30대	228	10.6	29.1	39.8	37.8	20.7	1.7	22.4	100.0
	40대	266	6.1	35.4	41.6	35.7	19.0	3.7	22.7	100.0
	50대	258	7.0	38.1	45.1	35.1	16.2	3.6	19.8	100.0
	60대 이상	222	8.0	31.8	39.8	37.7	18.7	3.8	22.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8	30.0	37.8	36.2	22.0	3.9	25.9	100.0
	고졸	534	7.4	39.5	46.8	34.7	15.0	3.4	18.4	100.0
	대재 이상	532	10.3	30.2	40.6	37.4	18.6	3.4	22.0	100.0
	무응답	4	0.0	34.3	34.3	65.7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9.1	19.1	33.9	47.0	0.0	47.0	100.0
	자영업	270	5.2	42.1	47.4	31.5	16.8	4.4	21.1	100.0
	블루 칼라	348	9.6	34.9	44.5	34.9	17.0	3.6	20.6	100.0
	화이트칼라	230	9.4	29.3	38.7	39.0	20.4	1.9	22.3	100.0
	전업 주부	216	8.9	28.8	37.7	44.9	14.9	2.5	17.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3.8	37.7	51.5	28.2	14.0	6.4	20.3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9.5	28.6	38.1	34.1	22.2	5.6	27.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5.8	33.0	38.8	36.1	22.4	2.7	25.1	100.0
	300~399만원	337	8.4	35.5	43.9	34.9	16.4	4.7	21.2	100.0
	400만원 이상	522	9.9	35.6	45.5	37.6	14.5	2.4	16.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0	36.3	46.3	36.5	14.6	2.6	17.2	100.0
	충청권	124	8.6	41.0	49.6	31.0	17.1	2.4	19.4	100.0
	호남권	117	2.3	25.4	27.7	41.0	26.2	5.1	31.3	100.0
	영남권	307	8.7	33.7	42.4	34.8	18.7	4.1	22.8	100.0
	강원	35	8.3	19.3	27.7	38.0	25.4	9.0	34.3	100.0
	제주	14	6.6	18.3	24.9	56.5	12.3	6.3	18.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9.8	32.3	42.2	38.0	15.2	4.6	19.9	100.0
	중·소도시	547	7.5	38.1	45.6	34.1	18.1	2.1	20.3	100.0
	읍/면	92	9.3	24.0	33.3	37.5	25.3	3.9	2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3	30.7	40.0	37.2	19.4	3.4	22.8	100.0
	중도	557	7.3	38.3	45.6	36.7	15.1	2.6	17.7	100.0
	보수적	235	11.0	31.2	42.2	33.3	19.0	5.5	24.6	100.0
	불교	214	9.4	31.9	41.3	39.5	17.1	2.1	19.2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4.9	34.1	39.0	40.6	16.3	4.1	20.4	100.0
	천주교	56	8.7	36.7	45.4	28.0	22.5	4.1	26.6	100.0
	종교없음	654	10.0	35.1	45.1	33.9	17.2	3.8	21.0	100.0
	무응답	34	6.6	32.6	39.1	40.7	20.1	0.0	20.1	100.0

표30-4.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④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9.6	36.1	55.7	27.8	12.2	4.3	16.5	100.0
	남자	607	17.5	37.0	54.5	26.3	14.8	4.4	19.2	100.0
	여자	593	21.8	35.2	57.0	29.4	9.5	4.1	13.7	100.0
연령별	19~29세	227	20.2	45.1	65.2	20.5	11.1	3.2	14.2	100.0
	30대	228	24.4	29.2	53.6	28.6	13.8	4.1	17.9	100.0
	40대	266	18.8	36.8	55.6	26.1	12.4	5.9	18.4	100.0
	50대	258	19.3	36.0	55.3	29.3	11.5	4.0	15.4	100.0
	60대 이상	222	15.6	33.3	48.9	34.8	12.3	4.0	16.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5	32.2	43.7	40.4	12.3	3.6	15.9	100.0
	고졸	534	22.2	35.5	57.8	27.4	10.6	4.3	14.8	100.0
	대재 이상	532	19.1	37.9	57.0	24.6	13.9	4.5	18.4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7	25.1	29.8	48.4	21.8	0.0	21.8	100.0
	자영업	270	19.7	37.0	56.6	25.8	12.3	5.3	17.6	100.0
	블루 칼라	348	20.7	33.2	53.9	29.9	11.2	5.0	16.2	100.0
	화이트칼라	230	18.7	37.4	56.1	26.4	14.4	3.1	17.5	100.0
	전업 주부	216	19.2	35.7	54.9	31.3	10.9	2.9	13.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1.6	43.2	64.9	17.9	12.0	5.2	17.2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20.0	26.8	46.9	35.2	11.6	6.4	18.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3.7	31.0	44.7	33.4	17.3	4.6	21.9	100.0
	300~399만원	337	17.7	37.8	55.5	25.8	13.1	5.6	18.7	100.0
	400만원 이상	522	23.2	39.3	62.5	25.0	9.8	2.7	12.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0.1	38.2	58.3	26.1	11.6	4.1	15.7	100.0
	충청권	124	21.1	40.2	61.4	28.0	8.7	1.9	10.6	100.0
	호남권	117	18.3	24.0	42.3	32.7	18.4	6.6	25.0	100.0
	영남권	307	19.9	37.0	56.9	27.7	11.2	4.2	15.4	100.0
	강원	35	10.7	21.5	32.3	35.4	25.5	6.9	32.4	100.0
	제주	14	17.4	25.3	42.7	41.8	6.0	9.4	15.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9.3	35.5	54.9	28.0	11.5	5.7	17.1	100.0
	중·소도시	547	20.4	38.1	58.5	26.1	12.4	3.0	15.4	100.0
	읍/면	92	16.9	27.7	44.6	36.8	15.6	3.0	18.6	100.0
	진보적	407	22.0	32.9	55.0	26.4	14.3	4.3	18.6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17.9	39.5	57.4	29.4	10.1	3.0	13.2	100.0
	보수적	235	19.5	33.6	53.1	26.3	13.5	7.1	20.6	100.0
종교별	불교	214	21.6	34.2	55.8	31.8	9.3	3.1	12.4	100.0
	기독교	242	17.1	35.5	52.5	29.2	13.8	4.5	18.3	100.0
	천주교	56	18.5	27.0	45.4	30.0	20.4	4.2	24.6	100.0
	종교없음	654	20.4	37.7	58.1	26.1	11.4	4.4	15.9	100.0
	무응답	34	12.4	37.4	49.8	22.2	20.9	7.1	28.0	100.0

표31.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무응답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34.0	51.2	14.4	0.5	100.0
	남자	607	34.7	52.1	12.9	0.3	100.0
	여자	593	33.3	50.2	15.9	0.6	100.0
연령별	19~29세	227	29.7	52.4	17.4	0.5	100.0
	30대	228	32.0	54.4	13.0	0.6	100.0
	40대	266	37.6	49.8	11.5	1.1	100.0
	50대	258	34.3	50.5	15.2	0.0	100.0
	60대 이상	222	35.6	49.0	15.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9.0	56.2	14.7	0.0	100.0
	고졸	534	36.2	48.2	15.0	0.6	100.0
	대재 이상	532	32.9	52.8	13.8	0.5	100.0
	무응답	4	32.3	67.7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3.9	36.4	19.7	0.0	100.0
	자영업	270	30.7	56.1	12.8	0.3	100.0
	블루 칼라	348	32.7	51.5	15.2	0.6	100.0
	화이트칼라	230	36.2	49.4	14.0	0.5	100.0
	전업 주부	216	35.8	50.9	12.8	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5.8	45.0	19.2	0.0	100.0
	무응답	2	49.2	50.8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32.9	49.0	18.1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40.9	47.8	10.6	0.6	100.0
	300~399만원	337	34.8	52.4	12.5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30.8	52.3	16.3	0.6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0.4	53.5	15.5	0.6	100.0
	충청권	124	39.7	49.8	10.6	0.0	100.0
	호남권	117	41.5	48.6	9.9	0.0	100.0
	영남권	307	35.5	48.4	15.9	0.3	100.0
	강원	35	36.6	46.1	15.1	2.2	100.0
	제주	14	37.6	59.5	2.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6.2	51.5	11.9	0.4	100.0
	중·소도시	547	29.8	50.8	18.8	0.6	100.0
	읍/면	92	45.1	51.2	3.7	0.0	100.0
	진보적	407	37.2	47.5	14.7	0.6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32.2	54.5	12.7	0.5	100.0
	보수적	235	32.7	49.5	17.8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34.1	52.2	13.3	0.4	100.0
	기독교	242	41.2	42.7	16.1	0.0	100.0
	천주교	56	28.9	54.6	16.6	0.0	100.0
	종교없음	654	31.9	53.0	14.4	0.7	100.0
	무응답	34	30.1	63.4	6.6	0.0	100.0

표32-1.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 탈북자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0	49.1	53.1	41.8	5.1	46.9	100.0
성별	남자	607	4.4	48.1	52.6	42.6	4.9	47.4	100.0
	여자	593	3.6	50.2	53.7	41.0	5.3	46.3	100.0
연령별	19~29세	227	3.0	45.4	48.4	45.8	5.8	51.6	100.0
	30대	228	3.9	49.5	53.4	39.8	6.8	46.6	100.0
	40대	266	4.5	50.8	55.2	40.5	4.3	44.8	100.0
	50대	258	3.6	51.5	55.0	42.0	2.9	45.0	100.0
	60대 이상	222	5.1	47.9	53.0	41.0	6.1	4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5	45.2	50.7	45.0	4.3	49.3	100.0
	고졸	534	3.6	47.9	51.5	44.7	3.8	48.5	100.0
	대재 이상	532	4.1	51.2	55.3	38.1	6.6	44.7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59.4	59.4	40.6	0.0	40.6	100.0
	자영업	270	7.3	45.5	52.8	42.5	4.7	47.2	100.0
	블루 칼라	348	3.2	49.5	52.7	42.2	5.1	47.3	100.0
	화이트칼라	230	2.9	50.4	53.3	43.5	3.2	46.7	100.0
	전업 주부	216	2.8	52.1	54.9	38.6	6.6	45.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8	46.0	49.8	42.2	7.9	50.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9	43.8	48.8	45.6	5.7	51.2	100.0
	200~299만원	210	4.5	47.1	51.5	41.8	6.7	48.5	100.0
	300~399만원	337	3.8	53.5	57.3	39.3	3.4	42.7	100.0
	400만원 이상	522	3.7	48.6	52.3	42.5	5.2	47.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9	46.5	50.4	44.3	5.4	49.6	100.0
	충청권	124	6.6	42.7	49.4	48.1	2.6	50.6	100.0
	호남권	117	3.6	63.8	67.3	29.4	3.2	32.7	100.0
	영남권	307	3.0	52.6	55.6	38.2	6.1	44.4	100.0
	강원	35	4.7	34.2	38.8	52.4	8.7	61.2	100.0
	제주	14	9.1	58.1	67.2	32.8	0.0	32.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1	52.1	56.2	39.4	4.4	43.8	100.0
	중·소도시	547	3.7	47.9	51.7	42.6	5.7	48.3	100.0
	읍/면	92	5.1	38.0	43.2	51.1	5.8	5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8	52.2	57.0	39.6	3.4	43.0	100.0
	중도	557	3.8	48.5	52.3	43.3	4.4	47.7	100.0
	보수적	235	3.0	45.3	48.3	42.0	9.7	51.7	100.0
종교별	불교	214	4.5	46.1	50.7	44.5	4.8	49.3	100.0
	기독교	242	2.8	53.9	56.7	38.9	4.5	43.3	100.0
	천주교	56	6.9	41.9	48.8	47.9	3.3	51.2	100.0
	종교없음	654	4.2	49.6	53.8	40.7	5.4	46.2	100.0
	무응답	34	0.0	37.2	37.2	55.6	7.2	62.8	100.0

표32-2.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1	37.0	40.0	47.8	12.1	60.0	100.0
	남자	607	2.9	37.9	40.8	46.4	12.8	59.2	100.0
	여자	593	3.2	36.1	39.3	49.3	11.5	60.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	35.6	37.2	49.2	13.7	62.8	100.0
	30대	228	1.8	32.8	34.6	50.5	14.8	65.4	100.0
	40대	266	3.6	37.1	40.7	48.7	10.6	59.3	100.0
	50대	258	2.9	40.6	43.5	45.8	10.7	56.5	100.0
	60대 이상	222	5.5	38.2	43.7	45.1	11.2	56.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6.4	36.6	43.0	45.8	11.1	57.0	100.0
	고졸	534	2.3	38.5	40.8	47.1	12.1	59.2	100.0
	대재 이상	532	2.8	35.6	38.4	49.1	12.5	61.6	100.0
	무응답	4	33.4	32.3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32.2	32.2	45.1	22.8	67.8	100.0
	자영업	270	3.7	34.1	37.8	49.8	12.4	62.2	100.0
	블루 칼라	348	3.7	36.3	40.1	47.1	12.9	59.9	100.0
	화이트칼라	230	1.7	38.0	39.7	47.3	13.0	60.3	100.0
	전업 주부	216	3.0	37.7	40.6	48.8	10.6	59.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8	42.7	44.6	46.0	9.5	55.4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9	34.2	37.1	51.3	11.7	62.9	100.0
	200~299만원	210	2.9	42.6	45.5	45.4	9.1	54.5	100.0
	300~399만원	337	3.9	35.0	38.8	47.6	13.6	61.2	100.0
	400만원 이상	522	2.6	36.8	39.4	48.0	12.6	60.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6	41.9	44.6	43.3	12.1	55.4	100.0
	충청권	124	2.4	31.6	34.1	61.3	4.6	65.9	100.0
	호남권	117	6.0	44.4	50.3	39.3	10.4	49.7	100.0
	영남권	307	2.0	27.8	29.7	53.6	16.6	70.3	100.0
	강원	35	11.2	25.0	36.2	55.0	8.8	63.8	100.0
	제주	14	6.2	40.8	47.0	49.5	3.5	53.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1	41.5	44.6	46.0	9.4	55.4	100.0
	중·소도시	547	3.0	33.3	36.3	48.7	15.0	63.7	100.0
	읍/면	92	3.0	31.3	34.3	53.7	12.0	65.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0	41.4	45.4	43.2	11.4	54.6	100.0
	중도	557	1.9	34.3	36.1	52.8	11.1	63.9	100.0
	보수적	235	4.3	35.7	40.0	44.1	15.9	60.0	100.0
종교별	불교	214	5.6	32.2	37.8	51.5	10.7	62.2	100.0
	기독교	242	2.7	42.8	45.5	46.3	8.2	54.5	100.0
	천주교	56	2.6	40.8	43.4	51.5	5.1	56.6	100.0
	종교없음	654	2.6	35.5	38.1	47.9	14.0	61.9	100.0
	무응답	34	0.0	47.0	47.0	28.2	24.7	53.0	100.0

표32-3.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성별	전 체	1200	3.2	28.7	31.9	56.5	11.6	68.1	100.0
	남자	607	2.5	28.6	31.1	57.2	11.7	68.9	100.0
	여자	593	3.8	28.9	32.7	55.7	11.6	67.3	100.0
연령별	19~29세	227	2.1	30.4	32.4	57.3	10.3	67.6	100.0
	30대	228	2.8	29.8	32.6	57.0	10.4	67.4	100.0
	40대	266	5.3	26.7	32.0	54.9	13.1	68.0	100.0
	50대	258	2.9	28.0	31.0	59.1	9.9	69.0	100.0
	60대 이상	222	2.4	29.1	31.6	53.9	14.6	6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3	27.3	29.5	56.0	14.5	70.5	100.0
	고졸	534	2.9	31.1	34.1	55.5	10.5	65.9	100.0
	대재 이상	532	3.7	26.9	30.5	57.3	12.2	69.5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5.4	15.4	74.0	10.6	84.6	100.0
	자영업	270	1.7	30.2	31.8	56.0	12.1	68.2	100.0
	블루 칼라	348	2.8	31.2	34.0	54.4	11.6	66.0	100.0
	화이트칼라	230	5.1	28.1	33.2	57.4	9.4	66.8	100.0
	전업 주부	216	3.7	24.5	28.2	58.6	13.2	71.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6	29.5	33.1	54.3	12.6	66.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9	23.5	27.4	58.4	14.2	72.6	100.0
	200~299만원	210	2.3	27.1	29.4	57.6	13.0	70.6	100.0
	300~399만원	337	2.9	31.7	34.6	53.4	12.0	65.4	100.0
	400만원 이상	522	3.5	28.8	32.3	57.6	10.1	67.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7	32.0	35.6	58.3	6.1	64.4	100.0
	충청권	124	3.9	24.7	28.6	58.5	12.9	71.4	100.0
	호남권	117	3.2	32.1	35.2	48.3	16.5	64.8	100.0
	영남권	307	2.3	24.1	26.4	54.6	19.0	73.6	100.0
	강원	35	0.0	17.0	17.0	61.5	21.5	83.0	100.0
	제주	14	3.1	27.4	30.5	56.6	12.9	69.5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0	27.0	30.0	56.6	13.4	70.0	100.0
	중·소도시	547	3.3	28.4	31.7	58.3	10.0	68.3	100.0
	읍/면	92	3.8	40.7	44.5	44.9	10.6	55.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4	29.8	34.2	53.5	12.3	65.8	100.0
	중도	557	2.0	28.4	30.4	60.7	8.9	69.6	100.0
	보수적	235	3.8	27.7	31.5	51.5	17.1	68.5	100.0
종교별	불교	214	3.0	26.4	29.4	55.8	14.9	70.6	100.0
	기독교	242	2.7	31.7	34.4	57.3	8.3	65.6	100.0
	천주교	56	4.1	31.8	36.0	51.8	12.3	64.0	100.0
	종교없음	654	3.5	28.2	31.7	56.7	11.6	68.3	100.0
	무응답	34	0.0	27.4	27.4	58.3	14.2	72.6	100.0

표32-4.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2	54.8	65.0	31.4	3.7	35.0	100.0
성별	남자	607	10.5	54.2	64.6	31.6	3.7	35.4	100.0
	여자	593	10.0	55.4	65.3	31.1	3.6	34.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7	59.8	70.5	26.4	3.1	29.5	100.0
	30대	228	10.1	50.4	60.5	34.2	5.3	39.5	100.0
	40대	266	11.2	53.4	64.6	30.5	4.9	35.4	100.0
	50대	258	9.3	57.7	67.0	31.5	1.5	33.0	100.0
	60대 이상	222	9.8	52.3	62.1	34.3	3.5	37.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0.1	49.2	59.3	38.4	2.3	40.7	100.0
	고졸	534	9.5	53.9	63.5	32.3	4.2	36.5	100.0
	대재 이상	532	11.0	57.3	68.4	28.2	3.5	31.6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59.1	59.1	40.9	0.0	40.9	100.0
	자영업	270	13.8	50.6	64.3	32.6	3.1	35.7	100.0
	블루 칼라	348	10.8	53.3	64.1	31.8	4.2	35.9	100.0
	화이트칼라	230	10.7	55.6	66.3	30.4	3.3	33.7	100.0
	전업 주부	216	6.5	57.6	64.1	33.0	2.9	35.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8.0	62.5	70.4	23.3	6.3	29.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3	45.3	54.6	41.0	4.4	45.4	100.0
	200~299만원	210	10.9	51.2	62.2	31.7	6.2	37.8	100.0
	300~399만원	337	9.6	58.1	67.7	29.2	3.1	32.3	100.0
	400만원 이상	522	10.4	56.5	66.9	30.3	2.8	33.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9.4	53.5	62.9	33.8	3.3	37.1	100.0
	충청권	124	4.2	57.7	61.9	35.5	2.7	38.1	100.0
	호남권	117	14.3	55.5	69.8	26.5	3.7	30.2	100.0
	영남권	307	12.2	56.0	68.2	28.0	3.8	31.8	100.0
	강원	35	4.1	54.2	58.3	28.7	13.0	41.7	100.0
	제주	14	36.4	51.4	87.8	9.3	2.9	12.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8.9	56.0	64.9	31.3	3.8	35.1	100.0
	중·소도시	547	11.1	53.9	64.9	31.4	3.6	35.1	100.0
	읍/면	92	13.5	52.3	65.8	31.0	3.1	3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1.4	56.6	67.9	27.8	4.2	32.1	100.0
	중도	557	6.8	55.3	62.2	35.2	2.7	37.8	100.0
	보수적	235	16.3	50.3	66.5	28.5	5.0	33.5	100.0
종교별	불교	214	7.7	55.1	62.8	34.4	2.8	37.2	100.0
	기독교	242	6.9	63.7	70.7	25.5	3.9	29.3	100.0
	천주교	56	10.2	50.7	60.9	32.7	6.5	39.1	100.0
	종교없음	654	12.3	52.0	64.2	32.4	3.4	35.8	100.0
	무응답	34	10.9	49.4	60.3	32.6	7.1	39.7	100.0

표33-1. 다문화 관련 인식 - ㉠ 다문화 포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10.7	44.1	54.8	30.6	12.7	1.9	14.6	100.0
	성별									
	남자	607	11.5	45.2	56.7	28.7	12.5	2.1	14.6	100.0
	여자	593	9.8	43.1	52.9	32.5	12.9	1.7	14.6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1	46.1	56.2	30.1	11.6	2.1	13.7	100.0
	30대	228	13.1	43.3	56.4	31.4	10.9	1.2	12.2	100.0
	40대	266	10.7	47.4	58.1	29.5	11.0	1.4	12.4	100.0
	50대	258	10.7	40.2	50.9	30.7	15.7	2.7	18.4	100.0
	60대 이상	222	8.7	43.5	52.2	31.4	14.3	2.1	16.4	100.0
	중졸 이하	131	7.4	44.8	52.2	30.1	13.8	3.9	17.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8.1	43.1	51.2	32.4	14.4	1.9	16.3	100.0
	대재 이상	532	14.1	44.8	58.9	29.0	10.6	1.4	12.0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65.7	65.7	0.0	34.3	0.0	34.3	100.0
	농/수/축산업	17	0.0	32.5	32.5	39.5	22.3	5.7	28.0	100.0
	자영업	270	15.1	38.1	53.3	30.8	13.0	2.9	15.9	100.0
	블루 칼라	348	8.3	48.5	56.8	30.8	11.0	1.4	12.4	100.0
	화이트칼라	230	13.6	37.9	51.5	31.9	15.3	1.3	16.6	100.0
	전업 주부	216	6.4	48.7	55.1	32.5	10.3	2.0	12.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6	49.2	60.8	22.4	15.0	1.8	16.8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9.2	49.7	58.8	27.7	11.2	2.3	13.5	100.0
	200~299만원	210	10.6	47.5	58.1	27.7	10.9	3.4	14.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2.9	45.1	58.0	30.2	9.7	2.1	11.8	100.0
	400만원 이상	522	9.7	40.7	50.3	32.8	15.8	1.1	16.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10.1	46.2	56.2	28.3	14.4	1.1	15.5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10.6	30.1	40.6	46.3	11.9	1.2	13.1	100.0
	호남권	117	13.5	51.8	65.3	18.3	15.1	1.3	16.3	100.0
	영남권	307	9.1	43.6	52.7	33.9	9.8	3.5	13.3	100.0
	강원	35	21.7	32.8	54.5	30.1	8.6	6.8	15.4	100.0
	제주	14	22.0	55.1	77.2	19.8	3.0	0.0	3.0	100.0
	대도시	561	13.1	44.4	57.5	27.2	13.0	2.3	15.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7.5	43.8	51.3	33.9	13.5	1.4	14.9	100.0
	읍/면	92	14.6	44.4	59.0	31.7	6.3	3.0	9.3	100.0
	진보적	407	14.4	44.4	58.8	29.2	10.5	1.5	12.0	100.0
	중도	557	7.4	46.9	54.3	31.0	13.8	0.9	14.7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35	12.0	37.0	49.0	31.9	14.0	5.1	19.1	100.0
	불교	214	11.1	43.6	54.7	34.5	10.3	0.5	10.8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0.3	43.7	54.0	29.9	15.3	0.7	16.0	100.0
	천주교	56	13.5	44.7	58.2	35.8	4.4	1.6	6.0	100.0
	종교없음	654	10.7	44.4	55.1	28.6	13.5	2.8	16.3	100.0
	무응답	34	6.6	43.1	49.7	39.6	7.1	3.6	10.7	100.0

표33-2. 다문화 관련 인식 - ㉡ 다문화 수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6.8	27.7	34.4	40.3	22.5	2.7	25.3	100.0
	성별									
	남자	607	6.2	25.7	31.9	41.6	23.4	3.2	26.5	100.0
	여자	593	7.4	29.6	37.0	39.0	21.7	2.3	24.0	100.0
연령별	19~29세	227	6.7	30.0	36.7	35.8	24.6	2.8	27.4	100.0
	30대	228	7.9	25.3	33.1	41.1	23.0	2.7	25.7	100.0
	40대	266	6.9	25.4	32.3	42.3	21.4	3.9	25.3	100.0
	50대	258	4.6	30.7	35.2	43.5	19.1	2.1	21.2	100.0
	60대 이상	222	8.0	26.9	34.9	37.9	25.3	1.9	27.2	100.0
	중졸 이하	131	8.9	26.1	35.0	43.6	19.7	1.7	21.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6.2	29.9	36.1	40.4	21.3	2.2	23.5	100.0
	대재 이상	532	6.9	26.0	32.9	39.3	24.7	3.2	27.9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66.6	0.0	33.4	33.4	100.0
	농/수/축산업	17	16.9	31.1	47.9	27.9	24.2	0.0	24.2	100.0
	자영업	270	6.6	26.0	32.6	44.4	19.4	3.6	23.1	100.0
	블루 칼라	348	8.6	27.6	36.2	43.3	18.8	1.6	20.5	100.0
	화이트칼라	230	5.4	29.7	35.1	40.1	22.6	2.2	24.8	100.0
	전업 주부	216	5.6	29.1	34.7	36.5	26.2	2.6	28.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1	25.1	30.2	31.2	34.3	4.3	38.6	100.0
	무응답	2	0.0	0.0	0.0	49.2	0.0	50.8	50.8	100.0
	200만원 미만	131	8.7	22.5	31.1	44.7	21.0	3.1	24.1	100.0
	200~299만원	210	6.3	25.9	32.2	38.6	25.7	3.5	29.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5.5	29.4	34.9	41.1	21.1	2.8	23.9	100.0
	400만원 이상	522	7.3	28.6	35.9	39.5	22.4	2.2	24.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3	6.2	26.5	32.7	40.3	25.0	2.0	27.0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3.8	33.4	37.3	47.1	14.4	1.2	15.6	100.0
	호남권	117	9.1	30.8	40.0	38.1	19.8	2.0	21.9	100.0
	영남권	307	8.6	27.7	36.3	37.3	22.7	3.8	26.5	100.0
	강원	35	2.0	15.5	17.5	50.3	21.3	10.9	32.2	100.0
	제주	14	9.1	30.2	39.3	40.5	14.0	6.2	20.2	100.0
	대도시	561	5.4	29.6	35.0	36.5	24.6	3.8	28.4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9.0	26.1	35.1	44.1	19.3	1.6	20.9	100.0
	읍/면	92	2.0	24.8	26.8	40.9	29.5	2.8	32.3	100.0
	진보적	407	6.7	28.5	35.1	37.3	24.4	3.2	27.5	100.0
	중도	557	5.0	29.0	34.1	41.7	22.2	2.0	24.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35	11.0	23.0	34.0	42.2	20.1	3.7	23.8	100.0
	불교	214	4.1	27.6	31.7	42.7	21.4	4.3	25.6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8.8	26.7	35.5	36.3	26.1	2.2	28.3	100.0
	천주교	56	0.8	20.9	21.7	51.9	22.6	3.8	26.4	100.0
	종교없음	654	7.8	28.3	36.1	41.0	20.7	2.3	22.9	100.0
	무응답	34	0.0	33.2	33.2	22.5	40.8	3.6	44.4	100.0

표33-3.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생활습관 변화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성별	전 체	1200	4.2	27.9	32.1	37.4	26.8	3.7	30.5	100.0
	남자	607	4.3	28.6	32.8	37.9	25.0	4.2	29.2	100.0
	여자	593	4.1	27.2	31.3	36.8	28.7	3.1	31.8	100.0
연령별	19~29세	227	6.0	28.5	34.5	38.6	23.6	3.3	26.9	100.0
	30대	228	3.4	27.5	30.9	41.3	24.9	2.9	27.9	100.0
	40대	266	3.6	27.0	30.6	37.0	29.2	3.2	32.4	100.0
	50대	258	3.5	28.8	32.3	32.6	29.5	5.6	35.1	100.0
	60대 이상	222	4.5	27.9	32.4	38.3	26.3	3.1	2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1	28.0	32.1	31.1	34.0	2.8	36.9	100.0
	고졸	534	4.4	30.9	35.4	35.6	25.9	3.2	29.0	100.0
	대재 이상	532	4.0	25.1	29.1	40.8	25.8	4.4	30.2	100.0
	무응답	4	0.0	0.0	0.0	34.3	65.7	0.0	65.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1.2	27.5	38.6	40.9	20.4	0.0	20.4	100.0
	자영업	270	4.9	27.5	32.4	39.2	23.2	5.2	28.3	100.0
	블루 칼라	348	3.1	28.2	31.3	37.2	28.3	3.3	31.5	100.0
	화이트칼라	230	5.0	29.3	34.4	38.0	23.8	3.8	27.7	100.0
	전업 주부	216	3.0	30.0	33.0	33.7	31.6	1.8	33.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5.4	22.0	27.4	39.8	27.6	5.2	32.8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2.8	31.9	34.7	30.3	29.8	5.2	3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5.7	21.6	27.4	42.3	26.4	4.0	30.4	100.0
	300~399만원	337	3.8	31.2	35.0	38.6	23.7	2.8	26.5	100.0
	400만원 이상	522	4.2	27.4	31.5	36.6	28.3	3.6	31.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6	32.9	35.4	34.3	27.6	2.6	30.3	100.0
	충청권	124	4.7	17.4	22.1	43.3	30.7	3.9	34.6	100.0
	호남권	117	12.1	29.7	41.8	34.8	20.2	3.1	23.4	100.0
	영남권	307	4.5	23.9	28.4	40.6	26.5	4.6	31.0	100.0
	강원	35	1.9	13.3	15.3	52.1	26.4	6.3	32.6	100.0
	제주	14	3.1	15.9	19.0	35.1	22.7	23.2	45.9	100.0
	대도시	561	4.6	27.9	32.4	37.7	26.3	3.5	29.8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3.0	28.9	31.9	37.8	26.1	4.2	30.2	100.0
	읍/면	92	8.9	22.1	31.0	32.9	34.4	1.7	3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0	29.4	33.4	36.8	25.7	4.1	29.7	100.0
	중도	557	3.9	27.0	30.9	39.5	26.8	2.7	29.6	100.0
	보수적	235	5.2	27.5	32.7	33.3	28.8	5.2	34.0	100.0
종교별	불교	214	2.9	30.4	33.4	32.4	31.1	3.1	34.2	100.0
	기독교	242	4.1	30.7	34.7	35.8	26.1	3.4	29.5	100.0
	천주교	56	4.0	23.1	27.1	34.5	34.5	3.9	38.4	100.0
	종교없음	654	4.5	26.7	31.1	40.1	25.2	3.6	28.8	100.0
	무응답	34	7.1	24.7	31.9	33.7	23.7	10.8	34.4	100.0

표33-4.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동등한 대우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6.6	43.7	50.3	37.8	9.7	2.3	11.9	100.0	
	남자	607	7.1	44.6	51.8	36.8	9.5	2.0	11.5	100.0	
	여자	593	6.0	42.8	48.8	38.8	9.8	2.6	12.4	100.0	
연령별	19~29세	227	8.5	45.5	54.0	34.2	8.8	3.0	11.7	100.0	
	30대	228	7.3	43.3	50.6	38.6	9.2	1.5	10.7	100.0	
	40대	266	7.1	44.2	51.3	37.0	10.1	1.6	11.7	100.0	
	50대	258	6.2	39.5	45.6	42.4	9.1	2.9	12.0	100.0	
	60대 이상	222	3.7	46.7	50.4	36.0	11.1	2.4	13.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6	41.0	42.6	40.6	13.7	3.1	16.8	100.0	
	고졸	534	5.8	44.9	50.7	36.8	10.1	2.4	12.5	100.0	
	대재 이상	532	8.7	43.5	52.2	37.6	8.2	2.0	10.2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4.9	21.5	26.4	63.7	4.7	5.3	9.9	100.0	
	자영업	270	8.6	43.6	52.2	36.7	8.6	2.5	11.1	100.0	
	블루 칼라	348	4.8	47.4	52.2	35.2	9.9	2.7	12.6	100.0	
	화이트칼라	230	7.6	41.4	49.0	39.1	10.2	1.7	11.8	100.0	
	전업 주부	216	4.7	42.3	47.0	41.5	9.7	1.9	11.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9.2	44.4	53.6	33.0	11.2	2.2	13.3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8	41.4	45.2	28.4	21.6	4.7	26.3	100.0
		200~299만원	210	6.6	45.3	51.8	37.1	6.2	4.9	11.1	100.0
300~399만원		337	7.5	44.3	51.8	39.4	7.6	1.2	8.8	100.0	
400만원 이상		522	6.7	43.2	49.9	39.4	9.4	1.4	10.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9	43.3	48.1	39.7	10.1	2.0	12.2	100.0	
	충청권	124	5.3	47.7	53.0	37.0	9.3	0.7	10.0	100.0	
	호남권	117	13.7	52.0	65.7	24.5	9.9	0.0	9.9	100.0	
	영남권	307	3.7	42.1	45.8	41.7	8.3	4.2	12.4	100.0	
	강원	35	24.1	30.0	54.0	26.6	15.1	4.3	19.3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50.4	27.9	78.3	15.7	6.0	0.0	6.0	100.0	
	대도시	561	6.8	47.0	53.8	35.2	7.8	3.2	11.0	100.0	
	중·소도시	547	6.3	41.0	47.2	40.3	11.4	1.0	12.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7.1	40.2	47.3	38.3	10.2	4.2	14.4	100.0	
	진보적	407	8.1	46.2	54.3	35.8	8.0	1.9	9.9	100.0	
	중도	557	5.2	42.9	48.1	41.0	9.9	0.9	10.9	100.0	
	보수적	235	7.2	41.3	48.5	33.5	11.8	6.1	17.9	100.0	
종교별	불교	214	4.8	43.4	48.2	41.5	8.6	1.7	10.4	100.0	
	기독교	242	7.2	47.7	54.9	33.8	9.6	1.7	11.3	100.0	
	천주교	56	7.5	55.0	62.5	26.0	9.7	1.7	11.5	100.0	
	종교없음	654	7.2	40.8	48.0	40.1	10.2	1.7	11.9	100.0	
	무응답	34	0.0	54.4	54.4	17.6	6.5	21.6	28.0	100.0	

표34.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74.1	8.3	11.3	5.0	1.1	0.3	100.0
	남자	607	72.7	8.6	11.9	5.3	1.0	0.5	100.0
	여자	593	75.5	7.9	10.7	4.6	1.2	0.1	100.0
연령별	19~29세	227	71.3	13.8	9.7	3.3	2.0	0.0	100.0
	30대	228	71.7	9.8	11.8	5.1	1.1	0.5	100.0
	40대	266	74.6	7.6	11.3	4.8	1.1	0.6	100.0
	50대	258	76.1	6.3	9.7	7.1	0.5	0.3	100.0
	60대 이상	222	76.4	4.0	14.4	4.2	1.0	0.0	100.0
	중졸 이하	131	77.1	4.8	13.9	2.6	1.6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75.6	7.9	9.6	5.3	1.2	0.4	100.0
	대재 이상	532	71.6	9.5	12.6	5.2	0.8	0.3	10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80.4	0.0	7.4	7.3	0.0	4.9	100.0
	자영업	270	76.0	4.8	13.3	4.5	0.4	1.0	100.0
	블루 칼라	348	73.0	10.3	10.4	5.7	0.6	0.0	100.0
	화이트칼라	230	75.2	7.0	11.0	5.8	1.0	0.0	100.0
	전업 주부	216	74.6	7.4	11.0	4.2	2.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8.1	15.6	11.6	3.3	1.4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9.7	10.6	14.3	4.8	0.6	0.0	100.0
	200~299만원	210	66.5	9.3	16.0	4.9	2.8	0.4	100.0
	300~399만원	337	74.4	6.1	12.1	5.9	0.9	0.6	100.0
	400만원 이상	522	77.9	8.7	8.2	4.4	0.7	0.1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80.2	5.0	10.8	3.4	0.4	0.2	100.0
	충청권	124	73.3	4.7	12.8	6.6	2.6	0.0	100.0
	호남권	117	60.7	8.8	18.7	8.4	1.3	2.1	100.0
	영남권	307	70.3	14.8	7.7	5.1	1.9	0.0	100.0
	강원	35	55.8	10.8	23.9	9.5	0.0	0.0	100.0
	제주	14	57.1	23.8	6.3	12.8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3.7	8.7	12.0	4.4	0.8	0.4	100.0
	중·소도시	547	73.8	8.3	11.4	4.9	1.4	0.1	100.0
	읍/면	92	77.5	5.2	7.0	8.5	0.9	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71.7	7.0	13.1	5.9	1.5	0.7	100.0
	중도	557	75.6	9.6	9.6	4.1	1.1	0.0	100.0
	보수적	235	74.4	7.1	12.5	5.2	0.4	0.3	100.0
종교별	불교	214	72.7	9.6	12.8	3.4	1.5	0.0	100.0
	기독교	242	76.0	8.9	11.2	3.1	0.8	0.0	100.0
	천주교	56	74.6	7.6	9.6	8.1	0.0	0.0	100.0
	종교없음	654	74.0	7.7	10.5	6.0	1.2	0.6	100.0
	무응답	34	68.4	7.3	20.8	3.6	0.0	0.0	100.0

표35.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4.9	7.1	63.7	22.7	1.6	100.0
	남자	607	3.8	7.8	63.8	23.4	1.2	100.0
	여자	593	5.9	6.5	63.7	21.9	2.0	100.0
연령별	19~29세	227	3.7	7.2	66.3	21.0	1.8	100.0
	30대	228	7.8	8.3	57.4	25.2	1.4	100.0
	40대	266	3.9	5.9	63.6	25.5	1.1	100.0
	50대	258	5.0	7.4	64.0	22.0	1.6	100.0
	60대 이상	222	4.3	6.9	67.5	19.3	2.0	100.0
	중졸 이하	131	4.7	8.4	62.6	21.7	2.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5.3	6.6	65.7	21.3	1.1	100.0
	대재 이상	532	4.6	7.4	61.8	24.5	1.7	100.0
	무응답	4	0.0	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0.7	71.6	17.8	0.0	100.0
	자영업	270	6.0	5.6	62.9	24.0	1.5	100.0
	블루 칼라	348	4.6	8.9	63.8	21.7	1.1	100.0
	화이트칼라	230	5.1	6.7	64.5	22.3	1.4	100.0
	전업 주부	216	4.6	6.0	64.1	22.8	2.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1	7.9	61.5	24.4	2.1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7	7.5	66.1	19.4	2.2	100.0
	200~299만원	210	6.2	7.3	69.5	14.9	2.0	100.0
	300~399만원	337	5.2	8.0	60.8	25.0	0.9	100.0
	400만원 이상	522	4.2	6.4	62.6	25.1	1.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7	4.0	68.9	21.5	0.0	100.0
	충청권	124	7.2	12.6	49.0	30.1	1.1	100.0
	호남권	117	5.6	6.0	58.1	27.0	3.2	100.0
	영남권	307	1.9	9.2	64.3	20.6	4.0	100.0
	강원	35	2.1	28.1	43.7	23.7	2.3	100.0
	제주	14	15.6	6.0	58.0	16.6	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5	7.3	63.7	21.9	1.6	100.0
	중·소도시	547	4.2	6.6	65.6	22.2	1.3	100.0
	읍/면	92	4.8	8.9	52.8	30.8	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6	6.9	61.2	24.0	2.3	100.0
	중도	557	5.0	7.1	63.0	24.0	0.9	100.0
	보수적	235	3.2	7.6	70.0	17.3	1.8	100.0
종교별	불교	214	4.5	5.0	65.6	22.5	2.4	100.0
	기독교	242	4.2	6.7	62.8	24.5	1.8	100.0
	천주교	56	8.6	5.7	55.4	28.6	1.7	100.0
	종교없음	654	4.6	8.3	64.3	21.5	1.3	100.0
	무응답	34	10.9	2.3	61.6	25.2	0.0	100.0

표36.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계
			%	%	%	%	%
전 체		1200	45.3	17.8	13.5	23.4	100.0
성별	남자	607	46.8	16.0	14.3	22.9	100.0
	여자	593	43.8	19.6	12.6	23.9	100.0
연령별	19~29세	227	32.6	18.1	16.9	32.5	100.0
	30대	228	40.6	21.2	14.7	23.5	100.0
	40대	266	51.1	13.4	11.1	24.3	100.0
	50대	258	50.5	17.0	12.3	20.2	100.0
	60대 이상	222	50.0	20.1	13.0	1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5.4	29.9	9.8	14.9	100.0
	고졸	534	47.7	14.7	14.0	23.5	100.0
	대재 이상	532	42.5	18.0	13.9	25.6	100.0
직업별	무응답	4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47.2	42.8	5.3	4.7	100.0
	자영업	270	48.3	16.4	12.2	23.1	100.0
	블루 칼라	348	44.5	17.6	14.5	23.3	100.0
	화이트칼라	230	43.0	15.4	15.6	26.0	100.0
	전업 주부	216	48.0	20.4	10.8	20.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8.5	18.0	15.7	27.7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1.2	26.9	12.0	19.9	100.0
	200~299만원	210	49.0	21.5	12.4	17.1	100.0
	300~399만원	337	44.7	17.1	14.1	24.2	100.0
	400만원 이상	522	45.3	14.5	13.9	26.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3.3	16.3	10.4	20.0	100.0
	충청권	124	37.6	15.0	20.5	26.9	100.0
	호남권	117	44.8	14.2	11.4	29.5	100.0
	영남권	307	34.1	23.3	16.4	26.2	100.0
	강원	35	36.6	17.3	19.6	26.5	100.0
	제주	14	42.6	16.1	21.6	19.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8.6	15.7	11.8	23.8	100.0
	중·소도시	547	40.2	21.0	14.7	24.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54.9	11.3	16.6	17.2	100.0
	진보적	407	51.9	15.9	13.0	19.1	100.0
	중도	557	42.3	17.0	14.5	26.2	100.0
	보수적	235	40.9	22.8	11.9	24.4	100.0
종교별	불교	214	52.1	13.0	13.8	21.2	100.0
	기독교	242	45.1	19.7	16.1	19.1	100.0
	천주교	56	42.0	18.6	14.2	25.2	100.0
	종교없음	654	43.7	18.9	12.7	24.6	100.0
	무응답	34	39.1	12.6	6.5	41.7	100.0

표37-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80.5	10.7	8.1	0.5	0.1	100.0
성별	남자	607	78.8	11.9	8.5	0.8	0.0	100.0
	여자	593	82.3	9.4	7.8	0.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79.3	10.9	9.3	0.0	0.6	100.0
	30대	228	81.3	11.0	6.6	1.1	0.0	100.0
	40대	266	81.2	11.1	7.1	0.6	0.0	100.0
	50대	258	79.6	9.5	10.5	0.4	0.0	100.0
	60대 이상	222	81.4	11.1	7.0	0.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8.1	12.9	8.0	0.9	0.0	100.0
	고졸	534	79.7	11.7	8.3	0.3	0.0	100.0
	대재 이상	532	81.9	9.2	8.1	0.6	0.2	10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82.2	10.6	7.3	0.0	0.0	100.0
	자영업	270	79.6	11.1	8.5	0.8	0.0	100.0
	블루 칼라	348	78.0	11.9	9.4	0.7	0.0	100.0
	화이트칼라	230	83.9	7.8	7.0	0.7	0.6	100.0
	전업 주부	216	82.4	10.7	6.9	0.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79.4	12.2	8.5	0.0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69.3	16.5	12.9	1.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78.8	13.3	7.9	0.0	0.0	100.0
	300~399만원	337	79.6	12.3	7.0	0.7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84.6	7.2	7.8	0.5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84.2	9.9	5.5	0.2	0.2	100.0
	충청권	124	75.6	6.3	16.2	1.9	0.0	100.0
	호남권	117	66.7	8.5	23.4	1.4	0.0	100.0
	영남권	307	81.9	13.7	4.1	0.3	0.0	100.0
	강원	35	72.0	23.3	4.8	0.0	0.0	100.0
	제주	14	74.3	6.7	19.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82.3	10.4	7.0	0.3	0.0	100.0
	중·소도시	547	80.5	10.4	8.4	0.7	0.0	100.0
	읍/면	92	70.1	14.2	13.4	0.9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79.1	12.5	7.7	0.4	0.3	100.0
	중도	557	81.4	9.4	8.3	0.8	0.0	100.0
	보수적	235	81.0	10.6	8.4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82.7	11.1	6.2	0.0	0.0	100.0
	기독교	242	81.9	11.4	5.8	0.4	0.5	100.0
	천주교	56	85.0	7.6	7.4	0.0	0.0	100.0
	종교없음	654	78.9	10.6	9.6	0.8	0.0	100.0
	무응답	34	81.0	9.5	9.5	0.0	0.0	100.0

표37-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26.6	31.6	38.4	3.3	0.1	100.0
	남자	607	26.9	31.0	37.5	4.6	0.0	100.0
	여자	593	26.3	32.2	39.2	2.1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26.4	33.4	34.2	5.5	0.6	100.0
	30대	228	23.2	29.1	45.1	2.5	0.0	100.0
	40대	266	28.8	33.0	35.2	3.0	0.0	100.0
	50대	258	29.1	27.7	38.3	5.0	0.0	100.0
	60대 이상	222	24.7	35.0	39.7	0.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0.5	39.7	38.4	1.4	0.0	100.0
	고졸	534	25.4	32.0	38.2	4.5	0.0	100.0
	대재 이상	532	29.0	29.2	38.9	2.7	0.2	100.0
	무응답	4	65.7	34.3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2.5	32.0	25.5	0.0	0.0	100.0
	자영업	270	25.5	32.1	39.8	2.6	0.0	100.0
	블루 칼라	348	24.9	28.2	42.8	4.1	0.0	100.0
	화이트칼라	230	34.3	28.1	34.3	2.7	0.6	100.0
	전업 주부	216	21.7	38.1	38.3	1.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4.3	35.7	32.7	7.3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4	65.7	34.3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9.0	37.5	40.5	3.0	0.0	100.0
	200~299만원	210	25.1	38.2	36.0	0.7	0.0	100.0
	300~399만원	337	21.5	31.3	42.6	4.2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32.5	27.5	36.1	4.0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2.0	32.3	41.3	4.2	0.2	100.0
	충청권	124	44.5	14.2	40.0	1.3	0.0	100.0
	호남권	117	37.0	21.2	39.7	2.1	0.0	100.0
	영남권	307	24.0	40.8	32.0	3.3	0.0	100.0
	강원	35	27.7	38.2	34.1	0.0	0.0	100.0
	제주	14	33.2	20.6	39.9	6.3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3.7	37.0	36.0	3.4	0.0	100.0
	중·소도시	547	28.6	26.5	41.4	3.5	0.0	100.0
	읍/면	92	32.7	28.9	35.0	1.9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0.0	26.9	38.8	4.1	0.3	100.0
	중도	557	25.0	34.1	37.7	3.2	0.0	100.0
	보수적	235	24.7	33.7	39.2	2.4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31.1	33.5	33.8	1.6	0.0	100.0
	기독교	242	23.4	31.3	41.7	3.1	0.5	100.0
	천주교	56	29.0	32.4	38.5	0.0	0.0	100.0
	종교없음	654	24.9	31.2	39.4	4.5	0.0	100.0
	무응답	34	49.0	27.0	24.0	0.0	0.0	100.0

표37-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16.1	39.9	37.1	6.8	0.1	100.0
	남자	607	15.7	40.8	36.4	7.1	0.0	100.0
	여자	593	16.5	39.1	37.8	6.4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0	44.5	30.7	8.2	0.6	100.0
	30대	228	13.6	41.0	38.4	7.1	0.0	100.0
	40대	266	17.9	41.9	34.1	6.0	0.0	100.0
	50대	258	19.6	33.2	40.5	6.7	0.0	100.0
	60대 이상	222	12.3	39.7	42.0	6.0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3	41.9	37.3	9.5	0.0	100.0
	고졸	534	14.8	38.4	40.9	5.9	0.0	100.0
	대재 이상	532	18.7	40.8	33.2	7.0	0.2	100.0
	무응답	4	0.0	65.7	34.3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7.8	29.5	32.7	0.0	0.0	100.0
	자영업	270	16.5	36.8	38.5	8.2	0.0	100.0
	블루 칼라	348	14.6	39.7	38.3	7.3	0.0	100.0
	화이트칼라	230	20.7	37.5	36.0	5.3	0.6	100.0
	전업 주부	216	10.2	43.0	41.8	5.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8.4	47.2	25.0	9.3	0.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무응답	4	0.0	65.7	34.3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3.2	38.5	40.4	7.9	0.0	100.0
	200~299만원	210	18.4	47.3	28.3	6.1	0.0	100.0
	300~399만원	337	14.9	37.1	40.8	6.8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16.7	39.1	37.5	6.8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5	45.9	37.8	5.5	0.2	100.0
	충청권	124	18.5	36.7	37.9	6.9	0.0	100.0
	호남권	117	32.2	24.8	36.4	6.6	0.0	100.0
	영남권	307	19.7	36.9	34.1	9.3	0.0	100.0
	강원	35	12.5	25.3	55.7	6.4	0.0	100.0
	제주	14	29.4	40.0	24.5	6.1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2.7	44.8	34.8	7.7	0.0	100.0
	중·소도시	547	19.5	36.0	38.7	5.8	0.0	100.0
	읍/면	92	16.0	33.6	41.8	7.2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7.7	39.5	35.9	6.6	0.3	100.0
	중도	557	16.6	40.9	35.6	6.9	0.0	100.0
	보수적	235	12.2	38.5	42.6	6.8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14.0	43.9	35.1	7.0	0.0	100.0
	기독교	242	15.9	39.4	38.0	6.1	0.5	100.0
	천주교	56	16.8	45.2	33.4	4.6	0.0	100.0
	종교없음	654	16.6	37.7	38.4	7.3	0.0	100.0
	무응답	34	19.4	52.8	24.2	3.6	0.0	100.0

표37-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19.2	33.5	43.0	4.2	0.1	100.0
	남자	607	18.2	36.4	41.3	4.0	0.0	100.0
	여자	593	20.2	30.5	44.8	4.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9.4	35.3	40.6	4.2	0.6	100.0
	30대	228	14.7	31.2	48.7	5.5	0.0	100.0
	40대	266	20.5	35.7	39.6	4.2	0.0	100.0
	50대	258	23.0	29.4	44.1	3.5	0.0	100.0
	60대 이상	222	17.8	36.0	42.6	3.5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6.7	34.6	45.0	3.7	0.0	100.0
	고졸	534	19.0	34.3	42.6	4.1	0.0	100.0
	대재 이상	532	20.2	32.1	43.0	4.4	0.2	100.0
	무응답	4	0.0	65.7	34.3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0.2	9.9	39.9	0.0	0.0	100.0
	자영업	270	20.0	30.8	44.3	4.9	0.0	100.0
	블루 칼라	348	17.2	34.1	45.9	2.9	0.0	100.0
	화이트칼라	230	21.9	32.4	40.8	4.4	0.6	100.0
	전업 주부	216	14.9	35.8	44.7	4.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2.3	37.6	34.6	5.6	0.0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12.9	33.7	45.6	7.9	0.0	100.0
	200~299만원	210	21.2	32.6	41.4	4.9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7.2	29.2	49.6	3.6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21.4	36.4	38.9	3.3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1.6	40.0	45.9	2.3	0.2	100.0
	충청권	124	23.0	33.5	40.0	3.5	0.0	100.0
	호남권	117	39.1	19.2	40.4	1.3	0.0	100.0
	영남권	307	23.5	28.3	38.9	9.3	0.0	100.0
	강원	35	23.5	21.5	50.2	4.7	0.0	100.0
	제주	14	43.6	13.3	43.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1	32.9	48.6	4.4	0.0	100.0
	중·소도시	547	24.2	33.3	39.5	3.1	0.0	100.0
	읍/면	92	20.7	38.0	30.6	9.3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3.3	32.8	38.1	5.4	0.3	100.0
	중도	557	17.3	35.4	43.6	3.7	0.0	100.0
	보수적	235	16.6	30.2	50.2	3.1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19.5	36.7	39.9	3.9	0.0	100.0
	기독교	242	17.8	34.5	43.3	3.9	0.5	100.0
	천주교	56	23.4	35.7	35.7	5.2	0.0	100.0
	종교없음	654	19.4	32.0	44.1	4.5	0.0	100.0
	무응답	34	16.5	30.6	53.0	0.0	0.0	100.0

표38-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67.8	3.4	26.2	2.7	100.0
	남자	607	68.0	2.4	27.0	2.6	100.0
	여자	593	67.5	4.4	25.4	2.7	100.0
연령별	19~29세	227	70.2	1.1	26.0	2.7	100.0
	30대	228	64.4	4.0	27.6	4.0	100.0
	40대	266	64.0	4.4	30.0	1.7	100.0
	50대	258	72.0	3.1	22.7	2.2	100.0
	60대 이상	222	68.4	4.1	24.4	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67.6	6.3	22.3	3.8	100.0
	고졸	534	67.3	4.5	25.7	2.5	100.0
	대재 이상	532	68.5	1.6	27.3	2.6	100.0
	무응답	4	34.3	0.0	65.7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66.9	5.3	22.3	5.5	100.0
	자영업	270	70.4	2.5	24.3	2.8	100.0
	블루 칼라	348	67.0	3.3	27.4	2.3	100.0
	화이트칼라	230	68.4	2.8	27.2	1.6	100.0
	전업 주부	216	64.0	6.8	24.8	4.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71.3	0.0	26.5	2.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66.0	6.2	23.2	4.7	100.0
	200~299만원	210	66.7	2.8	27.5	2.9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66.3	5.1	25.1	3.5	100.0
	400만원 이상	522	69.7	1.8	27.0	1.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73.1	3.3	22.8	0.8	100.0
	충청권	124	68.1	5.0	23.2	3.8	100.0
	호남권	117	46.7	0.0	50.6	2.7	100.0
	영남권	307	65.8	4.2	24.6	5.4	100.0
	강원	35	61.3	4.6	27.3	6.8	100.0
	제주	14	68.1	0.0	28.9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2.2	2.3	23.5	2.1	100.0
	중·소도시	547	65.9	4.1	27.2	2.7	100.0
	읍/면	92	51.7	5.6	36.6	6.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62.7	3.1	31.9	2.4	100.0
	중도	557	70.0	4.0	23.0	2.9	100.0
	보수적	235	71.1	2.3	23.9	2.6	100.0
종교별	불교	214	67.1	3.6	26.9	2.5	100.0
	기독교	242	67.7	4.8	24.9	2.6	100.0
	천주교	56	64.8	1.7	27.9	5.5	100.0
	종교없음	654	67.9	2.8	26.6	2.7	100.0
	무응답	34	73.8	5.9	20.3	0.0	100.0

표38-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 체	1200	1.2	53.0	39.7	6.1	100.0
성별	남자	607	0.6	52.7	40.1	6.6	100.0
	여자	593	1.8	53.2	39.3	5.6	100.0
연령별	19~29세	227	0.6	49.9	44.5	5.0	100.0
	30대	228	2.2	47.3	44.0	6.5	100.0
	40대	266	1.9	51.3	38.8	8.0	100.0
	50대	258	0.3	57.9	37.0	4.8	100.0
	60대 이상	222	1.0	58.1	34.7	6.3	100.0
	중졸 이하	131	1.9	60.3	29.5	8.3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0.9	51.5	40.3	7.4	100.0
	대재 이상	532	1.4	52.3	42.0	4.4	100.0
	무응답	4	0.0	10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0.0	41.5	40.1	18.4	100.0
직업별	자영업	270	2.1	54.9	35.6	7.4	100.0
	블루 칼라	348	1.0	51.3	41.9	5.8	100.0
	화이트칼라	230	0.8	57.2	37.4	4.7	100.0
	전업 주부	216	0.9	50.3	42.3	6.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	50.8	43.2	4.9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6	57.1	32.7	8.6	100.0
	200~299만원	210	1.1	46.3	41.9	10.7	100.0
	300~399만원	337	1.4	51.4	41.1	6.1	100.0
	400만원 이상	522	1.0	55.7	39.6	3.7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6	57.3	36.9	5.2	100.0
	충청권	124	1.5	64.6	30.5	3.5	100.0
	호남권	117	2.1	31.4	61.8	4.7	100.0
	영남권	307	1.6	47.5	41.4	9.4	100.0
	강원	35	2.5	53.4	35.2	8.8	100.0
	제주	14	3.1	61.4	32.6	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4	59.6	32.5	7.5	100.0
	중·소도시	547	1.9	48.0	45.0	5.1	100.0
	읍/면	92	2.0	42.0	52.1	3.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	52.6	39.6	5.9	100.0
	중도	557	0.9	52.8	39.3	7.0	100.0
	보수적	235	0.9	53.9	40.8	4.4	100.0
종교별	불교	214	1.4	59.6	35.2	3.9	100.0
	기독교	242	0.4	55.6	39.8	4.3	100.0
	천주교	56	0.8	49.3	38.1	11.8	100.0
	종교없음	654	1.6	50.5	41.0	7.0	100.0
	무응답	34	0.0	46.8	46.0	7.2	100.0

표38-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 체	1200	9.6	4.9	74.5	11.0	100.0
성별	남자	607	11.5	5.4	72.0	11.2	100.0
	여자	593	7.7	4.5	77.0	10.9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4	5.3	73.2	11.2	100.0
	30대	228	12.0	6.2	70.6	11.2	100.0
	40대	266	6.3	3.9	81.3	8.5	100.0
	50대	258	9.8	3.9	73.6	12.7	100.0
	60대 이상	222	10.1	5.6	72.5	11.7	100.0
	중졸 이하	131	4.2	7.0	76.9	11.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0.1	4.9	74.1	10.9	100.0
	대재 이상	532	10.5	4.3	74.2	11.0	100.0
	무응답	4	0.0	33.4	66.6	0.0	100.0
	농/수/축산업	17	7.3	5.3	87.5	0.0	100.0
직업별	자영업	270	9.7	3.0	74.7	12.6	100.0
	블루 칼라	348	11.5	5.6	74.8	8.1	100.0
	화이트칼라	230	8.9	4.5	74.2	12.5	100.0
	전업 주부	216	5.1	5.1	77.9	11.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4.2	6.8	65.6	13.4	100.0
	무응답	2	0.0	50.8	49.2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1.6	7.2	69.4	11.9	100.0
	200~299만원	210	10.7	4.5	73.8	11.0	100.0
	300~399만원	337	8.3	6.4	73.4	11.9	100.0
	400만원 이상	522	9.5	3.6	76.6	10.3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8	4.7	79.2	10.3	100.0
	충청권	124	6.5	7.6	72.5	13.4	100.0
	호남권	117	14.4	2.2	76.6	6.8	100.0
	영남권	307	14.8	4.8	68.9	11.5	100.0
	강원	35	14.9	10.8	49.8	24.6	100.0
	제주	14	33.4	3.1	54.3	9.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0	4.0	74.8	10.1	100.0
	중·소도시	547	9.2	5.0	73.0	12.8	100.0
	읍/면	92	3.8	9.7	80.6	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8	4.7	76.7	8.9	100.0
	중도	557	8.5	5.3	72.7	13.5	100.0
	보수적	235	11.9	4.3	74.8	8.9	100.0
종교별	불교	214	8.7	7.1	73.8	10.5	100.0
	기독교	242	8.0	5.0	76.8	10.2	100.0
	천주교	56	13.1	1.7	72.7	12.5	100.0
	종교없음	654	10.2	4.4	74.5	10.9	100.0
	무응답	34	10.9	5.8	63.1	20.3	100.0

표38-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2.4	20.9	62.9	13.8	100.0
성별	남자	607	2.2	21.5	62.7	13.6	100.0
	여자	593	2.5	20.2	63.2	14.0	100.0
	19~29세	227	2.0	21.9	61.3	14.8	100.0
연령별	30대	228	2.9	18.5	65.6	12.9	100.0
	40대	266	1.7	15.4	70.1	12.9	100.0
	50대	258	2.2	26.3	56.7	14.7	100.0
	60대 이상	222	3.1	22.4	60.5	1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8	22.0	59.1	14.1	100.0
	고졸	534	1.5	21.0	62.1	15.3	100.0
	대재 이상	532	2.6	20.3	64.9	12.2	100.0
	무응답	4	0.0	32.3	33.4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0.4	17.2	61.9	10.5	100.0
	자영업	270	3.1	20.8	59.7	16.5	100.0
	블루 칼라	348	2.3	20.5	67.3	10.0	100.0
	화이트칼라	230	2.0	24.0	62.4	11.6	100.0
	전업 주부	216	1.6	17.7	65.6	15.1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2	21.7	53.8	22.3	100.0
	무응답	2	0.0	49.2	50.8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2.8	25.4	53.5	18.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2.5	23.9	61.8	11.8	100.0
	300~399만원	337	1.4	21.7	64.0	12.9	100.0
	400만원 이상	522	2.9	18.0	65.0	14.2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8	20.3	66.4	12.4	100.0
	충청권	124	2.5	17.2	58.3	22.0	100.0
	호남권	117	8.5	14.0	67.1	10.4	100.0
	영남권	307	2.6	25.7	58.7	13.0	100.0
	강원	35	4.0	19.0	48.2	28.9	100.0
	제주	14	7.4	31.1	48.5	13.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	25.4	63.1	10.4	100.0
	중·소도시	547	3.3	17.6	61.1	18.0	100.0
	읍/면	92	5.0	12.5	72.2	1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8	18.6	65.6	13.0	100.0
	중도	557	1.9	20.3	61.6	16.3	100.0
	보수적	235	2.8	26.1	61.5	9.5	100.0
종교별	불교	214	2.8	26.1	57.9	13.3	100.0
	기독교	242	2.4	19.1	69.7	8.8	100.0
	천주교	56	2.3	18.5	58.2	21.0	100.0
	종교없음	654	2.4	20.7	61.9	15.0	100.0
	무응답	34	0.0	6.5	74.1	19.4	100.0

표39-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5.5	35.6	41.0	49.1	9.8	59.0	100.0
	남자	607	6.2	35.0	41.2	48.3	10.5	58.8	100.0
	여자	593	4.8	36.1	40.9	50.0	9.1	59.1	100.0
연령별	19~29세	227	3.9	37.7	41.6	48.1	10.3	58.4	100.0
	30대	228	8.2	30.5	38.8	51.1	10.1	61.2	100.0
	40대	266	4.0	33.0	37.0	54.0	9.0	63.0	100.0
	50대	258	5.5	37.5	43.0	48.5	8.6	57.0	100.0
	60대 이상	222	6.0	39.3	45.3	43.2	11.5	54.7	100.0
	중졸 이하	131	5.1	40.3	45.5	42.9	11.6	54.5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5.1	34.7	39.8	50.2	10.0	60.2	100.0
	대재 이상	532	6.0	35.2	41.2	49.5	9.3	58.8	100.0
	무응답	4	0.0	34.3	34.3	65.7	0.0	65.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0.4	30.6	41.0	59.0	0.0	59.0	100.0
	자영업	270	6.5	35.6	42.1	49.1	8.8	57.9	100.0
	블루 칼라	348	7.0	32.3	39.2	49.2	11.6	60.8	100.0
	화이트칼라	230	5.3	33.8	39.1	52.4	8.5	60.9	100.0
	전업 주부	216	2.6	40.1	42.7	46.0	11.3	57.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7	41.9	45.6	46.0	8.4	54.4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7	38.4	43.1	42.4	14.5	56.9	100.0
	200~299만원	210	7.3	39.3	46.6	46.1	7.3	53.4	100.0
	300~399만원	337	4.6	33.8	38.4	50.7	10.9	61.6	100.0
	400만원 이상	522	5.5	34.6	40.0	50.9	9.0	6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2	35.3	39.5	53.2	7.3	60.5	100.0
	충청권	124	5.5	46.6	52.1	42.3	5.6	47.9	100.0
	호남권	117	8.5	24.7	33.2	50.8	16.0	66.8	100.0
	영남권	307	6.3	36.3	42.6	41.9	15.5	57.4	100.0
	강원	35	8.6	37.5	46.1	53.9	0.0	53.9	100.0
	제주	14	9.9	18.0	28.0	68.9	3.1	72.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8	25.4	30.2	57.8	12.0	69.8	100.0
	중·소도시	547	6.0	45.9	51.9	40.0	8.2	48.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6.8	36.0	42.8	50.9	6.3	57.2	100.0
	진보적	407	5.3	31.0	36.4	53.7	9.9	63.6	100.0
	중도	557	4.9	37.3	42.3	47.7	10.0	57.7	100.0
	보수적	235	7.0	39.2	46.2	44.7	9.1	53.8	100.0
종교별	불교	214	2.9	42.9	45.8	43.6	10.7	54.2	100.0
	기독교	242	7.4	37.2	44.6	50.1	5.2	55.4	100.0
	천주교	56	6.0	29.7	35.7	55.9	8.4	64.3	100.0
	종교없음	654	5.5	33.8	39.3	49.4	11.4	60.7	100.0
	무응답	34	6.6	21.4	27.9	61.9	10.2	72.1	100.0

표39-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	13.1	14.1	63.3	22.6	85.9	100.0
	남자	607	1.1	13.1	14.1	63.7	22.2	85.9	100.0
	여자	593	0.9	13.1	14.0	63.0	23.1	86.0	100.0
연령별	19~29세	227	0.8	10.1	10.9	65.3	23.8	89.1	100.0
	30대	228	1.5	14.6	16.1	60.1	23.8	83.9	100.0
	40대	266	1.2	14.4	15.5	62.4	22.1	84.5	100.0
	50대	258	1.0	13.9	14.9	64.9	20.2	85.1	100.0
	60대 이상	222	0.4	12.0	12.4	63.9	23.6	87.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7	13.4	14.1	65.7	20.2	85.9	100.0
	고졸	534	0.4	13.1	13.5	63.6	22.9	86.5	100.0
	대재 이상	532	1.7	13.1	14.8	62.2	23.1	85.2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5.1	10.4	72.6	17.0	89.6	100.0
	자영업	270	0.5	13.8	14.3	62.3	23.5	85.7	100.0
	블루 칼라	348	1.6	13.6	15.2	61.0	23.8	84.8	100.0
	화이트칼라	230	0.9	14.9	15.9	64.3	19.8	84.1	100.0
	전업 주부	216	0.4	11.2	11.7	65.2	23.2	88.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8	11.1	12.0	65.3	22.8	88.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7	8.7	9.4	69.2	21.4	90.6	100.0
	200~299만원	210	1.3	18.0	19.3	60.1	20.6	80.7	100.0
	300~399만원	337	0.9	11.0	11.9	62.8	25.3	88.1	100.0
	400만원 이상	522	1.0	13.6	14.5	63.4	22.0	85.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9.2	9.6	66.1	24.3	90.4	100.0
	충청권	124	1.4	28.8	30.2	58.5	11.2	69.8	100.0
	호남권	117	2.1	18.2	20.2	59.3	20.5	79.8	100.0
	영남권	307	1.5	11.5	13.0	59.7	27.2	87.0	100.0
	강원	35	0.0	23.2	23.2	72.7	4.2	76.8	100.0
	제주	14	3.1	9.7	12.8	75.3	12.0	87.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2	8.2	8.4	65.7	25.9	91.6	100.0
	중·소도시	547	1.3	18.9	20.2	59.3	20.5	79.8	100.0
	읍/면	92	4.0	8.3	12.3	72.6	15.1	87.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5	14.1	15.6	62.5	21.8	84.4	100.0
	중도	557	0.7	12.4	13.1	65.4	21.5	86.9	100.0
	보수적	235	0.7	12.9	13.6	59.9	26.5	86.4	100.0
	무응답	214	1.0	11.7	12.7	67.4	19.9	87.3	100.0
종교별	불교	242	0.9	11.4	12.3	66.3	21.4	87.7	100.0
	기독교	56	0.8	22.8	23.6	60.8	15.6	76.4	100.0
	천주교	654	1.1	13.5	14.6	61.7	23.7	85.4	100.0
	종교없음	34	0.0	8.9	8.9	53.2	37.9	91.1	100.0

표39-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	16.9	18.0	57.6	24.4	82.0	100.0
	남자	607	1.3	14.8	16.1	58.0	25.9	83.9	100.0
	여자	593	0.8	19.1	19.9	57.3	22.8	80.1	100.0
연령별	19~29세	227	1.4	16.0	17.4	58.2	24.4	82.6	100.0
	30대	228	1.4	20.1	21.5	53.3	25.2	78.5	100.0
	40대	266	0.5	16.8	17.3	56.9	25.8	82.7	100.0
	50대	258	1.5	15.0	16.6	61.6	21.8	83.4	100.0
	60대 이상	222	0.5	16.8	17.3	57.9	24.9	82.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20.0	20.0	51.7	28.4	80.0	100.0
	고졸	534	1.1	15.8	16.9	57.2	25.8	83.1	100.0
	대재 이상	532	1.2	17.4	18.6	60.0	21.4	81.4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0.4	10.4	61.6	28.0	89.6	100.0
	자영업	270	1.1	14.7	15.8	60.6	23.7	84.2	100.0
	블루 칼라	348	1.7	18.9	20.6	56.0	23.5	79.4	100.0
	화이트칼라	230	0.6	14.3	14.9	61.2	23.9	85.1	100.0
	전업 주부	216	0.4	18.0	18.4	55.3	26.3	81.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4	20.7	22.1	53.8	24.1	77.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0	17.9	17.9	58.4	23.7	82.1	100.0
	200~299만원	210	1.8	21.6	23.5	55.2	21.3	76.5	100.0
	300~399만원	337	0.2	16.4	16.5	55.9	27.5	83.5	100.0
	400만원 이상	522	1.6	15.2	16.8	59.5	23.8	83.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15.0	15.2	59.3	25.5	84.8	100.0
	충청권	124	1.9	15.1	17.0	69.7	13.3	83.0	100.0
	호남권	117	3.4	22.6	26.1	45.6	28.3	73.9	100.0
	영남권	307	1.3	19.1	20.4	52.8	26.9	79.6	100.0
	강원	35	0.0	21.0	21.0	61.5	17.5	79.0	100.0
	제주	14	6.8	9.5	16.3	77.7	6.0	8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4	17.3	17.7	56.5	25.8	82.3	100.0
	중·소도시	547	1.7	16.5	18.3	59.3	22.4	81.7	100.0
	읍/면	92	1.0	17.0	18.0	54.5	27.5	82.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4	17.0	18.4	56.8	24.8	81.6	100.0
	중도	557	0.8	17.1	17.9	59.6	22.5	82.1	100.0
	보수적	235	1.0	16.4	17.3	54.6	28.1	82.7	100.0
	무응답	214	1.7	18.2	19.9	59.8	20.3	80.1	100.0
종교별	불교	242	1.1	18.6	19.7	56.3	24.0	80.3	100.0
	기독교	56	2.1	24.4	26.5	56.6	16.9	73.5	100.0
	천주교	654	0.8	14.9	15.7	57.9	26.4	84.3	100.0
	종교없음	34	0.0	23.4	23.4	50.4	26.1	76.6	100.0

표39-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	13.9	14.9	66.3	18.8	85.1	100.0
	남자	607	1.0	12.9	14.0	65.1	20.9	86.0	100.0
	여자	593	0.9	14.9	15.8	67.5	16.7	84.2	100.0
연령별	19~29세	227	0.7	14.2	14.9	67.5	17.6	85.1	100.0
	30대	228	1.5	15.3	16.8	62.3	20.9	83.2	100.0
	40대	266	0.8	11.9	12.7	71.7	15.6	87.3	100.0
	50대	258	1.3	12.7	14.0	66.8	19.2	86.0	100.0
	60대 이상	222	0.4	16.1	16.5	62.1	21.4	83.5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0.7	15.5	16.2	60.7	23.1	83.8	100.0
	고졸	534	1.1	13.7	14.8	65.6	19.6	85.2	100.0
	대재 이상	532	0.9	13.9	14.7	68.1	17.1	85.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5.1	5.1	72.2	22.7	94.9	100.0
	자영업	270	0.5	14.1	14.5	66.7	18.8	85.5	100.0
	블루 칼라	348	2.1	15.1	17.3	60.5	22.3	82.7	100.0
	화이트칼라	230	0.0	13.3	13.3	70.3	16.4	86.7	100.0
	전업 주부	216	0.9	13.2	14.1	69.4	16.6	85.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8	14.1	14.9	67.6	17.5	85.1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200만원 미만	131	0.8	13.4	14.2	61.9	23.9	85.8	100.0
	200~299만원	210	0.0	17.8	17.8	63.3	18.9	82.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37	1.5	13.4	15.0	63.8	21.3	85.0	100.0
	400만원 이상	522	1.0	12.8	13.9	70.1	16.0	86.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2	9.4	9.6	73.6	16.7	90.4	100.0
	충청권	124	0.5	20.5	21.0	63.5	15.5	79.0	100.0
	호남권	117	2.7	21.0	23.7	54.7	21.6	76.3	100.0
	영남권	307	1.9	16.5	18.4	56.9	24.7	81.6	100.0
	강원	35	0.0	23.6	23.6	65.5	11.0	76.4	100.0
	제주	14	3.1	9.7	12.8	78.1	9.1	87.2	100.0
	대도시	561	0.3	10.1	10.4	70.3	19.3	89.6	100.0
	중·소도시	547	1.4	16.9	18.3	62.5	19.1	81.7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2.2	19.3	21.5	64.3	14.2	78.5	100.0
	진보적	407	1.4	16.9	18.2	66.2	15.5	81.8	100.0
	중도	557	0.6	11.7	12.3	68.4	19.3	87.7	100.0
	보수적	235	1.2	13.9	15.1	61.4	23.5	84.9	100.0
종교별	불교	214	1.3	15.4	16.7	65.1	18.2	83.3	100.0
	기독교	242	0.8	16.3	17.1	70.2	12.6	82.9	100.0
	천주교	56	0.8	15.2	16.0	69.6	14.5	84.0	100.0
	종교없음	654	1.0	12.1	13.1	65.1	21.9	86.9	100.0
	무응답	34	0.0	19.6	19.6	64.2	16.2	80.4	100.0

표40-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40.3	52.1	92.4	6.8	0.8	7.6	100.0
	남자	607	40.0	51.9	91.9	7.5	0.6	8.1	100.0
	여자	593	40.6	52.3	92.9	6.1	1.0	7.1	100.0
연령별	19~29세	227	36.3	53.6	89.8	9.3	0.8	10.2	100.0
	30대	228	38.9	52.9	91.8	6.3	1.9	8.2	100.0
	40대	266	39.4	56.3	95.6	4.4	0.0	4.4	100.0
	50대	258	40.6	52.1	92.6	6.8	0.5	7.4	100.0
	60대 이상	222	46.8	44.6	91.5	7.5	1.0	8.5	100.0
	무응답	4	34.3	33.4	67.7	32.3	0.0	32.3	100.0
교육 수준별	농/수/축산업	17	23.4	54.5	78.0	22.0	0.0	22.0	100.0
	자영업	270	45.5	50.1	95.5	4.5	0.0	4.5	100.0
	블루 칼라	348	43.9	49.7	93.6	5.1	1.3	6.4	10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30	35.5	55.6	91.1	7.5	1.4	8.9	100.0
	전업 주부	216	39.0	53.7	92.7	6.3	1.0	7.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1	53.4	86.5	13.5	0.0	13.5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200만원 미만	131	40.6	49.2	89.7	9.7	0.6	10.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31.0	62.2	93.2	6.2	0.6	6.8	100.0
	300~399만원	337	40.0	51.1	91.2	7.3	1.5	8.8	100.0
	400만원 이상	522	44.3	49.2	93.5	5.9	0.6	6.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40.6	54.5	95.1	4.3	0.6	4.9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31.8	58.6	90.4	9.0	0.6	9.6	100.0
	호남권	117	31.1	59.0	90.1	9.3	0.6	9.9	100.0
	영남권	307	47.4	43.0	90.4	8.4	1.3	9.6	100.0
	강원	35	32.8	45.5	78.4	19.1	2.5	21.6	100.0
	제주	14	45.0	45.6	90.6	9.4	0.0	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9.7	53.6	93.3	6.0	0.7	6.7	100.0
	중·소도시	547	43.8	48.8	92.6	6.4	1.0	7.4	100.0
	읍/면	92	23.1	62.1	85.2	13.7	1.0	1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7.6	53.7	91.3	7.4	1.3	8.7	100.0
	중도	557	38.0	54.4	92.4	7.0	0.6	7.6	100.0
	보수적	235	50.6	43.7	94.3	5.2	0.5	5.7	100.0
	불교	214	37.9	54.5	92.4	7.6	0.0	7.6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39.5	55.7	95.2	3.8	1.0	4.8	100.0
	천주교	56	40.8	50.6	91.4	7.0	1.6	8.6	100.0
	종교없음	654	40.5	50.8	91.3	7.8	0.9	8.7	100.0
	무응답	34	57.3	36.8	94.1	2.9	3.0	5.9	100.0

표4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8.8	53.6	82.4	15.4	2.2	17.6	100.0
성별	남자	607	29.2	53.1	82.3	15.9	1.9	17.7	100.0
	여자	593	28.4	54.1	82.5	14.9	2.6	17.5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0	58.8	81.8	16.1	2.1	18.2	100.0
	30대	228	30.6	49.9	80.4	17.0	2.6	19.6	100.0
	40대	266	29.5	54.6	84.1	13.2	2.7	15.9	100.0
	50대	258	29.7	54.1	83.8	16.0	0.3	16.2	100.0
	60대 이상	222	31.0	50.4	81.4	14.8	3.8	1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6.6	50.5	77.1	19.3	3.6	22.9	100.0
	고졸	534	31.5	51.0	82.4	15.2	2.3	17.6	100.0
	대재 이상	532	26.8	57.2	84.0	14.2	1.8	16.0	100.0
	무응답	4	0.0	34.3	34.3	65.7	0.0	65.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8.2	49.5	67.7	27.0	5.3	32.3	100.0
	자영업	270	35.5	48.7	84.2	14.8	1.0	15.8	100.0
	블루 칼라	348	32.9	52.4	85.3	12.6	2.1	14.7	100.0
	화이트칼라	230	22.6	57.2	79.9	17.0	3.1	20.1	100.0
	전업 주부	216	26.1	56.7	82.8	14.3	3.0	17.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0.4	57.5	77.8	20.1	2.0	22.2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4.8	61.9	86.7	12.0	1.3	13.3	100.0
	200~299만원	210	24.9	53.7	78.6	18.8	2.6	21.4	100.0
	300~399만원	337	30.6	50.6	81.2	15.5	3.3	18.8	100.0
	400만원 이상	522	30.2	53.4	83.6	14.8	1.6	16.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4.3	57.4	81.7	16.7	1.7	18.3	100.0
	충청권	124	29.6	60.4	90.0	9.3	0.7	10.0	100.0
	호남권	117	28.8	53.1	81.9	15.5	2.6	18.1	100.0
	영남권	307	36.7	44.7	81.4	15.4	3.2	18.6	100.0
	강원	35	28.1	52.3	80.3	10.9	8.7	19.7	100.0
	제주	14	45.0	32.3	77.3	22.7	0.0	22.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7.6	54.4	81.9	16.5	1.5	18.1	100.0
	중·소도시	547	32.1	52.5	84.6	12.8	2.6	15.4	100.0
	읍/면	92	16.1	55.7	71.9	23.5	4.6	2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6.2	56.0	82.2	15.8	2.0	17.8	100.0
	중도	557	28.2	52.9	81.1	16.6	2.3	18.9	100.0
	보수적	235	34.8	51.1	85.8	11.8	2.3	14.2	100.0
종교별	불교	214	26.2	54.5	80.7	18.0	1.3	19.3	100.0
	기독교	242	24.4	58.7	83.1	15.6	1.3	16.9	100.0
	천주교	56	33.9	57.1	91.0	7.4	1.6	9.0	100.0
	종교없음	654	30.1	51.6	81.7	15.4	2.9	18.3	100.0
	무응답	34	42.8	44.8	87.6	9.5	3.0	12.4	100.0

표40-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6	50.5	60.1	34.4	5.5	39.9	100.0
성별	남자	607	9.7	49.5	59.2	34.8	6.0	40.8	100.0
	여자	593	9.5	51.5	61.0	34.0	5.0	39.0	100.0
연령별	19~29세	227	8.2	45.5	53.7	43.3	3.0	46.3	100.0
	30대	228	7.6	49.2	56.8	35.3	7.8	43.2	100.0
	40대	266	11.1	54.5	65.6	28.1	6.3	34.4	100.0
	50대	258	9.6	51.8	61.4	34.2	4.3	38.6	100.0
	60대 이상	222	11.3	50.4	61.7	32.3	6.0	38.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9	49.9	57.8	36.6	5.6	42.2	100.0
	고졸	534	10.1	51.5	61.6	30.9	7.5	38.4	100.0
	대재 이상	532	9.6	49.9	59.5	37.0	3.4	40.5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1.0	51.2	62.1	37.9	0.0	37.9	100.0
	자영업	270	11.4	48.8	60.2	33.7	6.0	39.8	100.0
	블루 칼라	348	10.0	55.8	65.9	28.0	6.1	34.1	100.0
	화이트칼라	230	9.7	45.5	55.3	38.4	6.3	44.7	100.0
	전업 주부	216	6.8	54.5	61.3	34.6	4.2	38.7	100.0
	학생/무직/기타	116	9.2	41.4	50.5	45.4	4.1	49.5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8.1	55.6	63.7	30.4	5.9	36.3	100.0
	200~299만원	210	11.0	48.7	59.7	34.4	5.9	40.3	100.0
	300~399만원	337	6.5	53.9	60.4	33.5	6.1	39.6	100.0
	400만원 이상	522	11.5	47.6	59.0	36.1	4.8	41.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5	48.2	53.7	39.5	6.8	46.3	100.0
	충청권	124	12.3	48.8	61.1	37.0	1.9	38.9	100.0
	호남권	117	16.7	47.9	64.5	31.0	4.4	35.5	100.0
	영남권	307	12.1	56.0	68.1	27.0	4.9	31.9	100.0
	강원	35	12.5	61.2	73.7	19.8	6.5	26.3	100.0
	제주	14	39.1	38.5	77.6	22.4	0.0	2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3	51.6	61.9	32.5	5.6	38.1	100.0
	중·소도시	547	9.0	50.3	59.3	35.7	5.0	40.7	100.0
	읍/면	92	9.3	44.3	53.6	38.7	7.7	46.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3	51.9	61.2	33.7	5.1	38.8	100.0
	중도	557	8.7	50.2	59.0	35.2	5.9	41.0	100.0
	보수적	235	12.3	48.5	60.8	33.9	5.3	39.2	100.0
종교별	불교	214	9.6	53.7	63.3	34.8	2.0	36.7	100.0
	기독교	242	8.7	53.1	61.8	34.8	3.4	38.2	100.0
	천주교	56	16.8	53.7	70.5	23.3	6.2	29.5	100.0
	종교없음	654	9.5	47.7	57.2	35.7	7.1	42.8	100.0
	무응답	34	6.1	59.9	66.0	23.8	10.2	34.0	100.0

표40-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2.9	51.1	64.0	31.2	4.8	36.0	100.0
성별								
남자	607	14.0	50.8	64.7	30.5	4.8	35.3	100.0
여자	593	11.9	51.4	63.3	32.0	4.7	36.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0.0	44.6	54.6	41.9	3.5	45.4	100.0
30대	228	8.8	54.5	63.3	30.9	5.9	36.7	100.0
40대	266	14.5	55.9	70.4	24.3	5.3	29.6	100.0
50대	258	15.6	48.8	64.5	31.8	3.7	35.5	100.0
60대 이상	222	15.1	51.2	66.3	28.3	5.4	3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3	49.5	60.7	33.0	6.2	39.3	100.0
고졸	534	15.2	50.6	65.7	28.0	6.3	34.3	100.0
대재 이상	532	11.2	52.4	63.6	33.5	2.9	36.4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1.0	56.4	67.4	32.6	0.0	32.6	100.0
자영업	270	18.6	50.0	68.6	26.5	4.9	31.4	100.0
블루 칼라	348	13.2	53.7	66.9	26.6	6.5	33.1	100.0
화이트칼라	230	11.3	48.4	59.6	36.1	4.2	40.4	100.0
전업 주부	216	8.6	54.9	63.5	31.9	4.5	36.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1.0	44.3	55.3	43.3	1.4	44.7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6	50.4	63.0	32.5	4.4	37.0	100.0
200~299만원	210	10.4	53.7	64.1	29.8	6.1	35.9	100.0
300~399만원	337	10.1	53.3	63.4	31.0	5.6	36.6	100.0
400만원 이상	522	15.8	48.7	64.6	31.7	3.7	35.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0	49.6	59.6	34.7	5.8	40.4	100.0
충청권	124	11.7	51.0	62.8	34.7	2.5	37.2	100.0
호남권	117	21.5	49.6	71.1	26.3	2.6	28.9	100.0
영남권	307	14.3	54.8	69.2	26.1	4.8	30.8	100.0
강원	35	16.9	54.4	71.3	24.2	4.5	28.7	100.0
제주	14	38.9	38.7	77.6	22.4	0.0	2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0.7	54.4	65.1	30.2	4.7	34.9	100.0
중·소도시	547	15.6	48.2	63.8	31.6	4.5	36.2	100.0
읍/면	92	10.5	48.0	58.5	34.9	6.5	4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3.0	51.5	64.5	30.3	5.1	35.5	100.0
중도	557	11.6	49.7	61.4	34.4	4.2	38.6	100.0
보수적	235	15.8	53.6	69.5	25.2	5.4	30.5	100.0
종교별								
불교	214	14.2	51.3	65.5	30.5	4.0	34.5	100.0
기독교	242	11.8	52.4	64.3	32.0	3.8	35.7	100.0
천주교	56	21.6	53.7	75.3	22.5	2.3	24.7	100.0
종교없음	654	12.5	50.0	62.6	31.7	5.7	37.4	100.0
무응답	34	6.1	56.2	62.3	34.7	3.0	37.7	100.0

표41.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	계
		%	%	%	%	%
전 체	1200	36.0	31.4	5.6	27.0	100.0
성별						
남자	607	35.6	31.4	4.8	28.2	100.0
여자	593	36.5	31.3	6.4	25.8	100.0
연령별						
19~29세	227	35.3	32.0	2.7	30.1	100.0
30대	228	41.8	32.2	5.1	20.9	100.0
40대	266	40.2	25.7	6.0	28.1	100.0
50대	258	32.3	33.5	9.2	25.1	100.0
60대 이상	222	30.3	34.3	4.4	3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7.6	38.9	5.7	27.7	100.0
고졸	534	34.8	32.5	5.3	27.5	100.0
대재 이상	532	39.2	28.4	5.9	26.5	100.0
무응답	4	65.7	34.3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5.0	12.7	0.0	52.3	100.0
자영업	270	30.5	35.1	6.1	28.2	100.0
블루 칼라	348	39.4	30.2	3.4	26.9	100.0
화이트칼라	230	37.3	29.2	6.7	26.8	100.0
전업 주부	216	37.0	33.6	9.3	20.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3	29.7	2.5	34.4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4.1	33.5	3.7	28.6	100.0
200~299만원	210	36.6	36.1	2.9	24.4	100.0
300~399만원	337	39.4	30.4	4.8	25.4	100.0
400만원 이상	522	34.2	29.6	7.6	28.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1.0	35.4	3.8	19.8	100.0
충청권	124	27.3	24.0	5.0	43.7	100.0
호남권	117	34.6	13.2	9.8	42.3	100.0
영남권	307	32.7	33.6	6.9	26.8	100.0
강원	35	17.9	34.4	13.2	34.5	100.0
제주	14	31.4	16.1	3.1	49.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1.7	29.5	6.0	22.8	100.0
중·소도시	547	30.3	32.5	5.5	31.7	100.0
읍/면	92	35.7	36.1	3.5	2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6.7	23.6	5.8	23.9	100.0
중도	557	28.2	39.0	6.3	26.5	100.0
보수적	235	36.3	26.7	3.5	33.5	100.0
종교별						
불교	214	38.1	33.3	5.4	23.2	100.0
기독교	242	40.6	27.1	4.6	27.7	100.0
천주교	56	36.8	21.8	6.7	34.7	100.0
종교없음	654	34.2	32.7	6.2	26.9	100.0
무응답	34	25.7	39.9	0.0	34.4	100.0

표42-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4.19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2.0	49.4	61.5	17.3	8.8	26.1	12.5	100.0
	남자	607	13.0	52.9	65.9	17.1	7.8	24.9	9.1	100.0
	여자	593	11.0	45.8	56.9	17.5	9.8	27.3	15.9	100.0
연령별	19~29세	227	9.7	44.9	54.6	19.2	6.2	25.3	20.0	100.0
	30대	228	14.3	45.9	60.2	16.7	10.5	27.2	12.6	100.0
	40대	266	13.8	53.1	66.9	14.9	7.0	21.9	11.2	100.0
	50대	258	12.1	51.9	63.9	18.2	10.5	28.7	7.4	100.0
	60대 이상	222	10.0	50.3	60.3	17.9	9.8	27.7	1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5	47.6	55.1	17.7	13.8	31.4	13.5	100.0
	고졸	534	10.9	49.4	60.3	18.8	8.8	27.6	12.1	100.0
	대재 이상	532	14.2	50.0	64.1	15.9	7.6	23.4	12.4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4.3	67.7	0.0	0.0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24.4	23.6	48.1	34.0	7.4	41.4	10.5	100.0
	자영업	270	16.2	50.6	66.8	18.9	8.0	27.0	6.2	100.0
	블루 칼라	348	8.6	49.8	58.4	18.1	9.3	27.4	14.2	100.0
	화이트칼라	230	15.6	55.2	70.9	13.2	7.4	20.6	8.5	100.0
	전업 주부	216	7.8	44.7	52.5	14.7	13.9	28.6	18.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0.8	47.6	58.5	21.8	2.6	24.3	17.2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8.1	44.3	52.4	21.5	12.9	34.3	13.2	100.0
	200~299만원	210	7.3	43.7	51.0	20.3	15.4	35.7	13.3	100.0
	300~399만원	337	13.2	49.2	62.5	18.2	8.5	26.7	10.9	100.0
	400만원 이상	522	14.2	53.0	67.2	14.5	5.3	19.8	13.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7	52.4	63.1	15.1	11.3	26.4	10.5	100.0
	충청권	124	7.0	56.2	63.2	19.5	4.4	23.9	12.9	100.0
	호남권	117	26.6	36.4	63.1	8.8	6.4	15.2	21.7	100.0
	영남권	307	10.3	46.3	56.6	23.9	7.4	31.3	12.1	100.0
	강원	35	17.9	43.7	61.6	16.9	4.2	21.2	17.2	100.0
	제주	14	15.3	52.1	67.4	16.6	3.1	19.7	12.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3	54.8	66.1	14.9	7.0	21.9	12.1	100.0
	중·소도시	547	11.3	48.5	59.8	18.7	10.2	28.9	11.3	100.0
	읍/면	92	21.5	21.9	43.4	24.1	11.0	35.1	2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6.0	47.4	63.4	17.3	8.9	26.2	10.4	100.0
	중도	557	8.8	51.7	60.6	16.9	8.6	25.5	13.9	100.0
	보수적	235	12.9	47.3	60.2	18.2	8.9	27.2	12.6	100.0
종교별	불교	214	13.7	44.4	58.2	19.1	8.6	27.6	14.2	100.0
	기독교	242	11.2	49.5	60.7	17.6	12.0	29.6	9.7	100.0
	천주교	56	12.9	62.0	74.8	11.5	3.9	15.4	9.8	100.0
	종교없음	654	12.2	50.4	62.7	16.5	7.6	24.1	13.3	100.0
	무응답	34	2.9	39.9	42.8	29.0	18.0	47.0	10.2	100.0

표42-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㉕ 5.16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7.1	30.3	37.4	31.4	18.5	49.9	12.7	100.0
	남자	607	7.1	32.0	39.1	33.0	18.9	51.9	9.0	100.0
	여자	593	7.1	28.6	35.7	29.7	18.1	47.7	16.6	100.0
연령별	19~29세	227	4.7	25.5	30.2	32.2	14.9	47.0	22.8	100.0
	30대	228	10.3	21.8	32.0	31.2	23.7	54.9	13.0	100.0
	40대	266	6.8	33.0	39.8	30.0	20.0	50.0	10.2	100.0
	50대	258	7.2	34.5	41.7	34.0	15.8	49.8	8.5	100.0
	60대 이상	222	6.4	36.0	42.4	29.2	18.2	47.4	1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	35.4	39.1	29.1	20.0	49.1	11.8	100.0
	고졸	534	7.0	30.9	37.9	33.9	15.4	49.2	12.8	100.0
	대재 이상	532	7.8	28.7	36.5	29.4	21.4	50.8	12.7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0.0	33.4	34.3	0.0	34.3	32.3	100.0
	농/수/축산업	17	4.9	33.6	38.5	44.2	12.7	56.8	4.7	100.0
	자영업	270	8.8	34.6	43.4	33.5	17.0	50.5	6.1	100.0
	블루 칼라	348	6.7	28.9	35.6	31.2	18.3	49.6	14.9	100.0
	화이트칼라	230	9.4	31.1	40.5	27.8	21.2	48.9	10.5	100.0
	전업 주부	216	4.3	27.5	31.8	31.0	19.8	50.8	17.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0	28.6	32.6	33.2	16.2	49.4	17.9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9	34.8	39.7	25.8	16.6	42.5	17.8	100.0
	200~299만원	210	5.1	27.5	32.6	34.2	20.4	54.6	12.8	100.0
	300~399만원	337	7.2	30.4	37.5	33.8	18.5	52.3	10.1	100.0
	400만원 이상	522	8.4	30.2	38.5	30.1	18.2	48.3	13.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6.7	29.4	36.1	31.5	19.9	51.4	12.4	100.0
	충청권	124	8.7	30.0	38.7	33.7	13.3	47.0	14.2	100.0
	호남권	117	10.6	28.8	39.4	18.3	24.0	42.3	18.3	100.0
	영남권	307	6.0	30.2	36.2	36.2	16.9	53.1	10.7	100.0
	강원	35	4.7	48.2	52.8	24.0	10.4	34.4	12.8	100.0
	제주	14	6.2	42.7	49.0	25.7	12.5	38.3	12.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4	29.1	36.5	32.1	18.7	50.8	12.7	100.0
	중·소도시	547	6.2	33.5	39.7	31.0	17.7	48.7	11.6	100.0
	읍/면	92	10.2	18.6	28.8	28.4	22.5	50.9	2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7.4	28.8	36.2	27.9	24.1	52.0	11.8	100.0
	중도	557	5.9	29.5	35.4	35.8	15.1	50.9	13.7	100.0
	보수적	235	9.2	35.0	44.2	26.7	16.8	43.6	12.2	100.0
종교별	불교	214	9.1	35.2	44.2	24.8	18.1	42.9	12.9	100.0
	기독교	242	6.0	28.5	34.5	29.7	25.5	55.3	10.2	100.0
	천주교	56	6.2	31.5	37.7	33.7	17.2	50.8	11.5	100.0
	종교없음	654	7.0	29.7	36.6	34.0	15.5	49.5	13.9	100.0
	무응답	34	5.9	23.1	29.0	30.2	30.7	60.9	10.2	100.0

표42-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10월유신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5.4	26.0	31.3	30.5	22.2	52.6	16.0	100.0
	남자	607	5.1	27.2	32.3	29.3	25.4	54.7	13.0	100.0
	여자	593	5.6	24.7	30.3	31.7	18.8	50.6	19.1	100.0
연령별	19~29세	227	3.5	24.0	27.4	26.5	17.8	44.4	28.2	100.0
	30대	228	4.4	26.4	30.7	25.4	27.9	53.4	15.9	100.0
	40대	266	7.2	26.0	33.2	28.9	24.9	53.8	13.0	100.0
	50대	258	4.9	27.5	32.3	35.5	20.4	55.9	11.8	100.0
	60대 이상	222	6.8	25.8	32.5	35.8	19.4	55.2	12.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8	30.1	33.0	29.7	22.1	51.8	15.3	100.0
	고졸	534	5.4	25.2	30.6	34.5	20.5	55.0	14.4	100.0
	대재 이상	532	5.8	25.9	31.6	26.6	24.0	50.6	17.7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0.0	33.4	34.3	0.0	34.3	32.3	100.0
	농/수/축산업	17	0.0	16.8	16.8	40.5	27.4	67.9	15.3	100.0
	자영업	270	7.1	23.3	30.3	33.4	25.0	58.4	11.2	100.0
	블루 칼라	348	3.9	29.4	33.3	28.8	22.9	51.7	15.0	100.0
	화이트칼라	230	7.4	28.7	36.0	26.1	22.8	48.9	15.1	100.0
	전업 주부	216	3.8	23.2	27.0	36.1	19.1	55.2	17.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6	23.5	28.1	26.3	17.5	43.8	28.2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2	25.3	31.5	34.5	14.1	48.6	19.8	100.0
	200~299만원	210	3.8	22.4	26.2	27.6	32.3	60.0	13.8	100.0
	300~399만원	337	4.1	28.7	32.8	33.0	21.7	54.7	12.5	100.0
	400만원 이상	522	6.6	25.8	32.4	29.1	20.2	49.3	18.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2	26.3	30.6	30.4	24.4	54.8	14.7	100.0
	충청권	124	3.4	27.7	31.1	25.1	20.4	45.5	23.4	100.0
	호남권	117	12.6	19.8	32.4	23.0	23.0	46.0	21.6	100.0
	영남권	307	5.7	26.3	32.0	35.5	19.4	54.9	13.1	100.0
	강원	35	4.2	33.0	37.2	31.3	16.8	48.1	14.7	100.0
	제주	14	6.2	22.3	28.6	34.3	9.3	43.6	27.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6.4	27.5	33.8	30.3	20.1	50.4	15.8	100.0
	중·소도시	547	3.8	26.1	29.9	31.8	24.3	56.2	13.9	100.0
	읍/면	92	9.0	15.7	24.6	23.7	21.9	45.6	29.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6.8	24.9	31.8	27.1	26.4	53.5	14.7	100.0
	중도	557	3.8	27.0	30.7	32.1	19.4	51.5	17.8	100.0
	보수적	235	6.6	25.4	32.0	32.6	21.3	53.9	14.2	100.0
종교별	불교	214	8.4	23.9	32.3	34.1	19.1	53.2	14.5	100.0
	기독교	242	4.5	27.1	31.6	30.5	25.7	56.2	12.3	100.0
	천주교	56	9.0	27.4	36.4	32.1	17.2	49.3	14.3	100.0
	종교없음	654	4.7	26.6	31.3	28.7	22.0	50.7	18.0	100.0
	무응답	34	0.0	16.0	16.0	39.1	27.6	66.6	17.3	100.0

표42-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광주민주화운동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20.4	42.6	63.0	20.7	8.1	28.8	8.2	100.0
	남자	607	21.2	43.4	64.5	20.2	7.6	27.8	7.7	100.0
	여자	593	19.5	41.9	61.4	21.2	8.6	29.9	8.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9.0	40.2	59.1	18.9	6.2	25.1	15.7	100.0
	30대	228	21.4	47.7	69.2	18.6	6.4	25.0	5.8	100.0
	40대	266	23.9	46.7	70.6	16.2	7.8	24.0	5.4	100.0
	50대	258	20.2	39.2	59.4	21.3	10.4	31.7	8.8	100.0
	60대 이상	222	16.6	39.1	55.7	29.5	9.5	38.9	5.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7	38.9	52.7	29.8	9.8	39.6	7.7	100.0
	고졸	534	19.4	41.5	60.9	20.9	10.2	31.1	8.0	100.0
	대재 이상	532	22.9	44.7	67.6	18.5	5.6	24.1	8.3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4.3	67.7	0.0	0.0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19.2	46.6	65.7	34.3	0.0	34.3	0.0	100.0
	자영업	270	25.1	42.0	67.1	18.4	10.7	29.1	3.7	100.0
	블루 칼라	348	20.9	43.5	64.4	18.7	6.1	24.8	10.8	100.0
	화이트칼라	230	21.1	45.8	66.9	19.7	7.5	27.1	5.9	100.0
	전업 주부	216	13.6	41.0	54.5	27.2	9.6	36.9	8.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8.4	38.7	57.2	20.4	8.0	28.4	14.4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5.0	41.0	56.0	22.8	11.2	34.1	9.9	100.0
	200~299만원	210	17.4	42.2	59.7	26.7	7.0	33.7	6.7	100.0
	300~399만원	337	22.5	39.7	62.2	22.6	9.4	32.0	5.8	100.0
	400만원 이상	522	21.5	45.2	66.7	16.6	6.8	23.4	9.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9.4	50.1	69.5	16.9	6.6	23.6	6.9	100.0
	충청권	124	14.5	53.2	67.7	18.6	5.3	23.9	8.4	100.0
	호남권	117	54.9	28.8	83.8	4.9	0.0	4.9	11.4	100.0
	영남권	307	12.3	28.0	40.4	34.6	15.5	50.1	9.5	100.0
	강원	35	15.4	46.2	61.6	23.1	8.8	31.9	6.5	100.0
	제주	14	15.3	52.4	67.7	23.3	0.0	23.3	9.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8.1	44.8	62.9	21.1	8.8	29.9	7.2	100.0
	중·소도시	547	20.7	42.6	63.3	21.2	7.2	28.4	8.3	100.0
	읍/면	92	32.1	29.7	61.8	15.2	9.5	24.7	1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9.0	42.6	71.6	15.0	5.8	20.8	7.6	100.0
	중도	557	16.0	43.9	59.9	22.3	9.5	31.8	8.3	100.0
	보수적	235	15.7	39.7	55.4	26.8	8.8	35.6	9.0	100.0
종교별	불교	214	16.9	36.5	53.4	26.9	12.4	39.4	7.2	100.0
	기독교	242	21.7	46.6	68.2	17.6	7.1	24.7	7.0	100.0
	천주교	56	20.4	51.0	71.4	12.6	6.2	18.8	9.8	100.0
	종교없음	654	21.0	43.0	64.0	20.1	7.1	27.1	8.9	100.0
	무응답	34	21.0	32.0	53.0	29.7	10.9	40.5	6.4	100.0

표42-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6월항쟁(1987년)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7	45.2	59.9	19.0	6.4	25.4	14.7	0.1	100.0
	남자	607	15.5	48.5	64.0	17.8	5.6	23.4	12.5	0.1	100.0
	여자	593	13.8	41.8	55.6	20.2	7.1	27.4	17.0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2	42.1	55.2	15.4	4.3	19.7	25.1	0.0	100.0
	30대	228	20.7	41.7	62.4	17.0	7.2	24.3	13.3	0.0	100.0
	40대	266	18.6	51.1	69.7	18.3	2.7	21.0	9.3	0.0	100.0
	50대	258	13.2	45.7	58.9	22.1	7.2	29.2	11.9	0.0	100.0
	60대 이상	222	7.0	44.2	51.3	21.9	11.0	33.0	15.4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8.5	35.5	44.0	23.8	15.4	39.3	16.1	0.6	100.0
	고졸	534	11.2	48.8	60.0	21.3	5.5	26.8	13.2	0.0	100.0
	대재 이상	532	19.5	44.0	63.5	15.6	5.1	20.7	15.8	0.0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4.3	67.7	0.0	0.0	0.0	32.3	0.0	100.0
	농/수/축산업	17	14.5	24.4	38.9	36.0	5.1	41.1	15.3	4.6	100.0
	자영업	270	16.9	43.2	60.1	22.2	5.5	27.7	12.2	0.0	100.0
	블루 칼라	348	14.3	51.5	65.8	15.7	4.6	20.3	14.0	0.0	100.0
	화이트칼라	230	18.5	43.8	62.3	18.1	7.0	25.1	12.6	0.0	100.0
	전업 주부	216	9.0	44.0	53.0	21.9	9.0	30.9	16.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3.0	39.7	52.7	15.6	7.9	23.5	23.8	0.0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8	41.2	48.0	22.0	12.9	34.9	16.5	0.6	100.0
	200~299만원	210	11.1	46.6	57.7	19.7	10.6	30.2	12.0	0.0	100.0
	300~399만원	337	17.1	46.6	63.8	22.4	4.0	26.4	9.9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16.5	44.7	61.2	15.6	4.6	20.2	18.5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2.4	48.7	61.1	18.0	5.7	23.7	15.3	0.0	100.0
	충청권	124	14.0	41.9	56.0	13.8	8.8	22.5	21.5	0.0	100.0
	호남권	117	42.6	31.6	74.2	8.1	0.7	8.9	16.2	0.7	100.0
	영남권	307	8.7	44.7	53.4	26.7	9.2	35.9	10.6	0.0	100.0
	강원	35	12.9	50.5	63.4	25.7	4.1	29.8	6.8	0.0	100.0
	제주	14	21.3	32.0	53.3	14.3	3.5	17.8	28.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2	45.9	60.0	22.0	3.9	25.9	14.1	0.0	100.0
	중·소도시	547	12.8	48.7	61.5	17.3	6.9	24.2	14.3	0.0	100.0
	읍/면	92	29.1	20.0	49.1	10.8	17.8	28.6	21.5	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2.7	47.2	70.0	13.0	4.7	17.7	12.4	0.0	100.0
	중도	557	11.0	43.0	54.0	22.6	7.2	29.8	16.0	0.1	100.0
	보수적	235	9.4	46.8	56.2	20.9	7.2	28.1	15.7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9.6	42.1	51.8	22.5	12.1	34.6	13.6	0.0	100.0
	기독교	242	17.1	50.8	67.9	15.3	4.5	19.8	12.4	0.0	100.0
	천주교	56	14.6	43.6	58.2	19.6	8.1	27.7	14.1	0.0	100.0
	종교없음	654	16.1	43.8	59.9	18.9	5.2	24.1	15.9	0.1	100.0
	무응답	34	2.9	52.7	55.7	23.4	3.6	27.0	17.3	0.0	100.0

표42-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남북 정상회담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1	59.1	73.2	18.2	3.5	21.7	5.1	100.0
	남자	607	14.0	61.8	75.9	16.3	3.3	19.6	4.5	100.0
	여자	593	14.3	56.3	70.5	20.2	3.7	23.8	5.7	100.0
연령별	19~29세	227	15.4	54.3	69.7	19.2	1.8	21.0	9.4	100.0
	30대	228	12.6	63.9	76.5	14.5	3.0	17.5	6.0	100.0
	40대	266	17.5	58.5	76.0	18.6	2.0	20.6	3.4	100.0
	50대	258	12.5	57.1	69.5	21.3	6.3	27.6	2.9	100.0
	60대 이상	222	12.3	62.2	74.5	16.9	4.2	21.1	4.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8	55.9	71.6	16.9	5.3	22.2	6.2	100.0
	고졸	534	12.2	58.3	70.5	21.8	3.7	25.4	4.0	100.0
	대재 이상	532	15.6	60.8	76.4	15.1	2.8	17.9	5.7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34.3	67.7	0.0	0.0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14.5	65.8	80.3	19.7	0.0	19.7	0.0	100.0
	자영업	270	15.1	60.2	75.3	16.8	5.3	22.1	2.6	100.0
	블루 칼라	348	12.5	59.2	71.7	21.1	1.7	22.8	5.5	100.0
	화이트칼라	230	18.8	59.9	78.7	13.7	3.6	17.4	3.9	100.0
	전업 주부	216	10.0	61.3	71.3	18.9	4.9	23.8	4.9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4.5	50.8	65.3	20.4	2.1	22.5	12.2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1.1	52.5	63.6	22.8	3.4	26.2	10.3	100.0
	200~299만원	210	14.8	52.0	66.8	23.1	5.3	28.4	4.8	100.0
	300~399만원	337	15.2	60.7	75.9	18.5	3.7	22.2	1.9	100.0
	400만원 이상	522	14.0	62.5	76.5	14.9	2.7	17.6	6.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2.5	60.2	72.6	18.4	4.2	22.6	4.7	100.0
	충청권	124	14.1	60.5	74.6	11.5	2.6	14.1	11.3	100.0
	호남권	117	39.2	40.4	79.6	12.7	0.7	13.4	7.1	100.0
	영남권	307	8.4	63.9	72.3	21.8	2.9	24.7	2.9	100.0
	강원	35	10.5	60.7	71.2	22.4	6.4	28.8	0.0	100.0
	제주	14	12.2	47.0	59.2	24.7	6.9	31.6	9.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0	65.4	79.3	14.8	1.6	16.5	4.2	100.0
	중·소도시	547	12.2	54.5	66.7	21.9	5.4	27.3	6.0	100.0
	읍/면	92	26.9	48.1	74.9	16.9	3.1	20.0	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6	58.6	78.2	15.1	1.7	16.7	5.1	100.0
	중도	557	10.8	58.7	69.5	21.2	4.2	25.5	5.0	100.0
	보수적	235	12.6	60.9	73.5	16.4	4.9	21.3	5.2	100.0
종교별	불교	214	12.2	61.0	73.2	19.4	3.7	23.1	3.6	100.0
	기독교	242	13.0	66.0	78.9	17.4	1.4	18.7	2.3	100.0
	천주교	56	9.1	69.8	78.8	9.4	3.0	12.3	8.8	100.0
	종교없음	654	16.1	55.2	71.3	18.5	4.1	22.6	6.2	100.0
	무응답	34	5.8	55.1	60.9	26.0	5.9	32.0	7.2	100.0

표42-7.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촛불집회 (2017년)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9.9	38.4	78.4	15.0	4.5	19.4	2.2	100.0
	남자	607	40.5	40.3	80.8	12.2	4.9	17.1	2.1	100.0
	여자	593	39.3	36.6	75.9	17.8	4.0	21.8	2.3	100.0
연령별	19~29세	227	44.9	39.8	84.7	9.2	4.0	13.2	2.1	100.0
	30대	228	46.8	37.3	84.1	11.1	1.8	12.8	3.0	100.0
	40대	266	45.8	34.7	80.5	15.7	3.0	18.7	0.8	100.0
	50대	258	33.2	41.1	74.3	16.8	6.0	22.7	3.0	100.0
	60대 이상	222	28.7	39.6	68.3	21.9	7.7	29.7	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9.1	35.0	64.1	26.0	8.6	34.6	1.3	100.0
	고졸	534	36.1	40.1	76.2	17.8	4.0	21.8	2.0	100.0
	대재 이상	532	46.3	37.9	84.2	9.5	4.0	13.5	2.3	100.0
직업별	무응답	4	67.7	0.0	67.7	0.0	0.0	0.0	32.3	100.0
	농/수/축산업	17	23.8	27.1	50.9	38.2	10.8	49.1	0.0	100.0
	자영업	270	40.3	35.3	75.6	16.7	6.8	23.4	1.0	100.0
	블루 칼라	348	44.0	39.5	83.5	11.6	4.0	15.6	0.9	100.0
	화이트칼라	230	44.1	34.8	78.9	15.1	2.3	17.4	3.7	100.0
	전업 주부	216	29.7	43.9	73.6	18.8	4.1	22.9	3.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0.0	42.2	82.2	10.7	4.4	15.1	2.7	100.0
	무응답	2	50.8	0.0	50.8	0.0	0.0	0.0	4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3.9	44.6	68.5	21.9	6.3	28.2	3.3	100.0
	200~299만원	210	36.6	33.7	70.3	21.5	5.7	27.2	2.5	100.0
	300~399만원	337	42.7	34.9	77.6	14.8	5.9	20.7	1.7	100.0
	400만원 이상	522	43.6	41.2	84.8	10.8	2.4	13.2	2.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4.7	38.6	83.4	12.3	3.7	16.0	0.6	100.0
	충청권	124	32.9	37.5	70.4	19.0	5.2	24.3	5.3	100.0
	호남권	117	70.1	22.4	92.5	2.9	1.6	4.5	3.0	100.0
	영남권	307	23.2	45.2	68.4	22.5	6.0	28.5	3.1	100.0
	강원	35	30.1	35.1	65.2	19.4	8.8	28.1	6.6	100.0
	제주	14	36.9	32.3	69.2	18.3	9.5	27.8	3.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0.4	38.6	79.0	15.1	4.2	19.3	1.6	100.0
	중·소도시	547	38.9	41.1	80.0	13.2	4.3	17.5	2.5	100.0
	읍/면	92	43.5	21.3	64.8	24.6	6.8	31.5	3.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9.5	38.7	88.3	7.6	2.6	10.2	1.6	100.0
	중도	557	36.7	39.4	76.2	17.6	4.7	22.4	1.5	100.0
	보수적	235	31.0	35.6	66.6	21.5	7.1	28.6	4.8	100.0
종교별	불교	214	30.4	39.7	70.0	18.2	7.2	25.4	4.6	100.0
	기독교	242	40.1	42.7	82.8	13.0	2.5	15.4	1.8	100.0
	천주교	56	43.8	34.8	78.6	12.4	3.9	16.2	5.2	100.0
	종교없음	654	42.6	37.5	80.1	14.5	4.2	18.7	1.2	100.0
	무응답	34	40.9	25.4	66.3	23.4	7.3	30.7	3.0	100.0

표43-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39.0	54.4	93.4	6.1	0.5	6.6	100.0
	남자	607	39.7	54.5	94.2	5.1	0.7	5.8	100.0
	여자	593	38.4	54.2	92.6	7.1	0.3	7.4	100.0
연령별	19~29세	227	38.0	54.9	92.9	6.4	0.7	7.1	100.0
	30대	228	41.1	52.4	93.5	6.1	0.4	6.5	100.0
	40대	266	39.5	54.4	93.9	5.4	0.7	6.1	100.0
	50대	258	41.9	52.2	94.1	5.9	0.0	5.9	100.0
	60대 이상	222	34.2	58.3	92.5	6.7	0.8	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0.3	50.9	91.1	8.2	0.7	8.9	100.0
	고졸	534	36.1	57.0	93.1	6.5	0.4	6.9	100.0
	대재 이상	532	41.5	52.7	94.2	5.1	0.6	5.8	100.0
	무응답	4	67.7	32.3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0.3	43.4	83.7	11.0	5.3	16.3	100.0
	자영업	270	43.0	51.1	94.1	5.6	0.3	5.9	100.0
	블루 칼라	348	36.5	57.8	94.3	4.9	0.8	5.7	100.0
	화이트칼라	230	44.7	50.3	94.9	5.1	0.0	5.1	100.0
	전업 주부	216	35.2	55.8	91.0	8.6	0.4	9.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0	59.0	92.0	7.4	0.6	8.0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4.3	52.9	87.2	12.1	0.7	12.8	100.0
	200~299만원	210	36.0	54.0	90.0	9.1	0.9	10.0	100.0
	300~399만원	337	40.4	54.1	94.5	4.5	1.0	5.5	100.0
	400만원 이상	522	40.6	55.0	95.6	4.4	0.0	4.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5.7	60.4	96.1	3.9	0.0	3.9	100.0
	충청권	124	37.1	47.2	84.3	15.0	0.7	15.7	100.0
	호남권	117	49.2	46.0	95.2	4.8	0.0	4.8	100.0
	영남권	307	42.0	50.1	92.1	6.4	1.5	7.9	100.0
	강원	35	39.4	43.2	82.6	15.4	2.0	17.4	100.0
	제주	14	49.6	50.4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2.2	54.1	96.3	3.7	0.0	3.7	100.0
	중·소도시	547	36.6	56.6	93.2	6.4	0.5	6.8	100.0
	읍/면	92	34.5	42.8	77.4	18.7	4.0	2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2.3	51.0	93.3	5.8	0.9	6.7	100.0
	중도	557	36.6	56.4	92.9	6.9	0.1	7.1	100.0
	보수적	235	39.3	55.5	94.8	4.4	0.8	5.2	100.0
종교별	불교	214	33.8	55.7	89.5	9.7	0.8	10.5	100.0
	기독교	242	40.1	56.1	96.2	3.8	0.0	3.8	100.0
	천주교	56	38.4	52.9	91.3	8.7	0.0	8.7	100.0
	종교없음	654	41.7	52.0	93.7	5.6	0.7	6.3	100.0
	무응답	34	15.1	81.3	96.4	3.6	0.0	3.6	100.0

표43-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2.5	46.8	89.3	10.3	0.5	10.7	100.0
성별	남자	607	41.0	49.0	90.0	9.2	0.7	10.0
	여자	593	43.9	44.6	88.5	11.3	0.2	11.5
연령별	19~29세	227	37.8	52.4	90.1	9.6	0.3	9.9
	30대	228	46.8	43.0	89.8	10.2	0.0	10.2
	40대	266	46.4	43.2	89.6	9.0	1.4	10.4
	50대	258	39.5	50.6	90.0	10.0	0.0	10.0
	60대 이상	222	41.5	45.1	86.6	13.0	0.4	13.4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0.2	44.3	84.5	14.8	0.7	15.5
	고졸	534	41.8	47.6	89.4	10.1	0.5	10.6
	대재 이상	532	43.8	46.5	90.3	9.4	0.3	9.7
	무응답	4	34.3	65.7	100.0	0.0	0.0	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8.1	38.3	76.3	18.4	5.3	23.7
	자영업	270	42.9	46.8	89.7	9.9	0.4	10.3
	블루 칼라	348	43.2	48.6	91.9	7.6	0.5	8.1
	화이트칼라	230	45.9	44.4	90.3	9.3	0.4	9.7
	전업 주부	216	40.0	45.5	85.4	14.6	0.0	14.6
	학생/무직/기타	116	38.5	48.9	87.3	12.1	0.6	12.7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9.6	43.0	82.6	16.0	1.4	17.4
	200~299만원	210	38.5	50.2	88.7	10.9	0.5	11.3
	300~399만원	337	45.1	42.7	87.8	11.4	0.8	12.2
	400만원 이상	522	43.1	49.0	92.1	7.9	0.0	7.9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3	43.6	46.6	90.2	9.8	0.0	9.8
	충청권	124	26.9	56.9	83.8	16.2	0.0	16.2
	호남권	117	47.4	44.3	91.7	8.3	0.0	8.3
	영남권	307	44.5	44.1	88.6	9.9	1.5	11.4
	강원	35	37.6	49.4	87.1	11.0	2.0	12.9
	제주	14	55.0	41.8	96.8	3.2	0.0	3.2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2.4	41.2	93.5	6.5	0.0	6.5
	중·소도시	547	33.2	53.2	86.4	12.9	0.7	13.6
	읍/면	92	37.3	43.2	80.4	17.5	2.0	19.6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2.4	47.8	90.2	9.4	0.5	9.8
	중도	557	40.2	47.2	87.4	12.3	0.3	12.6
	보수적	235	48.0	44.1	92.1	7.1	0.8	7.9
종교별	불교	214	39.0	48.4	87.4	12.1	0.4	12.6
	기독교	242	46.8	44.2	90.9	9.1	0.0	9.1
	천주교	56	48.7	43.3	92.0	8.0	0.0	8.0
	종교없음	654	41.7	47.4	89.1	10.2	0.7	10.9
	무응답	34	37.6	50.5	88.1	11.9	0.0	11.9

표43-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7.1	36.4	93.5	5.7	0.8	6.5	100.0
성별	남자	607	57.8	35.0	92.9	6.5	0.6	7.1
	여자	593	56.4	37.7	94.1	5.0	0.9	5.9
연령별	19~29세	227	61.2	34.6	95.8	3.5	0.7	4.2
	30대	228	63.4	31.5	95.0	4.3	0.8	5.0
	40대	266	55.7	37.3	93.1	6.2	0.7	6.9
	50대	258	54.7	36.8	91.5	7.7	0.8	8.5
	60대 이상	222	51.0	41.4	92.5	6.7	0.8	7.5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0.3	39.2	89.5	9.1	1.4	10.5
	고졸	534	55.3	37.2	92.5	6.8	0.7	7.5
	대재 이상	532	60.6	34.9	95.5	3.9	0.6	4.5
	무응답	4	67.7	32.3	100.0	0.0	0.0	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65.4	24.1	89.4	10.6	0.0	10.6
	자영업	270	53.2	39.2	92.5	7.5	0.0	7.5
	블루 칼라	348	56.6	37.4	94.1	4.4	1.6	5.9
	화이트칼라	230	66.3	30.2	96.6	3.0	0.4	3.4
	전업 주부	216	52.1	40.3	92.4	6.4	1.3	7.6
	학생/무직/기타	116	57.8	33.0	90.7	9.3	0.0	9.3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3.0	36.6	89.6	9.0	1.4	10.4
	200~299만원	210	48.7	42.1	90.8	8.3	0.9	9.2
	300~399만원	337	55.5	36.3	91.7	6.7	1.6	8.3
	400만원 이상	522	62.5	34.1	96.7	3.3	0.0	3.3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3	59.2	36.7	95.9	4.1	0.0	4.1
	충청권	124	57.0	36.3	93.3	6.7	0.0	6.7
	호남권	117	57.2	35.7	92.9	6.4	0.7	7.1
	영남권	307	54.6	35.4	89.9	7.9	2.2	10.1
	강원	35	45.6	39.5	85.2	10.4	4.5	14.8
	제주	14	56.1	40.7	96.8	3.2	0.0	3.2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8.9	37.5	96.4	3.6	0.0	3.6
	중·소도시	547	54.0	37.4	91.4	7.5	1.1	8.6
	읍/면	92	64.9	23.7	88.5	8.4	3.1	11.5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9.9	33.8	93.7	5.6	0.7	6.3
	중도	557	56.5	36.6	93.1	6.1	0.8	6.9
	보수적	235	53.8	40.3	94.0	5.3	0.7	6.0
종교별	불교	214	47.9	44.1	92.0	7.5	0.4	8.0
	기독교	242	60.4	34.0	94.4	5.2	0.4	5.6
	천주교	56	66.7	26.5	93.3	3.4	3.3	6.7
	종교없음	654	58.6	34.8	93.3	5.8	0.8	6.7
	무응답	34	47.9	52.1	100.0	0.0	0.0	0.0

표43-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23.4	49.7	73.1	26.0	1.0	26.9	100.0
	남자	607	23.6	47.2	70.9	28.3	0.8	29.1	100.0
	여자	593	23.1	52.2	75.3	23.5	1.1	24.7	100.0
연령별	19~29세	227	27.0	47.3	74.3	24.6	1.1	25.7	100.0
	30대	228	25.5	49.7	75.2	23.6	1.1	24.8	100.0
	40대	266	21.8	50.7	72.5	27.5	0.0	27.5	100.0
	50대	258	22.0	52.6	74.6	24.1	1.3	25.4	100.0
	60대 이상	222	21.0	47.6	68.6	29.9	1.5	3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1.3	43.4	64.7	33.6	1.7	35.3	100.0
	고졸	534	22.1	51.3	73.3	25.7	0.9	26.7	100.0
	대재 이상	532	25.3	49.4	74.7	24.5	0.8	25.3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26.6	49.7	76.3	23.7	0.0	23.7	100.0
	자영업	270	20.5	47.4	68.0	31.0	1.0	32.0	100.0
	블루 칼라	348	21.4	50.8	72.2	26.8	1.0	27.8	100.0
	화이트칼라	230	29.3	49.8	79.2	19.9	0.9	20.8	100.0
	전업 주부	216	21.5	53.9	75.4	23.5	1.0	24.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7.4	42.8	70.1	29.1	0.7	29.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1.0	44.7	65.7	32.0	2.3	34.3	100.0
	200~299만원	210	24.9	43.8	68.7	30.2	1.1	31.3	100.0
	300~399만원	337	22.0	48.4	70.4	28.5	1.1	29.6	100.0
	400만원 이상	522	24.2	54.3	78.5	21.0	0.5	21.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3.3	46.9	70.1	29.5	0.4	29.9	100.0
	충청권	124	32.6	55.5	88.1	11.2	0.7	11.9	100.0
	호남권	117	28.5	51.0	79.5	20.5	0.0	20.5	100.0
	영남권	307	15.3	53.8	69.2	28.4	2.5	30.8	100.0
	강원	35	32.9	39.6	72.6	25.5	1.9	27.4	100.0
	제주	14	53.7	46.3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1.0	54.7	75.7	23.4	0.9	24.3
중·소도시		547	24.3	45.7	70.0	29.3	0.7	30.0	100.0
읍/면		92	32.1	43.0	75.1	21.8	3.2	2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5.9	46.8	72.7	26.1	1.2	27.3	100.0
	중도	557	23.3	51.4	74.8	24.9	0.3	25.2	100.0
	보수적	235	19.1	50.7	69.7	28.2	2.1	30.3	100.0
종교별	불교	214	19.3	49.5	68.8	29.7	1.4	31.2	100.0
	기독교	242	24.9	50.0	74.9	24.2	0.8	25.1	100.0
	천주교	56	30.7	50.8	81.5	16.8	1.7	18.5	100.0
	종교없음	654	24.0	49.0	73.0	26.2	0.8	27.0	100.0
	무응답	34	13.9	60.8	74.8	25.2	0.0	25.2	100.0

표43-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13.9	41.5	55.4	41.5	3.1	44.6	100.0
	남자	607	15.1	41.0	56.2	40.7	3.2	43.8	100.0
	여자	593	12.6	41.9	54.6	42.4	3.0	45.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2	40.8	54.0	43.5	2.5	46.0	100.0
	30대	228	16.3	39.7	56.0	41.3	2.7	44.0	100.0
	40대	266	13.6	47.2	60.8	37.2	2.0	39.2	100.0
	50대	258	14.4	38.5	52.9	43.0	4.1	47.1	100.0
	60대 이상	222	11.9	40.6	52.4	43.3	4.3	47.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5	40.3	47.7	44.9	7.4	52.3	100.0
	고졸	534	12.3	41.6	53.9	43.0	3.2	46.1	100.0
	대재 이상	532	17.2	41.2	58.4	39.6	2.0	41.6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2.2	33.5	45.7	54.3	0.0	54.3	100.0
	자영업	270	12.0	40.4	52.3	43.7	4.0	47.7	100.0
	블루 칼라	348	10.2	45.6	55.9	41.6	2.5	44.1	100.0
	화이트칼라	230	23.9	40.9	64.8	32.0	3.2	35.2	100.0
	전업 주부	216	10.4	37.8	48.2	48.1	3.7	51.8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6.7	39.4	56.0	41.8	2.2	44.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2.4	33.5	46.0	44.0	10.0	54.0	100.0
	200~299만원	210	15.1	39.9	55.0	42.0	2.9	45.0	100.0
	300~399만원	337	13.9	39.8	53.6	42.5	3.8	46.4	100.0
	400만원 이상	522	13.8	45.1	58.9	40.1	1.0	41.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3.3	42.5	55.7	43.6	0.6	44.3	100.0
	충청권	124	20.0	50.0	69.9	26.2	3.9	30.1	100.0
	호남권	117	22.3	50.6	72.9	23.6	3.5	27.1	100.0
	영남권	307	7.7	32.3	40.0	52.2	7.8	60.0	100.0
	강원	35	22.1	39.5	61.6	36.4	2.0	38.4	100.0
	제주	14	31.2	53.4	84.6	15.4	0.0	15.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3.8	43.0	56.8	41.5	1.7	43.2	100.0
	중·소도시	547	12.9	42.6	55.4	41.2	3.4	44.6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2	20.7	25.6	46.2	43.8	9.9	53.8	100.0
	진보적	407	15.1	42.2	57.3	38.8	3.9	42.7	100.0
	중도	557	12.7	41.3	54.0	42.9	3.1	46.0	100.0
	보수적	235	14.6	40.6	55.2	43.0	1.8	44.8	100.0
종교별	불교	214	12.0	34.8	46.8	49.4	3.9	53.2	100.0
	기독교	242	16.0	42.9	58.9	39.5	1.6	41.1	100.0
	천주교	56	17.5	42.1	59.6	37.2	3.2	40.4	100.0
	종교없음	654	14.2	43.7	57.9	38.6	3.6	42.1	100.0
	무응답	34	0.0	29.0	29.0	71.0	0.0	71.0	100.0

표43-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9	41.5	52.4	44.0	3.6	47.6	100.0
성별	남자	607	12.0	41.1	53.0	43.1	3.9	47.0
	여자	593	9.9	42.0	51.8	44.9	3.2	48.2
연령별	19~29세	227	7.3	41.6	48.9	48.0	3.1	51.1
	30대	228	10.1	40.7	50.8	44.6	4.6	49.2
	40대	266	12.9	43.3	56.1	41.1	2.7	43.9
	50대	258	13.1	39.0	52.1	44.6	3.3	47.9
	60대 이상	222	10.6	43.1	53.7	42.0	4.4	46.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0	41.4	48.4	44.7	6.9	51.6
	고졸	534	10.8	36.8	47.7	49.0	3.3	52.3
	대재 이상	532	12.1	46.3	58.4	38.6	3.1	41.6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66.6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2.2	32.2	44.4	50.3	5.3	55.6
	자영업	270	8.7	43.1	51.8	43.8	4.4	48.2
	블루 칼라	348	11.0	41.9	52.9	44.3	2.8	47.1
	화이트칼라	230	15.4	42.0	57.4	39.6	3.0	42.6
	전업 주부	216	9.5	36.7	46.2	48.7	5.1	53.8
	학생/무직/기타	116	9.7	45.9	55.6	42.3	2.1	44.4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4.0	37.0	51.0	40.6	8.4	49.0
	200~299만원	210	11.3	40.7	51.9	43.6	4.5	48.1
	300~399만원	337	11.1	39.6	50.7	46.0	3.4	49.3
	400만원 이상	522	9.9	44.3	54.2	43.6	2.1	45.8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0.6	37.6	48.2	50.6	1.2	51.8
	충청권	124	16.5	54.1	70.6	28.1	1.4	29.4
	호남권	117	14.0	57.2	71.3	27.3	1.4	28.7
	영남권	307	7.0	36.2	43.2	46.8	10.1	56.8
	강원	35	17.1	46.0	63.1	32.8	4.1	36.9
	제주	14	21.9	71.3	93.2	6.8	0.0	6.8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1.4	44.1	55.5	42.1	2.4	44.5
	중·소도시	547	10.0	38.7	48.7	47.0	4.3	51.3
	읍/면	92	13.3	42.8	56.1	37.5	6.4	43.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1.5	38.9	50.4	44.8	4.8	49.6
	중도	557	8.8	43.2	52.0	44.5	3.5	48.0
	보수적	235	15.0	42.0	57.0	41.4	1.7	43.0
종교별	불교	214	10.9	39.9	50.8	45.8	3.4	49.2
	기독교	242	9.5	46.3	55.9	41.3	2.9	44.1
	천주교	56	17.5	39.0	56.5	40.1	3.4	43.5
	종교없음	654	11.1	41.3	52.4	43.7	3.9	47.6
	무응답	34	7.2	26.3	33.4	63.0	3.6	66.6

표43-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환경파괴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7.3	47.6	74.9	22.5	2.4	25.0	0.1	100.0
성별	남자	607	27.6	50.4	78.0	19.3	2.6	21.9	100.0
	여자	593	27.1	44.7	71.8	25.9	2.3	28.2	100.0
연령별	19~29세	227	29.2	45.0	74.3	22.4	3.4	25.7	100.0
	30대	228	29.5	49.0	78.5	20.0	1.6	21.5	100.0
	40대	266	29.2	47.2	76.5	22.3	1.2	23.5	100.0
	50대	258	28.5	47.4	75.8	21.2	2.6	23.8	100.0
	60대 이상	222	19.7	49.5	69.1	27.2	3.7	3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0.0	41.7	61.7	33.5	4.8	38.3	100.0
	고졸	534	24.3	51.7	76.0	21.8	2.1	23.9	100.0
	대재 이상	532	32.4	44.6	77.0	20.8	2.2	23.0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6.8	42.8	59.6	30.2	5.3	35.4	100.0
	자영업	270	21.8	50.7	72.5	25.3	2.2	27.5	100.0
	블루 칼라	348	29.3	52.1	81.4	17.3	1.3	18.6	100.0
	화이트칼라	230	35.6	42.5	78.1	19.1	2.8	21.9	100.0
	전업 주부	216	23.7	43.3	67.0	30.2	2.8	33.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6.9	44.6	71.5	23.8	4.7	28.5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3.7	40.1	63.8	27.7	8.5	36.2	100.0
	200~299만원	210	22.2	47.7	69.9	28.3	1.4	29.7	100.0
	300~399만원	337	24.8	51.9	76.7	20.6	2.7	23.3	100.0
	400만원 이상	522	32.0	46.6	78.6	20.2	1.2	21.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2.7	49.8	72.5	26.2	1.2	27.5	100.0
	충청권	124	40.7	39.0	79.7	18.3	2.0	20.3	100.0
	호남권	117	36.7	52.6	89.3	8.7	1.2	10.0	100.0
	영남권	307	25.8	44.4	70.3	24.7	5.1	29.7	100.0
	강원	35	31.0	51.8	82.8	10.7	6.4	17.2	100.0
	제주	14	52.9	47.1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7.0	50.1	77.1	22.1	0.8	22.9	100.0
	중·소도시	547	27.0	45.7	72.6	23.9	3.4	27.4	100.0
	읍/면	92	31.7	43.8	75.5	17.3	6.3	23.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32.5	46.8	79.3	17.9	2.6	20.5	100.0
	중도	557	24.0	48.4	72.4	25.6	2.0	27.6	100.0
	보수적	235	26.3	47.1	73.4	23.3	3.3	26.6	100.0
종교별	불교	214	23.5	49.7	73.1	23.5	3.4	26.9	100.0
	기독교	242	31.1	44.8	75.9	22.7	1.4	24.1	100.0
	천주교	56	42.7	39.0	81.7	15.2	3.1	18.3	100.0
	종교없음	654	26.5	48.9	75.4	21.8	2.6	24.4	100.0
	무응답	34	15.3	43.8	59.1	40.9	0.0	40.9	100.0

표43-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9.0	38.6	47.6	46.9	5.4	52.3	0.1	100.0
성별	남자	607	10.4	38.4	48.8	46.1	5.1	51.2	100.0
	여자	593	7.6	38.7	46.4	47.7	5.7	53.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1.8	37.6	49.4	44.3	6.3	50.6	100.0
	30대	228	11.7	38.3	50.0	45.6	3.8	49.4	100.0
	40대	266	8.7	37.1	45.8	47.8	6.4	54.2	100.0
	50대	258	4.5	43.3	47.9	48.0	4.1	52.1	100.0
	60대 이상	222	9.0	36.0	45.1	48.3	6.6	5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7.6	36.2	43.8	47.5	8.7	56.2	100.0
	고졸	534	7.1	39.5	46.6	48.1	5.1	53.2	100.0
	대재 이상	532	11.4	38.0	49.4	45.6	5.0	50.6	100.0
	무응답	4	0.0	66.6	66.6	33.4	0.0	33.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7.3	42.7	50.0	22.7	27.4	50.0	100.0
	자영업	270	7.4	35.5	42.9	50.0	6.7	56.7	100.0
	블루 칼라	348	6.9	42.7	49.6	48.0	2.4	50.4	100.0
	화이트칼라	230	13.3	38.9	52.2	42.4	5.3	47.8	100.0
	전업 주부	216	6.3	36.5	42.8	50.8	6.4	57.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6.2	35.6	51.8	41.6	6.7	48.2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5	38.7	48.2	41.1	10.7	51.8	100.0
	200~299만원	210	7.5	40.1	47.6	46.7	5.7	52.4	100.0
	300~399만원	337	10.2	33.9	44.0	51.3	4.3	55.6	100.0
	400만원 이상	522	8.8	41.0	49.8	45.5	4.7	5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8.8	34.8	43.6	53.4	2.8	56.2	100.0
	충청권	124	11.9	47.9	59.8	33.6	6.6	40.2	100.0
	호남권	117	11.2	52.7	64.0	33.3	2.7	36.0	100.0
	영남권	307	6.2	35.2	41.4	47.2	11.4	58.6	100.0
	강원	35	12.4	46.7	59.2	36.1	4.7	40.8	100.0
	제주	14	28.2	52.5	80.8	19.2	0.0	19.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7.2	39.8	47.0	47.9	5.1	53.0	100.0
	중·소도시	547	9.2	37.7	46.8	47.0	5.9	52.9	100.0
	읍/면	92	19.4	36.0	55.4	39.9	4.7	4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1.9	37.0	49.0	46.8	4.2	51.0	100.0
	중도	557	8.1	39.9	48.0	46.0	5.8	51.8	100.0
	보수적	235	6.1	38.0	44.2	49.1	6.7	55.8	100.0
종교별	불교	214	6.2	46.1	52.3	40.3	7.4	47.7	100.0
	기독교	242	8.6	34.5	43.1	52.2	4.1	56.4	100.0
	천주교	56	15.9	32.9	48.8	45.1	6.1	51.2	100.0
	종교없음	654	9.8	37.9	47.7	47.8	4.5	52.3	100.0
	무응답	34	3.0	42.2	45.2	36.8	18.1	54.8	100.0

표43-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㉒ 저출산/고령화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53.3	36.2	89.5	9.8	0.8	10.5	100.0
	남자	607	54.1	34.4	88.5	10.7	0.8	11.5	100.0
	여자	593	52.4	38.1	90.5	8.8	0.7	9.5	100.0
연령별	19~29세	227	49.1	41.1	90.2	9.5	0.3	9.8	100.0
	30대	228	55.1	37.0	92.2	7.4	0.4	7.8	100.0
	40대	266	54.6	35.6	90.2	9.4	0.4	9.8	100.0
	50대	258	53.1	33.7	86.8	11.7	1.4	13.2	100.0
	60대 이상	222	54.1	34.1	88.1	10.6	1.2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2.4	30.4	82.8	15.0	2.2	17.2	100.0
	고졸	534	50.9	38.1	89.0	10.1	0.9	11.0	100.0
	대재 이상	532	56.0	35.5	91.5	8.2	0.3	8.5	100.0
	무응답	4	34.3	65.7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1.9	36.0	77.9	22.1	0.0	22.1	100.0
	자영업	270	58.0	29.4	87.4	11.6	1.0	12.6	100.0
	블루 칼라	348	57.9	33.7	91.6	7.1	1.3	8.4	100.0
	화이트칼라	230	53.9	37.8	91.7	8.3	0.0	8.3	100.0
	전업 주부	216	45.1	44.5	89.6	9.6	0.9	10.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5.1	39.7	84.8	15.2	0.0	15.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2.4	30.1	82.5	16.9	0.7	17.5	100.0
	200~299만원	210	38.9	47.0	85.8	11.9	2.3	14.2	100.0
	300~399만원	337	52.9	36.2	89.1	9.9	1.0	10.9	100.0
	400만원 이상	522	59.4	33.5	92.9	7.1	0.0	7.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0.8	38.9	89.7	10.0	0.3	10.3	100.0
	충청권	124	56.5	37.2	93.6	6.4	0.0	6.4	100.0
	호남권	117	63.3	23.1	86.4	12.9	0.6	13.6	100.0
	영남권	307	52.6	36.2	88.7	9.4	1.8	11.3	100.0
	강원	35	46.1	38.3	84.4	13.6	1.9	15.6	100.0
	제주	14	78.0	18.8	96.8	3.2	0.0	3.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9.1	35.2	94.3	5.2	0.5	5.7	100.0
	중·소도시	547	45.4	38.9	84.3	14.6	1.1	15.7	100.0
	읍/면	92	64.3	26.5	90.8	9.2	0.0	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6.4	33.0	89.4	10.4	0.2	10.6	100.0
	중도	557	48.3	40.5	88.8	10.6	0.6	11.2	100.0
	보수적	235	59.6	31.7	91.3	6.8	1.9	8.7	100.0
종교별	불교	214	45.9	43.2	89.1	10.0	0.9	10.9	100.0
	기독교	242	63.6	27.1	90.7	8.9	0.4	9.3	100.0
	천주교	56	59.9	31.6	91.5	8.5	0.0	8.5	100.0
	종교없음	654	50.4	38.4	88.8	10.3	0.9	11.2	100.0
	무응답	34	69.7	23.0	92.6	7.4	0.0	7.4	100.0

표43-10.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부정부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36.8	52.7	89.5	9.9	0.6	10.5	100.0
	남자	607	38.1	50.9	89.0	10.4	0.6	11.0	100.0
	여자	593	35.5	54.6	90.1	9.3	0.6	9.9	100.0
연령별	19~29세	227	39.8	53.3	93.1	6.5	0.4	6.9	100.0
	30대	228	41.3	50.2	91.5	8.1	0.4	8.5	100.0
	40대	266	39.8	49.6	89.4	10.3	0.4	10.6	100.0
	50대	258	34.5	54.9	89.4	10.0	0.7	10.6	100.0
	60대 이상	222	28.1	56.1	84.2	14.6	1.2	15.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28.8	50.6	79.4	19.2	1.4	20.6	100.0
	고졸	534	34.5	55.4	89.8	9.3	0.8	10.2	100.0
	대재 이상	532	40.8	50.8	91.6	8.2	0.2	8.4	100.0
무응답		4	67.7	32.3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7.1	50.2	77.3	22.7	0.0	22.7	100.0
	자영업	270	32.8	56.0	88.8	10.9	0.3	11.2	100.0
	블루 칼라	348	42.8	48.7	91.4	7.5	1.1	8.6	100.0
	화이트칼라	230	41.9	50.8	92.7	7.3	0.0	7.3	100.0
	전업 주부	216	29.0	55.8	84.8	14.3	0.9	15.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3.5	56.0	89.6	9.7	0.7	10.4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0.3	48.4	78.6	20.7	0.7	21.4	100.0
	200~299만원	210	38.7	45.8	84.5	14.2	1.4	15.5	100.0
	300~399만원	337	34.8	57.0	91.7	7.5	0.8	8.3	100.0
	400만원 이상	522	39.0	53.8	92.8	7.0	0.2	7.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8.9	54.6	93.5	6.5	0.0	6.5	100.0
	충청권	124	47.0	42.5	89.5	9.8	0.7	10.5	100.0
	호남권	117	43.1	50.8	93.9	5.5	0.6	6.1	100.0
	영남권	307	23.2	57.0	80.2	18.0	1.8	19.8	100.0
	강원	35	47.8	36.6	84.4	15.6	0.0	15.6	100.0
	제주	14	71.8	28.2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0.8	61.4	92.2	7.6	0.2	7.8	100.0
	중·소도시	547	43.1	43.7	86.7	12.1	1.2	13.3	100.0
	읍/면	92	35.6	54.0	89.6	10.4	0.0	10.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5.8	47.3	93.1	6.4	0.4	6.9	100.0
	중도	557	29.8	58.2	87.9	11.8	0.3	12.1	100.0
	보수적	235	37.6	49.4	87.0	11.4	1.6	13.0	100.0
종교별	불교	214	29.6	56.6	86.2	12.5	1.3	13.8	100.0
	기독교	242	42.3	50.0	92.3	7.3	0.4	7.7	100.0
	천주교	56	41.2	49.9	91.1	8.9	0.0	8.9	100.0
	종교없음	654	37.6	52.2	89.8	9.6	0.5	10.2	100.0
	무응답	34	18.8	63.1	81.9	18.1	0.0	18.1	100.0

표44.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무응답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	28.6	30.0	61.0	8.8	69.8	0.2	100.0
	남자	607	1.6	27.8	29.4	61.7	8.7	70.4	0.2	100.0
	여자	593	1.2	29.4	30.5	60.4	8.9	69.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5	28.2	29.7	62.2	8.0	70.3	0.0	100.0
	30대	228	1.0	35.4	36.4	54.4	8.7	63.1	0.6	100.0
	40대	266	0.4	25.7	26.0	63.5	10.4	74.0	0.0	100.0
	50대	258	1.2	26.0	27.2	64.5	8.3	72.8	0.0	100.0
	60대 이상	222	3.2	28.4	31.5	59.6	8.3	67.9	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	27.4	31.1	58.6	10.2	68.9	0.0	100.0
	고졸	534	0.7	26.9	27.6	62.8	9.3	72.2	0.2	100.0
	대재 이상	532	1.5	30.5	32.0	59.8	8.0	67.7	0.2	100.0
직업별	무응답	4	0.0	34.3	34.3	65.7	0.0	65.7	0.0	100.0
	농/수/축산업	17	5.3	17.0	22.2	65.2	12.5	77.8	0.0	100.0
	자영업	270	0.5	27.3	27.8	62.8	9.4	72.2	0.0	100.0
	블루 칼라	348	1.6	30.5	32.0	59.7	8.3	68.0	0.0	100.0
	화이트칼라	230	2.1	30.1	32.2	57.0	10.8	67.8	0.0	100.0
	전업 주부	216	1.1	30.0	31.2	59.9	8.3	68.2	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	22.4	23.9	69.7	5.4	75.1	1.1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0	27.3	32.3	60.4	7.3	67.7	0.0
200~299만원	210	1.8	32.8	34.6	56.4	9.0	65.4	0.0	100.0	
300~399만원	337	1.4	25.6	27.0	62.3	10.3	72.6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0.3	29.1	29.4	62.2	8.1	70.3	0.2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수도권	603	0.2	29.3	29.5	63.7	6.4	70.1	0.4	100.0
	충청권	124	3.2	32.1	35.3	59.5	5.2	64.7	0.0	100.0
	호남권	117	0.7	37.3	38.0	52.5	9.5	62.0	0.0	100.0
	영남권	307	3.1	22.6	25.7	59.9	14.4	74.3	0.0	100.0
	강원	35	2.3	32.4	34.7	61.3	4.0	65.3	0.0	100.0
	제주	14	3.1	16.0	19.1	55.2	25.7	80.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4	27.6	28.0	61.0	10.6	71.5	0.4	100.0
	중·소도시	547	1.8	28.7	30.5	62.1	7.4	69.5	0.0	100.0
	읍/면	92	5.2	33.6	38.8	54.8	6.4	61.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9	29.6	31.5	59.2	8.9	68.2	0.3	100.0
	중도	557	0.8	30.4	31.2	61.2	7.4	68.6	0.2	100.0
	보수적	235	1.9	22.5	24.4	63.8	11.8	75.6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1.6	28.9	30.5	59.8	9.2	68.9	0.6	100.0
	기독교	242	0.0	30.3	30.3	59.1	10.0	69.1	0.5	100.0
	천주교	56	0.8	37.0	37.8	54.2	8.1	62.2	0.0	100.0
	종교없음	654	2.0	26.4	28.4	63.1	8.4	71.6	0.0	100.0
	무응답	34	0.0	40.4	40.4	53.1	6.5	59.6	0.0	100.0

표45. 한국의 경제 전망

문) ○○님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①+②	③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④+⑤	무응답	계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2.5	40.4	42.8	40.4	15.1	1.4	16.5	0.2	100.0
	남자	607	3.5	39.5	43.0	39.0	16.2	1.7	17.9	0.2	100.0
연령별	여자	593	1.4	41.3	42.7	41.9	14.0	1.2	15.2	0.2	100.0
	19~29세	227	2.8	40.5	43.3	39.3	14.0	3.4	17.4	0.0	100.0
연령별	30대	228	4.4	42.6	47.0	38.8	12.9	0.7	13.6	0.6	100.0
	40대	266	1.4	45.8	47.2	36.9	15.1	0.8	15.9	0.0	100.0
연령별	50대	258	1.4	36.1	37.6	44.0	17.5	1.0	18.4	0.0	100.0
	60대 이상	222	2.7	36.4	39.0	43.2	15.7	1.5	17.2	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36.1	40.0	39.9	19.2	0.9	20.1	0.0	100.0
	고졸	534	1.4	38.6	40.0	42.9	15.3	1.6	16.9	0.2	10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32	3.2	43.3	46.5	37.8	14.0	1.4	15.4	0.2	100.0
	무응답	4	0.0	33.4	33.4	66.6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5.3	37.8	43.1	25.0	31.9	0.0	31.9	0.0	100.0
	자영업	270	0.7	38.8	39.6	43.4	15.3	1.7	17.0	0.0	100.0
직업별	블루 칼라	348	4.1	40.5	44.6	39.8	14.1	1.5	15.6	0.0	100.0
	화이트칼라	230	3.1	40.6	43.7	38.9	15.1	2.3	17.4	0.0	100.0
직업별	전업 주부	216	1.5	43.5	45.0	41.7	12.6	0.0	12.6	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7	37.3	39.0	38.0	20.0	1.9	22.0	1.1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0.0	0.0	0.0	100.0
	200만원 미만	131	4.3	36.7	41.0	38.2	19.4	1.5	20.9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4	41.5	43.0	38.2	17.7	1.1	18.8	0.0	100.0
	300~399만원	337	2.7	40.8	43.5	40.3	14.6	1.2	15.8	0.4	10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22	2.3	40.7	42.9	41.8	13.3	1.7	15.0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2	39.8	41.1	43.7	13.2	1.6	14.9	0.4	100.0
	충청권	124	5.0	47.0	52.0	40.9	7.1	0.0	7.1	0.0	100.0
지역별	호남권	117	7.3	57.8	65.1	22.9	10.5	1.5	12.0	0.0	100.0
	영남권	307	1.7	33.0	34.7	41.1	22.9	1.3	24.2	0.0	100.0
지역별	강원	35	4.8	38.4	43.3	34.7	20.1	1.9	22.1	0.0	100.0
	제주	14	3.1	28.1	31.2	42.1	19.9	6.8	26.7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	36.3	37.6	45.0	15.6	1.4	16.9	0.4	100.0
	중·소도시	547	3.0	44.1	47.1	36.7	14.5	1.8	16.3	0.0	100.0
지역 크기	읍/면	92	6.0	43.4	49.4	34.7	15.9	0.0	15.9	0.0	100.0
	진보적	407	3.4	47.0	50.5	35.9	12.2	1.1	13.3	0.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1.6	38.7	40.3	44.1	14.5	0.8	15.4	0.2	100.0
	보수적	235	2.9	32.7	35.6	39.5	21.4	3.4	24.9	0.0	100.0
정치적 성향	불교	214	2.0	35.5	37.5	43.4	17.8	0.7	18.5	0.6	100.0
	기독교	242	2.5	47.4	49.8	35.2	12.6	1.9	14.5	0.5	100.0
종교별	천주교	56	0.8	42.6	43.4	44.0	12.6	0.0	12.6	0.0	100.0
	종교없음	654	2.9	38.8	41.6	41.0	15.8	1.5	17.3	0.0	100.0
종교별	무응답	34	0.0	48.7	48.7	40.7	7.1	3.5	10.6	0.0	100.0

표46.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자랑 스럽다	② 다소 자랑 스럽다	①+②	③ 별로 자랑 스럽지 않다	④ 전혀 자랑 스럽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1.5	63.3	74.8	22.3	3.0	25.2	100.0
	남자	607	12.2	62.1	74.3	22.6	3.1	25.7	100.0
연령별	여자	593	10.8	64.4	75.2	22.0	2.8	24.8	100.0
	19~29세	227	8.1	58.6	66.7	29.2	4.1	33.3	100.0
연령별	30대	228	10.2	60.6	70.8	25.9	3.3	29.2	100.0
	40대	266	11.0	68.8	79.7	17.2	3.1	20.3	100.0
연령별	50대	258	10.9	64.0	74.8	22.2	3.0	25.2	100.0
	60대 이상	222	17.6	63.3	81.0	17.8	1.3	1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1.9	65.9	77.8	19.1	3.1	22.2	100.0
	고졸	534	10.3	64.8	75.2	22.3	2.6	24.8	10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32	12.6	61.0	73.6	23.0	3.3	26.4	100.0
	무응답	4	0.0	66.6	66.6	33.4	0.0	33.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6.4	49.0	65.4	34.6	0.0	34.6	100.0
	자영업	270	13.2	66.2	79.4	19.2	1.4	20.6	100.0
직업별	블루 칼라	348	11.5	62.1	73.6	23.9	2.5	26.4	100.0
	화이트칼라	230	9.8	60.8	70.6	25.2	4.2	29.4	100.0
직업별	전업 주부	216	11.2	69.4	80.5	15.5	4.0	19.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0.9	56.0	66.9	29.3	3.8	33.1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100.0
	200만원 미만	131	16.3	59.0	75.3	20.8	3.9	24.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10	11.2	58.2	69.4	26.1	4.4	30.6	100.0
	300~399만원	337	11.4	63.3	74.7	22.4	2.8	25.3	10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22	10.4	66.3	76.7	21.1	2.2	23.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8.1	63.6	71.6	26.1	2.3	28.4	100.0
	충청권	124	17.0	65.4	82.3	16.3	1.4	17.7	100.0
지역별	호남권	117	22.4	65.2	87.6	12.4	0.0	12.4	100.0
	영남권	307	11.4	63.0	74.4	19.5	6.1	25.6	100.0
지역별	강원	35	11.0	47.2	58.2	39.9	1.9	41.8	100.0
	제주	14	21.1	62.3	83.5	12.3	4.3	16.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2.6	66.1	78.7	20.4	0.9	21.3	100.0
	중·소도시	547	9.6	60.0	69.6	25.5	4.8	30.4	100.0
지역 크기	읍/면	92	15.9	65.1	81.0	14.7	4.3	1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5.6	57.5	73.1	24.2	2.8	26.9	100.0
	중도	557	8.2	67.5	75.7	21.7	2.6	24.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35	12.2	63.3	75.4	20.5	4.1	24.6	100.0
	불교	214	12.3	65.7	78.1	19.1	2.8	21.9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1.9	67.2	79.2	18.4	2.5	20.8	100.0
	천주교	56	18.4	49.2	67.6	30.9	1.5	32.4	100.0
종교별	종교없음	654	10.0	62.7	72.7	23.9	3.5	27.3	100.0
	무응답	34	19.6	55.0	74.6	25.4	0.0	25.4	100.0

		1+2+3	4+5+6+7	8+9+10	계	평균
		%	%	%	%	점
성별	전 체	1.6	64.3	34.1	100.0	6.9
	남자	2.0	63.5	34.6	100.0	6.9
	여자	1.2	65.2	33.5	100.0	6.9
연령별	19~29세	2.4	69.5	28.1	100.0	6.7
	30대	0.9	66.8	32.3	100.0	6.9
	40대	2.2	63.8	34.1	100.0	6.8
	50대	1.6	65.9	32.5	100.0	6.8
	60대 이상	0.9	55.4	43.8	100.0	7.2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0.7	63.2	36.1	100.0	7.0
	고졸	1.6	64.1	34.2	100.0	6.9
	대재 이상	1.8	64.8	33.4	100.0	6.8
	무응답	0.0	67.7	32.3	100.0	6.7
직업별	농/수/축산업	5.3	74.9	19.8	100.0	6.5
	자영업	2.1	62.3	35.5	100.0	6.9
	블루 칼라	1.8	68.9	29.3	100.0	6.7
	화이트칼라	1.9	62.7	35.5	100.0	6.9
	전업 주부	0.0	60.5	39.5	100.0	7.1
	학생/무직/기타	1.9	64.5	33.6	100.0	6.9
	무응답	0.0	50.8	49.2	100.0	7.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5	56.4	42.1	100.0	7.2
	200~299만원	2.1	71.2	26.6	100.0	6.6
	300~399만원	1.9	61.6	36.4	100.0	6.9
	400만원 이상	1.2	65.2	33.5	100.0	6.9
	무응답	0.0	100.0	0.0	100.0	5.0
지역별	수도권	1.2	68.4	30.4	100.0	6.8
	충청권	0.6	54.0	45.5	100.0	7.2
	호남권	2.5	60.2	37.3	100.0	7.0
	영남권	2.2	61.6	36.2	100.0	6.8
	강원	2.2	63.5	34.3	100.0	6.8
	제주	6.6	74.8	18.6	100.0	6.0
지역 크기	대도시	1.4	64.3	34.3	100.0	6.9
	중·소도시	1.6	66.9	31.4	100.0	6.8
	읍/면	2.8	49.1	48.0	100.0	7.1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	62.2	35.0	100.0	6.9
	중도	0.4	66.3	33.3	100.0	6.9
	보수적	2.2	63.4	34.4	100.0	6.8
종교별	불교	0.7	60.7	38.6	100.0	7.0
	기독교	1.8	61.7	36.5	100.0	6.9
	천주교	2.2	66.5	31.3	100.0	6.6
	종교없음	1.9	66.0	32.1	100.0	6.8
	무응답	0.0	70.5	29.5	100.0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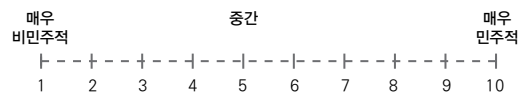


표49.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5.2	45.0	50.3	44.0	5.7	49.7	100.0
	남자	607	5.8	41.8	47.6	46.1	6.3	52.4	100.0
	여자	593	4.6	48.3	53.0	42.0	5.1	47.0	100.0
연령별	19~29세	209	5.8	51.3	57.2	38.7	4.1	42.8	100.0
	30대	237	6.3	45.4	51.6	43.0	5.4	48.4	100.0
	40대	275	3.4	42.2	45.6	48.6	5.7	54.4	100.0
	50대	261	6.8	42.8	49.6	42.2	8.2	50.4	100.0
	60대 이상	218	3.8	44.2	48.0	47.2	4.8	5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4	43.2	48.6	41.1	10.3	51.4	100.0
	고졸	599	4.6	46.2	50.8	43.2	5.9	49.2	100.0
	대재 이상	470	5.8	44.7	50.5	45.1	4.4	49.5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5	59.8	72.3	27.7	0.0	27.7	100.0
	자영업	260	3.3	47.6	50.9	41.3	7.8	49.1	100.0
	블루 칼라	341	5.6	48.7	54.2	40.6	5.1	45.8	100.0
	화이트칼라	230	7.1	37.4	44.5	50.2	5.3	55.5	100.0
	전업 주부	222	4.8	42.2	46.9	47.9	5.2	53.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5	47.6	52.1	42.5	5.5	47.9	10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6.8	40.5	47.4	44.3	8.3	52.6	100.0
	200~299만원	203	6.5	45.7	52.2	42.0	5.7	47.8	100.0
	300~399만원	362	4.7	45.4	50.1	44.2	5.8	49.9	100.0
	400만원 이상	500	4.6	45.5	50.2	44.8	5.0	49.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8	42.5	45.3	50.0	4.8	54.7	100.0
	충청권	123	3.7	46.1	49.8	44.0	6.2	50.2	100.0
	호남권	117	7.2	53.3	60.5	31.3	8.3	39.5	100.0
	영남권	309	9.3	44.8	54.1	38.8	7.1	45.9	100.0
	강원	35	8.9	54.2	63.1	35.0	1.9	36.9	100.0
	제주	14	9.1	57.5	66.6	33.4	0.0	33.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4.5	47.2	51.7	42.3	6.0	48.3	100.0
	중·소도시	521	4.4	44.4	48.9	46.0	5.1	51.1	100.0
	읍/면	130	14.1	35.2	49.4	43.0	7.6	50.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8	43.6	49.4	44.8	5.8	50.6	100.0
	중도	116	3.5	47.6	51.1	43.4	5.5	48.9	100.0
	보수적	561	8.2	41.3	49.6	44.2	6.2	50.4	100.0
종교별	불교	245	7.5	40.0	47.5	47.4	5.1	52.5	100.0
	기독교	238	2.9	44.2	47.1	47.4	5.6	52.9	100.0
	천주교	72	10.0	57.1	67.1	31.6	1.4	32.9	100.0
	종교없음	625	5.2	45.7	50.9	42.5	6.6	49.1	100.0
	무응답	21	0.0	49.7	49.7	50.3	0.0	50.3	100.0

표50.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문)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다소 관심이 있다	①+②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5.3	41.2	46.5	42.9	10.6	53.5	100.0
	남자	607	6.3	44.9	51.2	40.3	8.5	48.8	100.0
	여자	593	4.3	37.4	41.7	45.6	12.8	58.3	100.0
연령별	19~29세	227	2.9	36.8	39.6	47.3	13.1	60.4	100.0
	30대	228	5.0	40.0	45.0	43.0	12.0	55.0	100.0
	40대	266	8.9	44.5	53.5	39.7	6.8	46.5	100.0
	50대	258	2.8	42.1	44.9	45.5	9.5	55.1	100.0
	60대 이상	222	6.5	42.0	48.6	39.2	12.3	5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1	42.3	47.3	38.3	14.3	52.7	100.0
	고졸	534	4.1	38.1	42.3	46.2	11.5	57.7	100.0
	대재 이상	532	6.5	43.6	50.2	41.0	8.8	49.8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2.3	35.6	47.9	36.4	15.7	52.1	100.0
	자영업	270	6.3	53.8	60.1	35.2	4.7	39.9	100.0
	블루 칼라	348	4.7	35.4	40.1	44.5	15.5	59.9	100.0
	화이트칼라	230	8.4	43.1	51.5	40.4	8.1	48.5	100.0
	전업 주부	216	1.3	36.0	37.4	49.0	13.6	62.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4.9	35.2	40.0	51.6	8.3	6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5.5	40.2	45.6	35.9	18.5	54.4	100.0
	200~299만원	210	5.6	39.0	44.6	44.8	10.6	55.4	100.0
	300~399만원	337	5.4	41.1	46.5	44.2	9.3	53.5	100.0
	400만원 이상	522	5.0	42.4	47.4	43.2	9.5	52.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5	40.4	45.9	45.1	9.0	54.1	100.0
	충청권	124	5.6	54.6	60.3	29.7	10.0	39.7	100.0
	호남권	117	10.6	54.9	65.5	27.5	7.0	34.5	100.0
	영남권	307	1.4	32.8	34.2	49.6	16.3	65.8	100.0
	강원	35	13.1	30.4	43.5	50.0	6.5	56.5	100.0
	제주	14	15.1	54.9	70.0	30.0	0.0	3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5.1	41.8	47.0	42.4	10.6	53.0	100.0
	중·소도시	547	5.7	41.5	47.2	42.9	10.0	52.8	100.0
	읍/면	92	3.6	36.1	39.8	46.2	14.0	60.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0.6	46.5	57.1	31.9	11.0	42.9	100.0
	중도	557	1.5	39.3	40.8	50.1	9.1	59.2	100.0
	보수적	235	5.0	36.6	41.6	45.1	13.3	58.4	100.0
종교별	불교	214	4.7	43.8	48.5	42.3	9.2	51.5	100.0
	기독교	242	7.3	42.9	50.2	36.1	13.7	49.8	100.0
	천주교	56	9.8	41.1	50.9	32.2	16.9	49.1	100.0
	종교없음	654	4.4	39.9	44.4	46.6	9.0	55.6	100.0
	무응답	34	3.6	38.5	42.1	41.4	16.5	57.9	100.0

표51.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계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성별	전 체	1200	5.3	28.6	33.9	46.4	17.0	2.6	19.6	100.0
	남자	607	6.1	30.2	36.3	44.0	16.5	3.1	19.6	100.0
	여자	593	4.4	27.0	31.5	48.9	17.5	2.1	19.6	100.0
연령별	19~29세	227	4.9	40.1	45.0	44.7	8.6	1.7	10.3	100.0
	30대	228	5.9	34.6	40.5	48.0	10.2	1.4	11.6	100.0
	40대	266	6.9	32.7	39.6	50.6	8.0	1.9	9.9	100.0
	50대	258	4.8	20.8	25.6	48.3	25.2	1.0	26.2	100.0
	60대 이상	222	3.8	15.1	18.9	39.6	33.9	7.5	4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5.4	13.7	19.0	45.0	31.7	4.2	35.9	100.0
	고졸	534	4.1	26.4	30.5	47.2	19.4	2.9	22.3	100.0
	대재 이상	532	6.3	34.3	40.6	46.4	11.1	1.9	13.0	100.0
직업별	무응답	4	33.4	66.6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7	7.4	26.4	33.8	44.8	21.4	0.0	21.4	100.0
	자영업	270	5.0	22.9	27.9	48.5	19.7	3.9	23.5	100.0
	블루 칼라	348	5.0	32.8	37.8	43.2	16.1	2.9	18.9	100.0
	화이트칼라	230	7.9	32.8	40.7	46.1	11.8	1.4	13.2	100.0
	전업 주부	216	2.0	22.6	24.6	52.1	21.8	1.6	23.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6	32.4	39.0	42.7	14.7	3.7	18.4	100.0
	무응답	2	50.8	49.2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7.0	17.8	24.7	40.6	27.9	6.7	34.7
200~299만원	210	6.5	24.8	31.2	46.6	19.5	2.7	22.2	100.0	
300~399만원	337	5.6	30.6	36.2	47.1	13.6	3.0	16.6	100.0	
400만원 이상	522	4.2	31.7	35.9	47.5	15.3	1.3	16.6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3	5.0	30.9	35.9	46.7	16.0	1.4	17.4	100.0
	충청권	124	5.2	23.1	28.2	58.5	8.8	4.5	13.3	100.0
	호남권	117	5.2	38.9	44.1	40.4	13.7	1.9	15.5	100.0
	영남권	307	5.7	23.2	28.9	43.9	22.7	4.5	27.2	100.0
	강원	35	4.2	26.6	30.8	48.1	19.2	1.9	21.1	100.0
	제주	14	15.2	21.4	36.5	30.9	29.4	3.1	32.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1	27.3	30.4	49.2	17.1	3.3	20.4	100.0
	중·소도시	547	6.6	29.8	36.4	42.9	18.8	1.9	20.8	100.0
	읍/면	92	10.9	30.2	41.1	50.8	5.5	2.7	8.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5.6	84.4	100.0	0.0	0.0	0.0	0.0	100.0
	중도	557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보수적	235	0.0	0.0	0.0	0.0	86.7	13.3	100.0	100.0
종교별	불교	214	7.5	22.3	29.8	44.0	21.8	4.5	26.3	100.0
	기독교	242	5.8	29.7	35.5	42.7	20.3	1.6	21.8	100.0
	천주교	56	6.2	36.3	42.5	43.4	14.1	0.0	14.1	100.0
	종교없음	654	4.4	30.5	34.9	48.3	14.1	2.7	16.8	100.0
	무응답	34	3.6	13.0	16.6	58.9	24.5	0.0	24.5	100.0

표52.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 의당	바른 정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무응답	지지 정당 없음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8.3	11.6	4.6	3.7	2.4	0.5	38.7	0.1	100.0
	남자	607	41.2	11.2	4.3	3.5	2.4	0.5	36.5	0.2	100.0
	여자	593	35.4	12.0	4.8	3.8	2.5	0.5	41.0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34.3	1.3	4.4	7.2	3.6	0.8	48.4	0.0	100.0
	30대	228	37.6	3.7	5.8	3.4	3.9	0.6	45.0	0.0	100.0
	40대	266	48.4	8.1	4.6	2.0	1.5	0.6	34.8	0.0	100.0
	50대	258	36.9	17.1	2.5	4.3	1.5	0.0	37.7	0.0	100.0
	60대 이상	222	32.7	28.2	6.0	1.7	2.0	0.6	28.3	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3.7	25.5	4.6	2.1	1.6	1.6	30.9	0.0	100.0
	고졸	534	37.2	14.5	5.8	2.7	2.7	0.3	36.5	0.2	100.0
	대재 이상	532	40.4	5.5	3.4	5.1	2.4	0.4	42.9	0.0	100.0
	무응답	4	65.7	0.0	0.0	0.0	0.0	0.0	34.3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1.3	17.1	5.3	0.0	0.0	0.0	36.4	0.0	100.0
	자영업	270	40.8	13.7	3.5	3.8	0.8	0.0	37.4	0.0	100.0
	블루 칼라	348	38.8	8.6	4.7	5.1	5.3	1.3	35.7	0.4	100.0
	화이트칼라	230	40.3	6.9	4.7	3.4	0.9	0.2	43.6	0.0	100.0
	전업 주부	216	33.0	19.4	5.3	0.4	1.0	0.0	40.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5.5	10.2	5.1	6.4	3.8	0.8	38.3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0.3	25.4	3.1	5.2	3.8	0.0	32.1	0.0	100.0
	200~299만원	210	41.3	14.0	4.5	3.6	2.8	0.4	32.8	0.6	100.0
	300~399만원	337	39.5	10.6	6.1	3.7	2.1	0.3	37.8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38.4	7.7	4.0	3.4	2.2	0.8	43.5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42.9	10.1	5.6	2.8	2.6	0.2	35.6	0.2	100.0
	충청권	124	32.9	4.3	1.7	6.0	1.4	0.0	53.8	0.0	100.0
	호남권	117	64.6	1.3	3.8	0.6	1.5	0.7	27.5	0.0	100.0
	영남권	307	22.6	21.7	4.2	6.2	2.7	0.9	41.8	0.0	100.0
	강원	35	21.8	13.1	4.1	0.0	4.6	2.2	54.2	0.0	100.0
	제주	14	55.1	6.0	3.7	0.0	2.8	3.1	29.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5.4	11.1	5.5	4.0	2.8	0.2	41.1	0.0	100.0
	중·소도시	547	40.6	12.2	3.6	3.3	2.5	0.8	36.8	0.2	100.0
	읍/면	92	42.3	11.4	5.2	4.0	0.0	1.0	36.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7.0	5.3	5.8	3.0	4.3	0.3	24.3	0.0	100.0
	중도	557	30.6	7.9	4.3	4.7	1.8	0.3	50.1	0.2	100.0
	보수적	235	24.2	31.4	3.1	2.4	0.8	1.3	36.8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31.0	25.3	4.8	1.8	2.0	0.4	34.8	0.0	100.0
	기독교	242	43.5	8.5	4.1	3.3	3.4	1.1	36.2	0.0	100.0
	천주교	56	48.3	6.2	1.4	6.4	0.0	0.0	37.7	0.0	100.0
	종교없음	654	38.1	9.2	5.2	3.9	2.4	0.4	40.6	0.2	100.0
	무응답	34	34.7	3.6	0.0	10.8	3.6	0.0	47.3	0.0	100.0

표53. 2017년 대선 투표 여부

문) ○○님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

		사례수	예	아니오	계
			%	%	%
성별	전 체	1200	90.6	9.4	100.0
	남자	607	90.7	9.3	100.0
	여자	593	90.5	9.5	100.0
연령별	19~29세	227	77.3	22.7	100.0
	30대	228	92.4	7.6	100.0
	40대	266	94.6	5.4	100.0
	50대	258	92.0	8.0	100.0
	60대 이상	222	95.9	4.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94.0	6.0	100.0
	고졸	534	91.1	8.9	100.0
	대재 이상	532	89.2	10.8	100.0
	무응답	4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94.5	5.5	100.0
	자영업	270	95.0	5.0	100.0
	블루 칼라	348	89.1	10.9	100.0
	화이트칼라	230	92.8	7.2	100.0
	전업 주부	216	92.7	7.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75.8	24.2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1.9	8.1	100.0
	200~299만원	210	90.2	9.8	100.0
	300~399만원	337	91.5	8.5	100.0
	400만원 이상	522	89.8	10.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91.2	8.8	100.0
	충청권	124	85.2	14.8	100.0
	호남권	117	96.0	4.0	100.0
	영남권	307	90.0	10.0	100.0
	강원	35	85.3	14.7	100.0
	제주	14	95.7	4.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92.7	7.3	100.0
	중·소도시	547	89.0	11.0	100.0
	읍/면	92	87.2	12.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90.4	9.6	100.0
	중도	557	89.6	10.4	100.0
	보수적	235	93.2	6.8	100.0
종교별	불교	214	93.1	6.9	100.0
	기독교	242	92.2	7.8	100.0
	천주교	56	93.2	6.8	100.0
	종교없음	654	89.0	11.0	100.0
	무응답	34	90.4	9.6	100.0

표54. 2017년 대선 투표 후보

문) ○○님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다?

		사례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후보자	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087	51.8	16.2	11.2	5.3	4.9	2.0	8.5	100.0
	남자	551	55.6	15.9	9.8	5.1	3.6	1.7	8.4	100.0
	여자	536	48.0	16.6	12.7	5.6	6.2	2.3	8.6	100.0
연령별	19~29세	175	53.2	1.7	13.7	10.3	7.5	3.7	9.9	100.0
	30대	210	58.0	6.3	11.6	6.0	8.5	0.7	9.0	100.0
	40대	252	63.7	10.5	9.3	4.6	3.2	1.3	7.3	100.0
	50대	238	46.2	24.7	10.4	4.1	3.8	2.1	8.7	100.0
	60대 이상	213	36.8	35.4	12.0	2.8	2.4	2.6	8.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3	43.9	33.0	10.5	2.0	2.8	2.3	5.6	100.0
	고졸	486	47.7	20.2	11.1	5.0	5.3	2.0	8.6	100.0
	대재 이상	474	57.7	8.0	11.6	6.5	5.1	1.9	9.2	10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2.9	29.5	0.0	0.0	0.0	0.0	7.6	100.0
	자영업	256	50.5	19.9	9.3	5.7	2.8	2.7	9.2	100.0
	블루 칼라	310	51.8	12.7	12.8	5.8	8.0	2.0	6.8	100.0
	화이트칼라	214	59.7	9.4	9.5	4.7	5.0	1.1	10.5	100.0
	전업 주부	201	45.0	24.4	14.9	4.0	3.8	1.6	6.3	100.0
	학생/무직/기타	88	48.6	14.3	9.5	8.2	3.3	3.2	12.9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20	32.4	32.5	9.8	10.0	6.4	2.8	6.2	100.0
	200~299만원	189	52.1	18.2	11.5	4.3	3.6	1.4	8.8	100.0
	300~399만원	308	50.3	16.1	13.8	5.0	4.5	0.9	9.4	100.0
	400만원 이상	469	57.8	11.4	9.8	4.7	5.3	2.8	8.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550	55.0	14.4	9.9	4.3	5.6	1.3	9.5	100.0
	충청권	105	64.7	12.1	9.5	4.6	3.7	2.3	3.3	100.0
	호남권	112	71.0	0.0	11.2	2.2	4.2	2.4	8.9	100.0
	영남권	276	33.9	27.8	13.8	9.7	4.5	2.4	7.8	100.0
	강원	30	40.4	18.3	15.4	0.0	3.0	5.1	17.9	100.0
	제주	14	53.2	16.3	18.0	0.0	3.0	9.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0	48.1	16.5	11.2	6.0	5.5	2.2	10.6	100.0
	중·소도시	487	54.0	15.8	12.0	4.5	4.3	1.7	7.6	100.0
	읍/면	80	62.7	17.5	6.6	6.0	4.8	2.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68	66.8	5.4	9.6	4.3	5.7	1.3	6.9	100.0
	중도	499	48.9	13.1	13.0	7.2	5.6	2.5	9.8	100.0
	보수적	219	33.4	41.6	10.1	2.8	2.0	2.1	8.1	100.0
	불교	199	39.1	30.7	13.6	4.0	4.3	1.7	6.6	100.0
종교별	기독교	223	55.6	12.4	13.1	4.5	5.1	2.7	6.5	100.0
	천주교	52	64.8	5.7	11.6	3.8	3.6	0.0	10.5	100.0
	종교없음	582	54.3	13.9	9.6	6.3	5.2	1.7	8.9	100.0
	무응답	31	36.9	12.1	11.3	4.0	4.0	7.8	24.0	100.0

표55. 현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7.9	70.9	88.8	10.2	0.8	11.0	0.2	100.0
	남자	607	18.0	70.9	89.0	10.2	0.8	11.0	0.0	100.0
	여자	593	17.8	70.9	88.6	10.3	0.7	11.0	0.4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4	76.2	92.6	6.9	0.0	6.9	0.5	100.0
	30대	228	23.5	67.9	91.4	7.6	0.6	8.2	0.4	100.0
	40대	266	19.1	73.0	92.1	7.2	0.8	7.9	0.0	100.0
	50대	258	17.2	68.7	85.9	13.3	0.9	14.1	0.0	100.0
	60대 이상	222	13.2	68.7	81.9	16.5	1.6	18.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9.9	65.6	85.5	12.4	2.2	14.5	0.0	100.0
	고졸	534	14.5	71.3	85.8	13.5	0.6	14.1	0.2	100.0
	대재 이상	532	20.7	71.9	92.6	6.6	0.6	7.2	0.2	100.0
	무응답	4	34.3	65.7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39.1	60.9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	270	18.1	67.6	85.7	12.9	1.4	14.3	0.0	100.0
	블루 칼라	348	18.5	72.5	91.0	9.0	0.0	9.0	0.0	100.0
	화이트칼라	230	22.1	67.7	89.8	9.2	0.0	9.2	1.0	100.0
	전업 주부	216	12.9	73.1	86.0	12.1	2.0	14.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3.8	77.0	90.9	8.1	1.1	9.1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0.9	68.0	89.0	9.3	1.7	11.0	0.0	100.0
	200~299만원	210	19.6	68.1	87.7	11.4	0.4	11.9	0.5	100.0
	300~399만원	337	16.9	70.7	87.6	11.2	0.8	12.0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17.1	72.8	90.0	9.4	0.6	10.0	0.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5.1	73.9	89.0	10.2	0.6	10.9	0.2	100.0
	충청권	124	24.2	69.7	93.9	4.9	1.2	6.1	0.0	100.0
	호남권	117	46.6	49.5	96.1	3.9	0.0	3.9	0.0	100.0
	영남권	307	9.9	75.0	84.9	13.5	1.3	14.8	0.3	100.0
	강원	35	13.2	64.6	77.8	22.2	0.0	22.2	0.0	100.0
	제주	14	31.5	59.4	90.9	9.1	0.0	9.1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3	72.8	87.1	11.6	1.0	12.5	0.4	100.0
	중·소도시	547	19.3	70.7	89.9	9.6	0.5	10.1	0.0	100.0
	읍/면	92	31.8	60.9	92.8	6.2	1.1	7.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8.2	66.5	94.8	5.0	0.2	5.2	0.0	100.0
	중도	557	13.7	77.0	90.7	8.3	0.6	8.9	0.4	100.0
	보수적	235	10.1	63.9	74.0	23.9	2.1	26.0	0.0	100.0
	불교	214	12.4	70.7	83.1	14.4	2.5	16.9	0.0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6.2	74.2	90.4	8.8	0.9	9.6	0.0	100.0
	천주교	56	23.7	68.8	92.5	7.5	0.0	7.5	0.0	100.0
	종교없음	654	20.2	70.3	90.5	8.9	0.3	9.2	0.3	100.0
	무응답	34	11.1	64.3	75.3	24.7	0.0	24.7	0.0	100.0

표56-1. 주요기구 신뢰도 - ㉠ 대통령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7.8	63.9	81.7	15.6	2.6	18.3	100.0
	남자	607	18.7	64.3	83.0	14.6	2.4	17.0	100.0
	여자	593	16.9	63.5	80.4	16.7	2.9	19.6	100.0
연령별	19~29세	227	19.4	64.0	83.4	13.0	3.6	16.6	100.0
	30대	228	21.4	66.1	87.5	10.7	1.8	12.5	100.0
	40대	266	20.3	64.9	85.2	13.7	1.1	14.8	100.0
	50대	258	16.2	60.9	77.2	20.4	2.5	22.8	100.0
	60대 이상	222	11.2	63.9	75.1	20.3	4.6	2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3	60.1	74.4	20.4	5.2	25.6	100.0
	고졸	534	14.4	65.7	80.1	17.4	2.5	19.9	100.0
	대재 이상	532	21.9	63.1	85.0	12.8	2.2	15.0	100.0
	무응답	4	34.3	65.7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7.0	72.5	89.4	0.0	10.6	10.6	100.0
	자영업	270	20.4	61.1	81.5	15.1	3.5	18.5	100.0
	블루 칼라	348	18.5	66.8	85.3	12.5	2.2	14.7	100.0
	화이트칼라	230	22.7	60.0	82.6	16.2	1.2	17.4	100.0
	전업 주부	216	9.6	66.0	75.7	21.0	3.4	24.3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9	63.8	79.6	17.9	2.5	20.4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6.1	60.0	76.1	20.1	3.8	23.9	100.0
	200~299만원	210	18.5	63.6	82.0	16.2	1.8	18.0	100.0
	300~399만원	337	16.7	63.9	80.6	15.2	4.2	19.4	100.0
	400만원 이상	522	18.7	65.0	83.7	14.6	1.7	16.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8.5	66.6	85.1	13.7	1.2	14.9	100.0
	충청권	124	21.1	64.9	86.0	13.4	0.6	14.0	100.0
	호남권	117	38.3	55.8	94.1	4.9	0.9	5.9	100.0
	영남권	307	7.9	62.3	70.1	23.3	6.6	29.9	100.0
	강원	35	11.3	60.1	71.4	22.2	6.4	28.6	100.0
	제주	14	20.9	54.1	75.0	25.0	0.0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8.1	63.0	81.1	17.0	1.9	18.9	100.0
	중·소도시	547	17.2	65.5	82.7	14.6	2.6	17.3	100.0
	읍/면	92	19.2	60.1	79.3	13.5	7.3	20.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6.6	61.6	88.2	9.2	2.6	11.8	100.0
	중도	557	13.5	70.8	84.3	13.2	2.5	15.7	100.0
	보수적	235	12.8	51.6	64.4	32.6	3.1	35.6	100.0
종교별	불교	214	12.4	62.1	74.5	21.5	4.0	25.5	100.0
	기독교	242	19.0	67.8	86.7	11.5	1.7	13.3	100.0
	천주교	56	20.6	59.5	80.1	16.6	3.3	19.9	100.0
	종교없음	654	18.6	63.9	82.5	14.9	2.6	17.5	100.0
	무응답	34	22.3	56.7	79.0	21.0	0.0	21.0	100.0

표56-2. 주요기구 신뢰도 - ㉡ 정부 부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무응답	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5	51.9	55.5	37.1	7.3	44.4	0.1	100.0
	남자	607	3.7	52.2	55.9	37.0	6.9	43.9	0.2	100.0
	여자	593	3.4	51.7	55.1	37.2	7.7	44.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2.5	53.5	56.0	37.5	6.5	44.0	0.0	100.0
	30대	228	5.3	54.2	59.5	34.0	6.5	40.5	0.0	100.0
	40대	266	4.9	55.6	60.5	33.2	6.4	39.5	0.0	100.0
	50대	258	3.3	46.2	49.5	41.8	8.2	50.0	0.5	100.0
	60대 이상	222	1.4	50.3	51.8	39.2	9.1	48.2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	51.7	53.0	34.8	12.1	47.0	0.0	100.0
	고졸	534	2.9	51.0	53.9	38.8	7.0	45.8	0.2	100.0
	대재 이상	532	4.7	52.9	57.6	36.0	6.4	42.4	0.0	100.0
	무응답	4	0.0	66.6	66.6	33.4	0.0	33.4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2.0	52.7	64.7	24.7	10.6	35.3	0.0	100.0
	자영업	270	6.2	46.5	52.6	40.9	6.5	47.4	0.0	100.0
	블루 칼라	348	3.3	57.4	60.7	31.4	7.6	39.0	0.4	100.0
	화이트칼라	230	3.5	55.6	59.1	36.1	4.8	40.9	0.0	100.0
	전업 주부	216	1.5	45.1	46.6	43.0	10.4	53.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9	53.9	54.7	38.0	7.2	45.3	0.0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2	47.3	50.5	39.5	10.1	49.5	0.0	100.0
	200~299만원	210	4.0	53.0	57.0	37.1	5.9	43.0	0.0	100.0
	300~399만원	337	4.0	49.1	53.2	38.2	8.6	46.8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3.1	54.4	57.5	35.9	6.3	42.2	0.2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7	55.8	58.5	38.2	3.1	41.3	0.2	100.0
	충청권	124	3.9	62.6	66.4	32.2	1.4	33.6	0.0	100.0
	호남권	117	8.6	65.1	73.7	25.4	0.9	26.3	0.0	100.0
	영남권	307	3.1	35.6	38.7	40.8	20.5	61.3	0.0	100.0
	강원	35	2.0	49.9	51.9	41.2	6.9	48.1	0.0	100.0
	제주	14	8.9	45.8	54.7	39.2	6.0	45.3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3	49.9	54.2	39.9	5.9	45.8	0.0	100.0
	중·소도시	547	2.4	55.0	57.4	34.1	8.3	42.4	0.2	100.0
	읍/면	92	5.5	46.4	51.9	38.1	10.0	48.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5.0	56.5	61.5	31.3	7.3	38.5	0.0	100.0
	중도	557	2.7	51.0	53.7	39.7	6.6	46.3	0.0	100.0
	보수적	235	3.1	46.3	49.4	41.0	9.1	50.1	0.5	100.0
종교별	불교	214	2.2	42.2	44.4	43.4	12.1	55.6	0.0	100.0
	기독교	242	4.5	58.0	62.6	30.8	6.7	37.4	0.0	100.0
	천주교	56	8.7	59.4	68.1	28.6	3.3	31.9	0.0	100.0
	종교없음	654	3.2	52.2	55.4	37.9	6.5	44.5	0.2	100.0
	무응답	34	2.9	53.3	56.2	41.0	2.8	43.8	0.0	100.0

표56-3. 주요기구 신뢰도 - ㉔ 지역 행정조직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7	37.7	39.4	51.1	9.2	60.3	0.3	100.0
성별									
남자	607	2.0	39.4	41.3	47.9	10.4	58.3	0.4	100.0
여자	593	1.5	36.0	37.5	54.4	8.0	62.4	0.1	100.0
연령별									
19~29세	227	1.6	37.5	39.1	53.5	7.4	60.9	0.0	100.0
30대	228	1.9	38.0	39.8	51.1	8.6	59.7	0.5	100.0
40대	266	1.7	39.5	41.2	50.6	8.2	58.8	0.0	100.0
50대	258	1.8	36.0	37.8	51.3	10.1	61.4	0.8	100.0
60대 이상	222	1.7	37.5	39.2	49.2	11.6	60.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9	37.6	39.6	47.6	12.9	60.4	0.0	100.0
고졸	534	1.7	37.0	38.7	51.3	9.6	60.9	0.4	100.0
대재 이상	532	1.7	38.2	39.9	52.0	7.9	59.9	0.2	100.0
무응답	4	0.0	66.6	66.6	33.4	0.0	33.4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4.6	48.0	52.7	34.7	12.7	47.3	0.0	100.0
자영업	270	3.3	37.3	40.5	49.2	9.9	59.1	0.4	100.0
블루 칼라	348	1.1	41.4	42.5	49.3	7.6	56.9	0.6	100.0
화이트칼라	230	2.2	41.0	43.2	48.4	8.4	56.8	0.0	100.0
전업 주부	216	0.0	30.8	30.8	58.1	11.1	69.2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7	32.4	34.1	56.0	9.9	65.9	0.0	100.0
무응답	2	0.0	49.2	49.2	50.8	0.0	50.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0	43.5	45.5	44.9	9.5	54.5	0.0	100.0
200~299만원	210	1.5	33.6	35.2	53.1	11.8	64.8	0.0	100.0
300~399만원	337	0.8	36.2	37.0	53.4	9.3	62.7	0.3	100.0
400만원 이상	522	2.4	38.7	41.1	50.5	8.0	58.5	0.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8	34.2	35.0	56.9	7.9	64.8	0.2	100.0
충청권	124	2.1	48.0	50.1	47.9	2.0	49.9	0.0	100.0
호남권	117	4.6	45.3	49.9	45.1	5.0	50.1	0.0	100.0
영남권	307	2.1	37.8	39.9	43.0	16.7	59.7	0.3	100.0
강원	35	0.0	36.8	36.8	54.1	6.9	60.9	2.3	100.0
제주	14	8.9	36.6	45.5	51.6	2.9	54.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2	37.3	39.5	52.4	8.0	60.3	0.2	100.0
중·소도시	547	0.6	37.1	37.7	51.6	10.3	61.9	0.4	100.0
읍/면	92	5.4	43.9	49.3	40.8	9.9	50.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2	38.3	40.5	52.2	7.3	59.5	0.0	100.0
중도	557	1.9	34.6	36.5	52.8	10.6	63.4	0.1	100.0
보수적	235	0.7	43.9	44.6	45.3	9.1	54.4	1.0	100.0
종교별									
불교	214	1.5	33.0	34.5	48.8	16.2	65.0	0.5	100.0
기독교	242	1.5	39.6	41.2	51.1	7.8	58.8	0.0	100.0
천주교	56	5.4	40.7	46.1	48.0	5.9	53.9	0.0	100.0
종교없음	654	1.6	37.6	39.3	53.1	7.3	60.4	0.3	100.0
무응답	34	0.0	49.8	49.8	34.1	16.0	50.2	0.0	100.0

표56-4. 주요기구 신뢰도 - ㉔ 국회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5	11.8	12.3	52.3	35.4	87.7	100.0
성별								
남자	607	0.7	12.4	13.0	52.0	34.9	87.0	100.0
여자	593	0.3	11.2	11.5	52.5	36.0	88.5	100.0
연령별								
19~29세	227	0.3	9.2	9.6	55.3	35.1	90.4	100.0
30대	228	0.5	10.7	11.2	54.4	34.3	88.8	100.0
40대	266	0.6	11.4	12.1	53.8	34.2	87.9	100.0
50대	258	0.4	12.1	12.5	51.4	36.2	87.5	100.0
60대 이상	222	0.6	15.6	16.2	46.2	37.6	8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1.0	14.2	15.2	50.8	34.0	84.8	100.0
고졸	534	0.5	14.0	14.6	52.2	33.2	85.4	100.0
대재 이상	532	0.3	9.1	9.4	52.6	38.0	90.6	100.0
무응답	4	0.0	0.0	0.0	66.6	33.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23.6	23.6	43.8	32.6	76.4	100.0
자영업	270	0.7	12.8	13.5	51.8	34.7	86.5	100.0
블루 칼라	348	0.2	12.4	12.6	55.5	32.0	87.4	100.0
화이트칼라	230	0.8	10.6	11.5	49.3	39.2	88.5	100.0
전업 주부	216	0.6	8.2	8.8	50.0	41.3	91.2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15.3	15.3	55.3	29.4	84.7	100.0
무응답	2	0.0	0.0	0.0	49.2	50.8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0	20.3	21.3	52.0	26.7	78.7	100.0
200~299만원	210	1.1	17.3	18.4	44.7	36.8	81.6	100.0
300~399만원	337	0.0	8.8	8.8	55.5	35.7	91.2	100.0
400만원 이상	522	0.4	9.2	9.6	53.4	37.0	90.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9.5	9.9	50.4	39.7	90.1	100.0
충청권	124	0.6	10.8	11.3	57.4	31.2	88.7	100.0
호남권	117	0.0	16.8	16.8	64.6	18.6	83.2	100.0
영남권	307	0.5	13.2	13.8	47.3	38.9	86.2	100.0
강원	35	0.0	19.6	19.6	69.5	11.0	80.4	100.0
제주	14	5.9	26.4	32.4	52.1	15.5	67.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6	10.6	11.3	53.3	35.5	88.7	100.0
중·소도시	547	0.4	12.7	13.1	51.8	35.1	86.9	100.0
읍/면	92	0.0	13.9	13.9	48.9	37.2	86.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0	11.4	12.4	52.6	35.0	87.6	100.0
중도	557	0.2	11.4	11.7	51.3	37.0	88.3	100.0
보수적	235	0.2	13.3	13.5	54.0	32.5	86.5	100.0
종교별								
불교	214	0.6	10.5	11.1	47.6	41.4	88.9	100.0
기독교	242	0.4	11.5	11.9	49.4	38.7	88.1	100.0
천주교	56	1.5	21.4	22.9	59.7	17.4	77.1	100.0
종교없음	654	0.4	11.3	11.7	54.3	34.0	88.3	100.0
무응답	34	0.0	15.9	15.9	50.7	33.4	84.1	100.0

표56-5. 주요기구 신뢰도 - ㉞ 정당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5	13.9	15.4	56.2	28.3	84.5	0.1	100.0
성별	남자	607	1.2	14.8	16.0	54.1	29.7	83.8	0.2	100.0
	여자	593	1.8	13.1	14.8	58.4	26.8	85.2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0.9	11.9	12.8	53.9	33.3	87.2	0.0	100.0
	30대	228	0.2	17.5	17.7	55.3	27.0	82.3	0.0	100.0
	40대	266	2.4	15.3	17.7	56.2	26.0	82.3	0.0	100.0
	50대	258	1.6	15.3	16.9	52.2	30.5	82.7	0.5	100.0
	60대 이상	222	2.2	9.1	11.4	64.2	24.5	88.6	0.0	100.0
	중졸 이하	131	3.8	11.5	15.3	63.6	21.1	84.7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4	14.0	15.5	58.6	25.7	84.3	0.2	100.0
	대재 이상	532	1.0	14.6	15.5	51.9	32.6	84.5	0.0	100.0
	무응답	4	0.0	0.0	0.0	65.7	34.3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1.2	11.2	71.8	17.0	88.8	0.0	100.0
	자영업	270	3.3	15.2	18.5	56.5	24.9	81.5	0.0	100.0
	블루 칼라	348	0.9	16.0	16.9	55.1	27.7	82.8	0.4	100.0
	화이트칼라	230	1.0	14.7	15.6	53.1	31.3	84.4	0.0	100.0
	전업 주부	216	0.6	9.6	10.1	61.2	28.7	89.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1	12.2	14.2	52.6	33.2	85.8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8	15.6	18.4	61.6	20.0	81.6	0.0	100.0
	200~299만원	210	1.4	17.6	19.0	51.6	29.4	81.0	0.0	100.0
	300~399만원	337	0.5	13.6	14.1	57.0	28.9	85.9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1.8	12.3	14.1	56.2	29.5	85.6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4	12.2	14.6	56.3	28.9	85.2	0.2	100.0
	충청권	124	0.0	18.7	18.7	61.9	19.4	81.3	0.0	100.0
	호남권	117	0.6	17.8	18.4	62.8	18.8	81.6	0.0	100.0
	영남권	307	0.5	12.3	12.8	50.5	36.7	87.2	0.0	100.0
	강원	35	0.0	17.0	17.0	67.7	15.2	83.0	0.0	100.0
	제주	14	5.9	43.0	49.0	45.0	6.0	51.0	0.0	100.0
	제주	14	5.9	43.0	49.0	45.0	6.0	51.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8	14.3	17.1	56.2	26.7	82.9	0.0	100.0
	중·소도시	547	0.4	13.5	13.9	56.5	29.3	85.8	0.2	100.0
	읍/면	92	0.0	14.0	14.0	54.2	31.8	86.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2	14.9	17.1	54.4	28.5	82.9	0.0	100.0
	중도	557	0.5	13.8	14.3	58.3	27.4	85.7	0.0	100.0
	보수적	235	2.7	12.6	15.2	54.3	29.9	84.2	0.5	100.0
	불교	214	1.8	10.1	11.9	53.3	34.8	88.1	0.0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5	12.5	14.0	56.6	29.3	86.0	0.0	100.0
	천주교	56	3.8	21.9	25.6	60.4	14.0	74.4	0.0	100.0
	종교없음	654	1.3	14.7	16.0	56.8	27.0	83.8	0.2	100.0
	종교없음	654	1.3	14.7	16.0	56.8	27.0	83.8	0.2	100.0
	무응답	34	0.0	19.6	19.6	53.7	26.7	80.4	0.0	100.0

표56-6. 주요기구 신뢰도 - ㉞ 사법부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	32.3	33.8	49.8	16.4	66.2	100.0
성별	남자	607	1.6	32.4	33.9	48.2	17.9	66.1	100.0
	여자	593	1.5	32.2	33.7	51.4	14.9	66.3	100.0
연령별	19~29세	227	1.8	37.2	39.0	44.7	16.3	61.0	100.0
	30대	228	1.4	33.0	34.4	46.4	19.3	65.6	100.0
	40대	266	1.9	27.6	29.4	53.0	17.5	70.6	100.0
	50대	258	1.6	32.9	34.5	48.6	16.9	65.5	100.0
	60대 이상	222	0.8	31.4	32.3	56.1	11.7	67.7	100.0
	중졸 이하	131	2.2	30.2	32.4	52.4	15.2	67.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1	34.5	35.7	50.9	13.4	64.3	100.0
	대재 이상	532	1.7	30.3	32.0	48.1	19.8	68.0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3.4	43.4	44.2	12.3	56.6	100.0
	자영업	270	1.8	29.1	30.9	54.4	14.7	69.1	100.0
	블루 칼라	348	1.7	30.2	31.9	52.9	15.1	68.1	100.0
	화이트칼라	230	1.3	30.1	31.4	49.6	19.0	68.6	100.0
	전업 주부	216	1.1	34.5	35.6	46.7	17.7	64.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8	43.0	44.7	37.7	17.5	55.3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5	31.7	33.2	50.6	16.2	66.8	100.0
	200~299만원	210	2.7	27.9	30.6	55.0	14.4	69.4	100.0
	300~399만원	337	1.2	32.5	33.6	51.0	15.3	66.4	100.0
	400만원 이상	522	1.3	33.9	35.2	46.8	17.9	64.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4	35.7	37.1	48.7	14.2	62.9	100.0
	충청권	124	0.6	23.4	24.0	60.4	15.6	76.0	100.0
	호남권	117	0.6	30.6	31.2	55.7	13.1	68.8	100.0
	영남권	307	2.5	30.0	32.5	45.2	22.3	67.5	100.0
	강원	35	0.0	29.3	29.3	52.4	18.3	70.7	100.0
	제주	14	5.9	32.6	38.5	48.8	12.6	61.5	100.0
	제주	14	5.9	32.6	38.5	48.8	12.6	61.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7	32.2	34.9	50.2	14.9	65.1	100.0
	중·소도시	547	0.6	32.4	33.0	48.8	18.2	67.0	100.0
	읍/면	92	0.0	32.0	32.0	53.2	14.8	68.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7	34.8	36.6	44.6	18.8	63.4	100.0
	중도	557	1.6	30.1	31.7	53.4	14.9	68.3	100.0
	보수적	235	1.0	33.1	34.0	50.1	15.9	66.0	100.0
	불교	214	1.9	27.9	29.8	49.4	20.8	70.2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4	33.7	35.2	43.7	21.1	64.8	100.0
	천주교	56	1.5	30.3	31.8	53.9	14.3	68.2	100.0
	종교없음	654	1.3	32.8	34.1	52.4	13.5	65.9	100.0
	종교없음	654	1.3	32.8	34.1	52.4	13.5	65.9	100.0
	무응답	34	3.6	43.3	46.9	38.5	14.6	53.1	100.0

표56-7. 주요기구 신뢰도 - ㉔ 군대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①+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2.7	43.7	46.4	45.7	7.9	53.6	100.0
	남자	607	3.7	41.4	45.0	46.2	8.8	55.0	100.0
	여자	593	1.6	46.1	47.7	45.3	7.0	52.3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	43.2	44.4	44.0	11.6	55.6	100.0
	30대	228	3.0	41.5	44.5	44.5	11.0	55.5	100.0
	40대	266	2.3	42.6	44.9	46.9	8.2	55.1	100.0
	50대	258	3.0	44.8	47.8	47.7	4.5	52.2	100.0
	60대 이상	222	3.7	46.7	50.3	45.1	4.5	49.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3.5	50.8	54.2	41.9	3.8	45.8	100.0
	고졸	534	1.9	46.7	48.6	44.9	6.5	51.4	100.0
	대재 이상	532	3.2	38.9	42.1	47.5	10.4	57.9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0.7	40.7	46.6	12.7	59.3	100.0
	자영업	270	4.5	48.0	52.4	42.7	4.8	47.6	100.0
	블루 칼라	348	2.3	43.1	45.4	45.5	9.1	54.6	100.0
	화이트칼라	230	3.2	40.0	43.2	48.2	8.6	56.8	100.0
	전업 주부	216	0.5	44.9	45.4	48.3	6.3	54.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3.0	39.8	42.8	44.7	12.5	57.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3.7	46.1	49.8	41.3	8.9	50.2	100.0
	200~299만원	210	2.6	42.5	45.2	48.2	6.6	54.8	100.0
	300~399만원	337	3.6	45.5	49.1	43.4	7.5	50.9	100.0
	400만원 이상	522	1.8	42.4	44.1	47.4	8.4	55.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9	45.3	47.2	46.7	6.2	52.8	100.0
	충청권	124	1.9	39.3	41.2	47.5	11.2	58.8	100.0
	호남권	117	1.4	39.3	40.7	52.6	6.7	59.3	100.0
	영남권	307	4.6	45.7	50.3	39.2	10.5	49.7	100.0
	강원	35	4.5	36.6	41.1	50.2	8.7	58.9	100.0
	제주	14	5.9	27.3	33.3	63.5	3.2	66.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1	43.9	47.0	46.6	6.4	53.0	100.0
	중·소도시	547	1.9	43.1	45.1	45.3	9.6	54.9	100.0
	읍/면	92	4.1	46.1	50.1	42.8	7.1	4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3	36.5	38.7	51.2	10.1	61.3	100.0
	중도	557	1.9	46.1	48.0	44.8	7.3	52.0	100.0
	보수적	235	5.2	50.7	55.8	38.5	5.6	44.2	100.0
종교별	불교	214	2.2	50.0	52.1	40.1	7.8	47.9	100.0
	기독교	242	3.5	40.5	44.1	48.9	7.1	55.9	100.0
	천주교	56	1.5	40.3	41.8	47.0	11.1	58.2	100.0
	종교없음	654	2.4	42.4	44.8	46.8	8.4	55.2	100.0
	무응답	34	6.6	57.2	63.8	36.2	0.0	36.2	100.0

표56-8. 주요기구 신뢰도 - ㉕ 경찰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2.4	43.6	46.0	45.8	8.2	54.0	100.0
	남자	607	2.8	43.2	45.9	44.8	9.3	54.1	100.0
	여자	593	1.9	44.1	46.0	47.0	7.0	54.0	100.0
연령별	19~29세	227	1.1	44.3	45.4	43.1	11.5	54.6	100.0
	30대	228	2.5	41.3	43.8	45.2	11.0	56.2	100.0
	40대	266	1.6	44.0	45.7	49.7	4.7	54.3	100.0
	50대	258	3.7	45.4	49.1	44.2	6.7	50.9	100.0
	60대 이상	222	2.9	42.7	45.5	46.6	7.8	54.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1	45.8	49.9	40.6	9.5	50.1	100.0
	고졸	534	2.2	45.7	47.9	45.8	6.3	52.1	100.0
	대재 이상	532	2.1	40.9	42.9	47.3	9.8	57.1	100.0
	무응답	4	0.0	65.7	65.7	34.3	0.0	34.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7.0	47.0	27.9	25.2	53.0	100.0
	자영업	270	3.5	44.7	48.2	46.5	5.3	51.8	100.0
	블루 칼라	348	1.4	42.5	43.8	47.1	9.0	56.2	100.0
	화이트칼라	230	1.8	42.5	44.2	47.7	8.1	55.8	100.0
	전업 주부	216	3.0	43.4	46.4	47.1	6.5	53.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9	45.6	48.5	38.2	13.3	51.5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9	46.3	51.2	39.1	9.6	48.8	100.0
	200~299만원	210	3.1	39.4	42.5	49.8	7.7	57.5	100.0
	300~399만원	337	2.4	45.5	47.9	43.9	8.1	52.1	100.0
	400만원 이상	522	1.4	43.3	44.7	47.2	8.1	55.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2	44.4	45.6	46.0	8.4	54.4	100.0
	충청권	124	1.6	47.0	48.6	43.3	8.1	51.4	100.0
	호남권	117	2.1	37.1	39.2	54.6	6.2	60.8	100.0
	영남권	307	4.8	44.1	48.9	42.5	8.6	51.1	100.0
	강원	35	2.1	38.9	41.0	48.5	10.4	59.0	100.0
	제주	14	5.9	36.9	42.8	57.2	0.0	57.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7	46.0	48.7	43.7	7.6	51.3	100.0
	중·소도시	547	1.8	41.9	43.6	47.6	8.8	56.4	100.0
	읍/면	92	4.0	39.3	43.3	48.4	8.3	56.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8	41.7	43.4	46.5	10.1	56.6	100.0
	중도	557	1.9	41.8	43.7	48.8	7.5	56.3	100.0
	보수적	235	4.4	51.3	55.7	37.8	6.4	44.3	100.0
종교별	불교	214	3.5	46.9	50.5	40.5	9.0	49.5	100.0
	기독교	242	1.5	42.0	43.6	48.8	7.6	56.4	100.0
	천주교	56	3.0	38.6	41.6	51.6	6.8	58.4	100.0
	종교없음	654	2.2	43.0	45.2	46.2	8.7	54.8	100.0
	무응답	34	3.0	54.8	57.8	42.2	0.0	42.2	100.0

표56-9. 주요기구 신뢰도 - ㉔ 미디어(신문,방송)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6	38.8	40.4	44.8	14.7	59.5	0.1	100.0
성별	남자	607	1.0	38.6	39.6	43.6	16.6	60.1	0.2	100.0
	여자	593	2.2	39.0	41.1	46.1	12.8	58.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0.9	38.0	38.9	42.4	18.1	60.5	0.6	100.0
	30대	228	1.7	41.4	43.1	41.5	15.3	56.9	0.0	100.0
	40대	266	0.9	37.2	38.2	46.1	15.7	61.8	0.0	100.0
	50대	258	2.6	39.6	42.2	44.8	13.0	57.8	0.0	100.0
	60대 이상	222	1.7	37.8	39.5	49.2	11.3	60.5	0.0	100.0
	중졸 이하	131	2.3	34.3	36.6	50.5	13.0	63.4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6	43.8	45.3	42.9	11.7	54.7	0.0	100.0
	대재 이상	532	1.4	35.2	36.6	45.2	18.0	63.2	0.2	100.0
	무응답	4	0.0	0.0	0.0	65.7	34.3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27.8	27.8	47.1	25.2	72.2	0.0	100.0
	자영업	270	2.6	39.5	42.1	42.8	15.1	57.9	0.0	100.0
	블루 칼라	348	0.6	42.5	43.1	45.4	11.5	56.9	0.0	100.0
	화이트칼라	230	1.3	36.4	37.6	43.7	18.7	62.4	0.0	100.0
	전업 주부	216	2.7	37.4	40.2	48.0	11.8	59.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8	35.7	36.6	42.6	19.7	62.3	1.1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4	36.3	40.8	43.3	15.9	59.2	0.0	100.0
	200~299만원	210	0.5	34.3	34.8	52.1	13.1	65.2	0.0	100.0
	300~399만원	337	1.1	41.4	42.5	42.3	14.8	57.1	0.4	100.0
	400만원 이상	522	1.6	39.4	41.0	44.0	15.0	59.0	0.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37.9	38.3	46.5	15.0	61.5	0.2	100.0
	충청권	124	1.2	33.9	35.1	50.3	14.6	64.9	0.0	100.0
	호남권	117	0.0	50.9	50.9	41.5	7.7	49.1	0.0	100.0
	영남권	307	4.4	39.6	44.0	39.0	17.1	56.0	0.0	100.0
	강원	35	2.3	30.9	33.2	53.9	12.9	66.8	0.0	100.0
	제주	14	5.9	23.5	29.4	58.6	12.0	70.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8	35.8	37.6	46.0	16.4	62.4	0.0	100.0
	중·소도시	547	1.2	40.3	41.6	45.0	13.2	58.2	0.2	100.0
	읍/면	92	2.1	48.0	50.2	36.3	13.6	49.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7	39.8	41.5	43.7	14.5	58.2	0.3	100.0
	중도	557	1.3	38.1	39.4	46.4	14.1	60.6	0.0	100.0
	보수적	235	1.9	38.8	40.7	42.9	16.4	59.3	0.0	100.0
	불교	214	2.7	40.2	43.0	40.6	16.4	57.0	0.0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0.8	41.6	42.3	42.3	15.3	57.7	0.0	100.0
	천주교	56	4.7	31.8	36.5	50.2	13.2	63.5	0.0	100.0
	종교없음	654	1.3	39.0	40.3	46.1	13.4	59.5	0.2	100.0
	무응답	34	0.0	17.4	17.4	55.3	27.3	82.6	0.0	100.0

표56-10. 주요기구 신뢰도 - ㉔ 대기업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①+②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	20.4	21.4	64.4	14.2	78.6	100.0
성별	남자	607	1.0	20.0	21.0	63.2	15.8	79.0	100.0
	여자	593	1.1	20.8	21.9	65.6	12.6	78.1	100.0
연령별	19~29세	227	1.3	20.7	22.0	62.4	15.6	78.0	100.0
	30대	228	0.2	18.7	18.9	65.0	16.1	81.1	100.0
	40대	266	1.2	19.3	20.5	64.4	15.1	79.5	100.0
	50대	258	0.6	21.9	22.6	64.9	12.6	77.4	100.0
	60대 이상	222	2.0	21.3	23.3	65.1	11.7	76.7	100.0
	중졸 이하	131	1.4	22.6	24.0	61.6	14.4	76.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1	20.2	21.3	67.1	11.6	78.7	100.0
	대재 이상	532	0.9	20.1	21.0	62.1	16.9	79.0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6	4.6	75.8	19.5	95.4	100.0
	자영업	270	1.2	23.3	24.5	61.9	13.6	75.5	100.0
	블루 칼라	348	1.0	18.9	19.9	66.3	13.7	80.1	100.0
	화이트칼라	230	0.7	18.4	19.1	64.4	16.5	80.9	100.0
	전업 주부	216	1.8	20.6	22.4	67.1	10.5	77.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24.3	24.3	56.8	18.9	75.7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2.9	23.1	26.0	58.6	15.4	74.0	100.0
	200~299만원	210	0.6	19.4	20.1	65.1	14.9	79.9	100.0
	300~399만원	337	1.1	21.5	22.6	64.4	12.9	77.4	100.0
	400만원 이상	522	0.7	19.2	19.9	65.6	14.5	80.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0.4	17.8	18.2	70.1	11.7	81.8	100.0
	충청권	124	3.4	18.5	21.9	62.3	15.8	78.1	100.0
	호남권	117	1.2	12.4	13.6	68.9	17.5	86.4	100.0
	영남권	307	1.2	28.5	29.6	53.0	17.4	70.4	100.0
	강원	35	0.0	27.8	27.8	58.8	13.5	72.2	100.0
	제주	14	5.9	20.2	26.2	61.9	11.9	73.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0.6	25.9	26.5	59.9	13.6	73.5	100.0
	중·소도시	547	1.5	15.9	17.4	67.9	14.6	82.6	100.0
	읍/면	92	1.0	13.2	14.2	70.5	15.3	8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1.3	14.9	16.2	67.4	16.5	83.8	100.0
	중도	557	0.7	21.7	22.4	64.4	13.2	77.6	100.0
	보수적	235	1.4	26.7	28.1	59.2	12.7	71.9	100.0
	불교	214	1.8	22.8	24.6	60.6	14.7	75.4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1.2	19.1	20.3	66.6	13.1	79.7	100.0
	천주교	56	1.5	22.4	23.9	62.9	13.2	76.1	100.0
	종교없음	654	0.7	18.8	19.6	66.1	14.4	80.4	100.0
	무응답	34	0.0	40.6	40.6	42.0	17.3	59.4	100.0

표56-11. 주요기구 신뢰도 - ㉔ 종교계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3.4	31.5	34.9	54.0	11.1	65.1	100.0
	남자	607	2.9	29.1	31.9	55.7	12.4	68.1	100.0
	여자	593	3.9	34.1	38.0	52.3	9.7	62.0	100.0
연령별	19~29세	227	3.2	26.5	29.7	54.9	15.4	70.3	100.0
	30대	228	2.5	27.6	30.1	57.3	12.5	69.9	100.0
	40대	266	2.5	32.1	34.6	55.7	9.7	65.4	100.0
	50대	258	3.6	36.5	40.2	50.4	9.4	59.8	100.0
	60대 이상	222	5.1	34.2	39.4	51.9	8.8	6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6.0	33.8	39.8	51.0	9.2	60.2	100.0
	고졸	534	2.6	33.7	36.4	53.9	9.8	63.6	100.0
	대재 이상	532	3.5	28.8	32.3	55.0	12.7	67.7	100.0
	무응답	4	0.0	33.4	33.4	32.3	34.3	66.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7.4	22.9	30.3	62.5	7.2	69.7	100.0
	자영업	270	5.1	33.3	38.4	49.5	12.1	61.6	100.0
	블루 칼라	348	1.8	28.4	30.3	58.3	11.4	69.7	100.0
	화이트칼라	230	2.2	29.3	31.5	58.6	9.9	68.5	100.0
	전업 주부	216	2.8	37.8	40.6	51.8	7.6	59.4	100.0
	학생/무직/기타	116	6.8	30.5	37.3	45.4	17.4	62.7	100.0
	무응답	2	0.0	50.8	50.8	49.2	0.0	4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9.1	33.5	42.6	49.6	7.8	57.4	100.0
	200~299만원	210	5.5	27.1	32.7	56.0	11.4	67.3	100.0
	300~399만원	337	1.7	31.0	32.7	56.5	10.8	67.3	100.0
	400만원 이상	522	2.1	33.2	35.4	52.6	12.0	64.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3.3	30.4	33.7	58.8	7.6	66.3	100.0
	충청권	124	1.2	32.8	33.9	53.5	12.6	66.1	100.0
	호남권	117	8.7	31.6	40.2	45.0	14.8	59.8	100.0
	영남권	307	1.6	35.2	36.8	47.0	16.1	63.2	100.0
	강원	35	8.6	19.3	27.9	64.0	8.1	72.1	100.0
	제주	14	5.9	23.4	29.3	55.0	15.6	70.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3.0	36.3	39.3	50.6	10.1	60.7	100.0
	중·소도시	547	4.0	27.4	31.4	56.0	12.5	68.6	100.0
	읍/면	92	1.8	26.8	28.5	62.8	8.7	7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4.2	31.9	36.1	52.0	11.9	63.9	100.0
	중도	557	2.2	30.8	32.9	56.4	10.6	67.1	100.0
	보수적	235	4.8	32.7	37.5	51.9	10.6	62.5	100.0
종교별	불교	214	3.2	34.4	37.6	51.1	11.3	62.4	100.0
	기독교	242	6.2	39.2	45.4	45.9	8.7	54.6	100.0
	천주교	56	2.8	35.3	38.2	52.2	9.7	61.8	100.0
	종교없음	654	2.6	27.6	30.1	57.8	12.0	69.9	100.0
	무응답	34	0.0	30.0	30.0	59.7	10.3	70.0	100.0

표56-12. 주요기구 신뢰도 - ㉕ NGO등 시민단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무응답	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	%	%	%
성별	전 체	1200	4.5	44.6	49.1	43.1	7.6	50.8	0.1	100.0
	남자	607	4.5	44.9	49.4	41.5	9.1	50.6	0.0	100.0
	여자	593	4.5	44.4	48.9	44.8	6.1	50.9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6.2	46.9	53.1	40.1	6.2	46.3	0.6	100.0
	30대	228	5.1	43.1	48.3	43.3	8.4	51.7	0.0	100.0
	40대	266	2.9	45.5	48.4	44.9	6.7	51.6	0.0	100.0
	50대	258	4.4	42.6	46.9	43.9	9.1	53.1	0.0	100.0
	60대 이상	222	4.1	45.3	49.4	42.9	7.7	50.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4.9	42.6	47.5	45.2	7.3	52.5	0.0	100.0
	고졸	534	3.3	45.7	49.0	43.9	6.9	50.8	0.2	100.0
	대재 이상	532	5.7	43.7	49.3	42.1	8.5	50.7	0.0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14.7	16.8	31.4	68.6	0.0	68.6	0.0	100.0
	자영업	270	4.0	49.0	53.0	38.4	8.6	47.0	0.0	100.0
	블루 칼라	348	5.1	40.2	45.3	47.8	6.5	54.3	0.4	100.0
	화이트칼라	230	3.5	44.0	47.4	42.8	9.7	52.6	0.0	100.0
	전업 주부	216	3.1	46.4	49.5	44.3	6.2	50.5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7.1	48.7	55.7	35.5	8.8	44.3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6.9	41.9	48.8	43.7	7.5	51.2	0.0	100.0
	200~299만원	210	9.2	33.6	42.9	47.9	9.2	57.1	0.0	100.0
	300~399만원	337	1.3	51.0	52.3	41.6	6.1	47.7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4.0	45.8	49.8	41.9	8.1	50.0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5.7	46.2	51.9	40.9	7.0	47.9	0.2	100.0
	충청권	124	0.7	42.1	42.8	46.7	10.5	57.2	0.0	100.0
	호남권	117	7.5	46.0	53.4	40.9	5.7	46.6	0.0	100.0
	영남권	307	2.8	41.7	44.5	46.9	8.6	55.5	0.0	100.0
	강원	35	0.0	51.5	51.5	42.1	6.4	48.5	0.0	100.0
	제주	14	9.1	36.6	45.7	44.9	9.4	54.3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4.8	47.2	52.0	40.4	7.6	48.0	0.0	100.0
	중·소도시	547	4.4	44.0	48.5	43.3	8.0	51.3	0.2	100.0
	읍/면	92	2.7	32.9	35.7	58.6	5.7	64.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6.9	51.6	58.5	36.3	4.9	41.2	0.3	100.0
	중도	557	3.2	42.6	45.8	46.6	7.6	54.2	0.0	100.0
	보수적	235	3.5	37.4	40.9	46.7	12.4	59.1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4.9	48.2	53.1	37.8	9.1	46.9	0.0	100.0
	기독교	242	5.0	46.5	51.5	41.9	6.5	48.5	0.0	100.0
	천주교	56	4.2	44.1	48.3	48.7	3.0	51.7	0.0	100.0
	종교없음	654	4.4	43.7	48.1	44.3	7.4	51.7	0.2	100.0
	무응답	34	0.0	28.5	28.5	53.4	18.2	71.5	0.0	100.0

표57.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렉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중간보다 훨씬 높다	② 중간보다 약간 높다	①+②	③ 중간과 비슷하다	④ 중간보다 약간 낮다	⑤ 중간보다 훨씬 낮다	④+⑤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0.4	4.5	4.9	50.9	38.2	5.9	44.1	0.1	100.0
성별	남자	607	0.3	4.8	5.1	48.5	39.8	6.6	46.4	0.0	100.0
	여자	593	0.5	4.2	4.7	53.4	36.6	5.1	41.7	0.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4	7.2	8.6	59.9	27.9	3.6	31.5	0.0	100.0
	30대	228	0.7	5.2	5.9	55.4	37.2	1.5	38.7	0.0	100.0
	40대	266	0.0	2.8	2.8	53.5	39.1	4.1	43.2	0.4	100.0
	50대	258	0.0	4.9	4.9	52.0	36.4	6.7	43.1	0.0	100.0
	60대 이상	222	0.0	2.6	2.6	32.8	50.8	13.8	64.6	0.0	100.0
	중졸 이하	131	0.0	2.6	2.6	25.6	49.4	22.4	71.8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0.2	1.6	1.8	46.8	45.6	5.9	51.5	0.0	100.0
	대재 이상	532	0.7	7.9	8.6	60.9	28.4	1.8	30.2	0.2	100.0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4.9	4.9	32.9	57.5	4.7	62.1	0.0	100.0
	자영업	270	0.0	4.7	4.7	50.9	40.4	3.9	44.4	0.0	100.0
	블루 칼라	348	0.2	2.6	2.8	46.5	44.1	6.7	50.7	0.0	100.0
	화이트칼라	230	0.7	6.9	7.5	61.3	26.7	4.4	31.1	0.0	100.0
	전업 주부	216	0.0	2.7	2.7	44.5	43.8	8.5	52.4	0.5	100.0
	학생/무직/기타	116	2.1	8.6	10.7	57.2	25.8	6.3	32.1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6	0.6	1.2	13.5	53.7	31.6	85.3	0.0	100.0
	200~299만원	210	0.3	2.0	2.4	39.8	51.1	6.8	57.9	0.0	100.0
	300~399만원	337	0.0	1.7	1.7	51.2	44.9	2.2	47.1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0.6	8.3	8.9	64.5	25.0	1.4	26.4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0.0	4.0	4.0	49.5	41.8	4.6	46.4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2.5	3.8	6.2	63.9	26.6	3.3	29.9	0.0	100.0
	호남권	117	0.0	4.0	4.0	46.7	40.7	8.5	49.2	0.0	100.0
	영남권	307	0.6	4.6	5.2	48.8	37.0	8.7	45.7	0.3	100.0
	강원	35	0.0	17.4	17.4	64.9	15.4	2.3	17.7	0.0	100.0
	제주	14	0.0	0.0	0.0	42.3	51.6	6.1	57.7	0.0	100.0
	대도시	561	0.4	5.1	5.5	48.9	39.2	6.4	45.6	0.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0.3	3.9	4.2	52.8	37.5	5.3	42.7	0.2	100.0
	읍/면	92	0.9	4.2	5.1	52.0	36.6	6.2	42.8	0.0	100.0
	진보적	407	0.5	5.1	5.6	51.2	39.4	3.8	43.2	0.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0.3	4.0	4.3	55.6	34.3	5.5	39.8	0.2	100.0
	보수적	235	0.4	4.6	5.0	39.3	45.4	10.3	55.7	0.0	100.0
	불교	214	0.4	4.3	4.7	45.0	38.3	11.5	49.8	0.5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0.7	3.7	4.3	54.8	35.7	5.2	40.9	0.0	100.0
	천주교	56	0.0	1.3	1.3	63.5	31.9	3.3	35.3	0.0	100.0
	종교없음	654	0.4	4.9	5.3	50.4	39.9	4.4	44.3	0.0	100.0
	무응답	34	0.0	9.5	9.5	49.3	33.9	7.3	41.2	0.0	100.0

표58.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①+②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③+④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⑤+⑥	무응답	계
			%	%	%	%	%	%	%	%	%	%	%
	전 체	1200	0.1	0.6	0.7	27.1	51.4	78.5	17.2	3.6	20.7	0.1	100.0
성별	남자	607	0.1	0.5	0.7	27.2	51.0	78.2	17.3	3.8	21.1	0.1	100.0
	여자	593	0.2	0.6	0.8	27.0	51.9	78.8	17.1	3.3	20.4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0.4	1.2	1.6	40.1	43.8	84.0	12.5	1.9	14.4	0.0	100.0
	30대	228	0.4	0.7	1.0	28.8	54.6	83.4	15.2	0.4	15.6	0.0	100.0
	40대	266	0.0	0.3	0.3	22.7	60.5	83.2	14.3	2.2	16.4	0.0	100.0
	50대	258	0.0	0.3	0.3	28.2	54.3	82.5	12.4	4.8	17.1	0.0	100.0
	60대 이상	222	0.0	0.4	0.4	15.8	41.7	57.5	33.0	8.8	41.8	0.4	100.0
	중졸 이하	131	0.0	0.6	0.6	11.3	32.8	44.0	40.0	14.7	54.7	0.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0.0	0.4	0.4	20.1	57.7	77.8	18.7	3.1	21.8	0.0	100.0
	대재 이상	532	0.3	0.8	1.1	37.8	49.6	87.5	10.2	1.2	11.4	0.0	100.0
	무응답	4	0.0	0.0	0.0	34.3	65.7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0.0	0.0	22.3	33.7	56.0	39.4	0.0	39.4	4.6	100.0
	자영업	270	0.0	0.3	0.3	29.1	50.8	79.9	18.6	1.2	19.8	0.0	100.0
	블루 칼라	348	0.0	0.8	0.8	19.4	54.7	74.0	21.5	3.7	25.2	0.0	100.0
	화이트칼라	230	0.4	0.8	1.1	35.6	52.3	87.9	8.5	2.5	11.0	0.0	100.0
	전업 주부	216	0.0	0.4	0.4	18.2	57.2	75.4	16.9	7.3	24.3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8	0.6	1.4	46.1	32.5	78.6	15.7	4.3	20.0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0.6	0.0	0.6	8.3	24.6	32.9	44.7	21.2	65.8	0.6	100.0
	200~299만원	210	0.0	0.7	0.7	20.8	45.5	66.3	31.4	1.6	33.0	0.0	100.0
	300~399만원	337	0.0	0.5	0.5	18.7	65.1	83.8	14.3	1.4	15.7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0.2	0.7	0.9	39.7	51.6	91.3	6.5	1.3	7.8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3	0.0	0.2	0.2	26.3	55.5	81.9	16.1	1.8	17.9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24	0.7	1.3	1.9	41.7	48.0	89.8	7.7	0.6	8.3	0.0	100.0
	호남권	117	0.0	0.7	0.7	22.8	47.6	70.4	22.1	6.1	28.2	0.7	100.0
	영남권	307	0.3	0.3	0.6	21.4	48.3	69.7	22.2	7.4	29.6	0.0	100.0
	강원	35	0.0	6.6	6.6	52.8	38.6	91.4	2.0	0.0	2.0	0.0	100.0
	제주	14	0.0	0.0	0.0	21.4	38.9	60.3	32.2	7.5	39.7	0.0	100.0
	대도시	561	0.0	0.3	0.3	24.7	54.7	79.4	16.6	3.6	20.3	0.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47	0.2	0.9	1.1	30.9	48.2	79.0	17.0	2.9	19.9	0.0	100.0
	읍/면	92	0.9	0.0	0.9	18.6	51.0	69.6	21.6	7.1	28.6	0.9	100.0
	진보적	407	0.0	0.6	0.6	27.7	53.6	81.3	16.3	1.8	18.1	0.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57	0.2	0.8	1.0	30.1	49.6	79.7	15.5	3.7	19.2	0.1	100.0
	보수적	235	0.4	0.0	0.4	18.7	51.9	70.7	22.7	6.3	29.0	0.0	100.0
	불교	214	0.0	0.8	0.8	23.5	48.5	72.0	19.7	7.6	27.3	0.0	100.0
종교별	기독교	242	0.4	0.4	0.7	24.7	55.1	79.9	16.6	2.8	19.4	0.0	100.0
	천주교	56	0.0	0.0	0.0	32.9	53.8	86.6	11.5	1.9	13.4	0.0	100.0
	종교없음	654	0.1	0.5	0.6	29.3	50.4	79.7	16.9	2.7	19.5	0.1	100.0
	무응답	34	0.0	2.9	2.9	13.3	59.8	73.1	20.4	3.6	24.0	0.0	100.0

표59.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 졌다	② 약간 좋아 졌다	①+②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 졌다	⑤ 훨씬 나빠 졌다	④+⑤	잘 모르 겠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8.6	50.3	68.9	22.0	6.4	1.5	7.9	1.2	100.0
	남자	607	18.8	49.0	67.8	21.5	8.1	1.4	9.5	1.2	100.0
	여자	593	18.4	51.6	70.0	22.6	4.6	1.6	6.3	1.2	100.0
연령별	19~29세	227	15.4	54.5	69.9	21.3	7.4	0.5	7.9	0.9	100.0
	30대	228	16.0	46.9	62.9	26.1	7.1	2.3	9.5	1.5	100.0
	40대	266	18.3	51.3	69.6	21.2	6.3	1.6	7.9	1.4	100.0
	50대	258	21.6	49.6	71.2	21.0	5.5	1.8	7.3	0.5	100.0
	60대 이상	222	21.5	49.0	70.5	20.6	5.7	1.4	7.0	1.9	100.0
	중졸 이하	131	17.4	40.4	57.8	29.1	8.1	1.5	9.6	3.5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6.4	53.5	70.0	20.8	6.6	2.0	8.6	0.7	100.0
	대재 이상	532	21.2	49.1	70.3	21.7	5.8	1.1	6.8	1.2	100.0
	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21.9	27.6	49.5	34.7	15.8	0.0	15.8	0.0	100.0
	자영업	270	19.1	49.6	68.7	21.1	6.5	2.2	8.7	1.5	100.0
	블루 칼라	348	17.8	51.8	69.6	23.0	5.4	1.0	6.4	1.0	100.0
	화이트칼라	230	19.7	48.0	67.7	22.1	5.9	2.3	8.2	2.0	100.0
	전업 주부	216	19.7	54.0	73.7	19.3	5.4	1.1	6.5	0.6	100.0
	학생/무직/기타	116	15.7	47.1	62.8	24.6	10.6	0.9	11.6	1.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16.3	39.9	56.2	24.7	11.8	4.5	16.3	2.8	100.0
	200~299만원	210	15.7	49.0	64.7	24.3	8.2	0.7	8.9	2.1	100.0
	300~399만원	337	11.8	53.9	65.7	23.5	8.0	1.7	9.7	1.0	100.0
	400만원 이상	522	24.7	50.9	75.7	19.5	3.3	1.0	4.3	0.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17.3	53.4	70.7	19.2	7.1	1.1	8.3	1.9	100.0
	충청권	124	18.9	49.4	68.3	26.7	3.2	1.9	5.0	0.0	100.0
	호남권	117	31.7	39.4	71.1	22.6	3.2	2.3	5.5	0.7	100.0
	영남권	307	14.6	48.6	63.2	26.6	7.9	1.8	9.6	0.6	100.0
	강원	35	28.9	56.4	85.3	12.3	2.4	0.0	2.4	0.0	100.0
	제주	14	25.4	37.3	62.7	21.8	6.3	6.2	12.5	2.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7.3	50.6	67.9	22.2	7.6	1.6	9.2	0.8	100.0
	중·소도시	547	19.0	51.8	70.9	21.7	4.7	1.1	5.7	1.7	100.0
	읍/면	92	23.8	39.3	63.1	22.8	9.4	3.7	13.1	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3.8	48.3	72.1	18.3	6.9	1.1	8.1	1.5	100.0
	중도	557	14.7	50.2	64.9	26.4	6.2	1.6	7.7	1.0	100.0
	보수적	235	18.8	53.9	72.7	18.2	5.9	2.1	7.9	1.2	100.0
종교별	불교	214	23.3	48.4	71.7	20.4	4.6	2.2	6.8	1.2	100.0
	기독교	242	23.5	51.8	75.4	18.1	5.8	0.4	6.2	0.3	100.0
	천주교	56	12.6	57.5	70.2	12.8	14.3	2.7	17.0	0.0	100.0
	종교없음	654	16.4	49.8	66.1	24.0	6.6	1.7	8.3	1.5	100.0
	무응답	34	7.1	49.2	56.3	36.4	3.7	0.0	3.7	3.6	100.0
	무응답	34	7.1	49.2	56.3	36.4	3.7	0.0	3.7	3.6	100.0

표60.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7.6	5.6	4.5	3.4	2.2	3.8	1.8	14.4	4.0
	남자	607	18.0	6.0	4.4	3.1	1.9	3.5	2.0	15.2	4.5
	여자	593	17.1	5.2	4.7	3.7	2.5	4.0	1.5	13.5	3.5
연령별	19~29세	227	24.2	6.2	5.7	4.9	2.3	4.3	2.0	20.2	4.0
	30대	228	23.5	5.8	4.9	4.1	3.6	4.1	1.4	18.3	2.2
	40대	266	19.1	6.1	5.2	3.1	1.9	5.3	1.8	12.3	3.5
	50대	258	11.6	4.9	3.2	1.8	2.1	3.5	1.8	12.6	5.4
	60대 이상	222	9.9	5.0	3.8	3.3	1.2	1.3	1.8	9.1	5.0
	중졸 이하	131	9.0	2.2	6.2	4.3	1.0	0.0	2.0	7.5	2.1
교육 수준별	고졸	534	13.2	5.4	3.6	3.8	2.0	2.3	1.1	17.0	4.3
	대재 이상	532	24.0	6.7	5.1	2.8	2.7	6.2	2.3	13.4	4.3
	무응답	4	33.4	0.0	0.0	0.0	0.0	0.0	0.0	34.3	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0.0	0.0	0.0	0.0	0.0	0.0	14.4	0.0
	자영업	270	14.4	5.3	6.5	3.5	3.0	3.8	2.0	12.4	3.8
	블루 칼라	348	18.1	5.6	4.1	5.6	1.5	3.6	2.4	14.0	4.8
	화이트칼라	230	20.8	4.5	3.9	3.2	2.1	6.5	0.9	16.9	2.7
	전업 주부	216	14.7	6.9	4.4	1.7	2.1	2.4	1.5	12.8	2.4
	학생/무직/기타	116	24.4	7.1	3.8	0.9	3.3	2.2	1.9	18.4	8.5
	무응답	2	50.8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2	50.8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8.8	5.6	3.3	2.5	1.7	1.7	2.6	9.0	0.9
	200~299만원	210	12.7	5.6	5.1	4.6	2.2	1.7	0.0	14.2	5.1
	300~399만원	337	19.5	6.0	5.0	4.8	1.8	2.2	1.1	12.0	4.4
	400만원 이상	522	20.5	5.3	4.3	2.3	2.6	6.1	2.7	17.4	4.1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3	32.4	0.6	1.0	6.6	1.0	1.2	0.6	27.4	2.7
	충청권	124	5.8	0.7	1.2	0.0	0.0	29.4	0.0	2.6	1.3
	호남권	117	2.0	0.0	0.0	0.0	17.7	0.7	0.0	1.6	0.0
	영남권	307	1.2	20.1	15.0	0.3	0.0	0.2	5.8	0.3	0.3
	강원	35	6.9	2.3	2.5	0.0	0.0	0.0	0.0	4.7	81.3
	제주	14	0.0	2.8	0.0	0.0	0.0	0.0	0.0	0.0	3.1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24.7	11.0	8.6	4.6	3.7	5.4	3.6	9.0	1.2
	중·소도시	547	12.3	1.0	1.1	2.8	0.9	2.5	0.2	21.2	7.6
	읍/면	92	6.0	0.0	0.0	0.0	0.8	1.0	0.0	6.8	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0.1	4.3	2.6	5.1	2.6	4.1	1.4	14.8	2.9
	중도	557	17.6	5.9	6.0	2.6	2.3	4.1	1.6	15.5	4.3
	보수적	235	13.2	7.0	4.4	2.3	1.4	2.3	2.8	11.0	5.3
종교별	불교	214	10.5	11.5	7.2	1.2	1.5	1.6	2.2	9.6	3.6
	기독교	242	26.7	3.4	3.0	1.9	2.4	3.9	0.0	14.6	2.1
	천주교	56	23.7	3.7	4.9	0.0	1.4	11.5	3.1	12.5	7.8
	종교없음	654	15.7	4.8	4.3	5.0	2.5	4.0	1.9	16.3	4.6
	무응답	34	24.4	2.9	3.0	3.6	0.0	0.0	7.2	9.6	3.6
	무응답	34	24.4	2.9	3.0	3.6	0.0	0.0	7.2	9.6	3.6

		사례수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외국	무응답	계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5	5.9	6.0	7.6	8.7	9.6	1.2	0.1	0.1	100.0
	남자	607	3.1	5.0	5.9	8.0	8.4	9.7	1.2	0.0	0.2	100.0
	여자	593	3.9	6.8	6.1	7.2	9.1	9.5	1.2	0.3	0.0	100.0
연령별	19~29세	227	2.3	3.5	3.3	3.6	4.7	6.8	1.5	0.0	0.4	100.0
	30대	228	2.2	4.4	3.9	5.5	6.2	8.9	1.0	0.0	0.0	100.0
	40대	266	4.9	5.8	5.1	7.5	8.5	8.6	1.0	0.3	0.0	100.0
	50대	258	2.6	7.8	6.9	10.3	11.7	12.5	1.5	0.0	0.0	100.0
	60대 이상	222	5.3	7.7	10.8	10.9	12.3	10.9	1.2	0.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1	6.5	6.1	10.1	12.3	16.3	12.2	1.6	0.6	0.0	100.0
	고졸	534	3.8	6.6	6.3	8.0	9.8	11.5	1.1	0.0	0.2	100.0
	대재 이상	532	2.5	5.1	4.4	6.1	5.9	7.1	1.3	0.2	0.0	100.0
	무응답	4	0.0	0.0	32.3	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7	0.0	15.8	4.7	26.6	38.5	0.0	0.0	0.0	0.0	100.0
	자영업	270	4.6	6.9	5.7	8.3	9.7	7.8	2.0	0.3	0.0	100.0
	블루 칼라	348	4.5	3.9	5.5	7.6	6.8	10.6	1.0	0.2	0.3	100.0
	화이트칼라	230	2.7	7.0	8.1	5.6	5.8	8.2	1.1	0.0	0.0	100.0
	전업 주부	216	3.5	6.2	6.1	7.9	11.5	14.8	1.0	0.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16	0.0	5.1	2.7	6.7	8.7	5.4	0.8	0.0	0.0	100.0
	무응답	2	0.0	0.0	49.2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1	4.5	6.7	7.5	8.8	16.4	16.5	2.3	1.2	0.0	100.0
	200~299만원	210	3.1	4.2	6.3	11.5	10.1	12.0	1.6	0.0	0.0	100.0
	300~399만원	337	3.7	4.8	8.2	5.3	10.4	9.9	0.8	0.0	0.0	100.0
	400만원 이상	522	3.2	7.0	4.1	7.3	5.0	6.7	1.1	0.0	0.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3	2.3	5.8	5.1	5.7	4.1	3.1	0.2	0.0	0.2	100.0
	충청권	124	22.4	27.9	3.3	1.9	2.0	0.7	0.0	0.6	0.0	100.0
	호남권	117	0.0	0.7	30.7	44.6	0.0	0.6	0.6	0.7	0.0	100.0
	영남권	307	0.0	0.0	0.0	0.6	25.2	31.0	0.0	0.0	0.0	100.0
	강원	35	0.0	0.0	2.3	0.0	0.0	0.0	0.0	0.0	0.0	100.0
	제주	14	0.0	0.0	0.0	3.5	3.1	0.0	87.5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1	1.4	4.1	3.6	6.6	6.2	5.8	0.1	0.1	0.2	100.0
	중·소도시	547	4.6	6.4	7.6	6.1	10.5	12.6	2.5	0.0	0.0	100.0
	읍/면	92	9.4	13.3	10.9	22.3	13.6	15.0	0.0	0.9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07	2.5	4.8	7.9	9.7	8.1	7.9	1.2	0.0	0.0	100.0
	중도	557	4.4	6.3	5.4	6.0	6.5	10.2	0.8	0.3	0.2	100.0
	보수적	235	3.1	6.7	4.0	7.9	15.0	11.2	2.3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14	3.5	4.1	5.6	3.9	11.1	20.5	2.2	0.0	0.0	100.0
	기독교	242	2.6	7.6	6.8	8.1	9.1	6.6	0.8	0.4	0.0	100.0
	천주교	56	2.8	3.7	5.3	8.1	3.4	5.8	2.3	0.0	0.0	100.0
	종교없음	654	4.0	5.9	6.0	8.6	8.2	7.0	1.0	0.1	0.2	100.0
	무응답	34	0.0	7.1	3.6	7.2	10.4	17.6	0.0	0.0	0.0	100.0

설문지

SNUIRB No.1705/003-020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Gallup2017-166-010

2017 통일외식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 데 약 2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이며, 이 자료는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될 예정입니다. 단, 이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께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동준 선임연구원(02-880-8866)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정근식

☒ 동의함 ☐ (아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동의함 ☐ (또한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사회과학자료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연구 주관 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장 : 정 근 식 ☎ : 02-880-4052

2017년 7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회 장 박 재 형
담당연구원 장 은 혜

(☎ 02-3702-2119)
실사연구원 정 슬 기
(☎ 02-3702-2689)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 3. 반반 / 그저 그렇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 되는 것이 좋다
-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기적 남북회담'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 북한 비핵화	1	2	3	4
㉧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	2	3	4
㉩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 평화합정 체결	1	2	3	4

문 5)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같은 민족이니까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6)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7)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㉔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㉔ 빈부격차	1	2	3	4	5
㉔ 부동산투기	1	2	3	4	5
㉔ 실업문제	1	2	3	4	5
㉔ 범죄문제	1	2	3	4	5
㉔ 지역갈등	1	2	3	4	5
㉔ 이념갈등	1	2	3	4	5

문 9)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0)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3)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4)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㉔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㉔ 선군정치	1	2	3	4
㉔ 주체사상	1	2	3	4
㉔ 천리마운동	1	2	3	4
㉔ 고난의 행군	1	2	3	4
㉔ 장마당	1	2	3	4
㉔ 모란봉 악단	1	2	3	4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㉔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㉔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경험	1	2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1	2
㉔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조사원 | 이아래 ③부터 ⑥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사회복지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험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험을 느낀다', '다소 위험을 느낀다',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험을 느낀다
2. 다소 위험을 느낀다
3.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3)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반반/그저그렇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4)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남북 사회문화교류	1	2	3	4
㉢ 남북 경제협력	1	2	3	4
㉣ 대북 제재	1	2	3	4

문 25)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6)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권이 교체되는 해에만 질문]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7)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 아래 ②부터 ⑥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배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문 28) ○○님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조사원 | 아래 ②부터 ⑥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북한의 책임	1	2	3	4	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 미국의 책임	1	2	3	4	5
㉣ 중국의 책임	1	2	3	4	5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 아래 ②부터 ⑥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 하지 않음	전혀 친근 하지 않음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 조선족 (중국동포)	1	2	3	4	5

㉠ 중국인(한족)	1	2	3	4	5
㉡ 미국인	1	2	3	4	5
㉢ 동남아시아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	2	3	4	5
㉣ 일본인	1	2	3	4	5
㉤ 남아시아인 (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1	2	3	4	5

문 30)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1)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문 3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외국인인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1	2	3	4	5
㉣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	2	3	4	5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4)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미국
- 일본
- 북한
- 중국
- 러시아

문 35) (보기카드 8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 일본
- 북한
- 중국
- 러시아

문 36)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북한 팀
- 미국 팀
-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7)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38)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39)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 간 협력 2. 한미 간 협력
3. 한중 간 협력 4. 모두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 4·19	1	2	3	4	5
㉡ 5·16	1	2	3	4	5
㉢ 10월 유신	1	2	3	4	5
㉣ 광주민주화 운동	1	2	3	4	5
㉠ 6월 항쟁 (1987년)	1	2	3	4	5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 촛불집회 (2017년)	1	2	3	4	5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 빈부격차	1	2	3	4
㉡ 부동산투기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범죄문제	1	2	3	4
㉢ 지역갈등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 환경파괴	1	2	3	4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 저출산·고령화	1	2	3	4
㉢ 부정부패	1	2	3	4

문 44)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5) ○○님은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훨씬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훨씬 좋아질 것이다
2. 다소 좋아질 것이다
3.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4. 다소 나빠질 것이다
5. 훨씬 나빠질 것이다

문 46)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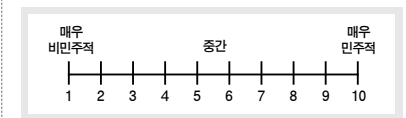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47) ○○님은 "민주주의 체제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낫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약간 동의한다
3.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문 48) (보기카드 10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문 49)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50)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1)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2)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4. 바른정당
5. 정의당 6. 기타 정당
7. 지지정당 없음

문 53) ○○님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 [※ 대선, 총선이 있는 해에만 질문]

1. 예 2. 아니오

54번 문항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54) (문53번에 '1. 예'라고 응답한 사람만) ○○님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까? [※ 대선, 총선이 있는 해에만 질문]

1. 문재인 2. 홍준표
3. 안철수 4. 유승민
5. 심상정 6. 기타 후보자

문 55)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대통령'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대통령	1	2	3	4
㉡ 정부 부처	1	2	3	4
㉢ 지역 행정조직	1	2	3	4
㉣ 국회	1	2	3	4
㉤ 정당	1	2	3	4
㉥ 사법부	1	2	3	4
㉦ 군대	1	2	3	4
㉧ 경찰	1	2	3	4
㉨ 미디어(신문, 방송)	1	2	3	4
㉩ 대기업	1	2	3	4
㉪ 종교계	1	2	3	4
㉫ NGO등 시민단체	1	2	3	4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램 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1. 미혼 3. 이혼/별거
2. 기혼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월 49만원 이하 2. 월 50~99만원
3. 월 100~149만원 4. 월 150~199만원
5. 월 200~249만원 6. 월 250~299만원
7. 월 300~349만원 8. 월 350~399만원
9. 월 400~499만원 10. 월 500~599만원
11. 월 600~6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의 상 2. 상의 하
- 3. 중의 상 4. 중의 하
-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
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
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1. 서울 2. 부산
- 3. 대구 4. 인천
- 5. 광주 6. 대전
- 7. 울산 8. 경기도
- 9. 강원도 10. 충청 북도
- 11. 충청 남도 12. 전라 북도
- 13. 전라 남도 14. 경상 북도
- 15. 경상 남도 16. 제주도
- 17. 북한 18. 외국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 지역번호 국 번호					2. 휴대폰 □□□□-□□□□-□□□□ 지역번호 국 번호				
조 사 일 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____분간) (반드시 적어주세요)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 역		조사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